

## 定本 退溪全書

## 定本 退溪全書 16

印 刷: 2025年 4月 20日

發 行: 2025年 4月 25日

編 輯 人: 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팀  
(研究責任者: 李光虎)

發 行 人: 朴炳元

發 行 處: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出版登錄: 1989年 12月 15日 第1-987號

住 所: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빌딩 4층  
Tel (02)765-2181~3 Fax (02)741-3478  
URL <http://www.toegye.org>  
E-mail [toegye@hanmail.net](mailto:toegye@hanmail.net)

製 作 處: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151번길 24  
Tel (02)333-7533 Fax (02)6280-2353

ISBN 978-89-85009-92-8 94150

ISBN 978-89-85009-65-2 (세트)

비매품

# 定本 退溪全書

16

三經四書釋義

啓蒙傳疑

退溪學研究院 院長：宋載邵

行政 支援：李重煥，金銀永

研究責任者：李光虎

共同研究員：金彥鍾，文錫胤，李倬珪，李相夏

研究專擔人力：姜志喜，金太年，柳浩珍，尹璿香，尹相洙

研究補助員：朴秀英

三經四書釋義 校勘 및 標點：柳浩珍

校閱：金彥鍾

啓蒙傳疑 校勘 및 標點：尹璿香

校閱：文錫胤

\*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 AKS-2018-CDM-1230002).

# 발간사

『정본 퇴계전서(定本 退溪全書)』 문집류(文集類) 15책이 지난 2022년 6월 발간된 데 이어 전저류(專著類) 13책이 이번에 발간됩니다. 이로써 국가의 예산지원과 퇴계학연구원의 자부담으로 2002년 시작한 퇴계전서 정본 발간 사업이 23년만에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시작된 『퇴계학역주총서(退溪學譯注叢書)』(29책) 편찬사업이 2000년 완료된 후 2001년 퇴계 선생 탄신 500주년을 맞아 퇴계서 정본사업(定本事業)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사업에 착수, 그동안 산삭과 증보를 거듭한 결과 지난번 문집류에 이어 이번에 전저류까지 완성본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에 이어 퇴계학연구원은 한글세대로의 세대 교체, AI, 챗GPT 등 디지털세대로의 전환에 부응하여 이미 2021년부터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5개년 계획으로 국역 『역주 퇴계전서(譯註 退溪全書)』, 2023년부터 『퇴계학사전(退溪學事典)』 편찬 및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 대중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퇴계 선생의 일대기(一代記)를 정리한 『퇴계선생연표월일조록(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 DB 구축, 퇴계선생의 저술을 요약한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 등의 편찬·국역·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계학 3대 인프라 구축사업(정본사업, 국역사업, 사전편찬사업)이 완성되고 후속사업도 원활히 진행되면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은 물론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을 위한 접근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전국 고교생 퇴계학 토론대회’ 등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 책 발간에 연구책임을 맡아주신 이광호 교수님과 공동연구원 김언종, 문석윤, 이봉규, 이상하 교수님 등 연구진 여러분과 퇴계학연구원 송재소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국비를 지원해준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4.10.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박병원

## 『정본 퇴계전서』 간행의 의의

여러 연구자들의 오랜 작업 끝에 『정본 퇴계전서(定本 退溪全書)』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이 사업은 2002년에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2008년에 정부 지원금의 중단과 함께 중단되었다가 2015년에 다시 시작하여 문집류(文集類) 15책이 지난 2022년 발간된 데 이어 전저류(專著類) 13책이 이번에 발간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퇴계집』은 크게 3차례 중간되었다. 즉 1600년에 최초의 판각본(板刻本)인 이른바 경자본(庚子本)이 나온 이래로 1746년과 1869년에 중간되었다. 이렇게 중간되면서 기존 문집의 일부 내용이 산삭(刪削)되기도 하고 기존 문집에서 누락된 것이 증보되기도 했다. 산삭과 증보에는 해당 문집 편찬 책임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퇴계집』의 내용이 충실해지고 개선되어 왔다.

이번에 상재(上梓)하는 『정본 퇴계전서』는 크게 보면 4번째의 중간본인 셈으로, 아마 후대에 이를 계묘본(癸卯本) 또는 퇴계학연구원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본 퇴계전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중간본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첫째, 기존의 중간본들이 당시 학계의 분위기, 정치적 상황, 인맥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산삭되거나 증보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번에는 퇴계가 남긴 글을 가능한 한 모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둘째, 『정본 퇴계전서』가 교감 표점본(校勘標點本)이라는 점이다. 즉 기

존의 목판본, 필사본, 초본(草本)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대조함으로써 서로 차이나는 것을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한문 원전의 해독을 어려워하는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띄어쓰기를 하고 14개의 부호를 사용하여 독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문체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작품의 편집사(編輯史)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했고, 서간문의 경우 수신자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세심한 장치를 더하여 연구자들이 『퇴계집』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전의 정본(定本) 또는 정본(正本) 사업은 서양 학계에서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아서 영국의 경우 일부 대학에서는 고전 작품의 정본 작업을 학술 업적으로 인정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한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도 중요한 고전인 『퇴계집』에 대하여 근대적 체제의 정본을 완성함으로써 학계에 공헌하게 된 것을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광호 교수와 문석윤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이 거대한 사업의 실무를 총지휘하며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문석윤 교수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원장 송 재 소

# 三經四書釋義



# 解題

《三經四書釋義》는 退溪가 생전에 四書와 三經 가운데 난해한 구절을 뽑아 언해하고 필요에 따라 한문으로 논증한 책이다. 經書別로 先賢들의 주석을 모았고 아울러 제자들과 연구하고 강론한 내용도 기록하였다. 흔히 통용되는 해석상의 잘못을 바로잡은 부분이 많이 보이며, 퇴계의 經學的立場 및 16세기 조선의 經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퇴계의 편지에 의하면, 이 책은 여러 해 동안 수정 보완되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적어도 1557년경에는 초고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책 끝에 붙어 있는 門人 琴應璫(1540~1616)의 발문에 의하면, 퇴계가 손수 淨書한 手本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亡失되었고, 1608년 겨울, 慶尙道觀察使로 부임한 崔瓘(1563~?)이 陶山書院을 방문하여 祠宇를 展謁하고 이 책의 출간을 제안하면서 경비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에 1609년 봄, 士友間의 傳寫本을 수소문하여 찾고 교정하여 3개월 정도의 작업 기간을 거쳐 출간하였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책들을 살펴보면 《四書釋義》와 《三經釋義》로 분책되어 전하기도 하고 이 두 책을 합하여 《三經四書釋義》로 전하기도 한다. 이 책들은 서울대 규장각, 고려대, 성균관대, 영남대 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들은 상당수가 전하지만 1609년 간행된 초간본의 후쇄본들로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있을 뿐이다. 초간본이 실전된 채로 같은 목판본을 계속 보각하여 간행해나갔던 것이다. 다만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는 《三經釋義》는 현재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三經四書釋義》(《退溪學文獻全集》제16책)와 판본은 같지만 내용상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다시 말해 통행본 《三經四書釋義》에서는 규장각본의 두 항목을 통합하거나 항목의 순서를 바꾸거나 글자에 첨삭을 가한 것들이 눈에 띈다. 따라서 규장각본 《三經釋

定本 退溪全書 ㉔

義》는 초간본에 더 가까운 형태를 지닌 판본으로 볼 수 있고, 통행본 《三經四書釋義》는 규장각본 《三經釋義》을 뒤에 교정하여 간행한 補刻本이라 할 수 있다.

## 凡例

### 1. 基準本과 對校本

#### 1) 자료 상황

《三經四書釋義》는 1609년 목판본으로 간행된 이후, 이 판본의 후쇄본들이 현재 전하고 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三經釋義》는 서울대, 고려대 등에 8책이 전하고 《四書釋義》는 국립도서관, 영남대 등에 9책이 전하며, 《三經四書釋義》는 서울대 규장각에 전한다. 합본된 책의 분량을 헤아려보면 詩釋義 25장, 書釋義 23장, 周易釋義上 9장, 周易釋義下 12장, 論語釋義 14장, 孟子釋義 9장, 中庸釋義 6장, 大學釋義 5장으로 총 103장임을 알 수 있다. 후쇄본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일부 내용의 삭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편차가 없다. 이 판본들 가운데 내용 차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판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木版本>

- ▶《三經釋義》, 4권 1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목판본.
  - 周易釋義上, 周易釋義下, 書釋義, 詩釋義의 순서로 묶여 있음.
  - 원래의 字體와 다른 字體가 보이기도 하고 첨가된 글자들이 있음. 초간본은 아님.
- ▶《三經四書釋義》, 8권 1책, 《退溪學文獻全集》 16 영인본. 규장각 소장.
  - 《三經釋義》부분: 周易釋義上, 周易釋義下, 詩釋義, 書釋義의 순서로

묶여 있음.

- 규장각본 《三經釋義》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순서를 바꾸고 글자를 첨삭하였기에 규장각본보다 뒤에 나온 보각본임.
- 현재 남아있는 《三經釋義》나 《四書釋義》 판본들은 이 판본과 거의 동일함.

## 2) 편집순서

《三經釋義》와 《四書釋義》가 분리되어 각기 한 책으로 전하는 책이 많고, 각 권이 독립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기에 전체를 아우르는 卷次 표시가 없다. 《三經四書釋義》로 합본된 경우에도 卷次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三經釋義》와 《四書釋義》은 經書의 편차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定本 《三經四書釋義》는 통행본의 순서를 따르되 《三經釋義》를 《四書釋義》의 앞에 배치하여 편집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四書釋義》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大學釋義 뒤에 鄭應堦의 발문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 3) 기준본과 대교본의 선정

《退溪學文獻全集》 16책에 실린 《三經四書釋義》를 기준본으로 삼는다. 이는 현재 유통되는 거의 모든 책들이 이 판본과 같은 것인데 이 책이 善本이기 때문이다. 또 이 판본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인출된 규장각본 《三經釋義》를 대교본으로 삼는다. 이 판본은 기준본과 같은 판본이긴 하지만 다른 판본들과는 달리 내용상 서로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2. 定本の 構成

## 凡例

### 1) 머리말: 板次 표시

(1) 머리말에 각 經傳 篇章의 위치 곧 板次를 표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2) 板次 표시는 基準本 內 篇章의 板次를 표시한 것이다. 《三經四書釋義》 내의 각 經典은 篇名·卦名 등으로 하나의 단락 곧 篇章을 구성하고 있는데, 定本을 구성할 때 각 편장마다 기준본의 해당 편장의 판차를 표시한다.

• 예시 : 周易釋義上-1a

이 板次는 周易釋義上 乾卦 위에 표시된 것인데, 乾卦가 기준본 ‘周易釋義上’에서는 1장 첫 면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 2) 제목: 篇章 표시

基準本の 篇章 체제에 따라 篇章의 명칭을 제시한다. 편장의 명칭은 경전에서 온 것이므로 원래의 명칭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혹 차이가 있는 경우 校勘記를 달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校勘記에서는 基準本の 제목을 다시 표기하지 않는다.

### 3) 本文

(1) 표제어와 주석 전체를 수록한다.

(2) 基準本の 표제어를 기록하되 오타이나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본과 다른 후쇄본을 참고하여 복원한다. 표제어에 대한 각 주석들은 ‘○’

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3) 표제어를 ‘( )’ 안에 표시하고 이어 해당 주석을 수록하며, 〈표제어〉를 기준으로 행을 구분한다. 편장이 바뀌면 페이지를 달리한다. 아울러 각주의 번호도 새로 시작한다.

(4) 본문 문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자 처리 관련 범례를 따른다.

(5) 基準本과 異本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글자, 단어, 문장의 끝에 註 번호를 달고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한 校勘記를 작성하여 脚注의 형태로 배치한다. 校勘記 작성범례는 아래를 참고.

(6) 본문 주석 안의 한문 문장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위의 표점 범례를 참고.

(7) 基準本 위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추정한 글자

#### 4) 校勘記

基準本과 對校本 사이의 異同 사항을 표시한다. 異本 자료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업자 자신의 校正 및 校勘 의견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凡例

- (1) 校勘記에 인용되는 版本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 (2) 校勘記의 校勘 臺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略號를 사용한다.

奎章閣本《三經四書釋義》→ 奎章閣本

- (3) 校勘記는 먼저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 단어, 구절을 쓰고 ‘ : ’을 찍은 후 異本의 내용을 기록한다.
- (4) 基準本과 對校本의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略號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 글자를 인용(‘ ’) 표시를 해서 밝힌다. 또한 출입이 있는 경우, 글자가 없으면 ‘없다.’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1) 曲解也 : 奎章閣本에는 뒤에 ‘此不釋攸字, 未盡.’이 있다.

예2) 草蟲……非 : 奎章閣本에는 없다.

- (5) 對校本의 글자가 誤字, 變形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校勘記를 달지 않는다. 다만 교감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경우라도 校勘記를 달 수 있으며, 對校本이 手稿本 및 그에 준한 원고인 경우에는, 異體字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차이를 반영하여 校勘記를 달도록 한다.
- (6) 對校本의 글자가 通用字인 경우는 校勘記를 단다.
- (7) 한글 고어의 교감 내용이 있을 경우, 어구를 띄어쓰기하여 반영한다.
- (8) 구결토 및 한글고어의 경우, 동일한 음과 뜻이면 형태가 다르더라도 별도로 교감주를 달지 않는다.

예) 基準本 : 周禮之文邦ㄹ 朋ㅅㅎ / 奎章閣本 : 周禮之文邦애 朋ㅎ며

(9)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10)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

## 凡例

를 만들어 제시한다.

### 4. 標點

-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 ]), 밑줄(\_),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한다.
-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凡例

( ‘ ’ ) 안에 넣는다.

### (6) 작은따옴표( ‘ ’ )

- 큰 따옴표( “ ”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 ’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 ’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 ’ )를 사용한다.

###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제목 옆의 주석은 ‘【 】’로 표시한다. 퇴계의 안설 표시, 역시 ‘【 】’를 사용한다. 예컨대 ‘【按】’, ‘【今按】’, ‘【再按】’ 등이다. 표제어 속의 주석이나 본문의 주석은 ‘< >’로 표시한다.

(9) 밑줄( )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 目錄

## 目錄

|                              |     |
|------------------------------|-----|
| 발간사 / 박병원 .....              | i   |
| 『정본 퇴계전서』 간행의 의의 / 송재소 ..... | iii |
| 解題 .....                     | vii |
| 凡例 .....                     | ix  |

### 周易釋義上

|                   |    |
|-------------------|----|
| 周易釋義上-1a 乾 .....  | 1  |
| 周易釋義上-2a 坤 .....  | 5  |
| 周易釋義上-2b 屯 .....  | 7  |
| 周易釋義上-2b 蒙 .....  | 8  |
| 周易釋義上-3a 需 .....  | 9  |
| 周易釋義上-3a 訟 .....  | 10 |
| 周易釋義上-3b 師 .....  | 11 |
| 周易釋義上-3b 比 .....  | 12 |
| 周易釋義上-4a 小畜 ..... | 13 |
| 周易釋義上-4b 履 .....  | 15 |
| 周易釋義上-4b 泰 .....  | 16 |
| 周易釋義上-5a 否 .....  | 17 |
| 周易釋義上-5a 同人 ..... | 18 |
| 周易釋義上-5a 大有 ..... | 19 |
| 周易釋義上-5b 謙 .....  | 20 |
| 周易釋義上-6a 豫 .....  | 22 |

|                   |    |
|-------------------|----|
| 周易釋義上-6a 隨 .....  | 23 |
| 周易釋義上-6b 蠱 .....  | 24 |
| 周易釋義上-6b 臨 .....  | 25 |
| 周易釋義上-6b 觀 .....  | 26 |
| 周易釋義上-7a 噬嗑 ..... | 27 |
| 周易釋義上-7a 賁 .....  | 28 |
| 周易釋義上-7b 剝 .....  | 30 |
| 周易釋義上-8a 復 .....  | 31 |
| 周易釋義上-8a 无妄 ..... | 32 |
| 周易釋義上-8b 大畜 ..... | 34 |
| 周易釋義上-9a 頤 .....  | 35 |
| 周易釋義上-9a 大過 ..... | 36 |
| 周易釋義上-9a 習坎 ..... | 37 |
| 周易釋義上-9b 離 .....  | 38 |

## 周易釋義下

|                    |    |
|--------------------|----|
| 周易釋義下-10a 咸 .....  | 39 |
| 周易釋義下-10a 恒 .....  | 40 |
| 周易釋義下-10b 遯 .....  | 41 |
| 周易釋義下-10b 大壯 ..... | 43 |
| 周易釋義下-11a 晉 .....  | 44 |
| 周易釋義下-11a 明夷 ..... | 46 |
| 周易釋義下-11b 家人 ..... | 47 |
| 周易釋義下-12a 睽 .....  | 48 |
| 周易釋義下-12a 蹇 .....  | 50 |
| 周易釋義下-12b 解 .....  | 51 |
| 周易釋義下-12b 損 .....  | 52 |
| 周易釋義下-13a 益 .....  | 53 |

## 目錄

|                  |    |
|------------------|----|
| 周易釋義下-13ba 夬     | 55 |
| 周易釋義下-13b 姤      | 56 |
| 周易釋義下-14a 萃      | 57 |
| 周易釋義下-14b 升      | 58 |
| 周易釋義下-14b 困      | 59 |
| 周易釋義下-14b 井      | 60 |
| 周易釋義下-15a 革      | 62 |
| 周易釋義下-15b 鼎      | 64 |
| 周易釋義下-15b 震      | 66 |
| 周易釋義下-16a 艮      | 67 |
| 周易釋義下-16b 漸      | 69 |
| 周易釋義下-16b 歸妹     | 70 |
| 周易釋義下-17a 豐      | 71 |
| 周易釋義下-17a 旅      | 72 |
| 周易釋義下-17b 巽      | 73 |
| 周易釋義下-17b 兌      | 74 |
| 周易釋義下-18a 渙      | 76 |
| 周易釋義下-18a 節      | 77 |
| 周易釋義下-18b 中孚     | 78 |
| 周易釋義下-18b 小過     | 79 |
| 周易釋義下-19a 既濟     | 80 |
| 周易釋義下-19a 未濟     | 81 |
| 周易釋義下-19a 繫辭釋義上傳 | 82 |
| 周易釋義下-20a 繫辭釋義下傳 | 85 |

## 詩釋義

|                                                                       |    |
|-----------------------------------------------------------------------|----|
| 詩釋義-1a 周南【本乎一人，而成乎國俗，謂之風，發於正理，而形於天下，謂之雅，稱美盛德，告其成功，謂之頌。○乘居，四居。匹處，獨處也。】 | 89 |
|-----------------------------------------------------------------------|----|

|                             |     |
|-----------------------------|-----|
| 詩釋義-1b 召南【采邑，采官也。因官食地，故曰采。】 | 91  |
| 詩釋義-2a 邶風                   | 93  |
| 詩釋義-3a 鄘風                   | 98  |
| 詩釋義-4a 衛風                   | 100 |
| 詩釋義-4b 王風                   | 102 |
| 詩釋義-5a 鄭風                   | 104 |
| 詩釋義-6a 齊風                   | 107 |
| 詩釋義-6a 魏風                   | 109 |
| 詩釋義-6b 唐風                   | 110 |
| 詩釋義-7a 秦風                   | 113 |
| 詩釋義-8a 陳風                   | 116 |
| 詩釋義-8a 檜風                   | 117 |
| 詩釋義-8b 曹風                   | 118 |
| 詩釋義-8b 豳風                   | 119 |
| 詩釋義-9a 鹿鳴                   | 121 |
| 詩釋義-10a 白華                  | 125 |
| 詩釋義-10b 彤弓                  | 126 |
| 詩釋義-11b 祈父                  | 130 |
| 詩釋義-13a 小旻                  | 136 |
| 詩釋義-15a 北山                  | 141 |
| 詩釋義-15b 桑扈                  | 144 |
| 詩釋義-16b 都人士                 | 147 |
| 詩釋義-17a 文王                  | 149 |
| 詩釋義-18b 生民                  | 154 |
| 詩釋義-20a 蕩                   | 159 |
| 詩釋義-22b 周頌 清廟               | 169 |
| 詩釋義-23a 臣工                  | 171 |
| 詩釋義-23b 閔予小子                | 173 |
| 詩釋義-24b 魯頌                  | 176 |

## 目錄

|                    |     |
|--------------------|-----|
| 詩釋義-25a 商頌 .....   | 178 |
| 書釋義                |     |
| 書釋義-1a 堯典 .....    | 181 |
| 書釋義-1a 舜典 .....    | 182 |
| 書釋義-1b 大禹謨 .....   | 185 |
| 書釋義-2a 皋陶謨 .....   | 187 |
| 書釋義-3a 益稷 .....    | 190 |
| 書釋義-3b 禹貢 .....    | 192 |
| 書釋義-4a 甘誓 .....    | 195 |
| 書釋義-4b 五子之歌 .....  | 196 |
| 書釋義-4b 胤征 .....    | 198 |
| 書釋義-5a 湯誓 .....    | 199 |
| 書釋義-5a 仲虺之誥 .....  | 200 |
| 書釋義-5b 湯誥 .....    | 201 |
| 書釋義-6a 伊訓 .....    | 203 |
| 書釋義-6a 太甲上 .....   | 204 |
| 書釋義-6b 太甲中 .....   | 206 |
| 書釋義-7a 太甲下 .....   | 207 |
| 書釋義-7a 咸有一德 .....  | 208 |
| 書釋義-7b 盤庚上 .....   | 210 |
| 書釋義-8a 盤庚中 .....   | 212 |
| 書釋義-8b 盤庚下 .....   | 214 |
| 書釋義-9a 說命 .....    | 216 |
| 書釋義-9b 高宗彤日 .....  | 219 |
| 書釋義-10a 西伯戡黎 ..... | 220 |
| 書釋義-10a 微子 .....   | 221 |
| 書釋義-10b 泰誓上 .....  | 222 |

|                    |     |
|--------------------|-----|
| 書釋義-10b 泰誓中 .....  | 223 |
| 書釋義-10b 泰誓下 .....  | 224 |
| 書釋義-11a 牧誓 .....   | 225 |
| 書釋義-11a 武成 .....   | 226 |
| 書釋義-11b 洪範 .....   | 227 |
| 書釋義-12a 旅獒 .....   | 230 |
| 書釋義-12b 金縢 .....   | 231 |
| 書釋義-12b 大誥 .....   | 232 |
| 書釋義-13a 微子之命 ..... | 234 |
| 書釋義-13a 康誥 .....   | 235 |
| 書釋義-14a 酒誥 .....   | 238 |
| 書釋義-14b 梓材 .....   | 240 |
| 書釋義-14b 召誥 .....   | 241 |
| 書釋義-15a 洛誥 .....   | 243 |
| 書釋義-15b 多士 .....   | 245 |
| 書釋義-16b 無逸 .....   | 247 |
| 書釋義-16b 君奭 .....   | 248 |
| 書釋義-17a 蔡仲之命 ..... | 251 |
| 書釋義-17b 多方 .....   | 252 |
| 書釋義-18b 立政 .....   | 255 |
| 書釋義-19a 周官 .....   | 257 |
| 書釋義-19b 君陳 .....   | 259 |
| 書釋義-19b 顧命 .....   | 260 |
| 書釋義-20a 康王之誥 ..... | 262 |
| 書釋義-20b 畢命 .....   | 263 |
| 書釋義-20b 君牙 .....   | 264 |
| 書釋義-21a 冏命 .....   | 265 |
| 書釋義-21a 呂刑 .....   | 266 |
| 書釋義-22b 文侯之命 ..... | 270 |

## 目錄

|                  |     |
|------------------|-----|
| 書釋義-22b 費誓 ..... | 271 |
| 書釋義-23a 秦誓 ..... | 272 |

### 論語釋義

|                    |     |
|--------------------|-----|
| 論語釋義-1a 學而 .....   | 275 |
| 論語釋義-1b 爲政 .....   | 277 |
| 論語釋義-2b 八佾 .....   | 280 |
| 論語釋義-3b 里仁 .....   | 283 |
| 論語釋義-4b 公冶長 .....  | 286 |
| 論語釋義-5a 雍也 .....   | 289 |
| 論語釋義-6a 述而 .....   | 292 |
| 論語釋義-7a 泰伯 .....   | 295 |
| 論語釋義-7b 子罕 .....   | 297 |
| 論語釋義-8a 鄉黨 .....   | 299 |
| 論語釋義-8b 先進 .....   | 301 |
| 論語釋義-9a 顏淵 .....   | 303 |
| 論語釋義-9b 子路 .....   | 305 |
| 論語釋義-10a 憲問 .....  | 307 |
| 論語釋義-10b 衛靈公 ..... | 309 |
| 論語釋義-11b 季氏 .....  | 312 |
| 論語釋義-12a 陽貨 .....  | 314 |
| 論語釋義-13a 微子 .....  | 318 |
| 論語釋義-13b 子張 .....  | 322 |
| 論語釋義-14a 堯曰 .....  | 323 |

### 孟子釋義

|                    |     |
|--------------------|-----|
| 孟子釋義-1a 梁惠王上 ..... | 325 |
|--------------------|-----|

|                    |     |
|--------------------|-----|
| 孟子釋義-1b 梁惠王下 ..... | 327 |
| 孟子釋義-2a 公孫丑上 ..... | 329 |
| 孟子釋義-3b 公孫丑下 ..... | 334 |
| 孟子釋義-4a 滕文公上 ..... | 336 |
| 孟子釋義-4b 滕文公下 ..... | 338 |
| 孟子釋義-5a 離婁上 .....  | 340 |
| 孟子釋義-5b 離婁下 .....  | 342 |
| 孟子釋義-6b 萬章上 .....  | 345 |
| 孟子釋義-6b 萬章下 .....  | 347 |
| 孟子釋義-7a 告子上 .....  | 349 |
| 孟子釋義-8a 告子下 .....  | 352 |
| 孟子釋義-8a 盡心上 .....  | 353 |
| 孟子釋義-8b 盡心下 .....  | 355 |

## 中庸釋義

|                      |     |
|----------------------|-----|
| 中庸釋義-1a 1-10章 .....  | 357 |
| 中庸釋義-1b 11-20章 ..... | 360 |
| 中庸釋義-3b 21-33章 ..... | 369 |

## 大學釋義

|                      |     |
|----------------------|-----|
| 大學釋義-1a 經一章 .....    | 379 |
| 大學釋義-1a 傳1-5章 .....  | 381 |
| 大學釋義-2a 傳6-10章 ..... | 384 |

## 周易釋義上

周易釋義上-1a

### 乾

《潛龍》 潛<sub>ㅎ</sub> 龍이니.

《勿用》 쓰디 마를디니라. ○쓰이디 마를디니라  
非.

《見龍》 見<sub>ㅎ</sub> 龍이 田에 이시니.

《利見大人》 利<sub>ㅣ</sub>. ○利<sub>ㄴ</sub> 大人을 見<sub>ㅎ</sub>식니라. ○  
見<sub>ㅎ</sub>미니라. 【今按】聖人無利之之心，故如此釋. 然  
太拘不可從. 當順其文勢，云 人을 보미 利<sub>ㅎ</sub>니라.  
○九五同.

《或躍》 或躍거나 淵에 在<sub>ㅎ</sub>면. 或躍거나 鴻을 淵  
에 이서 <sub>ㅎ</sub>면.<sup>1)</sup>

《見群龍》 龍을 見<sub>ㅎ</sub>되 首<sub>ㅣ</sub> 도의디 말면. ○업스  
면. ○上說二，下說一.

《統天》 天을 統<sub>ㅎ</sub>얏도다.

---

1) 《或躍》……<sub>ㅎ</sub>면 : 奎章閣本 ‘《或躍》 或躍거나. ○거나 鴻을. 《淵》에. 《在》  
<sub>ㅎ</sub>면. ○이서 <sub>ㅎ</sub>면.’

〔雲行〕 雲이 行하며 雨ㅣ 施하야.

〔品物〕 物이 形을 流動하느니라. ○形에 流注하느니라. 流注之說, 恐非.<sup>2)</sup>

〔乃利貞〕 利하고 貞하니라. ○貞호미니라. ○利하야 貞하니라. ○貞호미 利하니라 非.

〔首出〕 庶物에 首出하야.

〔陽在下〕 陽이 下에 이실시오. ○이쇼미오.

〔反復道〕 復하요물 道로 흘시오. ○復이 道ㅣ오.

《本<sup>3)</sup>》 道를 復호미오. ○道에.

〔大人造〕 大人의 造ㅣ오. ○造흘시오. 《本》 人이 作호미오.

〔盈不可久〕 盈하느니라 久호미 可티 아니호미오. ○아니하고. ○可字後釋, 非. 當云 可히 久티 못호미오.

〔不可爲首〕 首되요미 可티 아니호미라.

〔善之長〕 善의. ○善에 長이오 嘉의 會오. 下同. 幹이니.

〔體仁〕 仁을 體호미 人에 長이며.

2) 物이……恐非：奎章閣本 ‘物이 形을. ○形에 流動하느니라. ○ 流注하느니라.’

3) 本：朱熹의 周易 주석인 《本義》를 말한다.

- 〔嘉會〕 以下同上釋.
- 〔貞固〕 貞하야 固하요미 事의 幹이니.
- 〔行此四德〕 德을 行할식.
- 〔龍德而隱〕 龍德으로 隱하 者ㅣ니.
- 〔不易〕 世로 易디 아니하며.
- 〔不成〕 名을 成디 아니며.
- 〔遯世〕 世에 遯호디.
- 〔悶〕 호미 업스며. ○티 아니하며. 下同.
- 〔庸言〕 言을 信하며. 下同. 謹하야.
- 〔進德〕 德, 三《釋》皆云 德에 進하며 業을 修하느니. 【按】 德에 非也. 當云 德을.
- 〔修辭〕 辭를 修하야.
- 〔居業〕 業에 居하논 배라.
- 〔知至〕 至를 아라 至하논디라.
- 〔可與幾〕 可히 더브러 幾할 거시며. ○하리며.
- 〔知終〕 同上.
- 〔聖人作〕 人이 作하얏거든. ○하야든 恐非也. 當云 人이 作하요매.
- 〔動而有悔〕 動하면 悔ㅣ 인느니라. 三《釋》同, 然非也. 當云 動하요매.

〔時舍〕 時로 舍홀시오. ○時예 舍홀시오.<sup>4)</sup> ○時  
하야. 【按】 로并하야 《傳<sup>5)</sup>》釋, 애 《義<sup>6)</sup>》釋.

〔上治〕 上의 治오. ○治호미오. ○上에서. ○上하  
야.

〔窮之災〕 窮하야.

〔天下治〕 下ㅣ 다스로미라. ○治홀시라. 此, 非.

〔乃見天則〕 天則을 보미라. ○見홀시라.

〔精〕 홀시오.

〔旁通情〕 情을 旁通호미오.

〔隱而未見〕 隱하야 見티 아니하미.

〔行而未成〕 行이 成티 못홀식.

〔學以聚之〕 學하야. 下同.

〔寬以居之〕 寬으로. ○하야.

〔重剛〕 剛이 重하고.

〔合其德〕 德이 합하며. 下同.

〔先天而天〕 天으로 先호되 當云 하야도 天이 違  
티 아니하며. ○못하며.

〔後天〕 天으로 後하야.

4) 時로……舍홀시오 : 奎章閣本 ‘時로. ○時예 舍홀시오. ○홀시오.’

5) 傳 : 程頤의 周易 주석인 程傳을 말한다.

6) 義 : 朱熹의 周易 주석인 本義를 말한다.

坤

《君子有攸往》 君子의 往을 바를 두미니라.

《主利》 利를. ○예.

《坤》 의.

《厚》 로.

《應地无疆》 地의 无疆에 應하니라. ○을 應호미  
니라.

《直以方》 直하고 써 方하니.

《无成有終》 成호미 업고 終을 둘디니라.

《可貞》 可히 貞을 거시나.<sup>7)</sup>

《知光大》 知ㅣ 大할시라.

《括囊》 囊을 括툃으면. ○括하면.

《咎》 도.

《譽》 도.

《不害》 害티 아니 할시라.

《黃裳》 黃으로. ○하고 裳하면.

---

7) 《可貞》……거시나 : 奎章閣本에는 《无成有終》의 앞에 있다.

- 《以大終》 卬 終애 大홀시라.
- 《來者漸》 來흔 배 漸홀식니. ○호미니.
- 《由辨》 辨호믈 일 辨티云云.
- 《蓋言順》 蓋<sup>8)</sup> 다뭇 順호믈 니르니라.
- 《敬以直內》 敬으로써 內를 直하고 義로써 外를  
方하야 敬義 立하야 德이 孤티 아니하느니.
- 《弗敢成》 敢히 成티 마를디니.
- 《黃中通理》 黃이 中하야 理에<sup>9)</sup> 通하야.
- 《正位居體》 正位나 體예 居하면. ○正位예 居하  
야 體하면 從. 《傳》<sup>10)</sup>
- 《美之至也》 美ㅣ 至호미라. ○美예 至라.

---

8) 蓋：奎章閣本 뒤에 ‘如’가 있다.

9) 예：奎章閣本 ‘예’

10) 傳：程頤의 周易 주석인 程傳을 말한다.

屯

《利貞》 貞이 利호니.

《利建侯》 侯를 建호미 利호니라.

《始交難生》 비로소 交호야 難야<sup>11)</sup> 生호며. ○生이 難호며. 此說恐非.

《宜建侯而不寧》 侯를 建호고 寧티 아니호미 맞당호니라. ○맞당이 侯를 建호고 寧티 마를디니라.

《屯如遭如》 屯호며 遭호며 馬를 乘호얏다가 班호니.<sup>12)</sup>

《卽鹿》 鹿을 卽호디.

《小貞大貞》 小히 貞호면 大히 貞호면. ○小앤 ○저기. ○大앤. ○키.

《施未光》 施ㅣ 光티 몬홀시라.

《漣如》 漣히 호눗다.

---

11) 야 : 奎章閣本 ‘이’

12) 《屯如遭如》……班호니 : 奎章閣本에는 《宜建侯而不寧》 앞에 있다.

周易釋義上-2b

## 蒙

《匪我求童蒙》 내 蒙을 求ᄃᆞᆫ 주리 아니라 蒙이 나를 求ᄃᆞᆫ애<sup>13)</sup>니. 當云 蒙의게, 내게.

《利貞》 貞으로 호미. ○貞호미 利ᄃᆞᆫ니라.

《時中》 時ᄃᆞ야 中호미오. ○時中이오.

《瀆蒙》 蒙을 瀆ᄃᆞᆫ식니<sup>14)</sup>. ○瀆ᄃᆞᆫ 蒙일식니<sup>15)</sup> 非.

《蒙以養正》 蒙을. ○蒙에<sup>16)</sup> 正으로써 養호미 聖ᄃᆞᆫ 功이라. ○聖功이라. 他云 蒙으로써 正을 養호미.

《利用刑人》 써 人을 刑ᄃᆞ야 써 梏을 說호미 利ᄃᆞᆫ니.

《困蒙》 蒙애 困호미니.

《童蒙》 童ᄃᆞᆫ 蒙이니. ○童蒙이니.

《擊蒙》 蒙을 擊ᄃᆞᆫ디니.

《上下順》 上下 順호미라.

---

13) 애 : 奎章閣本 ‘애’

14) 니 : 奎章閣本 ‘라’

15) 니 : 奎章閣本 ‘라’

16) 예 : 奎章閣本 ‘예’

需

《有孚》 孚를 뉘. ○孚ㅣ 이셔.

《不困窮》 窮티 아니호미라. ○아니홀시라. 恐當云 아니헝리니라.

《以正中》 正中으로뵈오. ○뵈 正中호미오. 當云 正中호므로뵈오.

《往有功》 往헝면 功이 이쇼미라. ○이실시라. ○이시리라. 此說, 當.

《需于郊》 郊에서. ○애. 諸爻同.

《利用恒》 뵈 恒호미 利헝니. ○利는 恒用호미니 非.<sup>17)</sup>

《不犯難行》 難을 犯티 아니헝아<sup>18)</sup> 行호미오. ○難을 犯헝야 行티 아니홀시오 非.

《致寇至》 寇의 至호믈 致헝리라.

《出自穴》 穴로브터 出헝낫다. ○出호믈 穴로브터 헝낫다.

17) 《利用恒》……非：奎章閣本에는 《需于郊》 앞에 있다.

18) 아：奎章閣本 ‘야’

周易釋義上-3a

訟

《有孚》 孚를 두나.

《訟不可成》 訟은. ○을 成호미 可티 아니코.

《尚中正》 尙이 中正이오.

《謀始》 始에 謀호느니라.

《訟不可長》 不可成, 同.

《自下訟上》 下로브터 上을 訟호미. ○下 | 自호야 上과로 訟호미. ○下說無義, 恐有誤.

《无成》 成호미 업도다.

《不克訟》 訟을 克디 못홀디라. ○能히 訟티 못홀디라.

《不失》 失티 아니호미라. ○아니홀시라.

《元吉》 키 吉호미라.

《以中正》 正으로써 홀시라. ○호미라.

《終朝》 朝를. ○朝 | 只춤애.

《不足敬》 쏘 足히 敬티 아닐 거시라. ○敬호얌직디 아니호니라.

師

《剛中而應》 剛으로 中하얏거든 應하고. ○剛中으로 應하고. 恐當云 剛中이오 應하고.

《行險而順》 險에 行하야. 當云 險을.

《否臧》 아니면 臧홀디라도.

《三錫命》 세 번 命을 錫호미로다.

《懷萬邦》 懷호미라.

《輿尸》 모다 尸하면.

《師左次》 師를 左次하니.

《長子帥師》 長子ㅣ 師를 帥하니.

周易釋義上-3b

## 比

〔原筮〕 原하야 筮호되. 《本》 ㄴ외야 筮호되.

〔方來〕 보야호로 來하느니. 《本》 來하리니 後  
夫ㅣ면.

〔有孚盈缶〕 孚를 두미 缶에 盈. ○有흔 孚ㅣ. 此  
說, 非.

〔比之匪人〕 人이 아니니를 比호미라. ○匪人에.  
○比하거시 人이 아니라. 此說合 《本義》.

〔顯比〕 顯하 比니. ○比를 顯호미니.

〔王用三驅〕 王이 써 三驅호매. ○三驅를 쓰매.  
此, 非也.

〔邑人不誠〕 邑人을 誠티 아니호미니 是. 誠티 마  
를디니 非. 《本》 邑人也 誠티 아니하니.

〔上使中〕 上의 使ㅣ 中하리라.

〔比之无首〕 比호되. ○에<sup>19)</sup> 首ㅣ 업스니.

〔无所終〕 終하 배 업스니라.

---

19) 에 : 奎章閣本 ‘예’

## 小畜

〔密雲〕 密雲이 雨티 아니호믈. ○雲이 密호되.

〔柔得位〕 位를 得호고. ○호얏거든.

〔剛中而志行〕 剛으로 中호야 志ㅣ 行호야. 【今按】《聖<sup>20</sup>傳》志在於行，恐當云 行애 志호야 可也. 而他釋皆云 志ㅣ 行호야. 此與徐氏說合，而於《程傳》不合，更詳之.

〔尚往〕 尚호야 往호미오. ○거의 往호시오. 【今按】거의之說 甚非. 尚호야之說 亦恐非也. 《程傳》，“陽尚往而上”，此尚字，與《本義》猶上進之義同，當云 오히려.

〔施未行〕 施ㅣ 行티 못호시라. ○行티 아니미라 恐非也.

〔復自道〕 復이 道로브터 호거니 므슴 그 咎ㅣ리 오. ○엇디 그 咎ㅣ리오. ○自道，《傳》云：“乃其

---

20) 聖：奎章閣本 ‘程’ 今按： 여기에서는 ‘程傳’을 의미하므로 규장각본의 ‘程’으로 보는 것이 옳다.

道”，更詳之.

〔有孚血去惕出〕 孚를 두면 血이 去코 惕이 出하야. ○血에. 【按】 惕이 非. 當云 惕에.

〔上合志〕 上과 志ㅣ.

〔有孚攣如〕 孚를 뒤 ㅎ논디라 攣하야. ○孚ㅣ 有 혼디라.

〔富以其鄰〕 富ㅣ 그 鄰으로써 호미로다. ○富로.

《本》 富료<sup>21)</sup> 그 鄰을 以호미로다.

〔旣雨〕 이의 雨하야.

〔載〕 ㅎ요미니. ○홀식니.

---

21) 료 : 奎章閣本 ‘로’

履

《不咥人》 人을 咥티 아니홀디라. ○咥티 아니홀  
人이라. 此說, 非. 《本》不用履藉之義.

《中不自亂》 中이 스스로 亂티 아니호미라.

《夬履》 夬히 履호미니. ○夬흔.

《正當》 位ㅣ 正當홀식라. ○正히 當홀식라.

《大有慶》 키 慶이 이슬 거시니라. ○잇느니라.

周易釋義上-4b

泰

《用馮河》 馮河를 用하며.

《不遐遺》 遐를 遺티 말며. ○아니하며.

《无平不陂》 平이. ○平하고 陂티 아닛 아니하며  
往하고 復디 아닛 아니하느니.

《其孚》 그 孚홀디라.

《天地際》 天地ㅣ 際홀시라. ○호미라.

《翩翩不富以其鄰》 翩翩히 富티 아니하야도 그 鄰  
으로써 하야 戒티 아니하야도 써곰 孚하낏다.

《自邑告命》 邑으로브터 命을 告홀디니.

《其命亂也》 其命이 亂홀시라. ○호미라. 《本》  
亂홀시라.

否

《否之匪人》 否<sup>22)</sup> 人<sup>이</sup> 아니니.

《不利君子貞》 君子의 貞이 利<sup>티</sup> 아니<sup>ㅎ</sup>니.

《大往小來》 大<sup>는</sup> 往<sup>코</sup> 小<sup>는</sup> 來<sup>흘</sup>식니라.

《无邦》 邦이 업스<sup>미</sup>라.

《儉德辟難不可榮以祿》 德을 儉<sup>하</sup>야 難을 辟<sup>하</sup>야 榮<sup>호</sup>믈 祿으로써 호<sup>미</sup> 可<sup>티</sup> 아니<sup>ㅎ</sup>니라. 《本》 難을 辟<sup>하</sup>논디라 可<sup>히</sup> 祿으로써 榮<sup>티</sup> 못<sup>하</sup>느니라.

《包承》 包 | 承<sup>호</sup>미니.

《大人否亨》 人은 否<sup>하</sup>니 亨<sup>하</sup>니라.

《不亂群》 群<sup>여</sup><sup>23)</sup> 亂<sup>티</sup> 아니<sup>호</sup>미라.

《有命》 命을 두면.

《其亡》 그 亡<sup>하</sup>려다 그 亡<sup>하</sup>려다.

《傾否》 否를 傾<sup>호</sup>미니.

---

22) 是 : 奎章閣本 ‘은’

23) 여 : 奎章閣本 ‘에’

周易釋義上-5a

## 同人

《同人于野》 人을 同호되 野에 行면.

《利君子貞》 君子의 貞으로 호미 利호니라.

《文明以健》 文明호고 健호야.

《中正而應》 中正으로 應호미.

《類族》 《本義》 族을 類호며.

《不興》 興티 못호리로다.

《義弗克》 義에 克디 못호거시오.

《志未得》 志ㅣ 得디 못호미라.

## 大有

《大中》 키 中ᄃ얏거든. ○키 中ᄃ야.

《遏惡揚善》 惡을 遏ᄃ며 善을 揚ᄃ야. ○遏ᄃ고.

《無交害》 害에 交디 아니ᄃ니. ○交호미 업스니.

《公用亨于天子》 公이 𠵿 天子썻 亨호미니.

《匪其彭》 그 彭티 아니면. ○彭애.

《明辨晳》 明辨호미 晳ᄃ시라. ○明辨ᄃ 晳이라.

【按】上說近是，亦合《本義》.

《交如威如》 二如不釋.

《信以發志》 信으로ᄃ. ○信이 志를 發ᄃ시오.

《易而无備》 易ᄃ야 備ㅣ 无ᄃ 거실식라.

周易釋義上-5b

謙

《地道卑》 卑호야.

《虧盈益謙》 盈을虧호며 謙을 益호고. 下同.

《尊而光》 尊호고 光호며 卑호되 可히 踰티 몬호미니. 《本》 尊호니는 光호고 卑호니도 可히. ○卑호야도.

《益寡》 寡를. ○寡애 益호야.

《平施》 平히 施호느니라. ○施를 平히 호느니라.

《卑以》 卑로써.

《鳴謙》 謙을 鳴호미니. ○不釋, 只曰鳴謙이니. ○鳴호 謙이니. ○鳴호之說 非.

《勞謙》 勞호고 謙호미니.

《有終》 終을 두미니. ○둘디니.

《撝謙》 謙을 撝호미.

《不富》 同上.

《利用侵伐》 써 侵伐호미 利호니. ○利는 伐을 쓰미니. 此說, 非.

周易釋義上

《鳴謙》 鳴 亨. ○謙 을 鳴.

《利用》 兩說亦同上.

周易釋義上-6a

## 豫

〔剛應志行〕 剛이 應호고 志ㅣ 行호며 順으로써  
動호미. ○應호이고. ○應호야.

〔殷薦〕 殷히. ○殷이 上帝씨 薦호야.

〔鳴豫〕 豫를 鳴호미니. ○鳴호 豫니.

〔介于石〕 介ㅣ 石에 호논디라. ○石이 ㄹ튼디라.

〔不終日〕 日을 終티 아니호야 호니. ○아니호느  
니.

〔盱豫〕 盱호야 豫호느<sup>24)</sup>디라. 《本》吐 當云 悔  
ㅣ니 遲호면.

〔由豫〕 由호야.

〔冥豫〕 豫예 冥호미니.

---

24) 느 : 奎章閣本 ‘논’

隨

〔嚮晦〕 晦예. ○晦를 嚮하야. ○晦ㅣ 嚮커든.

〔官有渝〕 官이 渝호믈 두미니. ○官을 渝홀디니.  
二同. 【今按】 兩義三說, 皆非也. 當云 官이 渝호미  
이시니. 《程傳》 官하야 渝호미 이시니. 《本》 蓋  
《傳》 以爲既隨, 則前所主守有變易, 義以爲既隨, 則  
有所偏主而變其前. 看皆下既字, 則可知作已事說, 非  
戒人以當有變改之義.

〔有孚在道〕 孚를 두고 道에 잇고.

〔明功〕 明흔 功이라.

〔孚于嘉〕 嘉애 孚호미니. ○嘉를 孚하니者 非.

周易釋義上-6b

蠱

〔先甲三日後甲三日〕 甲으로 몬져 三日 亨며 甲으로 後入 三日을 홀디니라.

〔往有事〕 往亨야 事ㅣ 이쇼미오. ○事ㅣ 이실시오. 疑當云 往亨야 事를 둘시오. 言有所事. 不可云 事ㅣ 잇다也.

〔裕蠱〕 裕로 亨요미니.

〔用譽〕 譽 譽홀 거시니라. ○亨리니라. ○譽를 쓰미니라 非也.

〔承以德〕 承호디 德으로써 홀시라. 當云 德으로써 홀식라.

臨

〈咸臨〉 咸亨야 臨호미니.

〈未順命〉 命을 順호는 주리 아니라.

〈甘臨〉 甘으로 臨호미라.

〈至臨〉 至호 臨이니. ○臨호미 至極도소니. 【按】  
當云 至極호니.

〈知臨〉 知로 臨호미니.

〈大君〉 이<sup>25)</sup>.

〈宜〉 니.

〈敦臨〉 敦호 臨이니. ○臨에 敦호미니.

---

25) 이 : 奎章閣本 ‘의’

周易釋義上-6b

觀

《盥而不薦》 盥하고 薦티 아니흔 적ㄴ티 ㄱ면. ○  
薦티 아니ㄱ면.

《有孚顒若》 孚를 뒤 顒ㄱ리라.

《以觀天下》 ㄷ 天下에 觀ㄱ니.

《未失道》 道를 失티 아니미라.

《尙賓》 尙이 賓호미로다. ○賓을 尙ㄱ놋다.

噬嗑

《利用獄》 獄을 用호미 利호니라.

《動而明》 動호고 明호며.

《利用獄》 獄用호미 맞당호니라.【按】如此釋者二，依彖辭釋者二。《傳》雖有用獄之宜之文，恐不須別作宜說，更詳之。

《明罰》 罰을 明호며.

《滅趾》 趾를 滅홀디니. ○滅호미니.

《不行》 行티 못게 호미라. ○行티 아니호미라. 此說，誤也.

《滅鼻》 鼻를 滅호미니. ○鼻滅케 홀디니. 此說，未當.

《噬乾肺》 乾肺를 噬호며.

周易釋義上-7a

賁

〔文明以止〕 文明에 써곰 止호니.

〔觀乎天文〕 天文을 觀호야.

〔无敢折獄〕 獄을 折호매 敢히. ○敢티 아니호느니라. ○敢히 獄을 折티 아니호느니라. 此, 《本義》說.

〔賁其趾〕 그 趾를 賁호요미니. ○趾를 賁홀디니.

【按】上說據義之固然者, 是. 後說作戒, 非.

〔舍車而徒〕 徒호미로다.

〔義弗乘〕 乘티 몬홀시라. ○몬홀 거실식라.

〔賁其須〕 賁ㅣ 그 須ㅣ로다.

〔賁如濡如〕 賁ㅣ. ○賁호요미 濡호니.

〔白馬翰如〕 白馬 翰호미니. ○翰호미 마뜩니.

【按】如字, 他皆不釋, 此獨釋如字, 未當. 然《傳》文如飛之如, 雖未必是翰如之如, 其下一翰字, 自帶如字之意. 若改云 翰ㅌ 則釋之恐無妨.

〔當位疑〕 當位ㅣ 疑호시니. ○疑호미니.

周易釋義上

《 賁于丘園 》 丘園에 賁홀디니. ○ 亨요미니.

《 白賁 》 賁를 白게 亨면.

《 上得志 》 上에서 志를 得홀시라.

周易釋義上-7b

剝

《觀象》 象을 觀하미니.

《厚下》 下를 厚케 하야.

《剝牀以足》 牀을 剝호디 足으로써 하니. ○써 하  
요미니. 【按】此恐當云 足을 써 하니.

《以滅下》 써 下에서 滅호미라. ○下를 滅호믈빼  
라 非也.

《未有與》 與ㅣ 잇디 아니<sup>26)</sup>홀식라.

《剝之》 剝애.

《失上下》 上下과로 失홀식라.

《剝牀以膚》 同上釋. 【按】同上釋, 此處, 尤未穩.  
恐當云 牀을 剝하야 써 膚에 하니.

《貫魚以宮人寵》 魚를 貫하야 宮人의<sup>27)</sup> 寵으로써  
하면. ○宮人으로 寵을 써 하면.

《碩果不食》 碩果ㅣ 食디 아니하야 이쇼미니.

26) 아니 : 奎章閣本에는 뒤에 ‘호미라. ○아니’가 있다.

27) 宮人의 : 奎章閣本에는 뒤에 ‘○無此吐’가 있다.

復

《无祇悔》 悔에 祇티 아니니. ○祇호미 업스니.

《休復》 休흔 復이니. ○復에 休호미니.

《以下仁》 卩 仁에 下호미라. ○仁에 下호<sup>28)</sup>므로  
예라. 【按】 後說, 似當.

《頻復》 頻흔 復이니. ○復에 頻호미니.

《中行獨復》 中에 行호매 호올로 復호미라.

《以從道》 二《釋》, 與‘以下仁’同.

《敦復》 二《釋》 同上.

《迷復》 二《釋》 亦同上.

《以其國》 그 國에 卩 호면.

---

28) 호 : 奎章閣本 ‘호’

周易釋義上-8a

## 无妄

〔動而健〕 動호고.

〔剛中而應〕 剛中으로 應호야. ○剛으로 中호얏거든 應호야. 【按】 後說太拘.

〔何之〕 어디 가리오.

〔不耕穫〕 一 耕티 아니호야 穫호며. 二 耕호야 穫호려 호는 주리 아니며. 三 耕호야 穫호려티 아니며.

〔不菑畲〕 同上. 【今按】 讀此爻象，須先辨《程傳》初中末三處之異. 又須辨《本義》之旨，各有歸宿，然後隨文訓說，庶可分明. 今詳不耕호야穫호며之吐，是卽《程傳》不耕而穫之說，當從第一釋也. 若第二·第三兩釋，辭雖若異，意實同歸. 蓋《程傳》象解之意，以此移說，此句恐未當也. 從《本義》，則當云 耕호며 穫디 아니호며云云. ○不菑畲同.

〔未富〕 富호려 호미 아니라. ○호려 호는 주리 아니라.

〔无妄之災〕 无妄엿災니 或繫호牛를 人의 得이오 人의 災로다. ○人이 得호고 人이 災로다. ○某竊詳此爻吐辭，乃《本義》之意。《程傳》則不如是也。若從《程傳》，則當云 或繫之牛호나 行人之得이邑人之災로다. ○牛호니 得이나 蓋《傳》所謂繫得牛·繫得馬者，謂有放牛馬於此者，收繫而得之云耳。故繫字已帶得字意，非繫牛於此，而爲人得之，如《本義》之意也。臨川吳氏繫牛之說，非《程傳》意。惟得失之說，用《程傳》，故係之《傳》下。懸吐之人，謾認吳說純爲《傳》意，以爲吐辭，不知其與《程傳》有同異也。當改之。

〔勿藥〕 藥디 아니면.

〔不可試〕 試호미 可티 아니호니라.

〔窮之災〕 窮호야 災호미라. ○窮의 災라.

周易釋義上-8b

## 大畜

《剛上》 剛이 上호고.

《止健》 健을 止호미.

《應乎天》 天을 應호미라.

《中无尤》 中이라<sup>29)</sup> 尤ㅣ 업스미라. ○업스니라.

《良馬逐》 良馬ㅣ 逐호미니.

《童牛之牯》 童牛에 牯ㄴ티 홀디니. ○牛를 牯호미니.

《豮豕之牙》 豮호 豕의 牙ㅣ니. 【按】此說大誤. 如此則是意屬於止惡之民, 非聖人止惡之用也. 當云 豕의 牙를 豮호요미니. ○호야 호미니.

《天之衢》 天의 衢ㅣ니. 《本》 엇디 天의 衢오.

《何天之衢》 엇디 天의 衢ㅣ라 호뇨.<sup>30)</sup>

---

29) 中이라: 奎章閣本 ‘中이’

30) 호뇨: 奎章閣本 ‘호료’

頤

〈觀頤自求口實〉 頤<sup>31)</sup>하며 스스로 口實을 求호믈 觀  
홀디니라.

〈觀其所養〉 그<sup>31)</sup> 養호는 바를 보미오. ○養홀.  
此, 誤.<sup>32)</sup>

〈顛頤〉 顛호 頤라. ○頤에 顛혼디라.

〈拂頤〉 頤예 拂혼디니.

〈顛頤〉 顛호 頤나. ○頤예 顛호나.

〈虎視〉 虎의 視 〕 耽耽<sup>33)</sup>호며.

31) 그 : 奎章閣本에는 뒤에 ‘스스로’가 있다.

32) 養홀此誤 : 奎章閣本 ‘養홀 배 誤.’

周易釋義上-9a

## 大過

《藉用白茅》 藉호되 白茅로써 호미니.

《過以相與》 써곰 서르 與호미 過홀시라. ○過로써 서르 與호미라. 當云 過히.

《不可以有輔也》 可히 써 輔호믈 두디 못홀식라.

《不撓乎下也》 撓호야 下티 아닐식라.

《過涉滅頂》 過涉호야 頂이 滅호디라. ○頂을.

《咎》 咎홀 디 업스니라.

習坎

《有孚》 孚를 뒤. ○孚ㅣ 이셔.

《有尙》 尙이 이시리라.

《水流而不盈》 水ㅣ 流ㅎ야 盈티 아니ㅎ며.

《行險》 險에 行호되.

《樽酒》 樽옛 酒와.

《用缶》 缶로써 ㅎ고.

《坎不盈》 坎이 盈티 못ㅎ야시니. ○坎애 盈티 아  
니ㅎ니.

《係用徽纆》 係호되 徽纆으로써 ㅎ야.

《凶三歲》 凶이 三歲ㅣ리라.

周易釋義上-9b

離

《明兩作離》 明 둘히 離를 作호니.

《黃離》 黃애 離호니.

《日昃之離》 日이 昃호 離니. ○昃애.

《不鼓缶而歌》 缶를 鼓호야 歌티 아니면.

《大耋之嗟》 大耋을 嗟호논디라. ○홀디라.

《凶》 호리라.

《突如其來如》 突히 그 來호며 焚호며 死호며 棄호미니라. ○홀 거시니라.

《无所容》 업스니라.

《出涕沱》 涕를 出호믈 沱히 호며 戚嗟호면 吉호리라. ○涕沱를 出호며. 【按】沱者, 出涕之貌, 後說, 非.

《離王公》 離ㅣ 王公일식라. ○王公애 離홀식라. 下說, 優.

## 周易釋義下

周易釋義下-10a

咸

《咸其拇》 咸이. ○애 그拇ㅣ라.

《咸其腓》 咸이. ○애 그腓니.

《不害》 害티 아니호미라. ○아니홀시라.

《咸其股》 咸이. ○애 그股ㅣ라. 執이 그隨ㅣ니.  
○隨호미니.

《下也》 下홀시라.

《朋從爾思》 朋은 爾思를 從히리라. ○朋이.

《未感害》 感애 害티 아니호미오. ○아니홀시오.

《未光大》 光大티 未호미라. ○未홀시라.

《咸其脢》 咸이. ○애.

《志末》 志ㅣ 末홀시라. ○末홀시라 非也.

《咸其輔頰舌》 咸이. ○애 그輔ㅣ며 頰이며 舌이  
라.

《滕口說》 口說에 滕히미라. ○홀시라.

周易釋義下-10a

恒

《不已》 已티 아니헝니라. ○아니니라.

《終則有始》 始ㅣ 이슬식니라.

《浚恒》 恒애浚호미라. ○浚흔 恒이라.

《求深》 求ㅣ 深흘식라.

《或承之羞》 或 羞를 承헝리니.

《田无禽》 田호매 禽이 업슬시라. ○업스미라.

《恒其德》 그 德을 恒헝면. ○德이. 後說, 非.

《振恒》 振으로 恒.

遯

《小利貞》 저기 貞호미 利호니라.

《不惡而嚴》 惡으로 아니코 嚴히 호느니라. ○惡디 아니코.

《遯尾》 遯애 尾라.

《執之用黃牛之革》 執호디 黃牛의 革으로써 호논디라. ○執흠을 黃牛의 革으로써<sup>1)</sup> 혼디라.

《莫之勝說》 이기여 니르디 몬호미니라. ○몬호리라. 此, 非.

《固志》 志ㅣ 固홀시라.

《係遯》 遯애 係호미라. ○係호 遯이라.

《有疾憊》 疾이 이서 憊호고. ○호요미오.

《不可大事》 大事애 可티 아니호니라. ○可히 大事는 몬홀 거시니라.

《好遯》 好호나 遯호미니.

《嘉遯》 嘉호 遯이니. ○遯애 嘉호미니.

---

1) 執흠을……革으로써 : 奎章閣本 ‘호물云云’

〔以正志〕 써곰 志ㅣ 正호미라. ○正 흘시라.

〔肥遯〕 肥흔 遯이니. ○遯애 肥호미니.

## 大壯

《剛以動》 剛으로써 動ᄃᆡ.

《壯于趾》 趾에 壯호미니. ○趾ㅣ 壯ᄃᆡ니.

《有孚》 孚ㅣ 이시리라. ○有孚ᄃᆡ리라.

《其孚窮》 그 窮호미. ○窮ᄃᆡ 주리 孚ᄃᆡ리로다.

《以中》 中으로써라. ○써 中호미라 非也.

《用壯用罔》 壯을 罔고 罔을 罔미니.

《壯于大輿之輹》 大輿의 輹이 壯호미로다. ○ᄃᆡ도  
다.

《尚往》 오히려 往ᄃᆡ식라. ○往을 尚ᄃᆡ식라. 此說,  
非.

《喪羊于易》 羊을 易에. ○易로 喪ᄃᆡ면. ○羊을 喪  
호ᄃᆡ 易로 ᄃᆡ면.

周易釋義下-11a

晉

〔用錫馬蕃庶〕 𠵿 馬를 錫호미 蕃庶호고. ○馬의 蕃庶로 錫호고 非也.

〔接〕 호낏다. ○호미로다.

〔晉如摧如〕 晉호미 摧호미니. 【今按】此句吐誤, 故釋之, 亦未穩. 《傳》云: “遂其進, 不遂其進, 唯得正則吉.” 據此則當云 晉如摧如애<sup>2)</sup>, 而釋云 晉커나 摧커나 호매 可也. 若從《本義》, 則吐與釋, 皆當如上.

〔罔孚〕孚티 못호니. ○아니호리니.

〔未受命〕 命을 受티 아니호야실식라. ○못호야실식라.

〔衆允〕衆이 允호논디라.

〔衆允之志〕志는 上으로 行호미라.

〔晉如鼫鼠〕 晉이 鼫鼠ㅣ니.

〔无不利〕 利티 아니호미 업스리라.

---

2) 애: 奎章閣本 ‘에’

周易釋義下

《晉其角》 晉이. ○晉에 그 角이니.

《維用伐邑》 써 邑을 伐홀디니.

周易釋義下-11a

## 明夷

- 《利艱貞》 艱흔 저긔 貞호미 利흔니라.
- 《內難》 內하야. ○하며 難호디.
- 《用晦而明》 晦를 써. ○用호디. ○晦로써 明하느니라.
- 《明夷于飛》 明을 夷호미 飛에 그 翼을 垂하미니.
- 《義不食》 義에<sup>3)</sup> 食디 몬홀 거시니라.
- 《夷于左股》 明夷ㅣ 左股애. ○를 夷호미니.
- 《用拯馬》 써 拯호디 馬ㅣ 壯하면.
- 《順以則》 順하고. ○順하야.
- 《明夷于南狩》 明夷예. ○를 南으로 狩하야.
- 《不可疾貞》 疾貞호미 可티 아니흔니라.
- 《大得》 南狩하느 志를 키 得하리로다. ○하도다.
- 《入于左腹》 左로 腹애 入하야. 明夷心を 獲하야 門庭에 出하도다. ○左腹애 入하야 明을 夷하느 心を 獲하야 門庭에 나미로다.
- 《箕子之明夷》 箕子の 明을 夷호미니.

---

3) 예 : 奎章閣本 ‘예’

家人

〔有嚴君〕 嚴君이 이시니. ○인느니.

〔父父〕 父ㅣ 父며. ○父ㅣ 父다오며.

〔婦婦〕 婦ㅣ 婦ㅣ면. ○婦ㅣ 婦다와.

〔言有物而行有恒〕 言에 物을 두며 行에 恒을 두느니라.

〔閑有家〕 有家를 閑홀디니. ○閑호미니.

〔志未變〕 志ㅣ 變티 아니햏야실 제로다. ○아니호미로다. 此說未盡.

〔无攸遂〕 遂홀 배 업고 中에 이서 饋햏면.

〔順以巽〕 順햏고. ○햏야.

〔悔厲〕 厲를. ○에 悔햏니.

〔未失〕 失호미 아니오. ○失티 아니홀시오.

〔富家〕 富흔 家ㅣ니. ○富家ㅣ니.

〔順在位〕 順으로.

〔王假有家〕 王이 有家에 假호미니.

〔交相〕 서럭.

周易釋義下-12a

睽

《說而麗乎明》 說호고. ○說로 明에 麗호며.

《天地睽》 睽호되.

《同而異》 同호되 異호느니라.

《喪馬》 馬를 喪호고. ○馬이 喪호고. 下說, 非.

《自復》 스스로 復호 거시니. ○復호미니.

《以辟咎》 咎를 辟호미라. ○호려 호미라. 下說太拘.

《遇主于巷》 主를 遇호되 巷으로 호면. ○主를 巷으로 遇호면. 上說, 好. 【按】恐當云 主를 巷에 遇.

《見輿曳》 輿의 曳호믈 見코.

《无初有終》 初는 업고 終은 이시리라.

《睽孤》 睽호야. ○애 孤호야.

《何咎》 므슴. ○엇데 咎ㅣ리오.

《見豕負塗》 豕ㅣ 塗를 負호니와. ○흙과 鬼ㅣ 一車를 載호믈 見호니. ○鬼載호 一車를 見호니. 此, 非也.

周易釋義下

《匪寇》 寇 | 아니라 婚媾 | 니 가 雨를 遇하면.

《群疑亡》 疑 | 亡할시라.

周易釋義下-12a

蹇

〔宜待〕 맞당이 待홀디니라. ○待호미 宜호니라.

〔蹇蹇〕 蹇빠 蹇호믄 躬의 故ㅣ 아니라.

〔當位實〕 當호 位ㅣ 實홀식라.

〔朋來〕 朋이 來호미로다.

〔以中節〕 中節를 써 호미라. ○中호 節로써 홀시  
라.

解

《險以動》 險에 써 動호미니. ○險으로. ○險호고.

【今按】三說，皆似未穩，恐當云 險이오 써 動호니.

《免乎險》 險을 免.

《天地解》 天地 解호야.

《雷雨作》 作호야.

《赦過宥罪》 過를 赦호며 罪를 宥호느니라. ○過란 赦호고 罪란 宥호느니라.

《剛柔際》 剛과 柔ㅣ 際호논디라.

《負且乘》 負홀 거시 또 乘혼디라.

《解而拇》 拇를 解호면. ○解호되 而拇를 호면. 或不釋而字，未詳是否.

《有孚于小人》 小人에 孚호미 인느니라. ○孚를 둘디니라 恐非.

周易釋義下-12b

損

《有孚》 孚를 두면.

《曷之用》 어디 쓰리오. ○므스거슬 쓰리오 非.

《可用享》 可히 써 享할 거시니라. ○홀디니라.

《上行》 上으로. ○上하야.

《損而有孚》 損호디.

《二簋應有時》 二簋 | 맛당이 時 | 이시며. ○반  
드시 時 | 이시며.

《已事》 事를 已하야든. ○已커든. 《本》 事를 已  
하고.

《尙合志》 尙과 志 | 합할식라.

《中以爲志》 中으로써 志를 할식라. ○홀시라. ○  
志호미니라. 下說, 非.

《三則疑》 곧 疑하리라.

《十朋之》 十이 朋하논디라. ○十朋이 도일디라.

《弗損益之》 損티 말오.

益

《動而巽》 動호고 巽호야. 恐當云 動호매.

《天施地生》 天이 施호고. ○호며 地ㅣ 生호야.

《利用爲大作》 倅곰 大作호요미 利호니. ○利ㅣ  
倅곰 키 作호요미니. 當從上說.

《下不厚事》 下ㅣ 厚호 事를 몬호 거시러니라. 一  
云 몬호리러니라.

《益之用凶事》 益호되. ○호믈. 《本》 益之用凶事  
ㅣ면 无咎호니. ○益호되 凶事로써 호면.

《有孚中行》 孚를 뒤 中호여사. ○孚를 두고 中行  
이라사. 【按】 上說中字下, 疑脫.

《固有之》 덜덜이 有호식라. ○固有호식라.

《中行》 中行이면. 一云 中에 行호면. 【今按】 中  
行, 猶言中道也. 故《本義》有合於中行之云, 六三  
《程傳》, 亦有合於中道及不合中行之文. 此則此  
《傳》行得中道之行字, 非中行之行. 下說 中에 行호  
면者<sup>4)</sup> 非.

《利用爲依遷國》 卼 依호며 國을 遷호미 利.

《以益志》 益호 志로써 호미라.

《有孚惠心》 惠心を 孚로 둔논디라. 一云 孚를 두  
미 惠호 心이라. 疑當云 惠心に 孚를 뒤 호는디라.

《莫益之》 益호리 업슨디라.

《偏辭》 偏호 辭ㅣ오. ○偏타 호는 辭ㅣ오. 【按】  
後說爲長, 若從《本義》, 當云 偏호 辭ㅣ니.

---

4) 者：奎章閣本에는 뒤에 ‘ㅣ’가 있다.

夬

《揚于王庭》 庭에 揚호미니. ○홀디니.

《孚號有厲》 孚로 號호야 厲를 돌디니라.

《健而說》 健호고 說호며.

《決而和》 決호되. ○호고.

《剛長乃終》 剛의. ○剛이 長호요미 終호리라.

《居德則忌》 德에 居호야서 忌를 則호느니라.

《壯于前趾》 趾에. ○ | 壯호미니.

《不勝而往》 勝티 못홀 거슬 往호미.

《惕號》 惕호야 號호미니. ○홀디니. 此說, 非.

《勿恤》 恤티 마를디로다. ○말 거시로다 非.

《壯于頄》 頄에. ○頄 | 壯호야.

《有凶》 凶이 잇고.

《夬夬》 夬를 夬호논디라.

《若濡有愠》 濡ㄹ티 호야 愠을 두면. ○濡뜻호야.

○濡호 뜻호야.

《覓陸夬夬》 覓陸이 夬夬뜻호면.

周易釋義下-13b

姤

《繫于金柅》 金柅로. ○예 繫호면.

《羸豕孚蹢躅》 羸豕ㅣ 蹢躅애. ○호매 孚호니라.

《包有魚》 包애 魚ㅣ 잇듯 호면. 一云 包애 有호  
魚ㄴ티 호면.

《行未牽》 行을 牽티 아니호식라. ○호시라.

《有隕自天》 隕호미. ○호되 天으로브터 이시리라.

《志不舍命》 志ㅣ 命을 舍티 아닐식라.

《姤其角》 姤에 그 角이라. ○姤ㅣ.

《无咎》 咎호미 업스니라.

萃

《王假有廟》 王이 廟에 假하니.

《順以說》 順하고. ○順으로써 說하고. ○順호를 說로써 하고. 【按】 順으로 非也.

《不終》 終티 못하면. ○아니면.

《乃亂乃萃》 亂하야 萃하릴식. ○亂하야者 非.

《一握爲笑》 一握으로 笑하리니. ○한 번 笑호미 도의리니. 當從上說. 下說, 一握爲一番, 非本意, 而 以爲爲도의다 亦非也.

《乃利用禴》 禴을 쓰미 利하리라.

《未變》 變티 아니홀식라.

《萃如嗟如》 萃하다가 嗟하논디라.

《萃有位》 萃에 位를 두고. 一云 萃하야 非也.

《齎咨涕洟》 齎咨하며 涕洟호미니. ○齎咨하야. 後 說, 非.

《无咎》 咎할 티 업스니라.

《未安上》 上에 安티 못호미라. ○못홀시라.

周易釋義下-14b

升

《巽而順》 巽호며 順호고.

《剛中而》 剛으로 中호야 應호식.

《允升》 允호야 升호미니.

《用亨》 亨툃 호면.

《順事》 順事 닳식라. ○事애 順호식라. ○事를 順히 호식라. ○順히 事호식라. 【按】順事, 猶言順德也. 故當云 順호 事ㅣ라. ○順히 事호다. 此卽中溪張氏之意, 或亦可備一說. 餘二說, 皆非.

《升階》 階애 升툃호리라. ○階로.

《不富》 富티 못호도다. ○아니토다.

困

《剛揜》 剛이 揜하이니. ○揜호미니.

《險以說》 險에 倖곰 說하야. ○險하고.

《困而不失》 困호되 그 亨혼 바를 失티 아니하니.

《不覿》 보디 못하낫다.

《利用享祀》 倖 享祀호미 利하니. ○祀를 쓰미 利하니 非也.

《无咎》 咎할 되 업스니라.

《徐有說》 徐히 說이 이시리니.

《曰動悔》 닐오되 動하면 悔하리라 하야. 當云 動하든 다마다 悔하느다 하야.

《吉行》 行호매 吉할시라. ○行하야 吉호미라.

周易釋義下-14b

井

《无喪无得》 喪함도. ○喪이 업스며. 上同.

《井》 井을 井ㅎ느니.

《未繙井》 井에 繙티 묻호미니.

《巽乎水》 水에 巽ㅎ야.

《勸相》 相오<sup>5)</sup>로 勸ㅎ느니라.

《井泥不食》 井이 泥ㅎ야 食디 못ㅎ논디라. ○아  
니ㅎ논디라.

《時舍》 時에 舍ㅎ야실시로다. ○호미로다.

《井谷》 井이 谷 ㄱ튼디라.

《射鮒》 鮒에 射ㅎ니. ○鮒 非也.

《井渫不食》 井이 渫호되 食ㅎ이디 못ㅎ야.

《爲我心惻》 내 心에 惻이 도의어.

《並受》 다 受ㅎ리라.

《井甃》 井을 甃ㅎ면.

《井收》 井을 收ㅎ고 幕디 아니코. 一 收호되 非

---

5) 오 : 奎章閣本 ‘으’

周易釋義下

也。收亨고. 亦未穩. 當云 收亨야.

〔有孚〕 孚ㅣ 인논디라.

周易釋義下-15a

## 革

《已日乃孚》 日 | 已<sup>6)</sup>하야아<sup>6)</sup>孚<sup>6)</sup>하리니.

《革而信之》 革<sup>6)</sup>하야 信<sup>6)</sup>케 孚<sup>6)</sup>하라. ○革<sup>6)</sup>호되. 此, 非也.

《文明以說》 文明<sup>6)</sup>하고 說<sup>6)</sup>하야.

《大亨》 키 亨<sup>6)</sup>하고.

《革而當》 革<sup>6)</sup>하야 當<sup>6)</sup>하리시. ○革<sup>6)</sup>호되.

《治歷》 歷<sup>6)</sup>을 治<sup>6)</sup>하야.

《輦用》 輦<sup>6)</sup>호되.

《已日乃革》 日<sup>6)</sup>이 已<sup>6)</sup>하야사 革<sup>6)</sup>하리니. 當云 日<sup>6)</sup>이 已<sup>6)</sup>하거아.

《貞厲》 貞<sup>6)</sup>하고 厲<sup>6)</sup>하리니.

《革言》 革<sup>6)</sup>하리 言<sup>6)</sup>이 세 번 就<sup>6)</sup>하면.

《有孚》 孚<sup>6)</sup>를 두면. ○孚<sup>6)</sup> | 이시면.

《虎變》 虎<sup>6)</sup> | 變<sup>6)</sup>하리니. ○虎<sup>6)</sup>의 變<sup>6)</sup>이니.

《未占有孚》 占<sup>6)</sup>티 아니호매 孚<sup>6)</sup> | 인느니라. ○孚<sup>6)</sup>

---

6) 하야아 : 奎章閣本 ‘하아’

周易釋義下

ㅣ 이실거시니라. 當云 이시리니라.

〔豹變〕 豹ㅣ變듯하고. ○豹ㅣ變하고.

〔順以〕 順하야. ○順으로.

周易釋義下-15b

鼎

〔正位〕 位를 正하야셔.

〔鼎顛趾〕 鼎이 趾ㅣ 顛하나.

〔无咎〕 咎ㅣ 업게 하리라.

〔以從貴〕 貴를 從호미라. ○從홀시라.

〔不我能卽〕 내게 能히 卽디 못하게 하면.

〔其行塞〕 그 行이 塞하야. ○行하요미.

〔不食〕 食디 못하나.

〔方雨〕 보야호로 雨하야.

〔虧悔〕 悔ㅣ 虧하야. ○一《釋》，但云虧悔云云.

【按】《程傳》云：“虧悔終吉，謂不足之悔，終當獲吉”，當讀曰 方雨하야 虧悔終吉이리라. 釋曰 虧하  
悔ㅣ 只츠매 吉하리라 可也. 此<sup>7)</sup>訓吐已誤，非獨釋  
吐. 【再按】方雨虧悔하야. 此乃從《本義》之吐，釋  
亦同. 以當《程傳》，則非也.

〔信如何〕 信이 엇다하노.

7) 此：奎章閣本에는 앞에 ‘○’가 있다.

周易釋義下

《鼎黃耳金鉉》 鼎이 耳 | 黃하고 金으로 扃 鉉이  
니. ○黃扃 耳오.

《玉鉉》 玉으로 扃 鉉이니.

周易釋義下-15b

震

〈震來〉 震이 來호매 혁혁호면 익익호리니<sup>8)</sup>.

〈驚遠懼邇〉 遠을 驚호고 邇를 懼호요미니. ○호  
느니.

〈洊雷〉 不分釋.

〈震蘇蘇〉 震이 蘇蘇호미니. ○震호야 蘇蘇호미니.

〈危行〉 行이 危호고. 一云 行호면 危호고.

〈大无喪〉 喪티 마로미 大호니라.

〈震不于其躬于其鄰〉 震을. ○이 그 躬에 아니호  
고 그 鄰에 호면. 一云 震을 그 躬에 아닌 제 호고  
그 鄰에서 호면. 【按】 後說欲極工, 而反乖本意, 不  
可從.

〈畏鄰戒〉 鄰에 戒를 畏호식라.

---

8) 호리니 : 奎章閣本 ‘호리라’

艮

《艮其背》 그 背에 艮ᄃᆞ면 그 身을 獲디 못ᄃᆞ며.

《行其庭》 그 庭에 行ᄃᆞ야도 그 人을 見디 못ᄃᆞ야.

《時止則止》 時에 止ᄃᆞ얌직거든 곧 止ᄃᆞ고. ○時로 止ᄃᆞ 저긴<sup>9)</sup> 則止ᄃᆞ고. 時行則行, 同. 【按】 時에 時로 皆未穩. 當云 時 〕.

《艮其止止其所》 그 所에 止ᄃᆞ식라. 艮其止, 不分釋. 若從《程傳》釋, 則當云 艮ᄃᆞ야 그 止ᄃᆞ믈.

《艮其趾》 趾에 艮ᄃᆞ요미라. 一云 趾에 艮ᄃᆞ디라 非.

《艮其腓》 艮에 그 腓니. 一云 그 腓를 艮ᄃᆞ디니 非.

《不拯其隨》 拯디 못ᄃᆞ고 그 隨ᄃᆞ논디라.

《不快》 快디 아니ᄃᆞ도다. ○ᄃᆞᄃ다. 一云 못ᄃᆞ도다 非也.

---

9) 저긴 : 奎章閣本 ‘제ᄃᆞ’

〔 艮其限 〕 그 限애 艮ᄃᆞ며 그 資을 列ᄃᆞ옴이라<sup>10)</sup>.  
厲 | 心애<sup>11)</sup> 薰ᄃᆞᆯ다. 호미로다.<sup>12)</sup> ○心을 薰ᄃᆞᆯ  
다. ○호미로다.<sup>13)</sup> ○그 限을 艮ᄃᆞ며.

〔 艮其身 〕 그 身에 艮호미니. 一云 그 身을. ○身  
만 艮호미니.

〔 艮其輔 〕 그 輔애 艮ᄃᆞ야 言을 序를 뒤 ᄃᆞ면. 一  
云 그 輔를 艮ᄃᆞ야. ○輔를 艮ᄃᆞ야之說, 誤.

〔 敦艮 〕 艮애 敦호미니. ○敦ᄃᆞ 艮이니.

〔 厚終 〕 終애 厚ᄃᆞᆯ라.

---

10) ᄃᆞ옴이라 : 奎章閣本 ‘ᄃᆞ요미라’

11) 애 : 奎章閣本 ‘에’

12) 호미로다 : 奎章閣本에 없다.

13) 心을……호미로다 : 奎章閣本 ‘심을 薰호미로다.’

漸

《漸之進》 漸의 進호미 女歸의 吉호미라.

《止而巽》 止하고 巽할식.

《鴻漸于干》 鴻이 干에 漸호미니.

《順以巽》 順하고 巽할식라.

《不可亂》 可히 亂티 아닐식라.【按】當云 몬호릴  
식라.

周易釋義下-16b

## 歸妹

〔永終知敝〕 終을 永<sup>14)</sup>히며 敝를 아느니라.

〔歸妹以娣〕 妹를 歸호매 娣로써 亨요미오.

〔歸妹以須〕 妹를 歸호매 必 須호미니 反歸<sup>15)</sup>하여  
娣로써 홀디니라.

〔歸妹愆期〕 歸妹에 期 | 愆호미니. 一云 期에.

〔遲歸〕 遲히 歸호미 時 | 인느니라.

〔有待〕 待를 뒤.

〔不如其娣〕 娣의 袂 | 良호미 곤디 아니하니. 此  
說, 是. 一云 곤디 마롤디니 非也.

---

14) 亨며 : 奎章閣本 ‘亨야’

15) 홀디니라 : 奎章閣本 ‘홀디라’

豐

《勿憂》 憂티 마를던. 一云 憂를.

《宜日中》 맛당이 日中툃홀디니라. 一云 日의 中이 宜헝니라.

《明以動》 明으로써. ○明헝고.

《尙大》 尙이 클시오.

《宜照天下》 맛당이 天下에 照홀시라. ○天下에 照호미 宜헝니라 誤. 當云 天下의 照호미 宜헝니라.

《折獄致刑》 折헝며 刑을 致헝느니라.

《豐其蔀》 그 蔀를 豊히 헝야. ○豊에 그 蔀헝야. 餘同此. 然下說似不必從.

《有孚發》 孚를 뒤 發헝면.

《折其右肱》 折혼디라.

《无咎》 咎홀 디 업스니라.

《不可大事》 大事애 可티 아니헝고. 一云 可히 大事를 못홀 거시오.

周易釋義下-17a

旅

《旅貞》 旅의. ○ㅣ 貞하야.

《明慎用刑》 刑 쓰믈 明하고 愼하며.

《取災》 災를 取할 배니라.

《以旅》 旅로써.

《旅于處》 旅에 處하야. 一云 旅ㅣ.

《資斧》 資와 斧를.

《射雉》 雉를 射호되. ○하야.

《終以譽命》 終에 譽命으로써 하리라.

《上逮》 上이 逮할식라. 此爲上所逮也. 又當云 上으로 逮할식라. 此爲下所上逮也.

《喪牛于易》 牛를 易에 喪혼디라.

《莫之聞》 聞티 못하낏다. 一云 아니하리로다 非也.

巽

《申命》 命을 申하느니.

《申命》 命을 申하며.

《志治》 志ㅣ 治하리라.

《巽在床下》 巽애 床下애 이쇼미니. 一云 巽으로 云云. 恐當云 巽이.

《用史巫紛若》 史巫를 쓰미 紛하면. 是也. 一云 紛으로 쓰면 非.

《頻巽》 頻흔 巽이니.

《田獲三品》 田에 品을 獲하미로다.

《无初有終》 初ㅣ 업고 終이 이쇼매. ○初는. 終은.

《巽在床下》 巽이 下애 이셔. ○巽애.

《上窮》 上하야 窮호미오.

《正乎凶也》 正하니야 凶하니라.

周易釋義下-17b

兌

《剛中而柔外》 剛이 中ᄃ고 柔ㅣ 外ᄃ야. ○中이 剛ᄃ고 外ㅣ 柔ᄃ야.

《說以利貞》 說로써 貞호미 利ᄃᄃ식<sup>16)</sup>. 一云 說호미 利貞으로써 ᄃᄃ식.<sup>17)</sup> 下說<sup>18)</sup>近是.

《順乎天應乎人》 天에 順ᄃ고 人에 應ᄃ야. 一云 天을 順ᄃ며 人을 應ᄃ야.

《說以先民》 說로써.

《和兌》 和로 兌호미니. 恐當云 和ᄃ야.

《行未疑》 行호매 疑티 아니ᄃᄃ식라.<sup>19)</sup> ○行이. ○行을.

《孚兌》 孚ᄃ야.

《信志》 志ㅣ 信ᄃᄃ식라. 一云 信이 志에 ᄃᄃ식라.

【按】兩說，皆未當，而上說，稍優.

16) ᄃᄃ식 : 奎章閣本 ‘ᄃᄃ식라’

17) ᄃᄃ식 : 奎章閣本 ‘ᄃᄃ식라’

18) 下說 : 奎章閣本에는 앞에 ‘○ᄃᄃ논디라’가 있다.

19) 아니ᄃᄃ식라 : 奎章閣本 ‘아니ᄃᄃ니라’

周易釋義下

《來兌》 來호야.

《商兌》 商호야. 一云 兌를 商호야. 下說, 是.

《介疾》 介호야 疾호면. 一云 介히.

《孚于剝》 剝애 孚호면. 一云 剝을.

《引兌》 引호야 兌호미라. 一云 兌를 引호시라. 當用後說.

《未光》 光티 몬호미라.

周易釋義下-18a

渙

〔王假有廟〕 王이 有廟에 假ᄃᆞ며.

〔上同〕 上으로 同ᄃᆞ시라.

〔享于帝立廟〕 帝를 享ᄃᆞ며 廟를 立ᄃᆞ니라.

〔渙奔其机〕 渙에 그 机에 奔ᄃᆞ면.

〔渙其躬〕 《本義》 그 躬을 渙ᄃᆞ면.

〔渙其群〕 渙에 그 群이. ○《本》 그 群을 渙ᄃᆞ요미라.

〔渙有丘〕 渙에 丘ㅣ 이쇼미. ○丘를 두미. ○

《本》 渙으로 有丘ㄹ티 호미. 又云 丘ㅣ 이쇼미.

〔渙汗其大號〕 渙에 그 大號를 汗ᄃᆞ야. ○汗ᄃᆞᄃᄃ야. ○《本》 大號를 渙호되 汗ᄃᆞᄃᄃ며.

〔渙王居〕 渙에 王居ㅣ면. ○《本》 居를 渙ᄃᆞ면.

〔正位〕 正ᄃᆞ 位라.

節

《苦節》 苦흔 節은 貞호미 可티 아니헝니라.

《說以行險》 說로써 險에 行헝고. 恐當云 說헝야.

○說호되.

《當位》 當位헝야 써 節호고.

《中正以通》 中正으로써.

《節以制度》 制度로써 節헝야. 一云 節로써 度を 制헝야 非.

《知通塞》 通塞을 아를디니라.

《不節若》 節티 아니헝면 곧 嗟헝리니.

《安節》 節에 安호미니. 一云 安흔 節이니 非也.

《承上道》 上도를 承홀시라. ○호미라.

《甘節》 甘흔 節이라. 一云 節에 甘호미라.

《居位》 居흔 位ㅣ 中일식라.

《苦節》 苦흔 節이니. 一云 節에 苦호미니.

周易釋義下-18b

## 中孚

《說而巽》 說하고자.

《舟虛》 舟ㅣ 虛홀시오.

《中孚以利貞》 中이 孚하고자 利貞으로써 亨면. ○  
때 利貞亨면. 稍優.<sup>20)</sup>

《有他》 他를 두면.

《中心願》 中心에 願호미니라.

《有孚攣如》 孚ㅣ 이쇼미. ○둔는 孚ㅣ. 非也.

---

20) 때……稍優 : 奎章閣本에 없다.

小過

《不宜上宜下》 上호믈 宜티 아니코 下호믈 宜툃호면. ○上은. 下는.

《過以利貞》 過호되 利貞으로써 호믈. 【按】 當云 過호되 뼈곰 貞이 利호믈.

《不可如何》 可히 엇디 못호미라. ○可히 엇디려뇨 호디 못홀시라.

《不及其君遇其臣》 그 君에 及디 아니코. ○말오者 非. 그 臣에 遇호면.

《臣不可過》 臣이. ○은 過호미 可티 아니호미라.

《不過防》 너모 防티 아니면.

《弗過遇》 過티 아니호야 遇호니.

《勿用永貞》 뼈 永貞티 마를디니라. ○永貞을 쓰디 마를디니라.

《弗遇過之》 遇티 못호야 過호미 鳥 | 離호미라.

周易釋義下-19a

既濟

〔亨小〕 亨홀 거시 저그니. ○亨이 小호미니.

〔初吉〕 初는. ○애 吉코.

〔勿逐〕 逐디 아니면. ○말면.

〔繻有衣袽〕 繻에 衣袽를 두어 終日토록 戒홀디니라.

未濟

《汔濟》 濟호매. ○예 汔호야.

《不續終》 續호야 終티 못홀시라.

《不知極》 아디 못호미 極홀시라. ○호니라.

《君子之光有孚》 君子的 光이 孚ㅣ 인느니라.

《有孚于飲酒》 酒를 飲호매 孚를 두면. 一云 孚ㅣ 이시면 非也.

《有孚失是》 孚를 두매. 一云 孚ㅣ 이쇼매 非.

周易釋義下-19a

## 繫辭釋義上傳

〔方以類聚物以群分〕 方을 類로써 聚하고 物을 群으로써 分하니. 【今按】 《本義》及, “此是造化自然之理如此, 非聖人聚之分之”, 當云 方이. 物이.

〔坤作成物〕 物을 作成호되.

〔彖者言乎象〕 象을 言하고.

〔震无咎〕 震하야 无咎호문.

〔仰以〕 仰하얀 以하야.

〔原始反終〕 始를 原하고 終을 反호시. 【按】 註, 朱子謂: “推原其始, 摺轉來看其終.”等語, 當云 始를 原하야 終애. ○을 反호시.

〔旁行而不流〕 旁行호되.

〔安土〕 土를 安하야. 當云 土애.

〔一陰一陽〕 흔 디위 陰하며 흔 디위 陽호문. ○하느 거슬.

〔繼之者善〕 繼하느 者ㅣ 善이오 成하느 거슨 性이니. 【按】 繼之者ㅣ 此吐, 當矣. 但一本, 作者는,

未知孰是. 姑兩存之.

〔顯諸仁藏諸用〕 仁에 顯히며 用으로서 藏히야.  
○細玩諸說, 恐當云 仁에 顯히며 用을 藏히야. 更詳之.

〔成性存存〕 成히 性이<sup>21)</sup> 存코 存호미 道義의 門이라.

〔擬諸其形容〕 그 形容을 擬히며. 當云 形容에.

〔用可重〕 用은 可히 重케 하니. 當云 重할 거시니.

〔德言盛〕 德으로 言첸덴 盛하고. 下同.

〔盜之招也〕 盜의 之히야 招호미니라. 【按】此說不可曉, 恐本作 盜의 招히야 之호미니라. 不然, 之히야 是衍文. 疑當云 盜를 招히음이니라.<sup>22)</sup> ○盜의 吐 非.

〔顯道神德行〕 道를 顯히고 德行을 神히시.

〔問焉而以言〕 問호되 言으로써 히야든. 【按】

《本義》, “以言, 與以言者尙其辭之以言義同”, 則此非命蓍之言, 乃求卦爻之辭, 而以之發言之謂也. 故胡

---

21) 이 : 奎章閣本 ‘의’

22) 盜를 招히음이니라 : 奎章閣本 ‘盜히요미니라’

氏亦云：“言在行先，故將有爲有行，必先問而以之發言，然後以之行事。”今此<sup>ㄴ</sup>야든之吐及所釋之說，皆作命著之言，非也。

〔極深研幾〕 深을 極<sup>ㄴ</sup>고 幾를 研<sup>ㄴ</sup>논 배니.

〔圓而神〕 圓<sup>ㄴ</sup>야 神<sup>ㄴ</sup>고.

〔方以知〕 方으로써 知<sup>ㄴ</sup>고. 疑亦當云 方<sup>ㄴ</sup>야.

〔退藏於密〕 密에 退藏<sup>ㄴ</sup>야.

〔神以知來〕 神으로써 來를 知<sup>ㄴ</sup>고.

〔神明其德〕 그 德을 神明<sup>ㄴ</sup>느니라.

〔利用出入〕 用을 利히 <sup>ㄴ</sup>야 出<sup>ㄴ</sup>며 入<sup>ㄴ</sup>야.

〔法象〕 象을 法호미. 【按】徐氏曰：“法，效法，象，成象”，當云 法이며 象이.

〔備物致用〕 物을 備<sup>ㄴ</sup>며 用을 致<sup>ㄴ</sup>며.

〔書不盡言〕 書로 言을 盡티 못<sup>ㄴ</sup>며.

〔形而上〕 形으로 上을 닐온.

## 周易釋義下

周易釋義下-20a

### 繫辭釋義下傳

《貞勝》 貞히 勝호는 거시오. 下貞觀·貞明同. ○貞히 猶言常해也.

《貞夫一》 一에 貞호는 거시라.

《天下何思何慮》 天下ㅣ ㅡ스거슬 思호며 ㅡ스거슬 慮호리오. 天下ㅣ 歸는 同호되 塗ㅣ 殊호며 致는 一이로되 慮ㅣ 百이니. ○天下以下, 同上.

《精義入神》 義를 精히 호야 神애 入호믈.

《利用安身》 用을 利히 호야 身을 安호믈.

《過此以往》 일로 過호야 往호믈.

《未之或知》 或 아디 못호리니.

《窮神知化》 神을 窮호야 化를 아로미.

《危者》 危호련다 호는 者는. 【按】 當云 危호려다 호는 者. ○下二同.

《斷可識》 斷을 可히 識호리로다.

《萬物化醇》 萬物이 化醇호고. 化生亦同.

《危以動》 危로써 動호면.

〔稱名〕 名을 稱호미.

〔彰往〕 往을 彰호고.

〔微顯〕 顯으란 微케 호고 幽를 闡호며.

〔開而〕 開호되 名에 當케 호며.

〔和而至〕 和호되 至호고.

〔尊而光〕 尊호며.

〔小〕 호되.

〔雜〕 호되.

〔先難而後易〕 難을 先호며 易를 後에 호고.

【按】此與“先難後獲”文同而意異，此說，非也．當云  
難을 先호매 後에 易호고.

〔長裕而不設〕 長裕호되. ○言 長호야 裕호다.

〔窮〕 호되.

〔居其所〕 그 所에 居호야.

〔稱而隱〕 稱호야. 當云 稱호나.

〔卒成之終〕 卒호야 終을 成호니라.

〔雜物〕 物을 雜호과.

〔撰德〕 德을 撰호과.

〔居可知〕 居히 可히.

〔其要无咎〕 그 要ㅣ 咎ㅣ 업스믈.

《其用柔中》 그 柔로 中을 써 ㅎ식라. 當云 柔로 中호믈 쌤식라.

《懼以終始》 懼로써 終始ㅎ면.

《恒易以知險》 ㄷㄷ이 易로써 險을 知ㅎ고.

《恒簡以知阻》 同上. ○恒字, 當云恒常.

《與能》 與ㅎ야 能히 ㅎ느니라.

《和順於道德》 道德에 和順ㅎ고 義에 理ㅎ며.

《窮理盡性》 理를 窮ㅎ며 性을 盡ㅎ야.

《數往者順》 往을 數호믈 順ㅎ고.

《易逆數》 易은 逆ㅎ는 數ㅣ니라. ○更詳之. 【按】  
此說, 誤. 當云 逆ㅎ야 數ㅎ느니라. 蓋數計之也.

《雷以動之》 雷로써 動ㅎ며. 下同.

《致役乎坤》 無釋. 今當云 坤에 役을 致ㅎ고. 役猶 養也.

《說言乎兌成言乎艮》 此兩句, 皆無釋, 註中亦不釋.  
言字疑是虛字, 故不釋也. 不然, 當云 兌에 說호믈  
니르코 艮에 成호믈 니르니라.

《神也者妙萬物而爲言者》 神은 萬物을 妙호므로  
言ㅎ니.

定本 退溪全書 16

## 詩釋義

詩釋義-1a

**周南**【本乎一人，而成乎國俗，謂之風，發於正理，而形於天下，謂之雅，稱美盛德，告其成功，謂之頌。○乘居，四居。匹處，獨處也。】

〔琴瑟〕 琴瑟호고. 一云 瑟로. ○호고 非.

〔言告言歸〕 氏씨 告호야 歸호를 告코라 호라. 或云 告코라 言호라. 【按】言既語辭，不當說.

〔害澣〕 어니를 澣호며 어니를 말려노. 當云 마람 직호노. 或云 어니를 말리오 則是皆澣也，非是.

〔玄黃〕 玄이 黃호란디.

〔云何吁矣〕 엇데 吁<sup>1)</sup>호느니오. 一云 吁케 호느노. 【今按】當云 케 호느노. 蓋註謂詳見〈何人斯〉篇，而〈何人〉註云：“何爲使我望汝之切乎”，故當如此云. 又謂 吁<sup>2)</sup>호려노 此亦近是. 或云 吁호들 엇디 호리오 是，自寬之辭，非也. 又云 니른들 엇디호리오 吁호리로다 此說甚遠，況云字語辭，不可釋.

---

1) 吁：奎章閣本‘吁’

2) 吁：奎章閣本‘吁’

〔緩之〕 ㅎ낫다.

〔宜其家人〕 宜케 ㅎ리로다.

〔輜飢〕 重飢흔 듯호라. 一云 다시곰 飢흔 듯.

【按】重字去聲者，訓更爲，則當從後說. 若本註，韻書所訓重載，是輕重之重，當云 重히 飢ㅎ다.

〔遐棄〕 棄티 아니ㅎ얏닷다. ○아니ㅎ두다. 恐當云 아니ㅎ낫다.

召南【采邑，采官也。因官食地，故曰采。】

〔鵲巢〕 鵲의 巢에. ○鵲의 둔 巢에. ○鵲이 巢를 두매.

〔所芟〕 芟하얏던 배니라. ○하은 배니라. 後說, 是. 又云 하던.

〔謂行露〕 行에 露ㅣ 한가 너겨<sup>3)</sup>니라. ○多호믈. 皆是. 或云: “謂字, 語助”, 非.<sup>4)</sup>

〔雀無角〕 쥐 닐오되 雀이 角이 업다 하리오 엇디 뼈곰 내 屋을 穿하느뇨 하며. ○角이 업스<sup>5)</sup>면 므스 거로<sup>6)</sup> 내 屋을云云. 【按】 後說不成文理, 前說, 是.

〔五紵〕 다숫 고대 紵하얏도다.

〔標有梅〕 標하느. 下章 標하 此說, 是. 或 標하고 인느梅여者 非也.

〔迨其謂之〕 그 謂호믈 迨홀딘더. 此, 是. 或云 迨 하야 謂홀딘더.

---

3) 너겨: 奎章閣本 ‘너계’

4) 謂行露……語助非: 奎章閣本에는 ‘〔五紵〕’ 앞에 있다.

5) 스: 奎章閣本 ‘스’

6) 므스거로: 奎章閣本 ‘므스거스로’

〔塹〕 生員金繼趙所藏《釋義》，并考字音，塹字，註云 禮계，俗同. 禮謂《禮部韻》也. 此字，今俗固音계，然今按《大廣益會》，寘部，其冀切，則實音기，與泊暨等字同，而俗皆訛音계.

〔嘯歌〕 嘯호다가 歌호낏다. ○嘯ㅣ 歌ㅣ로다. 後說，非.

〔懷春〕 春에 懷호거늘.

〔舒脫〕 舒호믈 脫脫.

〔何彼穠〕 므스거시 더리 穠호얏느니오. 恐當云 엇디 더리 穠호뇨.

〔華如〕 華ㅣ 桃李로다. ○李의 華ㅣ로다. 如字不說. 或云 華ㅣ 李곧도다.

〔其釣〕 釣호요믈 엇데 호느뇨. ○釣호는 거슨 므스거스로 호느뇨. 【按】當云 그釣호요믈 므스거스로 호느뇨 그 絲로. ○를 縞호야 호낏다.

〔沼沚〕 沼之沚也.<sup>7)</sup>

〔草蟲〕 非一物也. 草蟲之說，非.<sup>8)</sup>

7) 沼沚……沼之沚也：奎章閣本에는 없다.

8) 草蟲……非：奎章閣本에는 없다.

邶風

〔微我無酒〕 我 | 酒 | 𤿺 遨<sup>ㅎ</sup>며 遊<sup>ㅎ</sup>홀 거시 업<sup>슨</sup>  
주리 아니라. ○遊<sup>ㅎ</sup>홀 酒 | 업<sup>슨</sup> 거시 아니라. ○酒  
| 遊<sup>ㅎ</sup>호매 업<sup>슨</sup> 주리 아니라. 第二說, 亦是.<sup>9)</sup>

〔不可選〕 選<sup>티</sup> 못<sup>ㅎ</sup>리로라. 或 못<sup>ㅎ</sup>리로다. 更詳  
之.

〔擗標〕 擗<sup>ㅎ</sup>요믈 標<sup>히</sup> 호라.

〔綠衣〕 綠<sup>이</sup>. ○<sup>흔</sup> 衣<sup>여</sup> 綠<sup>이</sup> 衣 | 오 黃<sup>이</sup> 裏<sup>로</sup>  
다.

〔淒其以風〕 生員李克仁《釋義》 淒<sup>흔</sup> 그 風<sup>으로</sup>.  
○風<sup>에</sup> 𤿺 <sup>ㅎ</sup>낏다. 【今按】此說, 良是. 蓋本註, 雖  
訓淒爲寒風, 然乃是寒風之意, 非直以淒字爲寒風也.  
從來說者, 但見寒風之訓, 遂斷以淒字當風字, 反以風  
爲受風之意, 穿鑿爲說. 或云 淒<sup>에</sup> 그 𤿺 風<sup>ㅎ</sup>낏다.  
或云 淒 | 그 𤿺 風<sup>ㅎ</sup>낏다. 或云 淒<sup>에</sup> 𤿺 불<sup>이</sup>낏다.  
或云 淒<sup>의</sup> 風<sup>으로</sup> 쓰<sup>낏</sup>다. 或云 淒<sup>를</sup> 風<sup>ㅎ</sup>낏다. 愈

9) 第二說亦是：奎章閣本‘三說, 是’

巧愈不通，皆眩於寒風之訓而然，不可不辨也。○又有說云 淒히 風호눅다. 又淒흔 風으로써 호눅다. 此兩說，亦近是.

〔下上其音〕 그 音を 下上호눅다. ○音이 下上호눅다. 又下上호며 그 音호눅다. 二說，皆非.

〔送南〕 南으로 送호라. 又 南에 가 送호라.

〔先君〕 君을 思호므로. 一云 思호져 호므로 非.

〔可忘〕 니를 거슬 삼느냐. ○니를 딜로<sup>10)</sup> 호느냐.

〔笑傲〕 笑호미 傲호디라. 當云 笑호며.

〔悠悠我思〕 悠悠히 我를 思케 호눅다. ○我ㅣ 思ㅣ 悠悠호도다. 後說，是.

〔死生〕 死호며 生홈 契闊애.

〔不我〕 우리.

〔下上〕 同上. 又云 下上호는 그 音이로다.

〔不知德行〕 行을 아디 아닐 것가. ○아디 아니호야리아. 【按】 註云: “不與‘鄂不韡韡’之不同”, 故說者皆以아니說不字. 其實但豈不之語勢同, 而此則不可以아니說之. 當曰 아디 못호느냐.

10) 딜로 : 奎章閣本 ‘디로’

〔何用〕 어딴 써. ○어딴가 쓰매.

〔匏有〕 匏 | 葉이라 잇거늘. ○苦하고 葉이라 잇거늘. 一云 苦흔 거시 葉이라 잇거늘.

〔雉鳴〕 雉 | 鳴하야 牡를. 一云 鳴호되 非也.

〔始旦〕 日入 비로소 旦에 亨느니라. 或云 비릇는 旦에 非也.

〔何有何亡〕 므스거시 이시며 므스거시 업스뇨 하야. 此家之有無也. 어딴 이시며 어딴 업슨고 하야. 此他處之有無也. 又云: “雖有, 亦欲得之.” 【今按】 兩說, 皆非也. 當云 므스거시 이스며 므스거시 업스리오 하야. 蓋註云: “不計其有與無, 而勉強以求之”, 此言事有當爲者, 不問家之有無, 而惟求其事成也. 何有何亡, 非謂何物有之, 何物無之, 亦非謂何處有之, 何處無之, 但謂何物以謂有乎, 何物以謂無乎之意. 夫有則爲之, 無則不爲, 非勉強者也. 今此婦人, 有亦勉, 無亦勉, 以求成其事, 可見其善於事夫, 而勞於治家也. 若如說者之言, 是屑屑然計有筭無·問東乞西之爲事, 乃一貪煩猥賤之婦耳, 何賢之足稱乎? 又云: “求, 非求得此物之求, 猶所謂功求成之求”, 故孔氏亦云: “隨事難易, 期於必成.”

〔賈用〕 賈ㅣ 써 售티 몬호미로다.

〔育恐〕 育홀 제 育이 鞠호야 爾로 민 覆홀가 恐호다니. 或云 育이 鞠홀가 恐호야. 後說, 非.

〔必有與〕 엇데 그 處호얏느뇨. 반드시 與호미 잇도다. 一云 與호려 호미 잇도다. 後說太拘.

〔靡所與同〕 同홀 배 업도다.

〔褻〕 히.

〔方將〕 보야호로 將춧 萬을 舞호라. 一云 억세히 萬舞. 然以此狀方將之意則可, 用以作訓則不可.

〔在前上處〕 前上處에 在호라. ○上處호야 겨신 알피 이쇼라. 後說可笑.

〔出宿于涕〕 涕에 出宿호려 호고.<sup>11)</sup>

〔不瑕〕 아니 엇던 害ㅣ 이실가. ○〈二子乘舟〉<sup>12)</sup> 아니엇던 害ㅣ 인는가. ○害ㅣ 엇던가.

〔謂之何〕 니른들 엇데 호리오.

〔莫赤〕 이만 赤호니 업스니 狐ㅣ 아니며. 【今按】此說是猶言“莫高匪山”之類. 言所見皆赤狐黑鳥也. 說者因所見無非此物之語, 鑿爲曲說, 曰 赤디 아

11) 호고: 奎章閣本 ‘호야’

12) 二子乘舟: 奎章閣本에는 없다.

### 詩釋義

니타 狐ㅣ 아니며. 其意猶曰雖非赤者, 而不爲狐乎?  
言皆狐也. 此說巧, 奈非本文法何? 又有因此爲說者,  
曰 赤디 아닌 거시 狐ㅣ 아니며. 或云 赤흔 거시  
狐ㅣ 아니 아니며. 皆不成文理.

〔俟我〕호려 헉더니 又 호라 헉더니 非.

詩釋義-3a

## 鄘風

〔君子偕老〕 君子와로 偕老 흘디라.

〔副笄〕 副ᄃ고 笄ᄃ고 여ᄃᆫ 고대 珈ᄃᆫ얏도소니.  
○副入 笄예. ○副ㅣ며 笄ㅣ며. ○副ᄃ며. 皆是. ○  
註垂于兩旁當耳, 非笄垂之首飾, 纓垂也. 副之兩旁에  
當케 ᄃ야. 【按】此不知何人說, 恐未當.

〔云如之何〕 엇데오.

〔胡然而天〕 엇더니 天이며. 四同. 一云 엇데ᄃ 天  
이며. 【按】後說, 是. 亦恐當云 엇데 天이며 엇데  
帝오.

〔蒙彼縹緇〕 絺예. ○을.

〔桑中〕 托言貴族, 當時不必有指. 所私之人, 三姓  
也.

〔以爲兄〕 兄을 삼느냐. 一云 사맛것다. ○사맛느  
냐.

〔伐琴瑟〕 伐ᄃ야.

〔註 樹八尺之臬〕 天日相去萬里, 日地相去八萬里

故也。東西相去三萬里，故日至地中，則尺五寸。

〔星言〕 星인 제. 星하야.

〔駭牝〕 駭인 牝이.

〔崇朝〕 朝ㅣ 崇홀 만. ○其雨ㅣ 朝만 하낏다.

〔不死〕 死티 아니코 으슴하리오.

〔四之〕 四하얏도소니.

〔不如我所之〕 諸《釋》皆云 我的 갈 바만 곧디 못하니라. 而其一自解云：“言不如我心之所之”，其一自解云：“註處此萬方，謂歸唁也，以大夫之歸唁與國人之歸唁，不如自盡心而往吊也。” 又有一說云 我ㅣ 하느 바만 곧디 못하니라. ○我思 간 바만 곧디 아니하니라. ○我로 가게 하니만 곧디 아니하니라.

【今按】之字，若訓往，則當從第二說，爲往吊之義。至如心之所之之說，恐未然也。心之所之，謂之志，古雖有其語，然必上有心字，然後方以所之爲志。今此句既無心字，豈可但以我所之爲心所之之志乎？古詩人尙淳質，不應如後世文士摘字用事之爲也。況雖實爲志字之義，詳味其文義，則只爲不如我志而已，實無自盡其心之意，不如作身自往吊之義看也。後一說，不釋之字，亦似無妨，更詳之。

詩釋義-4a

## 衛風

〔如切〕 切듯 하며. 下二同, 諸《釋》皆然.

〔充耳琇瑩〕 充耳흔 거시瑩이며. 一云 耳에 充흔 거시 弁에 會흔 거시. 一云 會흔 弁이. 此說, 非也.

〔考槃〕 槃을 考하야 澗에 在하니. 陳氏 考호믈 澗에 이셔<sup>13)</sup> 하니.

〔來卽〕 와 내게 卽하야.

〔爲期〕 期를 사므라 호라.

〔載笑〕 三《釋》, 載字不說, 一《釋》, 說云 곧.

〔靡室〕 室로 勞티 아니하며.

〔靡朝〕 朝를 두디 아니호라. 一云 朝 업시 호라.

〔豈不爾思〕 爾字, 諸《釋》皆不釋. ○致謂致其身於彼也.

〔不我知〕 내게 知티 묻호도다.

〔伯之東〕 伯이 東호모로브터. 或以之字爲가다 非.

〔其雨〕 그 雨콰더 그 雨콰더. 一云 그 雨를 雨콰

---

13) 澗에 이셔 : 奎章閣本 ‘澗에서’

더 非.

《願言》 願호야. 言字皆不釋.

《甘心》 首疾을 心에 甘호낏다. ○疾을 心호낏다.

《匪報也》 報호노라 아니호믈. ○報호라 아니호믈.

○報과라 아니믈. ○報과디여 아니믈. ○第三說,  
非. 第四說, 大錯.

詩釋義-4b

## 王風

〔稷之苗〕 稷이 苗호얏도다. ○稷의 苗ㅣ로다.

〔此何人〕 이러특시 호느니는. 一云 이러케 호느니. 後說, 是.

〔不日不月〕 日로 못호며 月로 못호리로소니.

〔苟無〕 또호.

〔不流〕 流티 못호낏다.

〔燬其乾〕 乾호 닛 거시 燬호낏다. ○濕호 되도.

〔無吣〕 吣티 마를디엇다.<sup>14)</sup> ○吣호미 업슬디엇다.

〔謂他人父〕 他人을 父ㅣ라 닐오라. ○他人을 닐오되 父ㅣ라 호라. 據文, 後說是, 而諸說多從前說. ○李克仁《釋義》云: “葛藟生於水涯, 失其所, 以謂他人父而失其父, 乃反興.” 或云: “適興.” ○〈采葛〉詩, 采葛者, 女子也, 男子思之而作. 又三月, 春節三月也, 三秋, 一秋三月, 二秋六月, 三秋九月也.

---

14) 마를디엇다: 奎章閣本 ‘마를디로다’

三歲，三年也，去春夏冬，只言三年秋也。秋以時言也，三秋，三候也，乃春夏秋三節也。歲舉全歲言，歲久於秋也。【今按】三秋之說有二，一以三月·六月·九月爲三秋，一以就三年而只言秋爲三秋。以理觀之，三月·六月·九月之說，最無義，決不可從也。三年只言秋，此說近是。又恐三秋只與春三朔言三春·冬三朔言三冬者同，蓋言秋三朔耳。只爲如是，則與三月者同，其久近與註中不止三月之言不相應。故別生此數說，其實則作者只是變文以趁韻耳。初不甚拘於朔數之多寡，而註則又只就月字與秋字本名之大小多寡而槩言之，以見一節深於一節之義，亦不拘朔數而云云。覽者詳之。

〔不奔〕 奔티 몬호애니라.

〔有如〕 이러트시 皦日이 잇느니라. 或云 이러트호.

〔彼留〕 더기 嗟를 留호얏도다.

〔將其來〕 願호딘. 一云 願호들. 此說，太曲.

〔佩玖〕 佩호 玖를. 一云 佩호.

詩釋義-5a

## 鄭風

〔適子之館〕 子의 館에 我ㅣ 適혼디라. ○適혼는 디라. 子ㅣ 還커든 我ㅣ 子의. ○子를 祭을 授호리라. ○適혼얏는디라. 【今按】前說諸《釋》同，當從之。後說適혼얏는디라者，是以適子之館爲武公之自適，與華陽 范氏親之也之義不應，非也。且某竊嘗反覆上下句法及傳文之意，非獨適爲我適之也，旋亦當爲我旋之也。蓋館者卿士治事之朝堂，武公朝於朝堂，則已從而適其館，武公退食於私朝，則已亦旋而授子以祭。適與旋，雖主於武公，而言則屬於賦者之自言，主意在於所言之中，此是詩之妙處。但觀傳文我將爲子，繼言且將適子，又繼言既旋而又將授子以祭，一串文勢，則可知其旋字亦爲作者之自旋矣。

〔豈敢愛〕 敢히 愛호리오. 指杞也. 一云 엇데 爾를 愛티 아니호리오. 此說，大誤。

〔上襄〕 上인 襄이오.

〔二矛〕 矛애 重혼 英으로.

〔左旋〕 左 | 旋하며 右 | 抽하거늘.

〔舍命〕 命에 舍하야.

〔不寔故〕 故는 寔티 몬홀 거시니라.

〔昧旦〕 旦 | 昧하얏느니라.

〔弋言加〕 弋하야 加하거든. ○弋으로 非.

〔宜言〕 宜커든. 一云 맛당이 飲酒하야. 後說, 非.

〔在御〕 御에 잇는 거시. 一云 琴瑟하고 御하야 이슈미. 此說, 非.

〔知子之來〕 子の 來케 하느니를 아라느. 下同.

〔佩玉〕 佩흔 玉이 琚 | 로다.

〔衣錦褻衣〕 錦에 褻衣를 衣하고 錦에 褻裳을 裳호라. 【今按】 此說太鑿, 當云 錦을 衣하고 褻衣를 하고 錦을 裳하고 褻裳을 호니. 此兩句, 只言衣錦而加褻衣於其上, 裳錦而加褻裳於其上, 其言平易明白, 文從字順, 無可疑者. 不知何故先虛說兩箇錦字, 不衣不裳, 無所着落, 而必牽拽衣字裳字於褻衣褻裳之後, 使褻得兩衣兩裳字, 而錦無一衣裳字耶? 《中庸》引此文曰: “衣錦尙絅”, 此言衣錦衣而加絅衣於其上也, 與此衣錦之衣, 豈異釋乎? 必如所說, 則《中庸》之文, 亦可曰 錦에 褻을 尙하야 衣하다耶. 此誤不難知

也，而愚所見四《釋義》，皆用其說。惟李克仁《釋義》於〈衛·碩人〉內追改之，曰 錦을 衣히고 褰衣를 하며，是不知何人所改耳。

〔註 町町〕 판판하다.

〔如晦〕 晦혼 듯혼거늘<sup>15)</sup>。或云：“不釋如字，非也。”

〔實不信〕 信티 몬홀 거시니라. ○믿브디 몬혼니라. 此，是。

〔聊樂我〕 我ㅣ 樂홉도다. 【今按】此說，是也。我卽傳所謂己之室家之謂也，非止謂吾也。說者只認作吾字看，故或云 내게 樂혼두다 或云 我ㅣ 樂홀 거시로다 或 我를 樂게 혼돏다. 皆非也，而末說，尤非。

〔清揚〕 清揚이 婉혼두다. 下章 婉히 淸揚혼두다.

---

15) 듯혼거늘：奎章閣本‘듯혼도다’

齊風

《既盈》 盈<sup>ㅎ</sup>얏<sup>느</sup>니라 <sup>ㅎ</sup>니. ○盈타 <sup>ㅎ</sup>니. ○盈<sup>ㅎ</sup>다 <sup>ㅎ</sup>니. 當云 盈<sup>ㅎ</sup>얏<sup>느</sup>가 <sup>ㅎ</sup>니.

《無庶》 아니 거의 予로 <sup>ㅎ</sup>야 子조쳐 憎<sup>ㅎ</sup>흠가. 一云 거의<sup>16)</sup> 予로 <sup>ㅎ</sup>야 子조쳐 憎<sup>ㅎ</sup>호미 업<sup>ㅎ</sup>습가. 後說, 非<sup>17)</sup>.

《充耳》 充耳를 素로써 <sup>ㅎ</sup>고. 或云 耳를 充<sup>ㅎ</sup>호되<sup>ㄷ</sup>非.

《折柳》 柳를 折<sup>ㅎ</sup>야 圃를 樊<sup>ㅎ</sup>거슬. 一云 樊<sup>ㅎ</sup>圃를 非也. ○折, 《大廣益會》系哲下, 旨熱切. 本章哲音之哲, 恐哲字.

《齊子歸》 由<sup>ㅎ</sup>야 歸<sup>ㅎ</sup>두다. 庸<sup>ㅎ</sup>두다.

《未幾見》 未幾에 見<sup>ㅎ</sup>면. 一云 幾<sup>ㅎ</sup>야서 보면.

《簞第》 簞으로 <sup>ㅎ</sup> 第이며 朱<sup>ㅎ</sup> 鞞이로다. 一云 簞이며 第이며 朱<sup>ㅎ</sup> 鞞이로다.

---

16) 거의 : 奎章閣本 ‘거식’

17) 非 : 奎章閣本 ‘是’

〔淸揚婉〕 淸이며 揚이 婉호두다. 一云 淸호며 揚호며 婉호두다.

魏風

〔註 避者必左〕 天下之勢，西北高，東南下，故讓者必左，左，東也。○古人尚右，故避者必左。

〔美無度〕 美호믈 度티 못호리로다.

〔子曰〕 子の 닐오믈 엇데오<sup>18)</sup> 호느니.

〔無已〕 마디 못호낏다.

〔無止〕 止티 마를디니라. 當云 止호미 업슬디니라.

〔取禾三百〕 禾三百塵을 取호며. 一云 禾三百을塵에 取호며. ○三《釋義》同，而孫暉《釋義》註，其下曰：“如後說，則三百皆禾秉之數，而於三百億困不通，故前說近是云。”

〔伐輻〕 輻호를 거슬 伐호야.

〔莫我肯勞〕 我를 肯히 勞타 아니호란대.

〔誰之永號〕 誰를. ○誰로 기리 號호리오.

---

18) 엇데오：奎章閣本 ‘엇데오’

詩釋義-6b

## 唐風

《無已太康》 아니 이미 너모 康흐니아. 一云 아니 너모 康흐느냐. 或 康흐가. ○이미 康호미 太티 아니흐냐. 【按】最後說, 非.

《職思》 職애. ○의 其居를 思흐야. 【按】當從職의之說. 又李克仁《釋義》云: “註職之所居之職, 乃釋大文居字, 非大文之職也.” 某詳此, 以註中顧念貼思字, 而職字在其下, 故云云. 然實是大文職字.

《無荒》 皆云 荒이 업스미. 一云 티 아니호미. 當從後說.

《宛其死》 宛히 死者自見其死也. 一云: “坐見衣裳車馬而死也.” 【今按】兩說, 似皆未穩, 坐見, 宜自他人而言.

《不敢以告》 敢히 써 人의게 告티 아니호라. ○以其非欲告, 而不敢者, 故皆以아니釋之. 然不敢語意, 當以묻호라釋之, 乃可而亦不妨本意.

《椒聊且》 椒ㅣ여 條ㅣ 遠흐두다. ○且ㅣ홉다 椒

ㅣ여. 且흡니<sup>19)</sup> 條ㅣ 遠호두다. ○某所見四《釋義》中, 二從前說, 二從後說. 愚意且字不說則疏, 先說則倒, 宜合兩說云 椒ㅣ. ○의 且호오미여 條ㅣ 遠호니 且흡도다.

【子兮】 一章婦自謂, 二章夫婦相謂, 三章夫自謂. ○人에 엇데호료.

【自我人】 我人의 居居로브테로다. 一云 人으로브터 居居호두다.

【靡鹽】 鹽티 몬홀 거시라. 一云 鹽티 아니티 몬홀 거시라 非也.

【曷其有所】 어니 제 所ㅣ 이실고. ○所를 들고.<sup>20)</sup>

【誰與獨處】 誰ㅣ 與호거든 獨處호얏거뇨. 一云 處호얏느고. 一云 處호얏느뇨. 一云 호야이시료.

【今按】 旣云誰與, 則獨字意似相妨, 故爲與커든之說, 所以離析誰與與獨字之間. 然誰로 더브리 호올로 處호려뇨, 如此說, 亦自不妨, 何必曲生他說? 況如末說호야이시료, 則似有他志之意, 尤非. 下同.

---

19) 흡니 : 奎章閣本 ‘흡다’

20) 【曷其有所】……들고 : 奎章閣本에는 【靡鹽】 앞에 있다.

《角枕》 有隅之枕，非用角也。或云：“以角飾枕。”

《采苓》 采苓於首陽，乃虛言，讒言亦猶是也。

詩釋義-7a

## 秦風

〔寺人〕 人을. ○으로 令하랴다. 註 將見者 〕 必先使寺人通之. 或云 將見者를 君 〕 使寺人通之. 【按】 或說, 非.

〔從公于狩〕 公을 從하야 狩하랴다. 或云 公을 狩에 從하랴다.

〔鸞鑣〕 鸞을 鑣에 ㅎ얏두소니. 一云 鑣에 鸞을 ㅎ얏두소니.

〔五檠〕 다숫 고대 檠흔 梁ㄴ튼 輶 〕 로다.

〔游環〕 游하느 環이며 賁에. ○에 ㅎ 驅 〕 며.

〔陰韞〕 陰에 韞하야시며 續흔 玼 沃하야시며.

【按】 當云 韞호玼.

〔鍔以舳舳〕 鍔흔 舳이로다. 一云 舳을 玼 舳에 ㅼ 鍔하얏두다. ○舳을 舳에 鍔하얏두다. ○舳에 舳을 玼 玼 鍔하얏두다. 【今按】 首說, 稍優, 但舳字無涉於鍔字, 爲未安. 餘三說, 亦皆未盡. 當云 鍔하야 ㅼ 舳흔 玼 舳을 ㅎ얏두다.

〔方何〕 將<sub>ㅅ</sub> 어니 제로 期<sub>ㅅ</sub>호고 엇데 날로 ㅎ여곰  
念<sub>ㅅ</sub>케 ㅎ<sub>ㅅ</sub>노.

〔沃鎔〕 矛<sub>ㅅ</sub>鎔<sub>ㅅ</sub>에 沃<sub>ㅅ</sub>ㅎ얏두다.

〔鏤膺〕 鏤<sub>ㅅ</sub>호 膺<sub>ㅅ</sub>이로다. ○鏤<sub>ㅅ</sub>로호 非<sub>ㅅ</sub>也.

〔交鞬〕 鞬<sub>ㅅ</sub>에 二弓<sub>ㅅ</sub>을 交<sub>ㅅ</sub>호니 竹<sub>ㅅ</sub>으로 閉<sub>ㅅ</sub>를 ㅎ고 緹<sub>ㅅ</sub>  
으로 滕<sub>ㅅ</sub>ㅎ얏두다.

〔厭厭〕 ㅎ.

〔秩秩〕 ㅎ 音<sub>ㅅ</sub>이로다. ○音<sub>ㅅ</sub>이 秩<sub>ㅅ</sub>秩<sub>ㅅ</sub>ㅎ두다.

〔宛在〕 宛 번드시 未<sub>ㅅ</sub>穩.

〔錦衣〕 狐裘<sub>ㅅ</sub>에 錦衣<sub>ㅅ</sub>를 ㅎ샷다.【按】此說, 是. 又  
當云 錦衣<sub>ㅅ</sub>를 狐裘<sub>ㅅ</sub>에 ㅎ샷다.

〔黻衣〕 黻衣<sub>ㅅ</sub>ㅣ며 裳<sub>ㅅ</sub>이샷다.

〔壽考〕 壽考<sub>ㅅ</sub>과다 ㅎ야 닛디 몬<sub>ㅅ</sub>호리로다. 或云 壽  
ㅣ 考<sub>ㅅ</sub>과다 ㅎ야. 或說, 非.

〔人百〕 人<sub>ㅅ</sub>이 百<sub>ㅅ</sub>고자 ㅎ호리로다. 如爲奴爲隸爲生爲  
死之類.

〔註 東征〕 征山東之國而爲盟主也. 死而棄民, 謂賢  
者, 民所仰望, 而棄賢, 是棄其民也.

〔如何〕 엇더다 엇더다. 一云 엇데엇데 호모로.

〔註 屢屢〕 音琰移.

詩釋義

《王于》 王으로.

《瓊瑰》 瓊瑰과 玉佩 | 로다. 或云 瓊瑰로 혼 非.

《權輿》 吐여. 釋 輿를 承티 몬호미여. ○아니호미여.

詩釋義-8a

陳風

〔越以𪔐邁〕 이에 𪔐으로써邁호돏다.

〔註 卻著莢〕 卻， 差後也。 莢， 俗名늦고지라.

【按】此孫暉《釋義》之言。今俗皆用此說，然恐無葉後差後而著莢之理。卻與却同。凡莢皆先葉而著，此木之莢，獨後葉而著，故曰先生葉，卻著莢耳。非著葉之次差後而著莢也。

〔樂飢〕 皆云 樂호야 飢호리로다. ○飢를 樂호리로다. 【按】前說雖趁註文，乃不成語，當從後說。

〔唔歌〕 歌를 晤호리로다.

〔斯之〕 斯，音偲。

〔慊〕 《玉篇》，蘇勞切，憂心，又音草。○《大廣益會》，慊，憂心，慊上同，皆音草。

〔慄〕 《益會》見上。○《玉篇》，七刀·七老二切，愁不樂也。

〔從夏南〕 南을 從호미니라. 一云 從호느니라.

## 檜風

【以朝】 狐裘，本朝天子之服，而以朝其國之大夫，好潔其衣服，可知。若如此說，則以朝之朝，非朝天子之朝，乃自朝之朝。更詳之。

【夭之沃沃】 夭히。○夭하야。

【註 鈔】 《禮韻》，吊又遙，俗音遙。

【偈】 《禮》音桀，俗同。然桀之正音，亦非겉，乃겉字，則此音同之。本字下，起竭反，竭亦同音，겉也。

詩釋義-8b

## 曹風

〔衣裳楚楚〕 楚楚ᄃᆞᆫ 듯ᄃᆞᆫ두다. 或云 𪛗두다 皆非也. 當云 楚楚ᄃᆞᆫ두다. 蓋指蜉蝣之羽, 非眞衣裳, 故着猶字. 【按】此李克仁《釋義》之說, 正與慶源 輔氏之說合, 當從之. ○<sup>21)</sup>

〔何戈與祲〕 戈과 다뭇 祲을 荷ᄃᆞᆫ 거시어니와. 或云 ᄃᆞᆫ거니와 三百이도록 芘을 ᄃᆞᆫ다. ○芘이로다.

〔媾〕 媾에 遂티 아니ᄃᆞᆫ두다.

〔薈蔚〕 薈ᄃᆞᆫ며 蔚ᄃᆞᆫ 南山에 朝애 隣ᄃᆞᆫ다 婉ᄃᆞᆫ며 變ᄃᆞᆫ. 一云 薈ᄃᆞᆫ며 蔚히.

〔胡不萬年〕 엇데 年티 아니ᄃᆞᆫ리오.

〔四國有王〕 國에 王이 잇거시닐.<sup>22)</sup> 四國之有王, 卽天子也. 【按】此說, 是也. 或云 四國이 王을 듯거닐 非也. 許太輝說.

21) 當從之 ○ : 奎章閣本에는 뒤에 ‘竊恐輔說與傳意不同’이 있다.

22) 잇거시닐 : 奎章閣本 ‘잇거시닐’

豳風

《何以卒歲》 므스거스로써 歲를 卒ᄃᆞ리오. 一云  
엇데 써. 前說, 是.

《殆及》 장춑 公子로 밋. 一云 미리 子로 밋. 後  
說, 非. 此詩不言三月, 或云: “春日載陽, 是三月也.”

《猗彼》 桑을 猗ᄃᆞ니라. 皆同.

《載玄》 곧 玄ᄃᆞ며.

《斯螽》 이. ○이라.

《莎鷄》 ㅣ. ○ㅣ라.

《入此室處》 이 室에 드리 處홀디어다. 二《釋》  
同. 又二《釋》, 이 室處에 入홀디어다. 此說, 非.

《春酒》 孫暉《釋義》云: “十月釀, 至春而飲, 故曰  
春酒.” 或曰: “和暢之酒也.” 【按】此未知爲何人說,  
十月釀, 未敢爲是.

《築場圃》 場을 圃에 築ᄃᆞ고. 孫暉《釋義》, 以此  
說爲未穩, 又云 圃를 築ᄃᆞ야 場ᄃᆞ고. 此說爲的. ○

【混按】 後說, 非.

〔黍稷〕 이 重穆과. 此, 亦非也.

〔祭韭〕 韭로 祭. 或云 韭를.

〔冲冲〕 선득선득之意. 此亦未必然也.

〔恩斯〕 兩斯字, 皆不釋.

〔蓄租〕 蓄호며 租호는 배라.

〔未有室家〕 家를 두디 못홀식니라. ○家ㅣ 잇디 아니호애니라. 【按】 二說, 皆是. 或云 잇디 못호미니라 非也.

〔東曰歸〕 東으로서 歸호매 心이 西로 悲호라.

〔熠燿〕 ㅣ 行호노소니 非. 一云 燿호 行이로소니.

〔熠燿其羽〕 그 羽ㅣ 燿호두다. 그 馬ㅣ 皇이며 駁이로다. 或云 燿호 그 羽ㅣ로다 皇호며 駁호 馬ㅣ로다.

〔是皇〕 이에 皇호시니. 一云 皇케 호시니. 後說 非也.

〔九罭〕 罭皆音域, 然域亦익音也. 若音역, 當系錫部, 何系職字耶?

〔鴻飛〕 호믈. ○호야.

〔無使我心悲〕 우리로 호여곰 心悲케 마를디어다. 一云 우리 心으로 호여곰 悲케. 後說, 是.

鹿鳴

〔呦〕 호느.

〔鹿〕 의.

〔鳴〕 이여.

〔吹笙鼓簧〕笙을 吹호매 簧을 鼓호야. ○笙을 吹호거든 簧이 鼓호야. 【按】以事及註文，則此二說固然. 然凡此等文勢，如行雲流水，順而道之，無許多詰曲之處. 唯金繼趙《釋義》笙을 吹호야 簧을 鼓호야. 此說，最善.

〔示我〕示홀디엿다.

〔視民〕民을 示호야 忼티 아니케 호니.

〔式燕〕써곰 燕호며 以敖호낏다.

〔載飛〕載 곧.

〔將母來諗〕母를 將호모로와 諗호노라. 一云 將티 몬호모로. 此說，非.

〔駉駉〕 호.

〔鄂不〕鄂히. 一云 鄂호 거시 엇데 韓韓티 아니

리오 非也.

〔急難〕 難애 急호미로다. ○難을 急호낏다. 此說太巧, 愚意急亦難字之意, 當連作一語看. 孫暉《釋》亦云: “兩字不可分作兩事看.”

〔每有〕 믹양.

〔無戎〕 戎호미 업스니라.

〔不如友生〕 生만 ㄴ티 너기디 아니호낏다. 一云 生만 곧디 아니타 호낏다. 一云 ㄴ티 아니 너기낏다.

〔和樂且湛〕 樂호고 且湛호리니라<sup>23)</sup>. ○樂호야.

〔是究〕 이로. ○이히 究호며 이로. ○이히 圖호면. 一云 是를 究.

〔亶其然〕 그 그러호믈 미드린더. 一云 진실로 그 그러호린더. 【今按】 前說, 是. 孫暉《釋》云: “是指兄弟, 究圖指宜室家樂妻孥,” 非也. 只是是字, 合數義而言之.

〔有藁〕 有字, 或說, 或不說.

〔微我不顧〕 我ㅣ. ○로 顧티 아니타 호미 업게 홀디니라. 一云 顧티 아니타케 마를디니라. 下文 咎

23) 호리니라 : 奎章閣本 ‘호리라’

ㅣ 잇다케 마를디니라. 一云 내<sup>24)</sup> 咎 ㅣ 잇는 주리  
아니니라.<sup>25)</sup> 一云 나를<sup>26)</sup> 咎티는 몬홀 거시니라.

【今按】以上數說，皆爲使彼無所歸責於我之意. 看了如是，則主人召客之心，但爲外貌虛禮以規免彼之怨己，而<sup>27)</sup>無反己忠厚致客之實，與注中所謂無使我恩意之不至之言及范氏所引“躬自厚而薄責於人”者正相背馳. 當云 내<sup>28)</sup> 顧티 아니호미 업슬디니라. 下文 내<sup>29)</sup> 咎 ㅣ 잇디 아니<sup>30)</sup>홀디니라.<sup>31)</sup>

〔多益〕 해 益게 ㅎ시는디라. 一云 益을 해 ㅎ시는디라.

〔孝享〕 孝로.

〔君曰〕 君이 曰ㅎ샤디 爾를 卜ㅎ샤디. 一云 君이 爾를 卜ㅎ야 니르샤디.

〔徧爲爾德〕 다 爾ㅣ 德을 ㅎ넛다.

〔如月之恒〕 月의 恒호미 ㄴㅌㅌ며. ○月이 恒ㅌㅌㅎ

---

24) 내 : 奎章閣本 ‘我ㅣ’

25) 아니니라 : 奎章閣本 ‘아니라’

26) 나를 : 奎章閣本 ‘我를’

27) 而 : 奎章閣本 ‘而已’

28) 내 : 奎章閣本 ‘我’

29) 내 : 奎章閣本 ‘我ㅣ’

30) 아니 : 奎章閣本 ‘아니케’

31) 〔微我不顧〕……홀디니라 : 奎章閣本에는 〔有英〕 앞에 있다.

며. 下同.

〔無不爾或承〕 栢의 茂ㅣ ㄱㅌㅅㅏ 爾를 或承티 아니 아니ㅎㄷ다. 一云 栢이 茂ㅎ디라 承티 아니ㅎㅅㅅ ㄱㅌ도다. 前說, 是. 爾字, 或不釋.

〔靡室〕 室이 ㅎㅅㅅ며 家ㅣ ㅎㅅㅅㅏ. 一云 室을 ㅎㅎ며.

〔載渴〕 載 ㄱㅌ.

〔不來〕 오디 ㅎㅎ리니라.

〔彼爾維何〕 더 爾ㅎ 거ㅅㅌ ㅄㅅㅅ것고. 路同.

〔一月三捷〕 一月三捷ㅎ야사 ㅎ리로다. 言如此而後定也, 未必如此.

〔來思〕 思, 不釋.

〔謂我來〕 天子所로브터 내 오라 닐오라. 一云 謂호디 我ㅣ 來호라. 【按】 恐當云 所로브터 我를 謂ㅎ야 來호라. 蓋謂我, 猶下章言命我之謂也. 然則註謂其人之謂, 非謂我之謂, 受天子之命, 此命字, 實貼謂字也. 更詳之.

詩釋義-10a

白華

〔 鯉 〕 禮.

〔 鮒 〕 同.

〔 罩 〕 豆.

〔 簠 〕 《禮》 桴 又卓 又삭 俗삭.

〔 衍 〕 간.

〔 櫟 〕 《禮》 쇼 俗소.

〔 有譽處 〕 譽와. ○며 處 | 잇도다. 一云 處를 두  
놓다 非也.

〔 爲龍 〕 龍호며 光호두다.

〔 宜兄 〕 兄을 宜호며. 一云 兄에도 宜호며 弟에도  
宜호디라.

〔 令德 〕 令德으로 壽코 豈호두다. 一云 德호야. ○  
이며 豈호리로다.

詩釋義-10b

彤弓

〔有嘉賓〕 이 잇거늘.

〔中心貺〕 貺코져 혼디라.

〔百朋〕 을 錫흔 듯흐두다.

〔用急〕 써 急호미니.

〔王于〕 王이 이에 出征하야 써 國을 正하라 하시  
니라.

〔閑之〕 閑하야. 一云 亨고.

〔如輕如軒〕 輕하느 듯하며 軒하느 듯하며. 一云  
輕이 ㄱㅌ며 軒이 ㄱㅌ며. 【按】 後說, 未是.

〔飲御諸友〕 友에 飲하며 御하니. 一云 友를.

〔魚鱉〕 三《釋》云 魚흔 鱉이며. 一《釋》云 鱉  
을 魚하며. 【按】 此以已成魚膾, 故必云 魚흔 膾흔  
然後說是.

〔張仲孝友〕 仲이 孝友하느니로다. 一云 友흔 仲  
이로다. 又云 仲인. 當從前說.

〔師干〕 師코 干을 試하얏두다. ○師 | 干을.

【按】兩說皆通。或云 師의 干을 或云 師흔 干을 皆非。

〔鉤膺〕 鉤ㅣ며 膺이며 脩革이로다。

〔註 婁頷〕 孫暉《釋義》云：“婁謂牽也，飾馬頷頸也。”【按】《字書》引“弗曳弗婁”，謂婁亦曳也。此說，恐是。

〔大帶〕 俗呼오랑 鞅卽가슴거리。此亦孫《釋》之言，近是。

〔有瑯〕 瑯흔는 葱珩이로다。或云 瑯흔。恐未穩。

〔鐃〕 音堯。

〔鐺〕 音濁。

〔來威〕 來하야 威하낫다。

〔于苗〕 于字不釋。

〔柴〕 音지。

〔舉柴〕 舉하야 柴하낫다。一云 柴를 舉하낫다。

〔蕭蕭〕 히 馬ㅣ 鳴하며 悠悠흔 旌이로다。一云 蕭蕭흔 非也。

〔既伯〕 이미 伯애 禱하니。諸說同，然以“既伯既禱”之文，當云 伯하야。

〔其祁〕 祁흔 거시。

【爰及矜人】 이에 미즈니 矜흔 人에 이 寡ㅣ 哀  
 흡도다. 一云 及흔 矜人이 哀흔니 寡ㅣ로다. 一云  
 矜人에 미즈니. 矜人指鰥寡也, 言離散之患及之也.  
 一云 哀호믈 이 寡ㅣ로다. 【今按】慶源輔氏曰: “言  
 其所與行者, 無非可憐之人, 而就其中, 又惟鰥寡之可  
 哀也.” 其所與行四字, 卽爰及之意, 則離散之患及之  
 者, 非也. 無非可憐之人, 而就其中, 惟鰥寡可哀, 則  
 矜人指鰥寡之說, 亦非也. 此釋當從首說, 但如此 則  
 矜人이之吐, 亦非. 當改曰 矜人에 可矣. 更詳之.

【百堵皆作】 三《釋》 堵ㅣ 다 作호닛다. 一《釋》  
 堵를. 【按】當從後說.

【註】 一丈, 板之長, 五板, 牆之高也, 百堵, 牆之周  
 也.

【寧莫之懲】 엇디 懲호리 업슨고. 一云 엇디 懲티  
 아니호닌고.

【我友】 우리 友를 敬호면. 一云 우리 友호믈. 一  
 云 我ㅣ 友ㅣ 敬호면. 【今按】傳言始憂於人, 而卒反  
 諸己, 故上二說如此. 然詳究此詩, 上文言“嗟我兄弟,  
 邦人諸友, 莫肯念亂”, 是固憂諸友之遭亂而不念所以  
 致亂之故矣. 於此又爲諸友謀之曰: “我友能自反, 而

以敬自持，則讒亂何自而興乎？”是卽所謂反諸己耳，實非謂詩人之反己也。若如二說，爲諸<sup>32)</sup>人自反諸己，則傳何以曰我之友誠能敬以自持矣云云乎？蓋亂世讒賊之禍，根連條逮，朋友義均同體，友之禍卽己之禍，友之憂卽己之憂。故始冀友念亂，而憂所以弭亂，卽憂於人也。終勸友反己，而謀所以息讒，卽反諸己也。讀者以是認得詩人忠厚懇惻之意則善矣，若遂變我友敬本意，解作吾敬友之道看，則非傳意也。當從後一說。

〔維穉〕 穉하느니라. 一云 穉이 있느니라.

〔爲錯〕 錯이 도외느니라. ○錯을 삼느니라. 當云 錯을 삼을디니라. 如此，方合可字意。

---

32) 諸：奎章閣本‘詩’今按：내용으로 보아 奎章閣本の‘詩’가 옳은 듯하다.

詩釋義-11b

## 祈父

〔底止〕 底<sub>ᄃᆞ</sub>야 止<sub>ᄃᆞ</sub> 배 업게 ᄃᆞ<sub>ᄃᆞ</sub>

〔有母〕 有字皆不釋. 一《釋》云 尸<sub>ᄃᆞ</sub>미 잇게 ᄃᆞ<sub>ᄃᆞ</sub> 非也.

〔食苗〕 苗를 食<sub>ᄃᆞ</sub>다 ᄃᆞ야. 此說, 是. 一云 食<sub>ᄃᆞ</sub>이 나라 ᄃᆞ야 非也.

〔肯穀〕 肯히 穀으로 아닐딘댄. 一云 穀으로 아니란대.

〔亦祗以異〕 또<sub>ᄃᆞ</sub> 마초와 異로써니라. 一云 마치. ○此, 壻之父作.

〔秩秩〕 ᄃᆞ.

〔西南〕 南인 戶ㅣ로소니.

〔跂翼〕 跂<sub>ᄃᆞ</sub>야 이에 翼<sub>ᄃᆞ</sub>며 矢ㅣ 棘<sub>ᄃᆞ</sub>며. 或云 跂에 翼<sub>ᄃᆞ</sub>요미 ㄱᄃᆞ며 非是.

〔殖殖〕 殖<sub>ᄃᆞ</sub> 그 庭이며. 下同. 一云 그 庭이 殖殖<sub>ᄃᆞ</sub>며.

〔下莞〕 下<sub>ᄃᆞ</sub> 莞이오.

〔安寢〕寢에 안ㅎ리로다. 一云 안히 寢ㅎ리로다.

〔弄璋〕璋을. ○璋으로 弄ㅎ니.

〔室家〕室ㅎ며 家ㅎ며 君ㅎ며 王ㅎ리로다. 一云 室이며. 下同. ○室와 家를 두며 君과 王이 도외리로다.

〔三百維群〕三百으로 群ㅎ얏도다. 그 特ㅎ니 九十이로라<sup>33)</sup>. 特, 音윤, 俗音淳.

〔衆魚〕衆이 魚ㅣ 도외미 又 溱溱ㅎ리로다. 孫 暉·李克仁《釋》云: “以畜牧之多寡卜主人之盛衰也”, 此說可疑.

〔有實其猗〕그 實이 猗ㅎ얏도다. ○猗에 實ㅎ얏도다. 【按】上卽或說也, 後卽鄭氏箋說.

〔薦瘞〕다시곰 瘞ㅎ논디라. ○瘞를 薦ㅎ논디라.

〔不吊〕吊티 못ㅎ니.

〔式夷〕떠 夷ㅎ야.

〔無旃仕〕旃仕티 마를디니라. ○旃흔 仕를. ○仕를 旃히. 旃皆同. 當云 못흘 거시니라.

〔式月〕떠곰 月로.

〔相爾矛〕네 矛를 相ㅎ더니. 此與傳文合, 無復他

---

33) 이로라: 奎章閣本 ‘이로다’

意. 或說 너를 相호되 矛ᄃᆞᆫ티 ㅎ더니. 或云 爾ㅣ 視호되 矛로 ㅎ더니. 甚非也.

〔不自我先〕 我로브터 先티 아니ㅎ며 我로브터 後티 아니ㅎ는다. 【按】 諸《釋》同此, 然其文非曰不自我而先·自我而後, 乃謂不自我之先·我之後云爾. 故當云 我ㅣ 先으로 自티 아니ㅎ며 我ㅣ 後로 自티 아니ㅎ는다. 觀豐城之說, 可見.

〔靡人〕 人을 勝티 몬호미 업느니. 一云 勝티 몬홀 人이 업느니 非也.

〔謂山蓋卑〕 訛僞之言, 如此也.

〔寧莫之懲〕 寧ㅎ야.

〔謂天〕 天을 닐오되 高타 ㅎ나 敢히 局디 아니 아니ㅎ며. 謂地以下同. ○蓋字, 《釋》云 그. 【按】 此恐於不敢之意未盡, 當云 局디 아니티 몬ㅎ며.

〔維號〕 號ㅎ느. 或云 號ㅎ야.

〔虺蜴〕 蜴을 ㅎ느니오. ○蜴ㅎ느뇨.

〔有菀〕 그 特이 菀ㅎ거늘. 一云 菀흔 特이 잇거늘. 此, 非.

〔仇仇〕 仇仇히 ㅎ나. 一說 仇로 仇ㅎ나. 此說可怪.

〔助予〕 伯을 將하야 予를 助하라 ㅎ리로다.

〔不意〕 不意로 ㅎ리라. 一云 너기디 아니흔 디  
ㅎ리라. 【按】 혼디 恐當作흔 듯.

〔婚姻〕 과로 甚히 云하거늘.

〔不用其良〕 用티 아니호미로다.

〔山冢峯崩〕 冢入<sup>34)</sup> 峯흔. ○峯흔 거시 崩하야.  
某意註訓峯爲崔嵬者，非狀山之高也，正所以狀高山崩  
下之勢也. 故當云 峯히 崩하다. 若如所說，峯字屬上  
爲文，便不成語.

〔方處〕 ㅎ얏도다.

〔豈曰不時〕 據本句及傳文，蓋謂此皇父豈以爲非遷  
徙之時乎云云，其意正謂不謂非時而強徙之也. 是則不  
時리오마는 此吐，非也. 當改曰 不時리오 可也. 若  
云 리오마는 則其文當曰豈不曰不時乎<sup>35)</sup>，今無上不  
字，不可著마는吐也.

〔不憖遺〕 一老ㅣ나 憖하야 遺하야 써 王을 守케  
아니하고. ○憖하야 나 老를 遺하야. 前說，是. 憖，  
音은.

34) 冢入：奎章閣本 ‘응’

35) 不時乎：奎章閣本에는 뒤에 ‘리오’가 있다.

〔以居徂向〕 卽 居호라 호야 向으로 徂호닛다. ○  
卽 向에 徂호야 居호닛다. 此, 前說近是. ○居로卽.  
此, 遠矣.

〔噂沓〕 噂호며 沓호다가 背호얀 憎호미 전혜 競  
호믄 人을 由호애니라. 【按】此說, 是也. 或云 噂호  
얀 沓호며. 此說, 非也. ○전혜 힘써 호느니 人으로  
말미사매니라. ○전혜 힘써 호는 人으로 말미사매  
니라. 【今按】此兩說迂晦難通. 然其意以謂噂沓之人,  
卽讒口之人, 非有異也. 而曰: “專力爲噂沓者, 由於  
讒口之人以爲無義”, 故遷就其說, 欲以專力爲此之人  
爲由人之人. 然奈詩之本語及傳文, 明是各人, 豈可強  
而合之乎? 況亂世小人滿朝, 互相讒毀傾軋怨詈, 豈無  
此之噂沓由於彼之讒口者乎? 不可鑿爲他說也.

〔降喪〕 饘을 降호야 喪호야.

〔舍彼〕 有罪는 辜애 伏호 거시라 舍호려니와.

〔如何昊天〕 엇데오 天하. ○엇더다 天하. ○又云  
엇더려뇨. 此說, 非.

〔不畏于天〕 天을 畏티 아니호 것가.

〔哀哉不能言〕 能히 言티 못호는다 호느니여. 下  
文 能히 言호는다 호느니여.

詩釋義

〔怨及〕 怨이 友에 及호낏다.

〔鼠思泣血〕 鼠思호야 泣血호야. 一云 泣호되 血  
툃호야.

〔無言〕 에. ○言이.

〔疾〕 티 아니리 업스니.

〔誰從〕 뉘 從호야.

詩釋義-13a

## 小旻

〔滄滄〕 ㅎ며. ○호디. ○觀小註, 則當云 滄滄ㅎ야.

〔不得于道〕 道애 得디 못ㅎ리로다.

〔築室于道謀〕 室을 築호믈 道로 謀홈 ㄴ튼디라.  
○築호매.

〔是用不潰〕 일로써 成에 遂티 못ㅎ리로다.

〔翰飛〕 翰으로 飛ㅎ야. 或云 翰飛ㅎ야.

〔明發〕 明이 發토록.

〔溫克〕 飲호디 溫으로 克ㅎ거를. 一云 溫ㅎ야.

〔壹醉〕 흔글ㄴ티.

〔不又〕 又티 아니ㅎ느니라.

〔自何〕 어딴를브터. ○엇디 自ㅎ야. ○므스거스르브터 ㅎ야아.

〔何辜于天〕 天하 이 므슴 罪오. ○엇던 罪오. ○天을 엇디 辜ㅎ리오. 此, 非.

〔我罪伊何〕 我ㅣ 罪ㅣ 므스 일. ○我ㅣ 罪는 엇

디오.【今按】或問朱子曰：“此詩只我罪伊何一句，與舜同。”朱子又曰：“只我罪伊何上面，說何辜于天，亦似自以爲無罪，相似。”據此數語兩句，當云 天에 르슴 罪오 言我無得罪於天也. 我ㅣ 罪ㅣ 르스거신고 此自責己有何罪也.

〔云如之何〕 엇디 ㅎ리오.【按】此乃自寬之辭，非也. 當云 엇디 ㅎ려뇨. 云字不釋.

〔鞠爲〕 鞠ㅎ야 草ㅣ 도외리로다.

〔疾如〕 疾ㅎ야 疾首툃호라.

〔靡瞻匪父〕 瞻ㅎ 거시. ○瞻ㅎ리 父ㅣ 아닛 아니며 依ㅎ 거시. ○依ㅎ리 母ㅣ 아닛 아니가. ○父ㅣ 아니니를 瞻ㅎ 거시 아니며. ○父ㅣ 아니나 瞻티 아닛 거시며. ○父ㅣ 아니라 ㅎ야 瞻티 아니며 母ㅣ 아니라 ㅎ야 依티 아니라.【今按】此凡五說，皆未穩. 某竊謂此句法，正如“莫高匪山·莫浚匪泉”等語，意同. 當云 이만 瞻ㅎ 거시 업스니 父ㅣ 아니며 이만 依ㅎ 거시 업스니 母ㅣ 아니가. 如此，方爲語順而理得矣. 今如第一二說，雖似稍近，然若單言아니，而終曰가，則可，今再言아니 아니，而終之曰가，則是爲父非所瞻，而母非所依矣. 至於第三說之意，似爲

非父者非所當瞻，非母者非所當依。此言，惟父當瞻，惟母當依也。然其文理倒繆甚矣。又如此，則當曰 靡依匪母ㅣ니라，不當以匪母아吐讀之也。又如第四第五之說，其繆尤甚，反成瞻依於匪父匪母之義。爲其誤人不少，故并論之，覽者詳之。

〔由言〕 由호는 言을.

〔註 巔〕 樹，梢也。此說更詳。

〔僭始〕 僭의 始를 이미 涵흡식며. 又云 僭으로 始호야든.

〔匪其止共〕 그 供호논디 아니라 王을 病케 호낏다. 一云 그 供티 묻호논디라 非也. 止字不釋.

〔爾勇〕 네 勇이 브스것고.

〔維暴之云〕 暴公이로다. 云字皆不釋.

〔云何其盱〕 호 번 來호면 엇디 그 盱호리오. 諸《釋》同. 一云 엇디 盱케 호느니오. 【今按】一者之來ㅣ면 云何其盱ㅣ리오. 依此吐而釋，則前說，當矣。但若只如此，則傳文當曰使汝一來見我，則我何爲望汝之切乎？今傳文云云，其再下何字，必有所以然矣，而未可臆說。然此釋終可疑耳。下章一者之來同。

〔否難知〕 否를 아니 묻호리로다. 一云 아니호 주

를 謂不爲讒言也。【按】傳只言爾之心，未見釋否字爲不讒之意，更詳之。

〔無草不死〕 草ㅣ 死디 아니히 업스며. 木同. ○  
死디 아니홀 草ㅣ 업스며. 【按】此於《詩》本語及傳文皆協而平順。但如此則草木盡爲死萎，以比小怨之義，似爲不倫。又方春風被物之時，物無盡死盡萎之理，亦爲未穩，故有變其說者。一云 草ㅣ 死히 업디 아니히며. 一云 死홀 草ㅣ 업디 아니히며. 【按】此二說同一意也。蓋言其間不能無死萎之草木，以比不能無小怨之義，甚好。但無不者，盡辭也，不無者，就中或有之辭也。兩字一上一下，其義頓異，其不可以無不爲不無，決矣。今此兩句及傳文，皆先無後不，說者欲變作先不後無之義，雖於語意似合，其文理之倒舛甚矣。是不恤文法，徒就句掇字，以隨己意，豈說經之道乎？故愚竊恐只從前說爲長也。夫風之於山所被者至廣，非獨草木也，故以比大德焉。就中草木，雖同被春風，而其終無不死萎，草木有時而死萎云爾，非謂方春而死萎也。故以是比小怨。如此而讀，豈不文從理順，而無苟且牽合之病乎？先儒所見，亦必有如此，故有前說，非愚之創說也。但今世率皆堅持後說，以壓前說，

使不得行，故力爲之辨焉。【又按】如必以前說爲不可，而欲用後說，則其釋之之辭，當曰 草ㅣ 死티 아니홈이 업스며 木이 萎티 아니홈이 업스니 言雖當此時，亦無草必不死之理，亦無木必不萎之理，謂猶有死萎者也。如是則稍合於文義，但於傳文終不叶耳。

〔不如死之久〕 死홈만 곧디 못ㅎ건<sup>36)</sup> 오라도다. 一云 死ㅣ 久홈만 곧디 못ㅎ도다. ○二同前說，二同後說，前說爲長。李得全亦取之。

〔欲報之德〕 德으로 報코져 ㅎ딘댄. 三同. 一云 德을 恐非.

〔職勞〕 職ㅎ야 勞ㅎ거늘. ○勞애 職ㅎ거늘.

〔衣服〕 衣服이 漿漿ㅎ도다. ○服을 衣ㅎ얏도다. 此, 非也.

〔不以其漿〕 써 그 漿마도 아니ㅎ며. ○漿이라도 아니며.

〔監亦〕 監호매 쏘ㅎ.

---

36) 못ㅎ건 : 奎章閣本 ‘못ㅎ건디’

北山

〔溥天〕 溥天下 | 王土 | 아니 아니며 土를 率흔  
濱이.

〔獨賢〕 事를 從호믈 호올로 賢호라.

〔嘉我未老〕 내 未老흔 주를 嘉히 너기며 내의 方  
將흔 주를 鮮타 호야 力이 強흔디라 四方애. ○方  
을 營호리라 호낏다. ○老를 嘉호애며 將호야 力이  
強흔디라 方을 營호리 鮮타 호애로다. ○내 云云  
營호믈 嘉히 너기낏다.【按】一說通，第二說，更詳  
之.

〔鞅掌〕 鞅，荷也，掌，捧也. 負荷捧持，以趨走，言  
促急也. 鞅호며 掌호다. 或云：“以掌執轡屢提，而不  
暇儀容也.” 鞅을 掌호다. 此二說，皆可笑，二字本不  
可分釋.

〔念我獨〕 念컨댄 내 獨이어늘. ○獨을 念호거늘  
非也.

〔憚我〕 憚호야 내.

〔無恒安處〕 安處로 恒티 마를디어다. ○處호믈.

〔介〕 介케 ㅎ리라.

〔抽棘〕 孫暉《釋》, 棘亦茨也, 不知何據.

〔絜〕 同上. 音血, 執而行之也. 一音潔, 潔也. 亦不知何據, 當從後說.

〔徂賚〕 徂 ㅎ야, 孫을 賚 ㅎ샤디.

〔時萬〕 이에 萬이며 億으로 ㅎ시니라.

〔鼓鐘〕 鐘을 鼓 ㅎ야. 上篇鼓鐘之鼓鐘, 皆同此釋.

【按】如鼓瑟鼓琴之鼓, 疑與此同, 當從之. 但據此小註先擊鐘·次擊鼓以奏肆夏之說, 實非獨鼓鐘也, 況上文既言“鐘鼓既戒”, 不應於此舍鼓而獨鼓鐘也. 且鐘當言扣, 不當如<sup>37)</sup>琴瑟之以鼓言也, 更詳之.

〔備言燕私〕 備 ㅎ야 燕 ㅎ야 私 ㅎ낫다.

〔勿替〕 替티 아니 ㅎ야 引 ㅎ리로다.

〔壽考萬年〕 壽 ㅅ 考 ㅎ야 年 ㅎ리로다.

〔甫田註 墮〕 흙글 므니우다.

〔攸介〕 介 ㅎ 바와 止 ㅎ 바애. 一云 介 ㅎ며 止 ㅎ 바애. 不釋一攸字, 非也.

〔禾易〕 禾 ㅅ 易 ㅎ야 畝애 長 ㅎ니. 此說, 是. 或云

---

37) 如：奎章閣本‘如今’

易호를 畝에 長도록 非也.

〔千斯倉〕 이에 倉千을 求호며. 萬廂同. 或不釋斯字, 而直云千倉, 恐當云 千인 이 倉을 求호며. 萬廂同.

〔來方〕 來호야 方으로. 一云 方에 祀호야.

〔鞞鞞有珌〕 鞞에 鞞호고 珌호얏도다. ○鞞호고 鞞호고 珌호얏다. ○鞞를 鞞으로 호고 珌로 호얏도다. 下二釋, 非.

〔譽處〕 見〈蓼蕭〉. 又云 譽며 處를 듯낏다.

〔維其有之〕 維字皆不釋.

詩釋義-15b

桑扈

〔不戢不難〕 戢디 아니며 難디 아니흐랴. 那디 아니흐랴. 一云 難디 아니흐냐. 那디 아니흐냐 恐非.

〔畢之〕 畢호며. ○畢로 호며 羅호돏다. ○羅로 호돏다.

〔宜其遐福〕 福이 宜호도다.

〔實維伊何〕 진실로 므스겏고. 下何期同. 一云 진실로 엇디오.

〔有臧〕 臧호미 잇도다.

〔先集〕 몬져 集호야 霰이 되음 곧튼디라. 一云 霰이 先集호음이 ㄱ튼디라.

〔無幾〕 相見호미 無幾호란디.

〔宴〕 홀디로다.

〔來括〕 音으로 來括호과더 호야니. 一云 호요미니.

〔式飲〕 써 飲호믈 거의 호며.

〔鮮我覯爾〕 鮮히 내 너를 覯호니. ○내 너를 覯

호믈 鮮호니. 當云 鮮히 너교니. 蓋既見而以爲鮮, 喜幸之辭.

〔爾爵〕 네게 爵을 祈호낏다.

〔籥舞〕 籥을. ○으로 舞호며.

〔由醉之言〕 醉를 由호야 호는 言을. ○〈初筵〉篇中, “是曰”兩曰字外三曰字, 皆不釋.

〔魚在〕 魚ㅣ 在호미. 一云 魚ㅣ 어디 잇느뇨. 後說, 非也. 王在同.

〔有那〕 그 居에 那호샐다.

〔相怨一方〕 一方으로 서르 怨호느니라. ○一方에서 相怨호느니라. ○相怨호믈 一方으로 호느니라.

〔至于已〕 亡호매 至호야사 已호리로다. ○三《釋》同. 然詳傳文, 已字只作而已矣, 無已호리로다之意, 當云 亡호매 至호 썩르미로다.

〔如食宜飴〕 食호란디 飴호미 宜커늘. 一云 食호매 맛당이 飴호거시어늘. 二說皆無害.

〔如酌孔取〕 酌애 심히 取호요미 곧도다. 一云 酌을. ○호매.

〔教猱〕 猱를 木애 升호믈 教티 마를디어다.

〔見睨〕 睨을 見호면. 曰不釋.

《式居婁驕》 뼈 居ᄃ야셔 즈로 驕케 ᄃ낫다.

《尙息》 거의 息고져 아니ᄃ리랴.

《俾予靖之》 ᄃ여곰 내 靖ᄃ나. 一云 날로 ᄃ여곰  
靖ᄃ나.

都人士

〔臺笠〕 臺로 혼 笠이며 緇로 혼 撮이로다. ○臺로 笠을 혼고.

〔綢直〕 綢直호미 髮 곧도다.

〔琇實〕 耳를 琇로 實하얏도다. ○耳를 琇實로 하얏도다. 此, 非.

〔謂之尹吉〕 닐온 尹·吉이로다. 一云 尹·吉이라 니르낏다.

〔苑〕 音運.

〔垂帶〕 帶를 垂호미 厲하도다. 一云 垂흔 帶 | 非也.

〔卷髮〕 卷흔 髮이.

〔何盱〕 엇디 盱하러뇨. 【按】 此用〈卷耳〉之第三說也. 然作盱케하느뇨, 似亦通.

〔觀者〕 觀호리라.

〔我任我輦〕 우리 任을 우리 輦애 하며 우리 車를 우리 牛애 혼디라.

〔蓋云歸〕 二《釋》 다못 歸홀딘더. 一《釋》 不釋蓋字, 只云 歸홀딘더.

〔我徒〕 우리 徒ㅣ며. 下同. 或因此并“我任我輦”, 作우리 任호며 우리 輦호며 非也.

〔有阿有難〕 有字皆不釋.

〔白華菅〕 華ㅣ 菅호얏거든 茅로 束호느니라.

〔履之〕 履호느리도<sup>38)</sup> 卑호니라.

〔我勞如何〕 내 勞호미 엇다호뇨. 一云 勞호들 엇데료. 【按】 此非自寬之辭, 乃無如之何之辭也. 後說似亦可通.

〔謂之載〕 載호라 謂호가.

〔畏不能極〕 能히 極디 못호가 畏호애니라. 畏不能趨同.

〔有兔〕 兔의 斯首를.

〔漸漸〕 삼.

〔何人不將〕 어니 사람이 將호야 方애 營티 아니리오.

---

38) 호느리도 : 奎章閣本 ‘호느니도’

文王

〔不時〕 時 | 아니아.

〔翼翼〕 ㅎ도다.

〔緝熙敬〕 緝 ㅎ며. ○ ㅎ야 熙 ㅎ야 敬 ㅎ샷다. 一云 敬을 緝熙 ㅎ샷다.

〔有商孫子〕 假 ㅎ 命은 商孫子애 잇느니라. ○三 《釋》同. 然有商如有周之有, 不可曰 잇느니라. 當云 有商孫子애니라.

〔永言〕 言字不釋. ○言字舊不釋. 【今按】 註 常自省察, 正貼言字, 疑當釋.

〔有虞殷〕 또 殷을 虞호되. ○ ㅎ야 天으로브터 ㅎ라.

〔明明〕 下애 이서 明明히 ㅎ면. 一云 明明히 下애 이서 ㅎ면.

〔曰嬪聿懷〕 曰·聿皆不釋.

〔天監在下〕 天의 監 ㅎ샤미 下애 겨샤. 一云 下애 겨샤 天애 監 ㅎ샷든. 此說大誤.

〔倪天〕倪<sup>호</sup>. ○번들<sup>호</sup> 天의 妹로다. 一云 倪<sup>견</sup>컨  
덴. 餘同上. 一云 天의 妹과로 倪<sup>호</sup>도다. ○【某  
按】三說皆云 天의 妹, 此以天之妹爲天之女, 所以錯  
認此句, 而其說難通也. 詳本註之意而細推之, 其曰譬  
天, 猶言配天也. 倪天之妹, 謂其德可以配天之少女  
耳. 當釋云 天에 倪<sup>호</sup> 妹로다. 一云 倪<sup>호</sup>.

〔侯興〕내 興<sup>호</sup>낫다. 恐當云 興<sup>호</sup>리로다<sup>39)</sup>. 或云  
호미로다 恐誤.

〔自土〕漆에 土<sup>호</sup>므로. ○로브터 <sup>호</sup>니.

〔陶復〕陶<sup>호</sup>고 復이며. ○<sup>호</sup>고 陶穴에 <sup>호</sup>샤. 一云  
陶<sup>호</sup>고 또 陶<sup>호</sup> 穴에 <sup>호</sup>샤. 【按】當從前說. 但當云  
陶로 復이며. 再出陶未詳.

〔聿來〕聿字不釋.

〔曰止曰時〕兩曰不釋. ○이에 止<sup>호</sup>야.

〔迺慰〕慰<sup>호</sup>며 止<sup>호</sup>며. 下同.

〔周爰〕다 이에 事를 執<sup>호</sup>니라<sup>40)</sup>.

〔馮馮〕音從憑讀.

〔肆不殄〕이러<sup>호</sup>므로. 一云 그리므로. ○이런도  
로.

39) <sup>호</sup>리로다 : 奎章閣本 ‘<sup>호</sup>리랴다’

40) <sup>호</sup>니라 : 奎章閣本 ‘<sup>호</sup>랴다’

〔兌〕 音되.

〔駢〕 同上. 又云, 俗音딤. 然俗見徒對反, 故音딤, 不知徒字乃ト音耳.

〔蹶厥生〕 生을 蹶히시니.

〔左右奉璋〕 左右ㅣ 璋을 奉히늦다.

〔追琢金玉〕 追琢히 其章이오 金玉인. 或云 金玉으로 히 그 相이로다.

〔清酒〕 酒ㅣ. 一云 酒를.

〔神罔時怨〕 神이 이에 怨이 업스며.

〔離離在宮〕 離離히 宮에 거시며. 一云 宮에 겨산 離離히시며.

〔不顯〕 顯티 아니히야두. 一云 顯티 아닌 디란. 太拘, 非也.

〔無射〕 射호미 업서도.

〔烈假〕 光大히야 瑕ㅣ 업스시며. 傳云: “亦無玷缺”, 故如此釋. 然東萊 呂公, 亦有不缺之言, 瑕티 아니타 亦不妨於聖德.

〔不聞〕 聞티 아니히시나 쏘 式히시며.

〔譽髦〕 士로 譽히야 髦케 히샷다.

〔我陵我阿〕 우리 陵이며 우리 阿ㅣ며. ○“我泉我

池”同.

《予懷明德》 懷字釋於順帝之則之後，順<sub>호</sub>는 주를  
懷<sub>호</sub>노라 <sub>호</sub>시다.

《不識不知》 識<sub>디</sub> 아니<sub>호</sub>며 知<sub>티</sub> 아니<sub>호</sub>야.【今  
按】此說，是也. 又云 識<sub>디</sub> 말며 知<sub>티</sub> 마라. 此因  
《集傳》不作聰明之語而如此釋. 然甚害正意，從前說  
乃是不作聰明之意.

《是致》 이에 致<sub>호</sub>야 이에 附<sub>호</sub>시니.

《虞業》 虞<sub>엿</sub> 業<sub>이</sub> 樅<sub>호</sub>고. 一云 虞<sub>ㅣ</sub>며 業<sub>애</sub> 樅<sub>호</sub>  
고. 一云 虞<sub>ㅣ</sub>며 業<sub>이며</sub>. ○虞<sub>호</sub>고 業<sub>호</sub>고 樅<sub>호</sub>  
고. ○【某按】四說中第一說，最未穩. 蓋虞上有枸，  
枸上有崇牙，三物惟虞爲實名，而業乃枸之狀，樅乃崇  
牙之狀，二字皆非實名也. 當云 虞<sub>애</sub> 業<sub>호</sub>며 樅<sub>호</sub>고.

《賁鼓》 賁<sub>과</sub> 鼓<sub>와</sub> 鋪<sub>이로</sub>소니.【按】諸《釋》同  
此，而一《釋》後人抹去賁<sub>과</sub>之<sub>과</sub>，蓋以鼓字連賁鼓爲  
文也，因考安城 劉氏‘身高八尺·鼓面四尺’之說，抹去  
者，是.

《於樂》 오홉다 樂<sub>호</sub>온 碎雍에서 <sub>호</sub>낏다.

《下武》 武<sub>入</sub> 周<sub>애</sub>. 或下武之下，不着吐，而但云周  
애.

〔作求〕世德을 作ᄃ야 求ᄃ샷다. 一云 德을 世로  
ᄃ야 求ᄃ야 作ᄃ샷다. 後條作求之說, 非.

〔永言〕言字, 皆不釋. 命에.

〔永言孝思〕기리 孝ᄃ시는디라 孝ㅣ 則이 되시니  
라. 一云 孝를 思ᄃ시는디라. 孝를 思호미. 【按】前  
說不釋思字, 固非矣. 後說孝를思者, 亦非矣. 孝思猶  
言孝心, 謂永求其孝心也, 當云 孝思를 기리.

〔應侯順德〕應호믈 德으로 ᄃ니. ○應호디.

〔昭玆〕昭ᄃ디라 來許ㅣ. 一云 來ᄃ는 배. ○玆ㅣ  
昭ᄃ디라. 此說, 非.

〔不遐〕엇디 佐ᄃ리 잇디 아니리아.

〔有聲〕聲을 두샤미 키 聲을 두샷다.

〔邇〕字不釋. 俗홀.

〔伊匹〕匹케 ᄃ시니.

〔維翰〕后로. ○를 翰ᄃ니.

〔無思不服〕服디 아니ᄃ리 업스니. 【按】三  
《釋》皆不釋思字, 可怪. 考其文意, 思字非語辭, 況  
傳云心服也? 心字正貼思字, 當云 思ᄃ야 服디云云.

〔以燕〕翼홀 子를 燕케 ᄃ시니. 【按】臨川 王氏云  
云, 此釋, 是也. 或云 子를 燕翼 恐未詳也.

詩釋義-18b

## 生民

〔武敏〕 武엿 敏을 履.

〔歆攸介〕 介흔 바와 止흔 바에 歆헝샤. 一云 履  
헝시고 歆헝샤 介흔 바와. 一云 介흔 싸해 止헝야.

○【某按】敏字，叶韻。朱子固以敏字爲句絕，而歆字屬下句矣，則第一說文從而意得，當從之。但《集傳》“見大人迹，而履其拇，遂歆歆然如有人道之感”，則似以歆字連上句爲文矣。其下復以“於是”起辭，而云“卽其所大所止之處，而震動有娠”，則又似以攸介攸止連下文爲意。故今人讀曰 武敏歆헝샤 攸介攸止 而釋之。如第二說，雖亦有據，然愚恐舍本詩叶韻句絕之定，而從《集傳》文勢偶然之異，掇下句之字連上句而讀，其不可也必矣。故當從第一說爲是。然此第一說，乃生員金繼趙《釋義》說也，而其吐曰 敏헝샤，此固當也。但止예之吐，猶從俗而不改，今當并改曰 止헝샤，可也。如此歆字屬下句之意，方協。第三說，非。

〔誕彌〕 그 月을 彌헝야 生호되 達이 ㄱㅅㅅ니.

○達 ㄱㅌㅅㅅㅅㅅ. 誕字皆不釋.

〔有相〕 相하느 道ㅣ.

〔取蕭祭脂〕 蕭를 取하야 脂. 一云 로 祭하며.

〔以興嗣歲〕 써 歲를 興하며 嗣하낏다. ○써 興하야 歲를 嗣하낏다.

〔居歆〕 居하야 歆하샏다. ○居히.

〔授几有緝御〕 几를 授하고. 皆同此. 緝하야 御하리 잇도다.

〔嘉穀〕 ㅣ 脾과 臑이며. 或云 穀ㅣ며 脾臑이며.

〔壽考維祺〕 考로 祺하야. ○考ㅣ.

〔既醉〕 醉호되 飽호되. 一云 酒로써 醉하고 이의 德으로써 飽호니. ○介하리로다.

〔昭明有融〕 昭明호미 融하니 朗하야 終하리로다.

〔嘉告〕 嘉로 告하낏다.

〔其告維何〕 그 告하음은 엇디 하느뇨. 一云 므스것고. 後說, 非.

〔永錫爾類〕 기리 네게 類를 錫하리로다.

〔其類維何〕 그 類는 엇디오. 一云 므스것고.

〔室家〕 家入 壺에.

〔其胤維何〕 同上. 二條下同.

〔有僕〕 僕함이 이시리로다. 一云 有字不釋.

〔宜民〕 民에 宜하며 人에 宜흔디라. ○民을 宜케 하며 人을 宜케 흔디라.<sup>41)</sup>

〔干祿〕 祿을 干하야 百福흔디라.

〔攸斲〕 斲홀 배리라. 一云 배 되리라.

〔篤公劉〕 篤하신.

〔鞞琫〕 鞞이 琫흔. ○鞞에 琫하야 容흔 刀 | 로다. ○鞞琫에 容흔 刀 | 로다. ○刀를 容하얏다. ○琫에 容刀하얏도다.

〔京師之野〕 京이오 師홀 野닐식. ○京이오 師흔.

【按】 師흔之說, 非.

〔處處〕 處에 處하며.

〔止基乃理〕 止를 基하고 理하니. ○止基흔디라.

〔洞酌〕 머리. 一云 洞흔.

〔伴〕 반.<sup>42)</sup>

〔奐〕<sup>43)</sup> 伴奐히 네 游하며. 下同. 一云 네의 游를 奐하며. 此, 恐非. ○游호미며.

〔百神爾主〕 神을 네 主하리로다. ○神이 너를. 此

41) 흔디라 : 奎章閣本 ‘흔디라’

42) 〔伴〕 반 : 奎章閣本에는 없다.

43) 〔奐〕 : 奎章閣本 ‘〔伴奐〕’

說, 非.

〔第祿〕 으로 네 康ᄃᆞᆫ다. 一云 祿이 너를 康케 ᄃᆞᆫ다 未善.

〔純嘏〕 嘏를 네 常ᄃᆞᆫ리로다.

〔有馮有翼〕 馮이 이시며. 下同.

〔亦集爰止〕 쏘ᄃᆞᆫ 止ᄃᆞᆫ 玆 集ᄃᆞᆫ다. 君子ㅣ 使ᄃᆞᆫ 디라. 一云 使ᄃᆞᆫ 배라.

〔高岡〕 애서 ᄃᆞᆫ다. 朝陽애 ᄃᆞᆫ다.

〔遂歌〕 드디여 歌ᄃᆞᆫ애니라. 一云 歌를 遂ᄃᆞᆫ애니라 非也.

〔汔可小康〕 거의 可히 저기 康ᄃᆞᆫ디니.

〔爲民述〕 民의 述ㅣ 도ᄃᆞᆫ디어다. 一云 民을 述ᄃᆞᆫ 디어다. ○民의 述를 ᄃᆞᆫ디어다. 恐當從第三說.

〔爲王休〕 休를 삼ᄃᆞᆫ디어다.

〔而式〕 𡵓 弘大ᄃᆞᆫ니라. 一云 式ᄃᆞᆫ 일은 大ᄃᆞᆫ니라.

【按】傳所爲貼式字, 後說, 是.

〔靡聖〕 聖이 업다 ᄃᆞᆫ야.

〔蕘〕 ㄸ려도.

〔言髦〕 言이 髦ᄃᆞᆫ야 ᄃᆞᆫ 주리 아니어늘. 一云 髦ᄃᆞᆫ야 言ᄃᆞᆫ 주리 아니어늘 非也.

〔多將〕 多ᄃ야 장쵸. ○多ᄃ면.

〔爇〕 本音, 火酷反, 浴학.

〔莫我敢葵〕 우리를 敢히 葵티 아니ᄃ느니. 恐當云 葵ᄃ리 업스니.

〔蔑資〕 蔑호미. ○ᄃ야 資ᄃ온디라.

〔莫惠〕 우리 師 惠티 아니ᄃ놋다. ○惠ᄃ리 업도다. 皆是.

〔如取〕 取ᄃᄃ며. 一云 取 곤ᄃ며. 前說, 是.

〔携無曰益〕 携호매 益호미 업슨디라. 一云 携ᄃ야도 益ᄃ는 주리 업스니. 當云 携호매 益ᄃ는 디 아니라<sup>44)</sup>.

〔懷德〕 德으로 懷호미.

〔無獨〕 獨ᄃ야 이에 畏티 마롤디니라. ○畏호미 업게 ᄃ라. ○曰字, 皆不釋.

---

44) 아니라 : 奎章閣本 ‘아니니’

蕩

〔曰咨〕 咨ㅣ라.

〔咨女〕 咨롭다.

〔以對〕 言으로써 對케 하느니.

〔寇攘式內〕 攘으로써 內에 하논디라.

〔靡屈〕 屈ㅣ 업스며. ○屈티 아니함며 究ㅣ 업도다. ○究티 아니하넛다.

〔不湏〕 天이 너를 酒로써 湏케 하신<sup>45)</sup> 주리 아니어늘.

〔靡明〕 明이 업스며 晦ㅣ 업시함며.

〔近喪〕 喪애 近하거늘.

〔匪上帝不時〕 上帝ㅣ 不時를 하시는 주리 아니라.

〔顛沛之揭〕 顛沛하야 揭호매. 一云 沛ㅣ.

〔未有害〕 害호미 잇디 아니라. ○不釋有字. 云 호미 아니라 非也.

---

45) 하신 : 奎章閣本 ‘하시느’

〔本實先撥〕 本이 진실로 먼저撥한다 ㅎ는다. 一云 本實이 먼저 撥.

〔靡哲不愚〕 哲이 愚티 아니니 업다 ㅎ느니.<sup>46)</sup> 一云 哲이 愚티 아닛 아니타 ㅎ느니.<sup>47)</sup>

〔亦職維疾〕 疾에. ○을 職 ㅎ거니와.

〔無競〕 이만 競 ㅎ니 업슨 人이면. 當云 업스니.

〔有覺〕 覺 ㅎ 德行을 두면. 三《釋》皆同. 然有字只是虛字, 恐不當釋.

〔遠猶辰告〕 皆云 遠猶를 辰으로 告 ㅎ며. 【按】 辰告非獨遠猶一事, 當云 猶를 遠히 ㅎ며.

〔興迷亂〕 興 ㅎ야 政을 迷亂 ㅎ야. 一云 政에.

〔維民之章〕 民의 章이며.

〔用邊〕 써곰 邊 ㅎ 蠻方에 ㅎ디어다.<sup>48)</sup> ○方을 邊 ㅎ라. 後說, 非.

〔無易由言〕 由 ㅎ는 言을. 一云 言을 由호믈.

〔無曰苟〕 苟티 마를디어다. ○苟 ㅎ라 마를디어다.

〔言不可逝〕 言은 逝호미 可티 아니 ㅎ니라. 一云 言을 可히 逝티 못 ㅎ 거시니라. 後說, 是.

46) ㅎ느니 : 奎章閣本 ‘ㅎ니’

47) ㅎ느니 : 奎章閣本 ‘ㅎ니’

48) ㅎ디어다 : 奎章閣本 ‘ㅎ라’

《無言不讎》言하야든 讎티 아니하리 업스며 德이  
어든 報티 아니하리 업스니. ○讎티 아니홀 言이  
업스며. 此說, 非.

《彼童而角》彼는 童애 角을 ㅎ논디라. ○角호미  
라.

《虹小子》子를 虹홀 쏘이니라. ○虹호미니라.

《言緝之絲》絲로. ○를 緝하느니라.

《順德之行》順德이라 ㅎ야 行하거든<sup>49)</sup>. ○德을  
順하야.

《謂我僭》나를 닐오되 僭타 하느니.

《手携》手로.

《面命》面하야.

《靡盈》盈호라티 아니면.

《匪用爲教》써곰 教하느다 아니하교. ○教를 삼  
디 아니하교.

《取譬》取하야 譬호미.

《民靡有黎》民이 黎ㅣ 잇디 아니하야.

《蔑資》見〈板〉.<sup>50)</sup>

---

49) 하거든: 奎章閣本 ‘하거늘’

50) 板: 奎章閣本 ‘民勞’

〔秉心〕 心を 秉<sup>하</sup>야 競<sup>호</sup>미 업거시니. ○秉<sup>호</sup>미 競<sup>이</sup> 업거시니.

〔多我〕 우리 瘡<sup>을</sup> 보미 多<sup>하</sup>며 우리 圍<sup>ㅣ</sup> 심히 棘<sup>하</sup>두다. 一云 多<sup>하</sup>다 우리 瘡<sup>을</sup> 보미여 심히 棘<sup>하</sup>다云云.

〔力民〕 民과로 力<sup>하</sup>야. 一云 力<sup>하</sup>야 民으로 非也.

〔靡有旅力〕 力<sup>이</sup> 卼<sup>곰</sup> 穹蒼<sup>을</sup> 念<sup>하</sup> 거시 업두다. ○念<sup>티</sup> 卼<sup>하</sup>리로다.

〔已譖〕 이미 譖<sup>하</sup>야.

〔瞻言百里〕 瞻<sup>하</sup>야 言<sup>하</sup>는 거시 百里<sup>어</sup>늘. 一云 言<sup>호</sup>믈 百里<sup>를</sup> 言<sup>하</sup>거늘.

〔作爲〕 作<sup>호</sup>되. 一云 作<sup>하</sup>야 言<sup>하</sup>는 거시.

〔反予來赫〕 도로혀 내게 赫<sup>을</sup> 오게 言<sup>하</sup>는다. 當云 來<sup>하</sup>야 赫<sup>하</sup>는다. ○도로혀 나를 來<sup>하</sup>야 赫<sup>하</sup>는다.

〔職涼〕 전혀 涼<sup>호</sup>라 言<sup>하</sup>되 善背<sup>하</sup>실니라. ○涼<sup>호</sup>라 言<sup>하</sup>나 善背<sup>호</sup>믈 職<sup>하</sup>애니라. 兩說, 皆是. 或云 涼<sup>타</sup> 言<sup>하</sup>되 亦是. ○전혀 競<sup>하</sup>야.

〔職盜〕 盜<sup>ㅣ</sup> 寇<sup>호</sup>믈 職<sup>하</sup>야니라. ○전혀. 上同.

〔蘊隆〕 隆<sup>하</sup>야 蟲蟲<sup>하</sup>실. ○蟲<sup>이</sup> 隆<sup>하</sup>실. 前, 是.

〔不我遺〕 나를 遺<sup>티</sup> 아니<sup>하</sup>샷다. ○나도 遺<sup>티</sup> 卼

게 ㅎ샷다.【按】後說，是.

〔靡瞻〕 瞻티 못ㅎ며 顧티 몬호라. 恐當云 瞻홀  
티 업스며 顧홀 티 업소라.

〔寧俾我遯〕 엇디 날로 ㅎ여곰 遯케 ㅎ고. 一云<sup>51)</sup>  
엇디 遯티 몬케 ㅎ고. 又云 寧, 豈不也.【按】前說,  
非也. 後說以寧字爲豈不, 此則似矣. 但猶未知遯고之  
吐誤也, 故其說亦不通. 今當改此吐, 曰“寧俾我遯”  
가. 《釋》曰 엇디 날로 ㅎ여곰 遯케 ㅎ라. 如此,  
方合不肯使逃之意, 而豈不之意, 亦在其中矣. 猶今俗  
諺어늬그리케ㅎ라之意.

〔云如何里〕 리예 엇다ㅎ리오.【按】此似以憂爲無  
妨, 非也. 又云 리엔 엇다ㅎ실고.【按】此言未知上  
帝於我之憂當如何也, 此說似近. 然詳其語意, 乃號天  
而自言無如此憂何也, 非謂上帝如何處此憂也. 又云  
리예 엇다ㅎ리오. ○ㅎ려뇨.【按】此言無如憂何也,  
近是. 又云 엇디<sup>52)</sup> 리ㅎ리오.【按】此言無所聊賴也,  
亦是ㅎ려뇨之說, 更詳之. 奎曰: “리ㅎ요매 엇더뇨.”  
○憂엔 엇던고. 此言屬切無也. ○엇다ㅎ야아 리케

51) 一云 : 今按: 기준본인 啓明大本에는 ‘云云’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고려하여 奎章閣本の ‘一云’으로 수정하였다.

52) 엇디 : 奎章閣本에는 앞에 ‘如何’가 있다.

흥고. 此謂何以使天亦憂. ○三說, 皆恐未通.

〔于邑〕 謝애 邑하야.

〔南國〕 을. ○國이 이에 式게 하시다. 上同.

〔往近〕 往하느. 近不釋. ○往하라. ○往홀디어다.

〔還南〕 還, 音旋. ○本無音註, 何? 更詳.

〔戎有〕 翰이 잇다 하낏다<sup>53)</sup>. ○翰을 듯다 하낏다<sup>54)</sup>.

〔肆好〕 드디여.

〔有物有則〕 物이 이시매 則이 잇도다. 此說, 是. 一云 物を 두고 則을 두샷다. 一云 物を 두며. 一云 物이 이시면. 並非也.

〔昭假〕 昭로 假홀식.

〔柔嘉〕 柔嘉호미 則혼디라. 一云 柔嘉호디 非也.

〔令儀〕 令하 儀ㅣ며. 令色同. 一云 儀를 令히 하며. 令色亦同. 後說, 非.

〔小心〕 心を 小하야.

〔式是〕 이 辟을 式게 하며. ○式하며.

〔四方爰發〕 方이 이에 發하낏다.

---

53) 하낏다 : 奎章閣本 ‘하노다’

54) 하낏다 : 奎章閣本 ‘하노다’

〈莫助〉 愛<sub>ㅎ</sub>야도 助<sub>티</sub> 몬<sub>ㅎ</sub>리로다. ○愛<sub>호</sub>디.

〈出祖〉 出<sub>ㅎ</sub>야 祖<sub>ㅎ</sub>니.

〈彭彭〉 俗音傍.

〈遄歸〉 빠 그 歸<sub>ㅎ</sub>요믈 遄<sub>ㅎ</sub>리로다. ○빠 遄<sub>히</sub>  
그 歸<sub>ㅎ</sub>리로다.

〈淑旂綏章〉 淑<sub>흔</sub> 旂와 綏章과. 一云 綏<sub>흔</sub> 章과.  
此說, 非.

〈簞莝〉 以下至鏤錫, 皆云 某과 某과.

〈鞞鞫〉 鞞<sub>으로</sub> <sub>흔</sub> 鞫과 淺<sub>으로</sub> <sub>흔</sub> 幘과 條革에  
金<sub>으로</sub> 厄<sub>ㅎ</sub>얏도다. ○革이 金<sub>으로</sub> 厄<sub>흔</sub> 거시로다.  
一云 自淑旂以下至此, 皆云 某과 某과로다.

〈有且〉 有字不釋.

〈燕胥〉 서<sub>르</sub> 燕<sub>ㅎ</sub>눅다.

〈慶既〉 이미 令居를 慶<sub>ㅎ</sub>니.

〈以先祖受命〉 先祖의 命을 受<sub>ㅎ</sub>요미 이<sup>55)</sup> 百蠻을  
因<sub>호</sub>므로써 王이 侯를 錫<sub>ㅎ</sub>시니.

〈奄受〉 문득. 一云 곧.

〈因以其伯〉 因<sub>ㅎ</sub>야 빠곰 그 伯<sub>ㅎ</sub>니.

〈匪安〉 安<sub>ㅎ</sub>는 주리 아니며. ○安<sub>티</sub> 아니며. 下

---

55) 이 : 奎章閣本 ‘時이’

同.

〔來求〕와 求호미니라.

〔王國來極〕來호야 極게 호시니. ○極호시니. 前說, 是.

〔來旬〕來호야 旬호며.

〔無曰予小子〕내 小子ㅣ라 니르디<sup>56)</sup> 마를디어다.  
一云 予로 子ㅣ라 曰티. 此, 非.<sup>57)</sup>

〔自召祖命〕召祖의 命으로. ○命호던 거스로브터 호노라. 當云 命호던 디로브터 호노라.

〔作召公考〕召公을 作호야 考호니. 【按】恐當云 召公애 作호야 考호니.

〔南仲太祖〕仲이 祖ㄴ.

〔邦靡有定〕邦이 定이 잇디 아니호야. 下兩‘靡有’之有, 皆釋.

〔蝥疾〕蝥賊의 蝥疾호미. ○蝥호야 疾호미.

〔爲梟〕梟ㅣ며. 一云 梟호며.

〔長舌〕을 두니여.

〔匪教匪誨〕教ㅣ 아니며 誨ㅣ 아니로오믄. 一云

56) 니르디 : 奎章閣本 ‘曰티’

57) 無曰予小子……此非 : 奎章閣本에는 〔來旬〕앞에 있다.

教ㅣ 아닌 거시며 誨ㅣ 아닌 거슨.

【鞠人伎忒】 人을 鞠ᄃᆞ야 伎ᄃᆞ며 忒ᄃᆞ야. 一云 伎ᄃᆞ고 譖으로 始ᄃᆞ고. 一云 始ᄃᆞ야.

【豈曰不極】 엇디 極디 아니호랴<sup>58)</sup> 니르리오 므스 거시 愿ᄃᆞ리오 ᄃᆞ느니.

【介狄】 介ᄃᆞ.

【威儀不類】 儀를 類티 아니ᄃᆞ며. 或云 儀ㅣ.

【心之憂】 心에 憂ᄃᆞ도다. ○心에 憂ᄃᆞᆯ다.

【人之云亡】 云字不釋.

【維其】 此等維字, 皆不釋.

【不自我先】 說見〈正月〉篇. 李克仁《釋義》於此有一說, 正是滉說, 可知先儒亦看得出.

【無不潰止】 潰티 아니미 업도다. ○아닛 아니ᄃᆞ리로다.

【不如茲】 이 곧디 아니토다.

【彼疏斯稊】 데 疏ㅣ오 이 稊ㅣ어늘.

【不云自頻】 頻으로 自ᄃᆞᆯ다 니르디 아니ᄃᆞ며. 下同.

【有如召公】 이러ᄃᆞᆯ 召公이. 一云 公 마ᄃᆞ니 日

---

58) 아니호랴 : 奎章閣本 ‘아니호라’

로 國을 里를. ○里을<sup>59)</sup> 關하더니.

---

59) 里을 : 奎章閣本 ‘里을’

周頌 清廟

〔清廟〕 於 1 라 穆헌 淸廟애 肅헌며 雝헌며 顯헌  
相이며.

〔在天在廟〕 在天에 對越헌고<sup>60)</sup> 在廟애 駿히 奔走  
헌느니. 一云 天에 겨시니를 越헌고<sup>61)</sup> 廟애 겨신  
디 駿히 走헌느니.

〔恤我我其〕 兩我 나를 내.

〔惠我〕 우리.

〔淸緝熙〕 淸헌야 緝熙흠 거슨.

〔迄用有成〕 찌 成헌매 니르니.

〔惠我無疆〕 우리를. ○우리 無疆을 惠헌야. ○惠  
호디 無疆으로 헌야. ○子孫으로 保게 헌넛다. ○子  
孫을. 二三說, 是.

〔無競維人〕 이만 競헌니 업슨 사름을. 此說, 是  
也. ○競이 업슨 이만 人을. 此說, 非.

---

60) 헌고 : 奎章閣本 ‘헌며’

61) 헌고 : 奎章閣本 ‘헌며’

〔不顯維德〕 亦同上. 《釋》云 이만 顯히니 업슨 德을. 此說義是, 而辭非本文之語, 似不可從. ○顯티 아니흔 德으로 德을 顯티 아니흔 辟을. 兩說皆與豈不顯·莫顯之意相反, 亦不可從也. 恐當云 顯티 아니히니아 德을 方合豈不顯意也.

〔于時保之〕 이에 保홀디었다.

〔其子之〕 그 子히십가. ○히시느냐. 後說, 非.

〔允王維后〕 진실로 王이 后ㅣ샷다.

〔執競〕 競을 執히신.

〔無競〕 競히리 업스신. 據傳文, 是.

〔斤斤〕 히 그 明히샷다.

臣工

〔暮春〕 暮흔 春이어니.

〔亦又何求〕 또흔 므스거슬 求흔리오.

〔如何新畬〕 新畬ㅣ 엇다흔뇨.

〔迄用康年〕 떠 康年을 닐위샷다. 一云 떠 年에  
迄흔샷다.

〔銓艾〕 銓로 艾호믈.

〔十千維耦〕 十千이 耦ㄴ티 흔라. 一云 十千으로  
耦흔라.

〔應田懸鼓〕 應과 田과 懸鼓와. 田, 音인, 俗音윤.  
○崇牙애.

〔相予〕 予를 相흔야 祀를 肆흔니.

〔宣哲〕 흔 人이시며.

〔文武〕 흔. 一云, 武山后. ○宣哲흔야 文武흔야  
皆非也.

〔綏我〕 我를 綏호딋.

〔亦右〕 右케 흔샷다.

〔休有〕 休하야. 一云 休흔.

〔思皇多祐〕 皇흔 多祐를 호문. ○皇히 多祐호문.

〔俾緝熙〕 하여곰 緝熙하야 純嘏케 하낏다. 一云  
嘏애 흘식로다. 後說, 未是.

〔有客白馬〕 客이며 客이여 쏘흔 馬ㅣ 白하두다.  
一云 白흔 그 馬ㅣ로다. 亦字不當釋.

〔有萋有且〕 萋하며 且하니 그 旅ㅣ 敦琢하두다.  
○敦琢흔 그 旅ㅣ로다. 有字皆不釋.

〔授之絜〕 絜흠 거슬 授하야.

閔予小子

〔永世〕 永世에 能히 孝호샷다. 一云 기리 世에, 謂終其身也. 或云 世에 永토록 非也.

〔念茲皇祖〕 이 祖를 念호미 庭에 陟降호는 得시 호시니. 一云 祖ㅣ 庭에 降호믈 念호시니. ○祖ㅣ 庭에 降호던 主를 念호시니. ○祖를 念호미 庭에 降호던 得시 호시니. 【按】 首說與傳文合, 餘三說, 不是.

〔繼序思不忘〕 序를 繼호야. ○繼호믈 思호야 忘티 못호리로다. 一云 마를디로다. ○繼호아 非也.

〔朕未有艾〕 艾티 못호리로다.

〔緝熙于光明〕 學호야. ○學이 熙호야 光明호며. ○明에 호며 이 肩을 弼호야.

〔毖後患〕 患이나 懲호가.

〔芟蜂〕 蜂을 芟티 마를디랴다.

〔肇允〕 肇애 桃虫을 允호다니 拚히 飛호니 鳥ㅣ로다.

〔有喰〕 그 飮을 喰호노소니. ○飮에 喰호노소니.

○喰히 그 飮. 後說, 非.

〔實函〕 實이 函호야.

〔有厭〕 厭호 그 傑이며.

〔厭厭綿綿〕 厭厭호 그 苗ㅣ며 綿綿히 그 庶호낏다.

〔有實其積〕 實호 그 積ㅣ.

〔有飮〕 飮이 그 香호니.

〔有椒〕 椒ㅣ 그 馨호니.

〔胡考〕 考ㅣ 寧호낏다. ○考의 寧이로다.

〔匪且〕 且에 且ㅣ 인는 주리 아니며.

〔匪今〕 同上.

〔振古〕 振古로. 一云 古로 振호야. 一云 ㄴ장 古로브터.

〔或來瞻女〕 或來호야 너를 瞻호니. 【按】此句三說俱同. 來者, 婦子之來飮者, 而汝指農夫之在田者, 筐筥饗黍, 乃來飮者之所齋耳. 一說, “所謂汝者, 自詩人而反指來飮者言也”, 然則當云 或來커늘. ○來호매 汝를 瞻호니. 如此則筐筥等物, 固爲飮者所齋, 而於瞻汝尤當. 更詳之.

〔載筐〕 載 곧.

〔其鎛斯趙〕 그 鎛으로 이에 趙호노소니. ○鎛이 趙호두소니 非也.

〔載弁〕 載호 弁이 俵호두다. ○李克仁《釋》, “後人抹此, 而改註曰: ‘弁을 載호미 俵俵호두다’”, 此說, 正是.

〔胡考之休〕 胡考의 休ㅣ로다. 恐當云 考호야 休호두다. 又云 胡考入 休ㅣ로다 非也.

〔有嗣〕 곧 씨곰 嗣호미. 有字不釋.

〔允師〕 진실로 師홀디로다.

〔于以四方〕 四方애 以호야.

〔皇以間之〕 皇호야 卩 間호샷다.

〔敷時繹思我徂維求定〕 이 繹思흠 거슬 敷호야 내가 定을 求홀디니라. 一云 求호미니라.

〔允猶翕河〕 진실로 河를 猶호야<sup>62)</sup> 敷天下를 裒호야<sup>63)</sup> 이에 對호시니 이 周入 命이시니라.

---

62) 호야: 奎章閣本 ‘호샤’

63) 호야: 奎章閣本 ‘호샤’

詩釋義-24b

魯頌

〔薄言駟者〕 잠깐 駟하두다.

〔有驕〕驕이 이시며. 下並同.

〔以車〕車에 以하니. 或云 以호매 彭彭하두다.

〔思馬斯臧〕馬를 思호매 이 臧하두다. 或不釋思字者, 非.

〔歲其有〕歲ㅣ 그 有하리로다.

〔載色載笑〕곧 色하시며 곧 笑하시니 怒ㅣ 아니  
라. ○怒티 아니하야 教하샷다.

〔不告于訥〕訥을 告티 아니하야.

〔懷我好音〕我를 好音으로 懷하낫다. ○우리게  
好音을 보내낫다. ○우리 好音을 懷하낫다. 下二說,  
皆非.

〔克威厥功〕能히 그 功을 威하거늘.

〔皇祖后稷〕皇祖ㅣ언 后稷씨.

〔周公皇祖〕周公과 皇祖도.

〔載嘗〕곧 嘗홀디라.

〔毛魚〕 毛ᄃ야 魚ᄃ며. 一云毛ᄃ魚者, 非也.

〔𦵏羹〕 𦵏로 ᄃ 羹이며. 一云 𦵏ᄃ. 【按】兩說, 皆恐非. 蓋羹雖有肉, 非以𦵏爲羹也, 𦵏與羹當異用也. 當云 𦵏ㅣ며 羹이며.

〔三壽〕 壽로 朋을 作ᄃ샤.

〔朱英綠滕〕 朱ᄃ 英과 綠ᄃ 滕이며.

〔二矛〕 矛과 弓이며.

〔壽胥與試〕 壽ㅣ. ○壽ᄃ야 서르 다뭇 試ᄃ며.

〔奄有龜蒙〕 믈득. ○드되여. ○다 蒙을 뒤. ○奄, 覆也, 大有餘也, 取也, 同也, 此釋, 恐非. 奄字, 第三說近是.

詩釋義-25a

## 商頌

〔猗與〕 猗 翕다 那 ㅎ니다.

〔綏我思成〕 我를 綏호되 思 ㅎ야 成 ㅎ니로 ㅎ샷다. ○成 ㅎ요므로 ㅎ샷다. 一云 내 思로 成호믈 綏 ㅎ샷다. 此與‘安我以’之以字意不叶.

〔我有嘉客〕 우리 有 ㅎ 嘉客이.

〔自古在昔〕 古로브터 네 이쇼매 民이 作 ㅎ을 두니.

〔有恪〕 有字, 一釋, 一不釋.

〔既載〕 清酤를 載 ㅎ니.

〔賚我思成〕 同上.

〔和羹〕 和 ㅎ 羹이.

〔綏我〕 我를 綏호되 壽로 ㅎ야.

〔湯孫之將〕 孫의 將이니라.

〔正域〕 더 四方애 域을 正 ㅎ시니라.

〔方命〕 方으로. ○方애 后를 命 ㅎ샤.

〔肇域〕 四海예 域을 開 ㅎ얏도다.

〔景員維河〕 景에 員호얏는 河에. ○景으로 員호.

〔長發〕 그 祥이 發호미. ○發컨디 長호도다.

〔立子生商〕 子를 立호야 商을 生호시니라.

〔桓撥〕 桓으로. ○桓호야 撥호시니.

〔百祿是遹〕 祿이 이에 遹호낏다.

〔載旆〕 旆를 載호샤.

〔有截其所〕 그 所를 截게 호시니. 一云 所를 截호시니. ○截호야 그 所에 호시니. 第三說, 非.

〔歲事來辟〕 辟에 來호야. 此, 恐非也.

〔有嚴〕 嚴호미 이시니.<sup>64)</sup>

## 追錄

〔陶復陶穴〕 陶에 호고 復호 陶穴. ○李曰: “陶호고 復에 陶호 穴.” ○陶에 復陶호 穴. ○陶호고 復호고 穴을 호야. ○鄭氏謂陶其土而復之, 陶其壤而穴之. 【今按】 本註, 陶, 窖竈也, 復, 重窖也, 穴, 土室也. 據此則陶復皆窖竈之名, 但有單重之異耳. 穴則乃土室之名, 非有干於窖竈之事, 而說者, 一云 復호 陶

64) 有嚴……이시니 : 奎章閣本에는 〔歲事來辟〕 앞에 있다.

穴，一云 復애 陶호 穴，一云 陶애 復陶호 穴，一云 陶호고 ㅅ 陶호 穴<此說見上>，皆若以土室爲窖竈所成之物。或以三者爲一物，或以爲二物，殊不可曉。此所引鄭氏，不知爲何人，而其言分土壤爲二之說，尤不可信也。滉謬說已見於前，間者又得一《釋義》，所云如右紛紛無定。乃追緣其說而論之如此。蓋此句可疑者，只在下一陶字之複出。然以事理度之，不過爲土室略倣窖竈之狀，故謂之陶穴耳，豈如說者繆亂之云乎？

## 書釋義

書釋義-1a

### 堯典

〔曰放勳〕 니르겐덴. ○닐온 放ᄃᆞ신 勳이시니.

〔以殷〕 씨곰 殷인.

〔義仲叔和仲叔〕 或官之高下, 或人之長少.

〔註 尺有五寸〕 三萬里之說, 詳《理學類編》.

〔以閏月〕 閏月을 씨 ᄃ야사. ○씨 月을 閏ᄃ야사.

此, 誤.

〔若時〕 時謂皇·帝·王·伯之時.

〔方鳩〕 보야호로 鳩ᄃ야.

書釋義-1a

## 舜典

〔乃命以位〕 非天子之位, 乃下文百揆等位.

〔愼徽〕 五典을 愼히야 徽히게 하신대. ○徽하라 하대. ○徽하신대. 恐當從初說.

〔讓于德弗嗣〕 德을 嗣티 못하리로다 하야. ○다當作라 讓하시나<sup>1)</sup>. ○德을之說, 非也. 當云 德이 嗣티 못云.

〔在璿璣玉衡〕 璿으로 한 璣를 玉으로 한 衡으로 察하샤.<sup>2)</sup>

〔同律〕 律로. ○律와 度와 量과 衡을 同히시며.

〔四朝〕 네 고대 朝하느니. ○네 가지로. ○네 번. 此說, 非.

〔敷奏以言〕 敷하야 奏호되. ○奏케 하샤되 言으로써 하시며. 【按】 此當云 敷하야 奏호되 言으로써 하게 하시며.

1) 하시나 : 奎章閣本 ‘하신대’

2) 在璿璣……察하샤 : 奎章閣本에는 〔讓于德弗嗣〕 앞에 있다.

《象以典刑》 象호되 典刑으로써 호샤되. ○刑으로써 象호샤되.

《流宥》 流로 五刑을 宥호시며.

《肆赦》 肆호야 赦호시고.

《賊刑》 賊호는 刑으로 호샤되. 或云 賊홀.

《四罪》 四를 罪호신대. ○네 곧으로. ○네 가지로.

《四目》 四方에 目으로. ○四方의 目을. ○據小註, 後說, 是.

《食哉惟時》 食은 時로 홀디니. ○食이 時니. 後說 未盡.

《阻飢》 飢에 阻호릴식. ○阻애 飢호릴식. 此說, 非.

《在寬》 寬애 이서 호라. ○寬을 뒤 호라 非也.

《寇賊姦宄》 寇호며 賊호며 姦호며 宄호릴식. ○寇賊이 姦宄호릴식. 疑前說是. 註, 在外在內, 或云: “心之内外”, 或云: “都之内外”, 心内外之說, 非也.

《五宅三居》 五宅을 세 고대 居홀디니.

《直溫》 直호되. ○호고. ○直호니란 溫호며. 下同.

〈剛〉 헝고.

〈虐〉 이 업게 헝며.

〈簡〉 헝고.

〈傲〉 ㅣ 업게 호리니.

〈惟允〉允커사 헝라.

〈陟方乃死〉方애陟헝야死헝시니라<sup>3)</sup>.

---

3) 헝시니라 : 奎章閣本 ‘헝시다’

## 大禹謨

〔敏德〕 德에 敏히리이다.

〔爲天下君〕 天下에 君이 되게 하시니이다.<sup>4)</sup>

〔德惟善政〕 德은 政을 善히 거시오.

〔正德〕 德을 正히며.

〔利用〕 同上. ○利케 하며 厚케 호미.

〔戒之用休〕 戒히야 써 休케 하시며<sup>5)</sup>. ○戒호되  
休로써 하시며<sup>6)</sup>. ○本註, 戒諭而休美之, 當從前說,  
方叶而字之字. 文勢下同.

〔勸之以九歌〕 此則當曰 勸호되 九歌로써 하사.

〔地平天成〕 地ㅣ 平히야 天이 成히야.

〔念茲〕 이를 念히야두 여기 이시며. 下同. ○念흠  
두. 此說未盡.

〔期于予治〕 予를 治에 期히니. ○期호되 내게 治  
로 호미니. 後說, 非是. ○刑히야 無刑에. ○刑을.

4) 君이……하시니이다 : 奎章閣本 ‘君을 사르시니이다.’

5) 히시며 : 奎章閣本 ‘히며’

6) 히시며 : 奎章閣本 ‘히며’

〔無稽〕 稽함 업슨.

〔愼乃有位〕 네 잇는 位를 愼하야. 當云 둔.

〔蔽志〕 志를 蔽하고자 龜에.

〔卜不習吉〕 卜은 習吉커사 아니하느니라. ○卜은 習吉티. ○吉을 아니하느니라.

〔民棄不保〕 民이 棄苗君하야 不保. ○苗君이 民을 棄하야. 此說, 甚謬.

〔班師〕 師를 班하고.

皋陶謨

〈愼厥身修〉 愼<sup>ㅎ</sup>야 그 身을 修<sup>ㅎ</sup>며. ○그 身을 修<sup>호</sup>되 愼<sup>ㅎ</sup>며. ○그 身을 愼<sup>ㅎ</sup>야 修<sup>ㅎ</sup>며. 【按】恐當云 身은 修<sup>호</sup>를 삼가<sup>ㅎ</sup>며.

〈思永〉 思를 永<sup>ㅎ</sup>며.

〈邇可遠〉 邇로 可<sup>히</sup> 遠<sup>호</sup>미. ○邇로서 可<sup>히</sup> 遠에 호미. 後說, 太冗.

〈亦行有〉 亦<sup>컨</sup>댄 九德이 잇느니. ○亦行애 九德이.

〈亦言〉 亦<sup>컨</sup>댄.

〈載采采〉 采采를 載<sup>호</sup>미니이다. ○載<sup>호</sup>매 잇느니이다. 【今按】兩說, 皆未穩, 當云 采采를 載<sup>호</sup>느다 홀디니이다.

〈寬而栗〉 寬<sup>호</sup>고<sup>7)</sup> 栗<sup>ㅎ</sup>며. 下同.

〈彰厥有常〉 彰<sup>호</sup>고 常을 두미.

〈浚明有家〉 有家를 浚<sup>ㅎ</sup>야 明<sup>호</sup>리며. ○有家에서

---

7) 寬<sup>호</sup>고 : 奎章閣本에는 뒤에 ‘○恐寬<sup>호</sup>되’가 있다.

浚<sup>ㅎ</sup>야 明<sup>ㅎ</sup>며. ○浚明<sup>ㅎ</sup>야 家를 두리며 大誤.

〔撫于〕 五辰을 撫<sup>ㅎ</sup>야.

〔無教逸欲有邦〕 逸欲으로 有邦을 教티 마르샤.

〔萬幾〕 幾 1 萬이니이다.

〔和衷〕 衷을 和<sup>ㅎ</sup>쇼셔. ○和케 <sup>ㅎ</sup>쇼셔.

〔五章〕 五로 章. 五用同.

〔天聰明自我民聰明〕 天의 聰明이 우리 民의 聰明으로 自<sup>ㅎ</sup>며. 下同. ○天의 聰明이 우리 民으로 自<sup>ㅎ</sup>야 聰明<sup>ㅎ</sup>며. 下同. 【今按】此後說，人多從之，詳其文義，恐不然也. 蓋傳文於民聰明·民明畏，只以民之視聽·民之好惡，換面改頭說過，而其下方有以爲聰明·以爲明畏之言. 人遂誤認民聰明·明畏，亦作天之聰明·明畏看. 若只據傳文而觀之，似順而有理，奈本文語脈不如此何耶？竊考傳文，民之視聽，卽是民聰明之謂，民之好惡，卽是民明畏之謂. 其曰：“以爲聰明，以爲明畏”，乃再掇上文天聰明·天明畏字，演暢其辭而結殺之耳，非牽拽民聰明·民明畏而歸之於天，如說者之云也. 〈泰誓〉曰：“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其言正如此同一句法，而其小註，朱子曰：“天豈有耳目以視聽？只是自民之視聽，便是天之視聽.” 今以此

語看此傳文，所謂自民之視聽，卽此民視聽·民明畏也，便是天之視聽，卽此以爲聰明·以爲明畏也。其不可以屬民者，轉以屬之於天，彼此曉然，而說〈泰誓〉之文，亦有依此例以釋者，皆非也。夫以天聰明對民聰明，天明畏對民明畏，天視·天聽對民視·民聽，以言天人無間之理。其文平易明白，少無側僻難曉之意，故今人乍讀此數句，略綽領會者，無不得其本意。及讀傳文，到換面說處，爲其眩惑，遂鑿爲此說，使天得兩聰明·明畏，而民不得一焉，其於視聽亦然。其文亦仄險晦澁，而失其正意，自誤而誤人，惜哉。或曰民之視聽，固可謂之聰明，民之好惡，豈可謂之明畏？明畏乃在上位而賞罰人者之爲，非可稱於民也。曰不然，此所謂民，對天而言，則豈獨下民之謂？自天子以下，皆在其中。故新安陳氏亦曰：“此因上文天叙·天秩·天命·天討而申言天人合一之理”，此可見民字通上下而言之也。

〔底可績〕 底호면 可히 績호리로다. ○可히 績호매 底호리로다. 前說，是。

書釋義-3a

## 益稷

〔懋遷有無〕 懋<sup>호</sup>야 有<sup>을</sup> 無<sup>에</sup> 遷<sup>호</sup>야.

〔作父〕 父<sup>를</sup> 作<sup>호</sup>니이다. ○父<sup>호</sup>야 作<sup>호</sup>니이다者  
非.

〔安汝止〕 네 止<sup>예</sup>. ○止<sup>를</sup> 安<sup>호</sup>샤.

〔惟幾惟康〕 幾<sup>를</sup> 惟<sup>호</sup>며 康<sup>을</sup> 惟<sup>호</sup>며. 惟, 思也.

〔臣鄰〕 臣<sup>이</sup> 鄰<sup>호</sup>며 鄰<sup>호</sup>느니 臣<sup>이니</sup>라. ○臣<sup>이</sup>  
鄰<sup>이며</sup>.

〔作會〕 會<sup>를</sup> 作<sup>호</sup>며.

〔面從〕 面<sup>호</sup>야.

〔庶頑讒說〕 모든 頑<sup>흔</sup> 讒說<sup>이</sup>. 恐當云 頑<sup>이며</sup>.

〔侯〕 로써.

〔並生〕 코져 <sup>호</sup>야니.

〔工以納言〕 工<sup>이</sup> 納<sup>흔</sup> 言<sup>으로</sup>.

〔帝臣〕 이 되코져 <sup>호</sup>리니.

〔日奏〕 日<sup>로</sup> 罔功<sup>애</sup> 奏<sup>호</sup>리이다.

〔弗子〕 弗子愛也.

〔各迪〕 各各 迪ᄃ야 功이.

〔鳴球〕 를 戛擊ᄃ며.

〔搏拊〕 音撫。○拊，音撫而今俗撫字，皆音𠂔，故亦讀拊爲𠂔，是不知撫字方武切。當爲𠂔音，則拊亦當讀曰𠂔，乃可。

〔惟時〕 時로 ᄃ며 幾로 ᄃ 거시라 ᄃ시고.

〔註 櫟〕 力追切，山行所乘也。又力詭切，扁榼也。

〔輜〕 丑倫切，棺車也。던.

〔橈〕 丘喬切，亦作輶。又子絕切。或音𦉳，非。

〔𦉳〕 丁雉切，紕也。紕，縫也。或音系者，誤也。

〔考擊〕 量輕重而擊也。【今按】此說，非也。考亦扣擊之義，今作較考之考，可乎。

書釋義-3b

## 禹貢

【敷土<sup>8)</sup> 註 九野】 九，天之野中央與八方。【今按】此說，非也。《周禮》，“保章氏以星土辨九州之地，所封封域，皆有分星，以觀妖祥。”鄭氏註，“星所以主土也，如星紀 吳越也·玄枵 齊也之類”，則九野乃九州之野。

【惟白壤】 白ᄒ고 壤이오.

【衣服】 以衣服貢也。又著衣服而來貢也。【今按】楊州島夷卉服，厥篚織貝，註，“以卉服來貢，而織貝之精者，則入篚。”雍州織皮，崑崙云云，註，“三國皆貢皮衣，以是例之。冀之島夷皮服，亦以是來貢也。”

【夾右】 右로 夾ᄒ야.

【賦貞】 賦ᄒ 貞ᄒ두소니.

【厥貢漆絲】 此物亦盛於篚也。【按】註，林氏曰：“有貢又有篚者，所貢之物入於篚也”，故此云：“漆絲，亦盛於篚。”然漆非盛篚之物，其說不通。林氏之意，

---

8) 敷土：奎章閣本‘冀州’

乃謂筐亦貢也。但以所貢之物盛於筐，故稱厥筐耳，非貢外別有筐也。然則林氏所謂所貢之物，卽指織文之盛於筐者，解者誤以謂厥貢之漆絲也歟。

〔作牧〕 牧을 作하니.

〔赤埴墳〕 赤하고 埴은 墳이니. 當云 赤하고 埴하고 墳하니.

〔註 埴〕 音先，打瓦也。

〔玄織縞〕 玄과 織과 縞ㅣ로다. 玄은 非也.

〔荷<sup>9)</sup>〕 音柯。

〔註 罡〕 音剛。

〔旅平〕 平하고 旅하시며.

〔織皮〕 織이며 皮괘로다.

〔卽叙〕 叙에 卽하두다.

〔東匯澤〕 匯하야 澤이 도외야.

〔庶土〕 ㅣ.

〔交正〕 하거늘.

〔咸則〕 다 三壤으로 則하샤.

〔註 槎木〕 除木也。

〔錫土姓〕 土와 姓을 錫하시다.<sup>10)</sup>

---

9) 荷：奎章閣本‘荷’

〔甸服〕甸으로 服ᄃᆞ니. ○甸服, 釋之則如此, 但不當釋.<sup>11)</sup>

〔賦納總〕賦를 總을 納ᄃ고.

〔納秸服〕服을 納ᄃ고. ○服字當不屬秸字爲解, 當云 秸을 納ᄃ며 服ᄃ고. 服通前二者.

〔蔡〕《大廣益會》作𦵏, 桑割切, 放也. 蔡<sup>12)</sup>, 蔡叔, 是也.

---

10) 錫土姓……錫ᄃ시다 : 奎章閣本에는 〔註 槎木〕앞에 있다.

11) 甸服……但不當釋 : 奎章閣本에는 〔蔡〕앞에 있다.

12) 蔡 : 奎章閣本 ‘𦵏’

甘誓

《威侮五行》 質具於地之五行. ○五行之理, 無不包, 獨云質具, 非也.

《左不攻》 左 | 左에서 攻티 아니면. ○左 | 左를.

《馬之正》 馬의 正으로 아니하면. ○馬를 正으로. 13)

《孥戮汝》 너를 戮호되 孥조차 호리라. ○너를 孥조차 戮호리라. ○孥하야 戮호리라. ○當從第二說.

---

13) 馬之正……正으로 : 奎章閣本에는 《左不攻》 앞에 있다.

書釋義-4b

## 五子之歌

〔盤遊無度〕 遊를 無度애 盤호야. ○盤遊호요를 無度히 호야. 當云 遊에 盤호믈 無度히 호야.

〔不可下〕 下호미 可티 아니호니라. 下者, 遺棄之意.

〔一能勝予〕 一이 予를 勝호리라 호노니. ○흔골 마티. 此, 非.

〔三失〕 只云 三失이어니 不分釋. 釋則云 세 가지로.

〔不見是圖〕 見티 아니흔 제 이에 圖홀디니라.

〔訓有〕 訓에 有호시니. ○두시니 恐非.

〔乃底滅亡〕 底호두다. 當云 底호눅다.

〔關石和鈞〕 關호는 石과 和호는 鈞. ○關홀 和홀. ○關호 和호. 第三說, 是.

〔註 六典〕 治·教·禮·政·刑·事.

〔八則〕 法則·祭祀·廢置·爵位·貢賦·禮儀·刑政·田役.

書釋義

〔折閱〕 折흔 거슬閱하다.【按】《荀子》,“良賈不爲折閱不市.”折閱,損其所賣物價也.

書釋義-4b

胤征

〔明徵定保〕 明히 徵흔디라. ○徵하야 定히 保할  
디니. ○明히 徵하야 定保할 거시니라. 後說, 是.

〔先時〕 先, 去聲.

〔天吏逸德〕 天吏ㅣ오 逸흔 德은. ○吏의.

湯誓

〔敢行稱亂〕 敢히 亂을 稱하야 行하느 주리 아니  
라.

〔其如台〕 그 내게 엇다랴 하느니.

〔率遏〕 率하야. ○다 衆力을 遏하며. 率割夏邑·率  
怠不協之率, 皆訓다.

書釋義-5a

仲虺之誥

〔有慙德〕 慙德을 두샤. ○慙ᄃᆞ 德을 두샤. ○德에  
慙호믈. 最後說, 未穩.

〔生民有欲〕 民을 生호매 欲이 이시니.

〔民墜塗炭〕 民을 炭에 墜 非也.

〔矯誣上天〕 上天으로 矯誣ᄃᆞ야. ○上天을 矯誣ᄃᆞ  
야. ○矯誣호되 上天으로 ᄃᆞ야. 當從第一說.

〔簡賢〕 賢을 簡ᄃᆞ고. ○簡ᄃᆞ야. 此, 非. 勢에 附  
ᄃᆞ리. ○ᄃᆞ느니.

〔肇我邦〕 비로소 우리 邦이.

〔言足〕 言컨댄 聽聞에 足호미썻녀.

〔懋官〕 官으로 懋ᄃᆞ시며.

〔用人惟己〕 人을 用호되 己ᄃᆞ티 ᄃᆞ시며. ○己로  
ᄃᆞ시며. 後說, 是. 或曰 惟思也, 非.

〔彰信〕 彰ᄃᆞ야 信ᄃᆞ시니이다.

〔垂裕後昆〕 後昆에 垂호미 裕ᄃᆞ리이다. ○兄謂之  
昆, 父後爲昆.

湯誥

【降衷】此，未發之衷，與中庸之中·執中不同。

【若有恒性】 若 하야 恒性이 이시니. ○若 흔. ○두시니. 第一說，是。

【克綏厥猷】 能 히 그猷에 綏 하느니사. ○하리사 后니라. 【今按】傳云：“必待君師之職而後能使之安於其道也。”此言能使民安於其道，其責惟在君師而已，非謂能使民安於其道者，乃可謂君師也。故此句之吐，當<sup>14)</sup>曰 克綏厥猷는 惟后니라，可也。今吐曰 克綏厥猷사 惟后，故釋者之說，亦依是而云云。此非說者之誤，乃當初訓吐之誤也。若此之類，泛論其語，似不大相遠，故人皆忽之，不深致思。若精究其旨歸，則吐曰은者，謂克綏厥猷之責，惟在於君師，吐曰사者，謂克綏厥猷之人，始稱為君師。雖皆歸重君師之辭，然一以君道責成言，一以君道成效言。詳其本語，實是責成之意，非以成效言也。且傳文雖先君師後綏猷，倒其句

---

14) 當：奎章閣本‘當改’

法，然사吐之意，正在於君師之職之下，非在於安於<sup>15)</sup>其道之後，說者特未察於此耳．今當改從은吐，而釋曰  
能히 그 猷에<sup>16)</sup> 綏케 하느니는 오직 后ㅣ시니라．  
又降衷，天命之性，綏猷，修道之教．

〔並告〕 다 辜를 祗에 告하니．

〔請罪〕 罪를 有夏에 請하고．○夏를 請罪하고．

〔玆朕未知〕 이히．○이런들로 朕이 上下에 戾를  
獲호몰 아디 못하야．

〔爾有善〕 爾ㅣ 善을 두면．【按】善이 이시면．此  
亦無妨．

---

15) 於：奎章閣本에는 없다．

16) 에：奎章閣本 ‘를’

## 伊訓

〔奉嗣王〕 奉王之命. 一云 奉王. ○奉命之說, 非也.

〔我有命〕 우리 有命의게. ○命을 된느니게.

〔爲下克忠〕 如使伊尹五就桀<sup>17)</sup>之類. 【按】此說不甚遠, 然不獨此.

〔訓于蒙士〕 猶言蒙士인 저기 訓히다.

〔註 昏墨賊殺〕 昏과 墨과 賊이 皆殺刑也. 【按】《左傳》, “昭十四年, 惡而掠美爲昏云云, 殺人不忌爲賊”, 則此說, 是.

〔罔小〕 小타 마를디어다.

〔罔大〕 大커사 마를디어다.

---

17) 桀: 奎章閣本 ‘湯’

書釋義-6a

## 太甲上

〔自周有終〕 周로 自하야. ○브터 終을 둔대. 【今按】依蘇氏之說，訓當如此. 然自字，由君身而對相臣言，恐當云 스스로 周하야.

〔愼乃儉德〕 此非節儉之儉，乃儉約之儉，不侈然以自放之謂. 【今按】二者所爭，毫末耳，不大遠也.

〔若虞機張〕 虞ㅣ 機ㅣ 張커든. ○機를 張하얏거든.

〔往省括于度〕 往하야 括이 度애 호믈 省흔 則釋호미 곶뜬니. ○往하야 括을 度애 省흔 則釋호미 마뜬니. ○보내야 括이云云. 【今按】上二說，皆是，而第二說，尤便穩. 後一說所謂보내다者，謂送目也，此說，誤矣. 往字本非身往，況可訓送目乎？蓋既機張乃省括，既爲一事，又爲一事. 其間似有往意. 非自此往彼之謂，不可便說這箇字.

〔欽厥止〕 止를 欽하샤.

〔習與成性〕 習하야 다뭇 性이 成하노소니. ○習

으로 性이 成호소니. 此依傳說. ○習호야 性으로  
다못. ○習이 性으로 다못 成. 此依陳說, 無所不可.

〔營于〕 桐애 宮을 營호야.

〔密邇先王〕 王의 密邇케 호야 그 訓호야.

〔無俾世迷〕 世에 迷티 아니케 호리라. ○世도록.  
○世로者, 非也.

〔克終允德〕 能히 允德으로 終호시다. ○允德을  
終호시다. ○允德에 終. ○能히 只츠매 德을 允호시  
다. 【按】 第四說, 或以爲誤, 乃是正義.

書釋義-6b

## 太甲中

〔拜手稽首〕 手로 拜ᄃ며 首를 稽.

〔圖惟厥終〕 그 終을 圖ᄃ노이다. ○圖惟ᄃ노이다.

〔子惠〕 子ᄃ티 惠ᄃ신대<sup>18)</sup>.

〔並其有邦〕 곧와 그 邦을 둔.

〔視遠聽德〕 視를 遠히 호ᄃ 明을 思ᄃ시며 聽을 德으로 호ᄃ 聰을 思ᄃ시면. ○ 멀리 視호ᄃ. ○ 遠을 視호ᄃ 德을 聽호ᄃ. 【今按】 當從第一說. 舊嘗依此說, 今以本文及傳反覆參究, 蓋視遠聽德, 其事也, 思明思聰, 其用工處也. 伊尹 舉其事, 而指其用工處, 以告太甲. 傳文則由用工以及其事, 故似相反而實一意也.

---

18) ᄃ신대 : 奎章閣本 ‘ᄃ샤’

## 太甲下

《享于克誠》 克誠에. ○能히 誠하느 다했다 享.

《惟難》 難을 思하시며. 惟危同. 하소서. ○難하나라 하야 惟하시며 太拘.

《愼終于始》 終을 愼호되 始에<sup>19)</sup> 하소서. 與〈仲虺之誥〉異, 彼則卽位之初, 此則改過之初.

《有言逆于汝心》 言이 汝心에 逆호미 잇거든. 下同. 【今按】始<sup>20)</sup>此說語順, 而不覺其非. 然有字不在逆字·遜字上, 而在於言字上, 恐不可如此說. 當云 有言이 네 心에 逆하거든. 有字意, 止於言字, 不及於逆·遜等字.

---

19) 예 : 奎章閣本 ‘예’

20) 始 : 奎章閣本 ‘如’

書釋義-7a

## 咸有一德

〔告歸〕 告<sub>ㅎ</sub>야 歸<sub>홀</sub>식.

〔陳戒于德〕 德으로 陳<sub>ㅎ</sub>야 戒<sub>ㅎ</sub>니라. ○戒를 陳.

〔動罔〕 動<sub>흔</sub> 玆<sub>마다</sub>. ○動호매. 下是.

〔不僭在人〕 人<sub>에</sub> 이쇼미 僭<sub>티</sub> 아니호믈<sup>21)</sup>. ○僭<sub>티</sub> 아니<sub>ㅎ</sub>야 人<sub>에</sub> 이쇼믈.

〔惟賢才〕 惟字不釋. 惟其人之惟同, 惟和惟一亦同.

〔爲上爲德〕 上을 爲<sub>ㅎ</sub>얀. ○爲<sub>ㅎ</sub>야 德을 爲<sub>ㅎ</sub>고.  
○上을 爲<sub>호</sub>디. ○爲<sub>호</sub>므론. 爲下同. 【按】四說皆是, 而<sub>ㅎ</sub>얀爲長.

〔德無常師〕 德은 常師 | 업서 善에 主<sub>호</sub>미 師 |  
ㅁ 善은 常主 | 업서 能히 一호매 協<sub>ㅎ</sub>느니라.  
○協홀디니라. ○協호미니라. 第三說, 不是.

〔註 精一〕 一本萬殊處, 擇之貴乎精, 卽所謂惟精也; 萬殊一本處, 融之貴乎一, 卽所謂惟一也.

〔註<sup>22)</sup> 祧毀〕 毀非破毀也, 重塗改簷耳.

---

21) 아니호믈 : 奎章閣本 ‘아니혼’

## 書釋義

《不獲自盡》非謂其失所，謂不得自盡其善也。

《註<sup>23)</sup> 取人爲善》 取人호되<sup>24)</sup> 先自爲善.【今按】  
此說，大誤，卽《孟子》取諸人以爲善之意。

《註 篇中言一者三》 精粹無雜者，咸有一德，是也；  
終始無間者，終始惟一，是也；該括萬善者，協于克一，  
是也.<sup>25)</sup>

---

22) 註：奎章閣本에는 없다.

23) 註：奎章閣本에는 없다.

24) 호되：奎章閣本 ‘호되’

25) 篇中……是也：奎章閣本에는 《註 祧毀》 앞에 있다.

書釋義-7b

盤庚上

〔其如台〕 그 내게 엇데 흐려노 호미 업다 흐는다. ○내게 엇데료 흐는다. ○내게 엇더료 흐는다.

【今按】第一說雖是，而兼說本文所無之無字，未便。當從第二說。若第三說엇더료，則爲無妨之義，不是。

〔有服〕 指遷都言。

〔底綏〕 方애 綏를 底히시니라.

〔以常舊服〕 던던흔 넷 服으로. ○常 넷 服으로.

〔猷黜〕 네 乃心を 黜호믈 猷히야.

〔播告之脩〕 脩홀 事를 播히야 告커시든. ○播告히야 脩. 上說，是。

〔若網在綱〕 綱이 綱이 이셔사. 【按】三《釋》同此，然詳在綱之在字，與有字不同。恐當云 綱애 이셔사. 更詳之。

〔罔有黍稷〕 黍稷이 잇디 못히리라. ○두디 못히리라. 越其不釋。

〔不和吉言于〕 和吉을 百姓의게 言티 아니흐느니.

書釋義

○和吉티 아닌 거슬 言하느니. 後說, 是.

〔人惟求舊〕 人은 舊를 求하고 器는 舊를 求티 아니홀디라. ○아니홀 거시라 新을 홀디라 하두다.

〔胥及〕 서르 及하야.

〔作猷〕 作하느 猷.

〔伐厥死〕 그 死로 伐하고.

書釋義-8a

盤庚中

〔勿褻〕 褻티 마자 햏야. ○王庭에서 褻티 마자.

〔殷降大虐〕 殷에 大虐을 降햏야늘. ○殷히 盛也. 此, 非也.

〔曷弗念我古后之聞〕 汝는 엇데 我를 古后의거기 聞흔 事를 念티 아닌뇨. ○내의 后 聞으로. ○듣는 주를 念티 아닌뇨. ○엇데 우리 古后로 聞호를 念티 아니. ○三說皆不甚的. 恐當云 汝는 엇디 我를 古后의 聞햏는 일로 念티 아닌뇨. 所云古后의聞者, 非古后之所聞, 乃所聞古后之事也.

〔康共〕 康을 共햏요를 깃게니.

〔欽念以忱〕 欽念햏야. ○念호되 忱으로써 햏야. ○忱으로써 欽念햏야. 後說, 非.

〔汝何生〕 네 므슴 生이 上에 有. ○엇디. ○엇던. 皆不如上說.

〔用懷爾然〕 써곰 爾를 懷햏애니라. ○懷햏는 연괴니라. ○연고之說, 似非也.

《不生生》 生을 생하야 나 一人猷로 同心티 아니  
하면.

《汝罔能迪》 能히 免홀 道ㅣ 업스리라. ○能히 迪  
이 업스리라. ○迪호미. ○迪홀 디. 恐當從第二. 第  
三說 能히 迪디 못하리라. 此亦好.

《汝有戕》 汝ㅣ 戕이 汝心에 이시면.

《暫遇姦宄》 暫싼 遇호매 姦하며 宄하리. ○遇하  
야. ○遇ㅣ. ○遇호미 姦이며 宄ㅣ 잇거든. 後說未  
善. 宄, 音귀.

《往哉生生》 往하야 生을 생하라.

書釋義-8b

## 盤庚下

〔罔罪爾衆〕 爾衆을 罪티 아니호리니. ○罪호미 업스니.

〔協比讒言〕 協比호야 予一人을 讒言티 말라. ○人의게 讒言티 말라. ○予一人을 協比호야 讒言티 말라. ○予一人에 言을 協比티 말라.

〔亂越〕 亂을. ○亂이 我家애 越커시늘.

〔用永地〕 邑에 地를 기리호라.<sup>26)</sup>

〔弔由靈〕 靈을 由호매 弔호며. ○靈에 弔호야 由호며. 後說疑.

〔懋簡相爾〕 懋호며 簡호야 爾를 相혼. 言擇地以遷.

〔敢恭生生〕 恭에 敢호야 生生으로 호야<sup>27)</sup>. ○生을 生호야<sup>28)</sup>. 【按】上說, 是.

〔鞠人謀人之保居〕 人을 鞠호며 人의 居를 保호믈

26) 用永地……기리호라 : 奎章閣本에는 〔亂越〕 앞에 있다.

27) 호야 : 奎章閣本 ‘호며’

28) 호야 : 奎章閣本 ‘호며’

## 書釋義

謀ᄃᆞ니를 叙ᄃᆞ며 欽ᄃᆞ노라. ○鞠人과 謀人으로  
居를 保ᄃᆞ니를.

《生生自庸》 生生으로 스스로 庸을 사므라. ○生  
生으로 스스로 庸ᄃᆞ라.

《式敷民德》 民ᄃᆞ. ○民ᄃᆞ는 德을 式ᄃᆞ야 敷ᄃᆞ야.  
○民德을. ○民에 德을.

書釋義-9a

說命<sup>29)</sup>

〔宅憂諒陰三祀〕 諒陰에 宅憂호믈 三祀호샤. ○憂에 宅호믈 三祀호샤.

〔知之曰〕 知호믈 닐온.

〔稟令〕 稟令호 배. ○稟호야 令호 배.

〔乃審厥象〕 象을 審호야. ○審호야 象호야. 註雖如此, 不可如此釋.

〔若金〕 金이어든 汝를 卬 礪를 作호미 ㄴ트며. 下同. ○金에다 호 디어든. ○金에다 커든 汝를 卬 礪를 作호며. 下同. ○만일 金이어든. ○金 곧거든. 當從第一說.

〔若藥〕 同上而亦主第一說.

〔註 海岱之間〕 有一《釋義》註曰: “頭之中央則毒字屬下句讀, 地名則毒字屬上句讀, 後人抹去頭中央之說.” 蓋此說大謬, 本不足辨, 以其流傳惑人, 故并錄之.

---

29) 奎章閣本 ‘說命上’

〔不惟逸豫〕 逸豫케 하는 주리 아니라. 惟字皆不釋. ○逸豫호려 혼디 아니라.

〔惟衣裳〕 衣裳을 笥에 잇는 제 하시며 干戈를 躬에. ○躬을 省하시.

〔慮善以動〕 慮ㅣ 善커든 때 動하시되 動할때 그時로 하소서. ○그 時를 惟하소서. 【今按】 慮善之訓, 舉世守此. 蓋因傳文‘慮固欲其當乎理’之言也. 然詳此訓意, 似是不涉思度, 聽思慮之自善而後乃動, 非惟傳說之語, 初無此意, 蔡傳之意, 亦不如此. 況既曰: “慮欲當理”, 則豈專不假思, 而俟其自善乎? 故王氏亦有‘審於慮善·審於時宜’之說, 斯可見矣. 故此訓當改之曰 慮를 善히 하야. ○慮ㅣ 善케 하야. 惟字或釋或不釋, 以文勢觀之, 不釋爲當. 王氏雖有審於時宜之說, 非釋惟字.

〔有其善〕 그 善을 둔노라 하면.

〔惟事事〕 事를 事호미 그 備를 두미니 備ㅣ 이서야<sup>30)</sup>. ○備를 뒤사.

〔惟厥攸居〕 그 居홀 바에 하야사. ○居ㅣ 배라아. 恐當云 居흔 바에 하야아.

---

30) 이서야 : 奎章閣本 ‘이서야’

〔王忱不艱〕 王이 忱하야 艱히 너지디 아니하시면. 【今按】 諸《釋》同. 然蔡傳, “王忱信之, 亦不爲難”, 陳氏《雅言》亦曰: “王能誠信之, 行亦非難”, 則不艱二字, 本謂行亦非難事耳, 非謂勿以爲難而力行之意也. 故此句之吐, 當改曰 王忱하시면 不艱이라. 《釋》曰 王이 忱하시면 艱티 아닌디라.

〔若作酒醴〕 醴를 作호미어든 爾ㅣ 麴蘖이며. 下同. ○作홈 곧거든. 下同. 或云 만일에.

〔和羹〕 和흔 羹을.

〔交修〕 여러 가지로 修하야.

〔務時敏〕 務하야 時로 敏하면.

〔允懷〕 允하야.

〔念終始〕 念의 終始를.

高宗彤日

〔越有雉雉〕 雉ㅣ 雉호미 잇거늘. ○雉雉ㅣ 잇거늘. 越不釋. 或云 이에 恐非.

〔典厥義〕 義를 典호느니. ○義예.

〔有永〕 永도 이시며 不永도.

〔註 五峙〕 東靑帝龍, 南赤帝龍, 西方白帝龍, 北方黑帝龍, 中央黃帝龍, 更詳之.

〔王司敬民〕 王이 民을 敬호믈. ○敬호매 司호스니. 當云 호믈.

書釋義-10a

## 西伯戡黎

《不有康食》 康食을 두디 아니하며. ○두디 못게  
하며. ○두디 아니케 하며 天性을 虞티 아니케 하  
며 典을 迪率티 아니케 하느다. ○率하야 典을 迪  
디 아니케 하느다.

《今王其如台》 今에 王은 그 내게 엇디하료 하느  
이다<sup>31)</sup>.

---

31) 하느이다 : 奎章閣本 ‘하느다’

微子

《底遂陳于上》 底<sup>ㅎ</sup>야 드디여. 或不釋. 上에 陳<sup>ㅎ</sup>얏거시를<sup>32)</sup>. 此上下, 以時之上下言.

《罔不小大》 小大ㅣ 아니리 업시. ○아니니 업시. 上, 好.

《草竊》 草에서 竊<sup>ㅎ</sup>며.

《越至》 越字皆不釋.

《無指告予顛隳》 予를. ○내게 隳를. ○隳로 指告티.

《考長舊有位》 考長이 네록 位ㅣ 둔 사름을 拂<sup>ㅎ</sup>는다.

《用乂讎斂》 써 乂<sup>ㅎ</sup>는 거시 讎<sup>ㅎ</sup>야. ○讎로 斂호노소니. ○호미로소니.

《詔王子出迪》 王子의게 出이 道<sup>ㄱ</sup> 주를 詔<sup>ㅎ</sup>노니.

---

32) 거시를 : 奎章閣本 ‘거시늘’

書釋義-10b

泰誓上

〔友邦〕 옛. ○邦인.

〔貫盈〕貫애 盈. ○貫이 盈. ○貫하야 盈하디라.

當從第三說. 貫如罪通于天之義, 貫애者, 非.

〔註 白魚〕 商尙白, 此, 周克商之兆.

〔王屋〕 王宮爲天子象.

泰誓中

〔朋家作仇〕 家마다 朋하야 仇를 作하야. ○仇ㅣ도외야. ○朋하야 家마다. ○家에서 朋하야. ○當從上一說.

〔脅權〕 權을 脅하야.

〔天視自我〕 天의 視ㅣ 우리 民의 視로 自하시며. 此說, 是. ○우리 民으로 自하야 視하시며. 說見〈皋陶謨〉.

〔侵于之疆〕 疆을 侵하야.

〔罔或無畏〕 或도 畏티 아니티 마라. ○저프미 업다 마라. 此二說, 皆是. 或又云 畏티 아니타 마라. ○畏하를 업시 마라. ○畏티 아닐 거시라 마라. 後二說, 非.

〔寧執〕 출하리 執心에. 當云 執호되 敵이 아니라 하라.

書釋義-10b

泰誓下

〔作威〕 威를 作ᄃ야 殺戮으로.

牧誓

〔無晨〕 晨이. ○晨호미 업스니.

〔昏棄〕 昏호야. ○昏으로. 當云 昏호야.

〔厥遺王父母弟不迪〕 그 王父母의 遺호 弟 棄호야  
迪으로 아니호고. ○遺호 王父母의. ○王, 尊稱之  
辭, 大父母也.

〔尙桓桓〕 거의 桓桓호야. ○桓桓을 尙호야. 【今  
按】 下說尙字, 因陳氏‘以節制爲尙’之文而爲說, 非也.  
當從上說.

〔爾所不臯〕 爾ㅣ 臯디 아닐 배면. 【按】 此所字與  
‘予所否’之所似同. 疑當作誓辭而傳無之, 當從訓辭.  
<弗下當有을, 諸本無, 可疑.>

書釋義-11a

## 武成

〔旁死魄〕 겹 魄이 死흔. ○魄이 死흔 겹. 越字不釋.

〔朝步〕 朝애 周로브터 步헝샤. ○步或云: “步輦”, 非也. 只是行字之義.

〔于征伐商〕 征헝야 商을 伐헝시다. ○商을 征伐헝시다. ○가 商을 征伐헝시다. 當從首說. 于征, 如之子于征之類, 于爲語助, 征爲行義. 下二說, 皆不是.

〔筐厥〕 玄黃을 筐예 햏야.

〔位事〕 事를 位호디.

洪範

〔敬用五事〕 敬호되 五事로써 호미오. ○써 호고.  
下皆同. ○五事を 敬하야 用호미오. ○用호고. ○農  
에. 【按】 於農不必別著吐, 義, 亦非.

〔潤下〕 潤호고 下호고. 下同. 恐當云 潤하며 下호  
고.

〔作醎〕 醎을 作호고. ○醎이 도의고.

〔曰恭〕 ㄹ론 恭호미오. 下同. 睿호미니라.

〔作肅〕 肅을 作하며. ○肅이 도외며 恐非.

〔錫汝保極〕 네게 極을 保호믈 錫호리라.

〔惟皇作極〕 皇이 極을 作호시니라. ○極이 도외  
여실시니라.

〔而康而色〕 色을 康하야. ○色이 康.

〔惟皇之極〕 이에 그 皇의 極에 호리라.

〔無虐癘獨〕 癘獨을 虐디 말오 高明을 畏케 호라.  
○高明 점畏. 同上. ○獨을. ○獨이라 하야 虐호고  
明을. ○明이라 하야 畏디 말라. 【今按】 當從首說.

蓋畏者懲戒之謂，屬彼而不屬於己。下說認作畏憚之畏，訓爲自畏，去本意遠矣。

〔既富方穀〕 이의 富게 ㅎ고아 보야호로 穀홀디 니.

〔汝不能使有好于而家〕 네 能히 ㅎ여곰 家애 好케 몬호면 이 人이 이히 그 辜호리라. 而字不釋.

〔無偏無黨〕 偏티 아니호며 黨티 아니호면. ○偏 호미 업스며. 黨同.

〔無有作好〕 好를 作호미 잇디 아니호야. 下同. ○ 好를 作디 아니호야. 如此則有字不釋.

〔會極〕 極에. ○極을.

〔歸極〕 極에.

〔皇極之敷言〕 皇極의 敷호 言이. ○皇이 極으로 敷호. ○敷호야 言이. ○言호미. 當從後說.

〔無有作福作威玉食〕 福을 作호며 威를 作호며 玉食호미. ○食홀 주리 업스니라. ○玉食호미 잇디 몬홀 거시니라. ○호믈 두디 마롤디니라. 不釋有字, 則第一說, 釋有字則第三說.

〔而家而國〕 此等而字, 皆不釋. 或네 家 네 國 然非指武王也. 【按】而字與汝字相類, 恐釋之爲當.

書釋義

《側頗僻》 側ᄃᆞ며 頗ᄃᆞ며 僻.

《曰風曰時》 風과 時로 호미니.

《王省》 王의 省ᄃᆞ 거슨.

《考終命》 命을 考終호미니라. ○考ᄃᆞ야 命을 終.

○考로 命을 終. 下說, 非.

書釋義-12a

## 旅獒

《時庸展親》 時로써 親을 展케 ㅎ시면.

《惟德其物》 그 物을 德으로. ○德이라 ㅎ리이다.  
○德으로 그 物을 ㅎ리이다. 今多從下說, 然上說,  
好.

《盡人心》 心을 盡케 몬ㅎ고 力을 盡케 몬ㅎ리이  
다.

《不役耳目》 耳目애 役디.

《惟貞》 貞히 ㅎ쇼셔. ○貞으로.

《志以道寧》 志를 道로써 寧ㅎ시며.

《不矜細行》 細行이라 ㅎ야. ○細行애 矜티 아니  
ㅎ시면.

金滕

〔自以爲功〕 스스로 베풀 事를 사쁘샤. ○스스로  
흐을 功이라 햏샤. 言自以爲己所當爲之事, 有何不  
可, 必曲爲之說. 當從首說.

〔冊祝〕 冊애 祝햏야.

〔卽命〕 元龜애 卽햏야 命호리니.

〔一習吉〕 흔 굴곤티 吉이 習거늘. ○흔가지로.

〔罔害〕 害ㅣ 업스리로니.

〔茲攸俟〕 이 俟햏던 배니.

〔所偃〕 禾也.

書釋義-12b

## 大誥

〔洪惟〕 洪히 惟 혼뉘.

〔予惟往〕 予ㅣ 往 호믈. ○往 은. ○一 《釋》曰：“自今而往也”，如此則當云 往 언.

〔敷賁〕 敷 하야 賁 하며. 【今按】 諸《釋》同此. 然傳，“修明其典章法度”，修明卽所以釋敷字，典章法度卽所以釋賁字，當云 賁 을 敷 하며. 夏氏所謂敷布賁飾之事，文義可見.

〔卽命〕 命에 卽 혼뉘. ○卽 하야 命 혼뉘. 此說，非. ○命非人命龜之命，乃龜命吉凶之命.

〔越茲蠹〕 이제 미처 蠹 하낏다. 或云：“越字不釋，則何云미처”. 或說，非.

〔小腆〕 저기 腆 하니.

〔今翼日〕 今으로 日에.

〔越予小子考翼〕 밋 予의 小子와 考ㅣ 翼 하느니 도. 據註中與字，當從此說. 一云 予小子의 考ㅣ 恐非.

〔天棐忱辭〕 天이 棐호되 忱으로 ㅎ는 辭. ○天이 忱으로 棐흔 辭는. 首說, 是.

〔圖功攸終〕 前寧人의 圖功에 終홀 배 아니호리오. 【今按】此吐與釋, 皆非. 當改吐曰 前寧人에 圖功攸終호리오. 《釋》曰 前寧人에 功을 終홀 바를 圖되 아니호리오. 陳氏以圖事·圖功對言, 則圖字似當屬前寧人看, 然傳, “曷其不於前寧人, 而圖功所終乎”, 下一而字於圖功所終之上, 其文義自當, 如今按說.

〔其逝〕 言往伐武庚.

〔若考作室〕 若字, 或云 만일, 或不釋. 下若兄同.

〔既底法〕 法을 底호얏거든.

〔厥考翼〕 그 考ㅣ 翼호느니는.

〔乃有友〕 든는 友ㅣ. 此說, 未穩. 考의 友ㅣ. 有字不釋不妨.

〔註 四國〕 武庚·三叔

書釋義-13a

## 微子之命

〔崇德象賢〕 賢을 象홀식. ○象호 賢일식. 詳傳文言字以下之意, 乃正指微子而言, 恐當改吐曰 賢호야 釋賢을 象호야.

〔律乃〕 네 民을 法다이 호야. ○民의게 律이 도외야. 當云 民을 律호야.

〔享德〕 德으로 享호야.

〔作式〕 萬邦이 式을 사마.

康誥

《題註 布茲》 茲，草名，所以爲席也。

《見土》 朝見하야 土하더니.

《咸勤》 다 勤하느다 하샤.

《丕遠惟》 머리 惟하야.

《宅心》 心を 宅하야. ○하며.

《弘于天》 天을 弘하야.

《不廢在》 王의게 잇는 命을 廢티 아니하리라. ○王命을 廢티 아니호매 이시리라. ○王命애 在하야 廢티 아니하리라.【今按】第二說，不成文理，第三說，亦非傳義，當從首說。

《恫癢乃身》 네 身에 癢을 恫툃하야. ○亦有非疾而痛者，不須云 癢을 痛也。

《棐忱》 忱으로 하면 棐하거시니와.

《惠不惠》 惠하며 惠티 아니하며. ○惠커나 惠티 아니커나. 下同. 此說，是. 一云 惠를 惠티 아니하며. 此，小註林氏之說，不是.

〔式爾〕 씨 이리 하니.

〔適爾〕 마초와 이리 하니.

〔大明服〕 明하야 服하야.

〔若有疾〕 疾을 들는 듯시 하면. 【按】 恐不可作두다. ○疾이 잇는 듯시 하면.

〔要囚〕 要흔 囚를. 或云 囚에 要흔 言을. 此從本註說, 太拘而賸, 不可從. ○〈多方〉《釋義》, 獄辭之要.

〔大戛〕 키 戛애 홀디니. ○戛 홀디니. ○大戛로 홀디니. 當從第三說.<sup>33)</sup>

〔罔政在厥邦〕 政이 그 邦애 잇디 아니하리라. 【今按】 如此釋, 則遺却傳之爲字之義. 當云 邦애 잇디 아니호미니라.

〔無我殄享〕 我的 享을 殄티 말라. 一云 我로 享을 殄티 아니케 하야. ○殄게 마라. 【今按】 殄字之意, 謂康叔失道而自殄絕耳. 第二·第三說, 皆作武王殄絕康叔說, 非也. 當從首說, 但辭未著, 當云 我的 享케 혼 거슬 殄티 마라.

〔往哉封〕 往하느 封아. ○往홀디어다. ○世多從首

33) 第三說：奎章閣本‘第二說’

### 書釋義

說，愚以爲未也。若識哉字義，豈可如此說？當從第二說。

〔勿替敬典〕 敬<sub>호</sub>는 典을.

書釋義-14a

## 酒誥

〔肇國〕 비로소 國이 西土에 在ᄃᆞ실식. 一云 國을 肇ᄃᆞ야 非也.

〔祀茲酒〕 祀애만 이 酒를 홀디니.

〔無彝酒〕 酒애 彝티 말라.

〔惟曰〕 골오샤디. ○니르건댄.

〔洗腆〕 洗, 音善.

〔惟君〕 不釋.

〔作稽中德〕 作호매 中德을. 當云 德에 稽ᄃᆞ야사.

〔克羞〕 羞 나오와.

〔茲乃〕 이리ᄃᆞ면. 茲亦同.

〔棐俎〕 棐ᄃᆞ던니건. 或云 아리. ○더조옴씩. 此說, 非.

〔成王畏相〕 王을 成ᄃᆞ며 相을 畏커시닐.

〔厥棐有恭〕 그 棐호매 恭을 뒤.

〔助成王德顯越尹人祗辟〕 王德을 成ᄃᆞ야 顯케 ᄃᆞ며 밋 尹人의 祗辟호를 助ᄃᆞ니라.

書釋義

〈祇保越怨〉 祇<sup>ㅎ</sup>야 保<sup>ㅎ</sup>는 거시 怨에 밋거늘.

〈德馨香〉 德으로. ○德으로 <sup>ㅎ</sup> 馨香<sup>ㅎ</sup> 祀 | 天에  
聞<sup>티</sup> 아니코.

〈庶群自酒腥〉 民怨과 甾 酒로브터 腥<sup>ㅎ</sup> 거시.

〈撫于時〉 時를 撫<sup>티</sup> 아니<sup>ㅎ</sup>리아.

〈太史友〉 史 | 友와.

〈服休服采〉 休를. ○休에 服<sup>ㅎ</sup>며. 采同上.

〈予其殺〉 내 그 殺커나 호리나라.

〈迪諸臣〉 迪<sup>ㅎ</sup>.

〈同于殺〉 殺애 同호리라.

書釋義-14b

梓材

〔我有師師〕 내 둔는 師師는. ○師로 師호느니는.

〔引養〕 養애 引호며.

〔若稽田〕 田을 稽호매 이미 勤히 敷蓄호란디云云. 下二同. 若字不釋. 一《釋》云 首舉此字云 마튼니. 此恐不可從. ○此字, 已見〈說命〉等處, 但此吐與彼異, 似難盡同於彼. 恐不釋無妨, 釋則當云云 疆畎호미 마튼며.

〔塋〕 其既反.

〔斲〕 卓.

〔用懌先王受命〕 先王 受호신 命을 懌호쇼셔.

【按】如此則傳之者字意不叶. 當云 先王의 受命호니를 懌호쇼셔.

召誥

〔題註 母遠天室〕言母遠離於此，而作天子之室。

〔越若來〕에우서 와. ○넛우취여. ○越若히來흔.  
○不必釋. 【今按】傳只云古語辭，而不明言何等語辭，則其不可以今人語釋之，固然. 其曰不必釋，甚通，然下文又“迤邐而來”，則來字不可不釋. 當云 越若히來흔.

〔侯甸男邦伯〕庶殷入 侯甸男入 邦옻 伯을 命헉시다. 當云 庶殷과 侯甸男애 邦伯을 命헉시다.<sup>34)</sup>

〔註 物土方〕物，辨意.

〔旅王若公〕王과 및 公의게 陳헉노니. ○王의 陳홀 거슬 公의게 若헉노니. 【今按】此雖因公以告王之辭，然傳云：“所以陳王及公之意”，只是平平說，何可鑿爲曲說，摘字隨意，以釋之乎？當從首說. 一云<sup>35)</sup>：“若字不釋”，然傳明以及字貼若字，何可不釋？

34) 侯甸男邦伯……命헉시다：奎章閣本에는 〔旅王若公〕 앞에 있다.

35) 一云：奎章閣本에는 없다.

〔曷其〕 嗚呼ㅣ라 엇디호료.

〔用懋〕 써 懋에 하시니. ○懋로. ○懋에 써 하시니.

〔格保〕 格하야 保.

〔稽謀〕 謀를 稽호되.

〔王敬作所〕 王이 敬으로 所를 作하샐디니<sup>36)</sup>. ○作홀디니. ○作하야 거시니. 末說, 非也.

〔不可不敬德〕 可히 德을 敬티 아니티 몬홀 거시니이다. ○아니호미 可티 아니하니이다. 上說意緊, 下說意緩, 已見上.

〔嗣若功〕 若功하니를 嗣홀 거시라 호노니. 或云 若功이아 此, 非也.

〔若生子〕 子를 生호미. ○生흔 子ㅣ 그 初生애 在하야 스스로 哲命을 기티미 ㄴㅌㅌ니. 此不釋罔不, 非也. ○命을 貽티 아닛 아님 ㄴㅌㅌ니.

36) 作하샐디니 : 奎章閣本 ‘作하살디니’

洛誥

- 〔其基〕 그 비로소 民의 明辟이 도월 되로소이다.
- 〔以圖及獻卜〕 圖와 및 卜으로써 獻하노이다.
- 〔作周匹休〕 周에 匹하. ○匹하야 休를 作하샀다.
- 〔共貞〕 함가지로 貞하리로다.
- 〔註 胞翟〕 胞, 肉吏, 翟, 樂史.
- 〔予齊百工〕 【今按】 此周公自言, 其當初將適洛時, 整飭在鎬京之百官如此耳. 說者或云: “成王齊洛之百官”, 誤矣.
- 〔庶有事〕 거의 事를 뒤야 하리라 호이다. ○事를 두라 호이다. 【按】 後說, 簡當.
- 〔卽命曰〕 命太史, 使之記也.
- 〔惟命〕 命功臣之言也. 【今按】 此兩訓, 當矣. 但卽命 命에 卽하야, 此訓, 恐非也. 當云 卽하야 命하야 마로되.
- 〔悉自教工〕 汝ㅣ 그 다 스스로 工을 教호미니이다. ○네 다 工 마르치모로브테니이다. ○工教호므

로브테니이다. ○註, 雖<sup>37)</sup>云自汝, 不必泥, 當從首說.

〔侔嚮〕 ㅎ여곰 嚮ㅎ야.

〔惟終〕 終을 惟홀디어다. ○終홀디어다. 不釋惟字, 是.

〔篤叙〕 篤ㅎ며 叙호되.

〔敦宗將禮〕 將禮를 敦宗ㅎ야. ○宗을 敦호되 禮를 크게 ㅎ야. ○큰 禮로 ㅎ야. 當云 宗을 敦호되 큰 禮로 ㅎ야.

〔旁作穆穆〕 旁으로 穆穆을 作ㅎ야.

〔作周恭先〕 周에 恭의 先이 도외쇼셔. ○恭으로 先호미 도외쇼셔. 【按】後說, 未穩.

〔休享〕 首ㅎ야 休히 享ㅎ노라 ㅎ시다.

〔無有邁自疾〕 邁ㅎ야 스스로 疾호미 업서. ○스스로 疾을 邁호미 잇디 아니ㅎ야 年에 德을 厭케 ㅎ며 殷도 考를 引케 ㅎ쇼셔. 下說, 是.<sup>38)</sup>

〔承叙〕 叙를 承ㅎ야.

〔惟告周公其後〕 周公을 그 後ㅎ는 주를 告ㅎ앗더라. ○告호미러라. ○此, 祝告也; 下, 誥命也.<sup>39)</sup>

37) 雖: 奎章閣本 ‘辭’

38) 下說是: 奎章閣本에는 ‘아니ㅎ야’ 뒤에 있다.

39) 此祝告也……誥命也: 奎章閣本에는 없다.

多士

〔終于帝〕 帝를 終호소라.

〔秉爲〕 秉호야 호는 배. ○心之所爲. 當云 秉호야 호요미.

〔引逸〕 逸에 引호거시늘.

〔降格〕 降格호야. ○능리와 니르게 호야.

〔配天其澤〕 潘曰 天을 配호되 澤으로 아니홈 아니니라. 【今按】 此李忠綽生員《書釋》說也. 所謂潘, 不知謂何, 然恐當云 天을 配호야 澤디.

〔罔顯〕 天을 顯티 못호곤.

〔矧曰聽念〕 호믈며 云云 念호느다 니르라.

〔不貳適〕 貳에 適디 아니호는디라.

〔肆不正〕 이리호모로 正티 못호도다. ○호놋다. ○正티 아니호두다.

〔遷居西爾〕 爾를 西에 遷居호요믈<sup>40)</sup>.

〔惟聽用德〕 德을 聽호야 用호 거시니라. ○聽用

40) 遷居호요믈 : 奎章閣本에는 뒤에 ‘按此吐當云 西爾니, 舊吐與釋, 非.’가 있다.

홀 거시 德이니라. 當從首說.

〔率肆〕 肆를 率하야. 肆, 故也, 謂商也.

〔移爾遐逝〕 爾를 遐逝에 移하야. ○移하야 遐逝  
게 하야. 首說, 是.

〔比事臣我宗多遜〕 我宗에 比事하야 臣하야 遜이  
하게 호니라. ○我宗周多遜에 比事하야 臣케 호니  
라. 兩說皆是, 而後說爲優. 下章多遜, 亦用此二說,  
而後說在下章尤愜.

〔罔攸賓〕 賓홀 배 업스며. 亦惟云云 우리 多遜에  
臣하애니라. 此說, 是. 又云, 罔字釋於多遜之後, 此  
據傳文兩‘無所’之言而云然. 然罔字義止於賓字, 傳文  
下‘無所’字, 乃敷衍之意, 不可拘此而曲解也<sup>41)</sup>. 一云  
多遜에 臣홀 배니라. 此說, 是.

〔尙寧幹止〕 거의 幹과 止에 寧홀디니라.

〔爾攸居〕 爾의 居홀 바로 하애니라.

41) 曲解也：奎章閣本에는 뒤에 ‘此不釋攸字, 未盡.’이 있다.

無逸

《所其無逸》 無逸로 所하느니라. ○所를 하느니라.

○所를 사물디니라. 【按】 當從一二說.

《舊勞》 오래 外에 勞하샤.

《不義惟王》 王 도외미 義ㅣ 아니라 하샤.

《徽柔懿恭》 徽히 柔하시며 懿히 恭하샤.

《惠鮮》 惠하야 鮮케 하샤.

《日中昃》 日의 中이며 昃에.

《惟正之供》 邦의 正으로 하는 供만 써 하시니.

《則其》 제의 云云하시던 주를 則하샤.

《今日耽樂》 今日에 耽樂호려 마르쇼셔.

《民否》 民이 아니흔則.

書釋義-16b

## 君奭

〔出于不祥〕 不祥애 出흘가. ○不祥애 버서나리아.

【今按】首說, 是. 後說以出爲脫免之意, 失本義, 不可從.

〔我亦不敢寧于上帝命〕 내 또 敢히 上帝 命을. ○ 命에 寧하야 기리 天威 | 우리 民에 尤違 업슨 저 글 遠念티 아닛 아니흐노니 人에 잇느니라. ○敢히 命에 寧티 아니하야 天成 | 42) 우리 民의게 尤違티 아니흔 제니라<sup>43)</sup> 遠念 아니흐노니. 【按】如後說, 是忽天人之戒, 不成義理, 首說, 是.

〔在家不知〕 지비 이셔 아디 몰호라 하라.

〔非克有正〕 내 能히 正하노라 하는 주리 아니라.

〔施〕 호려니라.

〔在昔〕 昔에 이셔 成湯이. ○네 成湯이. 不釋在.

〔時則有若〕 時엔 이러툃흔 伊尹이 皇天을 格하리

---

42) 天成 | : 奎章閣本 ‘天威 |’

43) 제니라 : 奎章閣本 ‘제 기리’

이시며. ○伊尹 마튼니 이서 天을 格하며. 【今按】  
當從首說.

〔禮陟配天〕 禮로 陟하야 天을.

〔多歷年所〕 一《釋》云 歷年所 | 多하니라. 一  
《釋》云 年을 歷하 所 | 多하니라. 一《釋》只云:  
“所, 次所也, 猶言고디”, 此卽唐 孔氏說也. 【今按】  
一二說同意, 恐非本意. 蓋歲年皆有次舍, 如今言歲次  
某甲也. 當云 年所를 해 歷하니라.

〔純佑命〕 佑하야 命호믈 純히 혼디라. ○命을 純  
히 佑하논디라. 後說, 非也.

〔嗣天滅威〕 天을 嗣하얏다가 滅하느 威에 하니.  
○威에 滅하니. 後說, 非也.

〔稱德〕 德을 稱하게 하니라. 一《釋》云: “稱, 舉  
也, 行之謂也.” 【按】稱只是稱頌之意.

〔收罔勗〕 收하야 不及을 勗디 아니하야<sup>44)</sup>.

〔其有能格〕 그 能히 格하요미 이시리라 니르리  
아.

〔告君乃猷裕〕 裕를 猷호믈 告하노니.

〔偶王〕 王을. ○王의 偶하야.

---

44) 아니하야 : 奎章閣本 ‘아니하면’

《惟文王德》 惟, 思也.

《殷喪大否》 殷의 喪은 大否를.

《在讓後人》 後人을 丕時에 讓호매 인느니라.

《篤棐》 篤히 棐호문.

蔡仲之命

〔正百工〕 李忠綽《釋義》云，正，長也，更詳之。

〔不齒〕 同上云，齒謂如今錄於屬籍之類，更詳之。

〔克庸祗德〕 能히 德을 던던이 祗히거늘.

〔邁迹自身〕 迹을邁호되 身으로브터 하야.

〔懋乃攸績〕 너의 績을 바를 懋히며. ○績은. 後說，誤.

〔率自中〕 率호되 中으로브터 하고. ○中으로브터 率하고. ○率호되 中을 브터. ○中을 自히야. 當從一二說，三四說，謬.

書釋義-17b

## 多方

《殷侯尹民》 殷侯ㅣ 民을 尹ᄃᆞ니야. ○殷侯ㅣ언  
尹民아. 前說, 是.

《爾罔不知》 爾ㅣ 아디 아니티 몬ᄃᆞᆫ 거시니라.

《不永寅念于祀》 기리 寅念ᄃᆞ야 祀티 아니ᄃᆞ니라.  
○祀를 念티 아니ᄃᆞ니라. 首說, 是.

《不肯感言》 感言을 肯티 아니ᄃᆞ고.

《勸于帝之迪》 帝의 迪을 勸티 아니.

《因甲于內亂》 因은 內亂으로. ○亂에 甲ᄃᆞ야.

《罔丕惟進之恭》 키 恭애 進ᄃᆞ야 키 民을 舒티 아  
니ᄃᆞ고.

《不克永于多享》 能히 기리 多享티 몬ᄃᆞ고. ○能  
히 多享애 永티 몬ᄃᆞ고. 上說, 是.

《大不克明保享于民》 키 能히 民을 明保ᄃᆞ야 享티  
몬ᄃᆞ고. ○明ᄃᆞ야 保享티 몬ᄃᆞ고. ○明히 保享티云  
云. 首說, 是.

《大不克開》 키 能히 開티 몬ᄃᆞ니라. ○몬게 ᄃᆞ니

라.

〔要囚〕 要囚를 多罪를 殄戮호음도.

〔須暇之子孫〕 子孫에 須暇호샤.

〔罔可念聽〕 可히 念聽호미 업스니라. ○可히 念호야 聽티 아니호니라. ○聽틀 아니호니라. 後說, 非. 【按】傳, “紂無可念可聽者”, 言紂之所爲, 不合人心, 故無可念者. 聽如言足聽聞之聽, 言無足聽聞者, 是念聽二字, 皆人之念聽. 後二說皆以紂之念聽釋之, 是不知可字之意不如此也, 不可從.

〔開厥顧天〕 그 天의 顧를 호리를 開호거시늘. ○天을 顧호리를. ○天顧호리를. 【今按】後二說以顧爲人之顧念, 非也. 傳言能受眷顧之命者, 是眷顧乃天之眷顧也. 首說, 是.

〔式教我用休〕 써곰 우리를 教호되 休로써 호샤. 當云 우리를 教호샤 써 休호샤.

〔曷不夾介乂我周王享天之命〕 엇디 우리 周王의 天의 命享호믈 夾介호야 乂티 아니호느뇨.

〔圖忱于正〕 正에 忱을 圖호느니라.

〔越惟有胥伯小大多正〕 밋 胥와 伯과 小大多호 正아 爾ㅣ 臬를 能티 아닛 아니홀디어다.

《不忌于凶德》 凶德을 忌티 아니하야.

《畀矜爾》 爾를 畀하며. ○畀하야 矜하시며.

《有服在大僚》 服事호미 大僚애 잇느니라. ○이시리라. 【按】 後說, 是.

《離逃爾土》 爾ㅣ 土애. ○土를 離하야 逃게 호리라.

《敬于和》 和애 敬티 아니하면 나를 怨흐 줄이 업스리라. ○怨티 못하리라.

## 立政

〔休茲〕 이 아름답다오나.

〔有室大競〕 室이 大競호매 이셔. ○有字, 不當釋.

〔拜手稽首后矣〕 后ㅣ룬 주를 拜手稽首호노이다.

【今按】此乃群臣稱后以告教之辭, 與上文‘拜手稽首告嗣天子王矣’者同一句法也. 傳‘致敬以尊其爲君之名’者, 所以釋必稱后於拜手稽首之後之意耳. 說之云云, 大鑿, 當云 后의 拜手稽首호노이다.

〔往任〕 往애 任을 作디.

〔乃用三有宅〕 用호. ○호는 三有宅이. “曰三有俊”曰字同.

〔用丕式見德〕 써곰 키 式호야 德을 보니이다. ○德을 見호야 式호니이다. 後說雖倒, 合註.

〔羞刑暴德之人〕 刑을 羞호는 暴德之人으로.

〔庶習〕 庶를 習호는. 恐當云 甞 習호는.

〔式商〕 商의 受호 命을 써 다 萬姓을 甸케 호시니이다.

《亦越》 쏘흔 밋 文王이. 上文亦越同.

《庶常吉士》 모든 常흔 吉士ㅣ러라. ○庶ㅣ.

《有司之牧夫》 有司애. ○司의 牧夫를. ○司ㅣ언.

○의 非.

《罔敢知于茲》 敢히 이에 아로려 아니하시니라.

○아디 못. ○아니하시니라.

《以並》 곁와.

《克由》 由, 音抽, 見唐本.

《茲乃俾乂》 이 ㅎ여곰 다스리시니이다. ○이 ㅎ여곰 다스리미이다.

《國則》 國은 곧. ○國ㅎ요믄.

《是罔顯在厥世》 이는 顯ㅎ야 그 세에 잇디 못ㅎ리이다.

《勩》 音邁, 勉也.

《式敬爾由獄》 찌곰 그 由ㅎ는 獄을 敬ㅎ야. 據傳文, 爾當是其字意.

《茲式有愼》 이어기 式ㅎ야 愼을 두어 ㅎ면.

周官

〔巡侯甸〕 侯甸에 巡하샤.

〔若昔〕 네 大猷에. 若不釋.

〔不惟其官惟其人〕 그 官을 ㅎ는디 아니라 그 人을 ㅎ는디니라. ○그 官을 ㅎ는 주리 아니라 오직 그 人을 ㅎ는디니라. 【按】此言已事, 後說, 是.

〔仰惟前代時若〕 前代를 仰하야 이히 若하야. 一釋惟字, 非也.

〔官不必備惟其人〕 官을 반드시 備할 주리 아니라 그 人으로 ㅎ 거시니라. ○ㅎ는디니라. 【按】此言當然.

〔時地利〕 地利를 時로 ㅎ는디니라. ○時하야 地利를 ㅎ는디니라. 此, 非也.

〔議事以制〕 事를 議하야 써곰 制하야아. ○議호되 制로써 하야아. 後說, 非.

〔墻面〕 墻을 面호미라. ○墻으로. 此, 非也.

〔位不期驕〕 位는 驕로 期티 아니며. 下同. ○位는

期티 아니하야두 驕하며. ○驕을 期하는 주리 아니  
 며. 【今按】首說第三說，皆是. 但第二說，今人多從  
 之者，因傳有‘驕自至侈自至’之語，遂以本章驕侈二字  
 當之，而爲此說，不知‘驕期侈期’此驕侈二字，卽本章  
 驕侈字，下文驕侈，皆演繹而足成其意之辭耳. 正與  
 ‘自我民聰明·自我民明畏’傳文文勢同，而說者之誤，  
 亦與彼處同一誤. 詳見〈皋陶謨〉，通考之可也. 上說  
 當云 驕로 期티 아니하야도 하며.

〔恭儉惟德〕 恭儉을 德으로 하고.

〔舉能其官〕 舉ㅣ 官을 能히 호미.

〔敬爾有官〕 네의 둔는 官을 敬하며. 有政同. ○네  
 有政을. 後說, 好.

君陳

《克施有政》 能히 有政을. ○政에 施할식.

《尹茲》 尹, 治也.

《有廢》 廢호미 이시며. 興同.

《辟以止辟》 辟이. ○辟하야 써 辟을 止하리어사.

《三細》 三이 細하야두.

《從厥攸好》 그 好. 卽上之所好.

《敬典在德》 典을 敬호되 德에 이셔 하면.

書釋義-19b

顧命

〔洮類水〕 水로 洮ᄃᆞ며 類ᄃᆞ야시늘.

〔不獲誓言〕 誓言ᄃᆞ야 嗣호믈 獲디 몬ᄃᆞ가 恐ᄃᆞ야. ○言을 獲ᄃᆞ야. 後說, 非. 當云 시러곰 誓言ᄃᆞ야 嗣티 몬ᄃᆞ가 恐ᄃᆞ야.

〔思夫人〕 思컨댄.

〔非幾〕 윈 幾예 貢티 말라.

〔恤宅宗〕 恤에 宅ᄃᆞ. ○ᄃᆞ야 宗을 삼다. 恤宅에 宗을 삼다. ○ᄃᆞ다.

〔冊度〕 冊과 度를 作ᄃᆞ시다.

〔敷重篋席黼純〕 重ᄃᆞ 篋席이. ○席을 黼로 純ᄃᆞ니를. ○純ᄃᆞ 거슬 敷ᄃᆞ니. ○席이 黼로 純ᄃᆞ 거슬 敷호믈 重ᄃᆞ니. 上說, 是.

〔華玉仍几〕 華玉으로 ᄃᆞ 几를 仍ᄃᆞ얏더라. ○華玉ᄃᆞ 仍ᄃᆞ 几러라. 上說, 是.

〔玄紛純〕 玄으로 紛純ᄃᆞ 거슬. ○ᄃᆞ니를.

〔越玉五重〕 밋 玉五重을 ᄃᆞ며.

書釋義

〔御王冊命〕 王씩 冊命을 御하니라.

〔而亂四方〕 그 能히 四方을 亂하야 써 天威를 敬  
忌함마티 하리아. ○四方을 亂함마티 하야. 上說,  
是.

〔祭嘑〕 祭하야. ○祭하고 嘑하고. ○祭로 嘑하고.  
○下說未詳.

〔宿〕 進至神前也.

〔祭〕 灌也.<sup>45)</sup>

〔咤〕 奠爵獻神.

〔註 桃竹〕 斑竹.

---

45) 也：奎章閣本‘地’

書釋義-20a

## 康王之誥

〔皆布乘黃朱〕 다 乘黃이 朱호니를 布호야. ○布호되 朱호얏더라. ○乘黃朱를 布. 首說, 是.

〔稱奉圭兼幣〕 奉호 圭와 兼幣를 稱호야. ○奉호 圭와 幣를 兼호야. 首說, 是.

〔誕受姜若〕 키 姜로 若호믈 受호샤.

〔丕平富不務咎底至齊信〕 키 平호며 富호시며<sup>46)</sup> 咎를 務티 아니호샤 至예 底호며 信을 齊호야. ○丕호며 平호며 富호야 齊호야 信호야. 當從首說, 齊信從下說.

〔用端命于上帝〕 써곰 上帝의 端命을 호시니.

〔胥暨〕 서르 밋.

---

46) 호시며 : 奎章閣本 ‘호야’

畢命

〔不臧厥臧〕 그 臧하니를 臧타 아니하면. ○臧을 臧티 아니하면.

〔敝化奢麗〕 化를 敝하야 奢하며 麗호미.

〔萬世同流〕 萬世에 流ㅣ ㅎ가지니라. ○ㅎ가짓 流ㅣ니라. ○ㅎ가지로 流ㅣ니라.

〔怙侈〕 怙하야 侈하야 義를 滅하야. ○侈를 怙하야. 後說, 非.

〔服美于人〕 服의 美로 人의게 하야. ○服美로 人의게. ○服을 人의게 美케 하야. 首二說從註文, 然第三說, 順.

〔資富能訓〕 資ㅣ 富하거든 能히 訓호미 卼곰 年을 기리 호미니.

〔不由古訓〕 古로 由하야.

〔于何其訓〕 므스거스로 그 訓하리오. ○엇디 그 訓이라 하리오. ○어디가. 第二·第三說, 皆非.

書釋義-20b

## 君牙

〔弘敷〕 弘하야 敷.

〔式和〕 式하야 和.

〔罔中〕 中이 아니라 네 中홀디니라. ○中티 못하  
논디라 너의 中이니라. 疑後說是, 而猶未盡. 當云  
中하느 디 아니라.

〔夏暑雨〕 너름 暑雨에 小民이. 惟曰不釋. ○닐온  
怨咨하며. 祈寒同. ○더운 雨에. 此說, 非也. ○닐어  
怨咨하며. ○怨咨하느니 하며. 第三四說, 非也.

〔昭乃辟之有父〕 汝ㅣ 辟의 父를 昭하라.

同命

《弗克于德》 德에 能티 못하야.

《交修》 交修하라. ○여러 가지로 修하라.

《自聖》 스스로 聖이로라 하리니.

《非人其吉》 人의 그 吉로 아니코 貨를 그 吉타  
하면. ○人으로 그 吉티 아니코 貨로 그 吉타 하면.

○人을 그 吉로 아니코 貨로. 首說, 是.

《永弼乃后》 乃后를 彝憲으로. ○憲에 기리 弼하  
라.

書釋義-21a

## 呂刑

〔若古〕 若字不釋.

〔鷗義〕 鷗로 義 사마 姦하며 宄하며. 下同.

〔越茲麗刑〕 이에 麗하니를 刑해야.

〔罔差有辭〕 有辭로 差티 아니하니라.

〔罔中于信〕 中을. ○中이 信에 아니코. ○信이 中으로 아니코. 【今按】 兩說皆拘於陳氏說也. 然以本文語脈觀之, 下說, 大誤, 上說, 亦未穩. 有一說云 中에 信을 아니코. 此說, 似近, 但 信을 未善, 當云 中에 信으로 아니코.

〔刑發聞〕 刑의 發聞이. ○聞호미.

〔無世在下〕 世ㅣ 下에 이시미 업게 하시니라.

〔絕地天通〕 地ㅣ 天에 通호믈.

〔恤功于民〕 民의게 恤할 功을 하시니.

〔折民惟刑〕 民을 折호되 刑으로 하고. ○民의 刑을 折하고. 【按】 上說用大文, 下說用註說.

〔主名山川〕 名山川을 主하고. ○山川을 主名하고.

【按】兩說，皆是，然非謂禹主之，乃九州各主之也。

〔降播種〕 播種法을 降下하야.

〔農殖〕 農이 穀을 殖하니.

〔惟殷于民〕 民을 殷케 하니라.

〔士制百姓于刑之中〕 士ㅣ. ○士하야 百姓을 刑의 中에 制하야. 傳有命皋陶爲士之文，故《釋》曰 하야. 此非本文意，傳特原其始言之‘惟其命皋陶爲士’，故士得以制百姓于刑中耳。今釋此文，只當曰 士ㅣ云云，而含前意在中，方是解經之通處。

〔以教祇德〕 教호되 祇德으로써 하니라. ○德을 祇호모로써 教하니라. 【按】祇德恐不可作德을 祇하다. 祇德猶言敬德，謂敬恭之德也。

〔穆穆在上〕 穆穆히 上에 이시며.

〔典獄非訖于威〕 一《釋》此章下云：“此章蓋指舜時而言，吐者乃以穆王之時，此可疑也。”【今按】此乃陳氏《雅言》之說，然蔡傳，“天德在下，則大命自我作，而配享在下矣。”其他諸說，皆作穆王時說，何可爲一陳氏而遽疑於其間哉？

〔司政典獄〕 政을 司하야 獄을 典하니아. ○司政 典獄아.

〔播刑之迪〕 刑을 播호야 迪호미 아니가.

〔庶威奪貨〕 뭇 威로 호며. ○威와 貨로. ○貨에 奪호므로.

〔無辭于罰〕 罰에 辭|. ○辭홀 배 업서.

〔庶有格命〕 거의 格命이 잇느니라.

〔罔不由慰日勤〕 由호야 慰호미 日로 勤티 아니 아니호느니. ○慰호는 거슬 日勤티 아닛 아니하라. 當云 日로 勤함으로 아닛 아니호느니. 第二說, 尤未當.

〔爾罔或戒不勤〕 爾| 或不勤호고사 戒티 말라. ○爾| 不勤을 或戒티 말라. 【今按】此言不勤刑罰, 則其害大矣, 當常常戒之, 不可或戒之也. 首說雖巧, 非本意, 當從後說.

〔非終惟終〕 終이 아니며 終이.

〔其寧惟永〕 其寧이 永호리라.

〔在今爾安百姓〕 이제 네 百姓을 安호매 在홀딘 덴. 諸《釋》同之, 非也. 當云 이제 네게 이셔.

〔兩造〕 兩이 造호고.

〔師聽五辭〕 모다 五辭를. ○五辭를 師聽호리니.

〔審克〕 審호야 克호라.

〔有赦〕 赦를 두고. ○五刑의 疑 〕 赦 〕 잇고. 下同. ○首說不協於吐, 當從下說.

〔無僭亂辭勿用不行〕 僭亂흔 辭에 말며 不行을 用티 말오.

〔惟齊非齊〕 非齊로 齊호나. ○齊호되 非齊로 호나.

〔非從惟從〕 從티 아니홀 되 從호며. ○從티 아니호되. ○從티 아니호노라 호되. 【今按】 當從首說. 又當云 從티 아니호매.

〔上備〕 上호야 備호되. ○備호야 上호되. 後說爲長.

〔朕言多懼〕 朕이 言호매. ○言홈두 해 懼호노라.

〔有德惟刑〕 德을 두니사 刑을 흘디니라.

〔無或私家〕 或도 私家로 말라.

〔獄貨〕 獄호야 貨호믈. 當云 獄을 貨로 호요믈.

〔非天不中〕 天이 中으로 아니호시는 주리 아니라.

〔惟人在命〕 人이 命에 在호느니. ○호미니.

〔非德于民之中〕 德호야 民의 中을 호니 아니아. 恐當云 德으로.



費誓

〔 徂茲 〕 더조옴씩.

〔 今惟淫舍牝牛馬 〕 이제 牛馬舍 淫 牝을 淫호리니.

諸《釋》同.

〔 斂 〕 音掄, 념.

〔 有無餘刑 〕 餘刑이 업스나 殺튼 아니호리라.

書釋義-23a

## 秦誓

《若不云來》來티 아니홀 듯호미니라. ○호니라.  
《姑將以爲親》아직 將順호느다 호야 뼈 親히 호  
니.  
《尙猷》거식 이 黃髮의게 詢호믈 猷호면.  
《如有一介》如有皆不釋. ○《釋》云 萬一 잇는  
亦可.  
《亦職》또흔 有利에 職호린더.  
《曰由》ㄹ론 一人을 由호애며.  
《亦尙一人之慶》또흔 거식 一人의 慶호미니라.  
○一人의 慶을 뜰식니라. ○慶을 尙홀식니라. 後二  
說, 同一意也.

## 追附

### 答李剛而問目

〈周書〉‘考翼’, 其一訓父老敬事者, 泛指父老而言,

### 書釋義

盖父老乃當敬事者也。其一父敬事者，即自人子而指其父言，則父固子之所敬事也。兩處言同，而所指不同如此。

定本 退溪全書 16

## 論語釋義

### 序

周柱下史，漢以來侍御史，掌圖史文書之職。○女字，上·去聲，皆無柳音，俗之所讀，似爲訛謬。○伋只云人名，無別訓也。○誅少正卯，問“少正是官名，而卯則名邪？”曰：“未詳。”

論語釋義-1a

### 學而

〔自遠方〕 遠方으로브터.

〔爲仁之本〕 仁호을 본인더.

〔三省〕 日로 三을.

〔傳不習〕 傳코 習디 못홀개니라. 못홀개니라.

〔易色〕 色을 易호며.

〔不威〕 威ㅣ 업서. ○업고. 此依註無嚴之無字釋，故曰 업다. 然威디 아니타 恐無妨.

〔主忠信〕 信으로 主호며.

【過則勿憚】 過 | 어든 憚티 말오 改호디니라. 或過커든. 當云 改호믈 憚티 마롤디니라.

【抑與之歟】 謂許其君. 【按】 此說, 非也. 謂子自求之歟, 抑其君許之而得聞歟.

【斯爲美】 前說 斯 | 美혼디라. 後說 斯 | 美타하야. ○斯로. ○스를. ○스 | 美하니. 【今按】 從前說 斯 | 美하니. 此最長, 諸說, 亦皆無妨.

【有所不行】 謂和不行, 禮不行? 【按】 禮不行也.

【如切如磋】 切하고 磋탓하며. 如切之如, 不說, 何? 切탓하고 磋탓하며. 此, 是.

【註 不見是】 是, 是非之是. 不見是於人, 則人皆以我爲非也.

【父在觀其志】 問“知其子之善惡如何歟?” 曰: “是.”

【知和而和】 此和字, 指禮之和處, 乃樂之所由生, 恐未可便做樂看也.

【註 亦非復禮之本然】 復, 當是扶又切之字, 乃又字之義.

## 爲政

〔爲政以德〕 政을 호되 德으로써 호미. ○政을 쓰되 德에 흠이. ○政을 호되 써곰 德에 호미. 【今按】此因小註不必泥以字之言，畏涉有心，故有下二條之說。然雖依上一條說，若活看，則豈涉於有心乎？朱子之意，恐人太拘以字，誤認爲用之之實字看，故云不必泥耳，非欲遂廢以字語勢也。蓋以字自有虛實不同，此以字虛著爲文，而其語法自有見成不易者。今人不顧文理，而曲爲鑿說，每如此，非小病也。

〔思無邪〕 思ㅣ 邪ㅣ 업스미니라. ○思ㅣ 邪ㅣ 업게 홀디니라. 此有工夫說. 【今按】兩說皆當存之，但下說當云 업게 호미니라.

〔民免〕 免홀 만흐고.

〔不踰矩〕 踰티 아니호라. 一云 踰티 아니헉리라. 下說，非.

〔唯其疾之憂〕 疾을憂히시느니라. ○疾만憂히시게 홀디니라.

〔能養〕 能養을 니르느니. ○能養하야아 하리라  
니르느니.【今按】下說極無理，不足辨. 上說亦恐未  
安. 當云 是를 닐온 能히 養하요미니. 蓋其意謂今之  
所謂孝者，是可謂能養之孝耳，非眞孝也云云. 若如上  
說，其文當曰：‘今之能養者，人以爲孝也’，豈曰：“今  
之孝者，是謂能養乎？”意雖不甚相遠，而語有毫釐之  
異，但細玩者字·是謂字，則可知正意.

〔退而省其私〕 前說 退커늘 其私를 省호니. 後說  
退하야 그 私애 省하야.【今按】小註，朱子前說夫子  
退而省察顏子之私，則當云 退하야 그 私를 省호니.  
後說退非夫子退，乃顏子退也，當云 退커든 그 私를  
省혼딘. 蓋退字有前後之異，而省字皆夫子省也. 此兩  
說，非唯前後之倒置，後說私애省하야者，乃以省字爲  
顏子之省察，皆非也.

〔先行其言〕 그 言에서 먼저 行하교. ○그 言이라  
와 먼저 行하교. ○그 言을. 無妨. 如此亦似太拘.

〔攻乎〕 攻호려 하면.【按】《集註》有‘欲精’字，  
故帶說云 호려. 然攻，專治也，專治異端，已是爲害，  
欲精乃其推言者耳，恐不須帶說.

〔誨女〕 汝이 知홀 事 誨.【按】註，誨汝以知之之

道，當云 汝를 知홈을 誨홀딘더.

【敬忠以勸】 敬히며 忠히며 勸게 호되.

【奚其爲爲政】 엇디해야아 그 政을 하다 히리오.

【今按】此說，是也。但須知엇디해야아之意，只包在‘奚其’兩字之中，而上爲字，非해야아之爲，乃屬下句而爲虛字，方可。《集註》‘何必居位’四字，貼‘奚其’二字，而著乃字於上爲字之上，曰‘乃爲爲政乎’，其爲虛字曉然矣。今人多認上爲字爲해야아，非。

【其疾之憂 註】 父母愛子之心，無所不至。吐라.

【不思則罔】 罔甚於昏，故《韻書》訓昏蒙無知貌。

【註 攻專治】 專心一力而治之也。

【由誨女知之 註】 ‘亦不害其爲知矣’，其上文云：“雖或未能盡知，而無自欺之蔽”，蓋無蔽則明矣。故雖有所不知，亦不害其爲知也。猶言雖以此人爲知，亦無害云耳。

【輓軓輶輶衡】 輶，今車之ㄴ ㄹ 也。輓者，輶之末端所橫木也。輶者，所以縛於輓而駕牛者也。軓者，輶之末端上曲處也。衡者，所以鉤持軓而駕馬者也。大抵輓軓輶輶衡四者，皆就輶末設爲駕牛馬之物。但今之車制，雖有輶而非古制，何以的知四物之制乎？

論語釋義-2b

## 八佾

〔是可忍〕 이를 可히 忍ᄃᆞᆫ. ○이를 可히 忍ᄃᆞᆫ던.

〔孰不可忍〕 므스거슬.

〔相維辟公〕 相ᄃᆞᆫ니 公이어늘 子ㅣ 穆穆ᄃᆞᆫ을.  
○相ᄃᆞᆫ니 公가 子ㅣ 穆穆ᄃᆞᆫ나. 下說可笑.

〔如禮何〕 禮다오매 엇데ᄃᆞ며. ○禮예 엇데ᄃᆞ며.  
下同. 前說無理.

〔不如諸夏〕 업슴과는 곤디 아니ᄃᆞ니라. 當云 諸  
夏에 업스니 곤디 아니ᄃᆞ니라. ○答汝鷹問云: 諸夏  
無君長, 反不及於夷狄之有君長也. 不如猶不及也.

〔告朔〕 朔을 告ᄃᆞᆫ 제 ᄃᆞᆫ 羊을 去코져 ᄃᆞᆫ대. 當  
云 朔을 告ᄃᆞᆫ 羊을.

〔成事不說〕 成ᄃᆞᆫ 事를 說티 아니ᄃᆞ며. 遂ᄃᆞᆫ 事  
를 諫티 아니ᄃᆞ두소니. 當云 遂ᄃᆞᆫ 事를.

〔知禮〕 禮를 知ᄃᆞᆫ다 ᄃᆞᆫ면 누를 禮를 아디 못ᄃᆞ다  
ᄃᆞᆫ리오. 不須如此迂說, 當如尋常說禮를 知ᄃᆞᆫ면 ㄴ

禮를 知티 몬히리오.

【樂其可知】 가히 아라사 흘 거시니. 此說, 非. 當云 可히 아랄디니. 言樂之爲用, 猶可知也云. 若如說者, 可字意不合.

【請見】 見을 請히야 닐오디.

【爲木鐸】 木鐸을 사므시리라. 或說사므시니라.

【何以觀】 므스거슬 ㅁ 觀히리오. 當云 므스거스로.

【禮與其奢也 註】 ‘禮始諸飲食’, 問“何以云禮始諸飲食?” 曰: “今之世未有無飲食之禮, 如祭享·賓客之類, 是也. 可知古之有禮必始於此耳.”

【故汙尊而抔飲】 問“故字若作故애, 則非歟?” 曰: “何以欲作故애讀邪? 想公必將故字意至飲字下截斷看, 所以欲把故字作古字義看, 誤矣. 其實故字. 上先說禮始諸飲食히니者, 由禮之末失, 而遡求其初禮所由起者, 統言之也. 其下將說始質而終文之意, 故著一故字, 以之上接統說之意, 而下開分說之端. 是則故字當下至‘文之也’處看, 方得其語意之全, 更須參詳.”

【旅泰山 註】 不輕絶人이오 盡己之心이니. 以季氏之僭妄·冉有之附從, 便當絶之而勿誨勿警, 可也. 今

乃以爲安知冉有之不能救·季氏之不可諫也，拳拳教冉有，使之救諫，是不輕絕人也，亦盡己心也。及其不能救，而又美林放以激厲之，益見其不輕絕人·盡己心處也。

【註 乃揖不勝者升】 問“或云 勝者 1 乃揖不勝者 ㅎ고 升 ㅎ야, 或 勝者乃揖 이어든 二說如何?” 曰: “上說, 是也。若不勝者獨升, 則後說, 是矣, 其實勝者揖不勝者而俱升, 故其說, 非。”

【禘自既灌而往】 問“此謂當祭時自既灌而後云者歟?” 曰: “是。”

【祭五祀皆先設主】 主卽五祀之神主也。祀竈之禮卽五祀之一, 何得爲別禮也? 看‘如祀竈則’之如字, 可知就五中取一而言也。

【成事遂事】 問“成事乃立社本意, 而遂事是時君殺伐心歟?” 曰: “是。”

## 里仁

〔安仁〕 仁을 안고.

〔利仁〕 仁에 利하니라. ○仁을 利히 너지니라.

〔不以其道得之<라두>不去〕【今按】라두之吐，甚害理。當云 得之어든. 蓋此兩道字，有善惡之異。富貴之道，是善道，故不以其道得之，不處也，言必以善道得之方可處也。貧賤之道，是惡道，故不以其道得之，不去也，言若以惡道得之，在所必去也。君子修身守道，大人之德備，是宜天爵從之。不幸而貧賤焉，是我無貧賤之道，而得貧賤。如此者，當安之而不去，顏淵·原憲，是也。所謂不以其道得之어든 不去也。若讀曰라두，則是君子之於貧賤，不但去其得不以其道者，雖我爲博奕·鬪狠·奢侈·淫肆凡可以取貧賤之道以致貧賤，亦將不去之，諉曰：‘我欲安貧賤也’，其可乎？說者徒見《集註》‘審富貴·安貧賤’之語，意謂君子於貧賤不問得之之如何，而皆安之，謾爲此說，以誤人。

苟如此說，是世之爲無賴亡家喪身者，皆爲安貧賤之君子邪？

〔惡乎成名〕 이딴 가 名을 成호리오.

〔無違仁〕 仁을 違티 아니호느니.

〔無以尙之〕 써곰 加홀 거시 업고.

〔義之與比〕 義로 다뭇 比호느니라.

〔爲國乎何有〕 國호음애 엇데호미 이시며. 當云  
므스거시 이시며.

〔一以貫之〕 一로써 貫호얀느니라. ○一이 써 貫  
호다. 恐無妨.

〔幾諫〕 幾로 諫홀디니. 恐當云 幾히.

〔欲訥於言〕 言에 訥코져 호고 行애 敏코져 호느  
니라. 當云 言에 訥코 行애 敏코져 호느니라.

〔造次必於是 註〕 ‘無時無處而不用其力’ 用力디 아  
니홀 시절 업스며 곧 업다.

〔觀過知仁 小註〕 ‘吳祐遷膠東侯相’，問“膠東是侯  
國，而相是宰相歟云云” 曰：“來說得之. 嗇夫未詳，  
祐，東漢名臣.”

〔朝聞道 註〕 ‘皆實理也’，問“皆字指道與何事歟？  
抑指道而總言之者邪？” 曰：“指道而總言之.”

論語釋義

《忠恕而已 註》‘動以天爾’，問“此只是爲之自然之意歟？”曰：“是。”

《遊必有方 註》‘如已告云’，已，音以。言既已告云之謂。

## 公治長

〔斯焉取斯〕 이 사람이 어디 가 取ᄃ야 斯를 ᄃ리오. 恐當云 斯를 取ᄃ리오.

〔不佞〕 佞티 묻ᄃ두소이다.

〔禦人以口給〕 人을 禦호되 口로써 給ᄃ다가. 當云 口給으로써 ᄃ다가.

〔無所取材〕 取ᄃ야 材ᄃ은 배 업도다. 當云 材ᄃ배.

〔糞土〕 섭섭ᄃ ᄃ흘기라 恐非也. 只是雜糞穢之惡土耳.

〔我不欲人加我〕 我ㅣ 人이 내게 加ᄃ음을 欲디 아니호믈. ○我ㅣ 人이 내게 加ᄃ야든 欲디 아니ᄃ는 거슬. 當云 내 人이 내게 加ᄃ과다 아니ᄃ는 거슬.

〔欲無加人〕 人의게 加ᄃ음 업고자 ᄃ노이다.

〔言性與天道〕 子의 言ᄃ신 性과 다뭇 道는 可ᄃ히 시러곰 듣디 묻ᄃ얏쌍이다. 【今按】 此說近之, 而有未穩. 蓋子貢始得聞之而歎曰: ‘文章, 固學者所可聞,

性與天道，學者有不可得而聞者’，是可得聞·不可得聞，皆非子貢之聞不聞，乃他學者之聞不聞。子貢惟能已得聞之，故能知學者之未易得聞，而發此歎耳。若已未曾聞之，何以知學者之可聞與不可聞邪？說者之意，似以兩聞字皆爲子貢之聞，又不會可字意，爲此誤說。當云 子の性と 다못 道를 言하샤믄 可히 시러곰 聞디 못하리라。○朱子答呂伯恭曰：“性與天道，不可得聞，而但是聞者，未易解耳。聖賢之言，固無所不盡云云。”亦可見聞非子貢之聞。

〔有聞〕을. ○이오. 兩存無妨。

〔敏而好學〕 敏호디. ○호디則意淺。當云 敏하고.

〔久而〕 오래디 敬하고녀.

〔老者安之〕 者를 安으로 하며. ○者ㅣ 安케 하며 信하미.

〔少者懷之〕 少者를 懷함이니라. ○懷홀디니라.

【今按】安으로 拘於註文，不須如此。當云 老者를 安하며 少者를 懷홀디니라. 信之則當云 信으로.

〔子謂南容〕 問“南容云者，因其姓與字而得稱者邪？”曰：“是。”

〔於予與改是 註〕 “未嘗不以懈惰荒寧으로 爲懼하

고 勤勵不息으로 自強歟?” 曰：“是.”

【註 以己及物推己及物】 問“以字推字，所以爲仁恕之別者，何歟?” 曰：“以己所固有而自然及物，故爲仁. 推己所欲惡而要以及人，故爲恕.”

【猶吾大夫崔子】 問“此甚惡於崔子之詞歟?” 曰：“是.”

【少者懷之 註】 ‘付與萬物，而已不勞焉’， “此己字，自天地而言者歟?” 曰：“是.”

【羈勒】 問“此設譬之意，未分曉.” 曰：“馬首之形，自具受羈勒之理，故人得因其形而作羈勒以馭之，猶老者自具安之之理，聖人因以安之；少者自具懷之之理，聖人因以懷之之意也.”

雍也

【可也簡】 可흔 거시 簡이니라. 或云 可호미 簡홀식니라.

【居敬行簡】 居ㅣ 敬이오 簡을 行햐야. ○居ㅣ 敬이오 行이 簡햐야. ○敬에 居햐야. 【今按】 以程子‘內主於敬’之語言之 敬에 居햐다 何不可乎? 以朱子‘居敬行簡’兩件工夫觀之 居햐야 非也. 當云 居햐고.

【善爲我辭】 我를 爲햐야 辭를 善히 햐라 非也. ○善히 我를 爲햐야 辭햐라.

【亡之】 亡햐리로다. 【今按】 當云 亡햐리러니. 或云 亡홀 거시어늘. 蓋亡卽有無之亡, 非死亡之亡. 註, “此人不應有此疾”, 正解亡之兩字, 言此人當無此疾, 而今有之, 是乃命也. 聖人豈問人疾而直言其當死乎? 大非聖人愼厚沈密之氣像. 且若言死亡, 當曰亡矣, 不當下之字.

【中道而廢】 道를 中에 가 廢햐느니 【按】 此以道字爲道德之道, 非也. 道只是道塗之道, 小註, 饒氏,

“行到中途之途”. 當云 道에 中하야 廢하느니.

《不有祝鮀之佞》 鮀의 佞을 두며 朝의 美를 두디 아니하면. 【按】如此則佞下吐，當曰 佞이며. 今人皆讀作佞과，依此而說，則當云 佞을 함과 美를 두디 아니면.

《罔之生》 罔호되. ○罔의.

《觚不觚》 觚ㅣ 觚를 아니하면.

《不可陷也》 可히 陷케 못하게 하며 可히 罔티 마를디니라. 【今按】此說，非也. 當云 可히 陷티 못하리며 可히 罔티 못하리니라. 皆論仁人之不可給云耳，非戒仁人使不受人之欺罔也. 兩句皆作戒辭說，穿鑿甚矣.

《予所否者》 내 所ㅣ 否하면. 或云 내 所ㅣ 否홀던덴.

《博施於民》 만일 民의게 施를 博히 호미 잇고. 能히 濟호미 衆혼딘. 【今按】有字釋，則當釋於濟衆之下. 然有字，似不須釋.

《何事於仁》 엇데 仁에 事를 홀 쏜이리오.

《必也聖乎》 반드시 聖이 하시리오. 【按】하시리오四字，必誤. 當云 聖이신더. 一云 聖乎ㅣ나 更詳

之。

【己欲立而立人】 己ㅣ 立고자 호매 人이. ○人두  
立게 하며. ○己ㅣ 立고자 커든 人두 立게 하며.

【近取】 近에 取하야.

【雍之言然 註】 ‘要直’，要約而簡直也。

【不貳過 註】 ‘慊於己’，問“慊字音義，與‘吾何慊乎  
哉’之慊同歟？”曰：“是。”

【七情出焉】 問“性發爲情，則性則五，而情之爲七，  
何歟？”曰：“四端之情純理，故通五性而無加減，七情  
兼氣發，故雜而有加。”

【三月不違仁 註】 過此ㅣ면 幾非在我者ㅣ니라.

述而

〔信而好古〕 信<sup>ㅎ</sup>야 古를 好<sup>ㅎ</sup>음을. ○信<sup>ㅎ</sup>고 古를 好<sup>호</sup>믈. 據陳氏, 兩說, 皆不可廢.

〔何有於我〕 므스거시 내게 잇<sup>느</sup>뇨.

〔德之不修〕 德을 修<sup>티</sup> 못<sup>ㅎ</sup>며. ○德을 修<sup>티</sup> 아니<sup>ㅎ</sup>며. 前說, 是.

〔未嘗飽〕 飽<sup>티</sup> 못<sup>ㅎ</sup>더시다. 當云 아니<sup>ㅎ</sup>더시다.

〔不歌〕 歌<sup>티</sup> 못<sup>ㅎ</sup>더시다. 雖有不能歌之言, 當云 歌<sup>티</sup> 아니<sup>ㅎ</sup>더시다.

〔富而可求〕 富를 可<sup>히</sup> 求<sup>ㅎ</sup> 거신댄.

〔爲樂之至於斯〕 樂을 홈이 이에 至<sup>ㅎ</sup> 주를 圖<sup>티</sup> 아니<sup>호</sup>라. ○圖<sup>티</sup> 못<sup>호</sup>라 樂이 이<sup>러</sup> 至<sup>호</sup>미 여. 此釋雖無妨, 然當從上釋以從俗, 亦不妨.

〔執禮〕 禮를 執<sup>호</sup>미. 當云 執<sup>ㅎ</sup>는 禮].

〔好古敏以〕 古를 好<sup>ㅎ</sup>야 敏<sup>히</sup>.

〔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 내 行을 子<sup>의</sup> 與<sup>티</sup> 아 아니<sup>ㅎ</sup>음 업<sup>슨</sup> 者<sup>는</sup>. 此說, 是. 但當云 行<sup>ㅎ</sup>고. ○行

호되.

《亡而爲有》 亡호되 有혼 듯호며. 下同.

《釣》 釣호고 綱으로 아니호시며 弋호되.

《蓋有不知》 아디 못호고. ○못호야 作호미 잇느  
니야.

《難與言》 難히 더브러 言호리러니. 當云 더브러  
言호미 難호더니.

《不與其退》 退를 與티 마롤디니. 又 그 往을 保  
티 말며. 【按】註, ‘固不能保其前日, 非許其既退’等  
語, 皆非戒之之辭. 말며 말디니 皆非也. 當云 往을  
保티 못호며. 退를 與호논디 아니니.

《人必知之》 人이 반드시 아로플 幸히 너기노라.  
當云 幸이로다云云 반드시 알오녀.

《文莫猶人》 文이 내 人이 곤디 아니호니아. ○文  
이사 아니 내 人이 ㄴㅌㅅ니아.

《可謂云爾已矣》 可히 니를 ㅅㅌㅅ이니라.

《正唯》 正히 唯호노이다. 【今按】唯, 唯諾之唯,  
上聲. 此唯字, 若作應辭, 何無聲註? 況應辭之上, 著  
正字不得乎? 朱子謂“正是弟子不能學處”, 正唯卽正  
是之意, 不釋唯字, 可也. 謬說相承惑人, 多類此.

【疾病】 疾이 病이어시닐. 二字分言，則有分，此等處，恐不必分言.

【夢見周公 註】 ‘常存行周公之道’， 行周公之道之心，常存於中也.

【三隅反 註】 ‘還以相證’，自己所思得之三隅，却轉來證明於師所舉之一隅，是三隅反也.

【於我如浮雲 註】 ‘無有’ 이슈미 업다. 言無是物也.

【發憤忘食 註】 ‘全體至極’，非謂全體之至極也，謂既能全體，而又至極也.

【釣而不綱 註】 ‘屬綱’，綱本是綱字，作綱者，誤.

## 泰伯

【三以天下讓】 세 번 天下로써 讓하야닐.

【動容貌】 存養時 貌를 動애 慢이 遠하리며. 省察時 貌를 動하면 慢이 遠하리며. 平時涵養之說, 慢을 이에 멀리 하며. 下同. 【今按】 平時涵養, 卽是存養, 非二事, 故三說只二說. 但此章只可以工夫效驗各隨註意而說, 不可以存養時·省察時分爲二段說也. 蓋存養屬靜, 省察屬動, 此三條皆動時事, 而包靜時事在其中耳. 故仁山金氏以動·正·出之間爲存養地頭, 無他, 動·正·出已是動了, 非存養時, 故以或動或正或出之間爲靜時而云然. 然則何可以存養別作話頭, 附會三言, 與省察對立爲說邪? 蓋作工夫說, 則言主省察, 而存養之工錯行於其間. 故當曰 貌를 動하옴에 이에 慢을 멀리 하며 可也. 若作效驗說, 則存養·省察, 皆在三言之前, 而此特其成效, 陳氏所謂三言之外起意者, 是也. 故當云 貌를 動호매 이에 慢이 遠하며. 下同, 亦可也.

〔不可奪〕 可히 奪히 이디 아니하면. 當云 奪티 묻  
히리면, 謂奪其守也. 若云奪히 이다 則可字意不合.

〔篤信好學〕 信을 篤히 해야아 學을 好하며 死를  
守해야아 道를 善히리라. ○信을 篤히 고도 學을 好  
해야아 히리며 死를 守히 고도 道를 善해야아 히리  
라. ○信을 篤하며 學을 好하면 死를 守하며 道를  
善히리라.

〔三分天下〕 세 分인 天下에. 恐不須如此說, 當云  
天下를 三分해야. 或云 三分인 非是.

〔無禮則戇〕 식, 上聲. 絞, 訓縛也. 縛則有結束緊  
急之義.

〔使驕且吝 註〕 ‘歉’, 苦點切, 食不飽也.

〔亂本作糺〕 糺卽治字也, 作治讀.

〔於斯爲盛 註〕 ‘惟唐虞之際, 乃盛於此’, 非以唐虞  
之際謂周也, 稱歎周室人才之多, 而曰 ‘惟唐虞之際  
乃盛於此히고 其餘皆不及於周也’. ‘乃盛於此’之此,  
指周室.

子罕

《天縱》 던던이 天이 縱ᄃᆞ신 거의 聖이시고. 【今按】 當云 天이 縱ᄃᆞ신 聖이시고.

《無臣而爲有臣》 臣 업슬 거시 臣 두믈 ᄃᆞ니.

《無寧死於二三子》 子의 手에 가 死호미 寧티 아니ᄃᆞ니아. 一說 출하리 子의 手에 死ᄃᆞ야사 아니ᄃᆞ리아. 【按】 二說皆通. 아니 出하리 子의 手에 死ᄃᆞ야사 ᄃᆞ랴.

《無聞》 드로미 업스면.

《巽與》 巽히 與ᄃᆞᆯ 言을. 當云 言은.

《衣敝緼袍》 敝ᄃᆞᆯ 緼으로 ᄃᆞᆯ 袍를 衣ᄃᆞ고.

《誦之》 誦호려 ᄃᆞ대.

《後彫》 彫로 後에 ᄃᆞᆯ 主를 知ᄃᆞ리라. ○彫로 後ᄃᆞᆯ 主를 知ᄃᆞ리라. 當云 彫애 後ᄃᆞᆯ 主를 아ᄃᆞ니라.

《空空如也》 【按】 《朱子語類》，以無所有釋之.

《所立卓爾 註》 ‘峻絕’，問“峻絕是無等次超卓之意

歟?” 曰：“是.”

〔行其所無事〕 일 업슨 바를 行하다.

〔臬著〕 無綿花處，以臬著衣，如今北道人亦然云.

鄉黨

〔似不能言〕 能히 言티 못흔 닛 듯 허더시다. 者字不釋，亦可。

〔左右手〕 手를 左 ㅎ며 右 ㅎ더시니.

〔賓不顧〕 凡人有未慊事，則多顧。

〔勃如〕 勃 ㅎ야 戰色 ㄴ티 ㅎ시며.

〔唯酒無量〕 오직 酒를 量을 아니 ㅎ샤디. 此非謂善飲也·多飲也，乃不爲限定之意。

〔不多食〕 兼指上文而言，非徒指薑食而已。【按】非徒指薑食者，甚當。但上文飲食食不食，隨文已斷了，不應於此更言不多食，此正謂凡飲食耳。

〔不問馬〕 不，或云 音否，不字，問之之辭。陽村之說可笑。

〔升車〕 車에 升 ㅎ실 제. ○車에 升 ㅎ샤.

〔色斯舉矣〕 色 ㅎ고 이에 舉 ㅎ논디라 翔 ㅎ 後에 集 ㅎ대.

〔○蹶蹶〕 上，子六切，下，音積。然則當云 蹶蹶。然今俗音 蹶蹶 恐難改也。

〔躡〕 𨇖.

〔檐〕 處占切，𨇖.

〔註 棖闌〕 今人家門未具棖闌之制，若以兩扇窓比之，棖者，兩傍木也，闌者，其中間所豎木也。古之門制亦然，故云云。蓋兩門皆有棖闌之中也。

〔執圭平衡〕 問“平衡是衡平之意歟？”曰：“是。”

〔衣以裼裘〕 言衣之色을 與所裼之裘之色으로 與同之也。如緇衣，衣也，其色黑，故以此衣著於所裼羔裘之上。蓋羔裘色黑，與緇衣相稱也。裼裘者，裼以見出之裘也。

〔其半蓋以覆足〕 如今人作衾，長過一身外，必有餘長者，亦所以覆足。

〔聶〕 作膾者，初切作大片爲聶，以聶切作縷細爲膾。有接·蝶·獵三音。

〔如親見之敬也〕 見之下，不當句絕而讀，言如敬之如親見耳。

〔侍食於君 註〕 授祭호되 品嘗食이라아.

〔石經〕 東漢靈帝令蔡邕隸書六經，刻石立鴻都門外，名石經。

〔拱執〕 兩手執之，曰拱執。

## 先進

《不得其死然》 그 死를 得디 못홀 듯하다. ○호두다.

《不踐迹》 迹을 踐티 아니하나.

《論篤》 論을 篤히 호느니를.

《異》 異를 問호리라 호다니.

《一日長乎爾》 날로써 一日이나 네게 長이라 호는 다.

《毋吾以也》 나를 써 그리 말라.

《非曰能之》 能티 못호디라. 曰字不釋也. 【今按】此說，非也. 此正謙辭，云‘非敢自謂能之也’. 當云能호노라 니르논디 아니라. 若不釋曰字，則但自以不能而願學焉，意便短.

《賊夫人之子》 人之子，指子羔.

《非吾徒 註》 ‘已絕之’，已，音以.

《不踐迹》 問“不踐迹三字，自不爲惡之意，包在其中歟?” 曰：“是.”

〔優柔厭飫〕 問“優柔與優游同，而厭飫是滿足之意歟？”曰：“是。”

〔然自身〕 은.

〔却只在此〕 ㅣ 나라.

顏淵

〔爲仁〕 仁호요미니. ○天下ㅣ 仁을 歸호리니.

〔爲之難〕 호음이 難호니. 踐言難也, 行事難也.

〔駟不及舌〕 駟도 舌에 及디 못호리로다.

〔誠不以富〕 진실로 必 富티 아니호고 또 마치 必 異호두다. ○富케 아니호고 異호를 取호낏다. ○富로必 아니라 異호므로必 호낏다. 【今按】第一說未瑩, 第二說, 是. 但當云 富케 못호고 또 마치 必 異호낏다. 三說乃下齊景公章之意, 不當在此.

〔居之無倦〕 居호요를 倦호 업스며.

〔以就有道〕 有道애 就케 호디.

〔質直〕 直으로 質호고 義를 好호며. ○質호며 直호며. ○直으로質之說, 可怪無謂, 當從下說.

〔忠告善道〕 忠으로 告호고 善으로 道호다가. ○忠히 善히.

〔非禮勿視 註〕 ‘人心之所以爲主’, 問“以人心爲主, 如何?” 曰: “人心以勿爲主也, 言非禮而禁止勿爲. 是

以勿爲主於心也。”

【知誘物化】 知誘於外，爲物所化也。以《小學》註文釋，則知 丨 物에 誘호야 化호야.

【剝床以膚】 ㄴ.

【切近災者也】 丨라.

【直窮到底】 直히 窮호야 底裏에 到호다. 底裏猶云源本也. 小註，‘轆轤<sup>1)</sup>肯綮’，轆轤，上音憐，下音葛，肯綮，雜亂也，交加也. 一云：“上清之氣肯綮，肯，苦等切，綮，音磬，筋肉會處曰肯”，又云：“肯綮，結處也，見《莊子·庖丁解牛》處.”

【色取仁】 令色，好其色以悅人，色取仁，好其色以要名. 註，‘不要近名.’ 問“名에 近호믈 要티 말라 釋之歟?” 曰：“是.”

---

1) 轆轤：《論語集註》의 細註인 慶源輔氏의 설 가운데 나온다. 그의 설에서는 ‘轆轤’로 되어 있다.

子路

〔先有司〕 司의게 先히고. ○司를 先히며.

〔有是哉〕 이러토타호미 이실샤. 當云 이러호미 잇다 子의 迂호미여.

〔闕如〕 闕히느니라.

〔名之必可言〕 名홀딘댄 반드시 可히 言홀 거스로  
히며.

〔學稼〕 稼를 學히야지라 請히대. 下同.

〔襁負〕 襁으로 負히야.

〔亦奚以爲〕 쏘 므스거세 쓰리오.

〔善居室〕 室에 居호믈 善히 히낏다.

〔苟合〕 히마 습거다 히며. ○잠깐 습거다. 下說,  
是. 但當云 습히다.

〔退朝〕 朝로써 退히야늘.

〔予無樂乎〕 予ㅣ 君도여시믈. 當云 도외믈 樂호  
미 업고.

〔唯其〕 오직 그 言을 나를 違티 마로미라 히느

니. ○違티 말와다 ㅎ느니. ○當云 言호매. 違以下,  
當用下說.

〔直躬〕 躬을 直히 ㅎ는 者ㅣ 인느니.

〔居處恭〕 處에 居호믈 恭히 ㅎ며. ○恭히 ㅎ야.

【今按】此說, 大鑿. 居處雖對執事, 文理不同, 兩字  
只是一意. 當云 居處에.

〔進取〕 進ㅎ야 取ㅎ고.

〔或承之羞〕 或 羞를 承ㅎ리라 ㅎ니.

〔先有司〕 問“有司에 先ㅎ다 釋歟?” 曰: “是.”

〔名之必可言也〕 名호딘덴 반드시 可히 言ㅎ며.  
如以禰爲禰·以祖爲祖, 名之也. 如此則無不可言也.  
今輒以祖爲禰, 是名之而不可言者也.

〔註 須之學疑不及此〕 問“及此, 指拒之而言歟?”  
曰: “是.”

〔苟合〕 問“有字, 始得財而有之歟?” 曰: “是.”

憲問

《怨欲不行》 欲이 行티 몬게 ㅎ면.

《可以爲難》 可히 ㄷ 難컨마는. 當云 難 ㅎ나.

《能勿勞》 愛 ㅎ얀 能히 勞케 마라리아. ○勞티 말라.

《惠人》 惠 ㅎ는 人이라. 恐當云 惠 ㅎ.

《久要不忘》 要애 生애 言을 忘티 아니 ㅎ면. 平生之言, 卽久要之言.

《以防求爲後》 防으로 ㄷ 魯애 가 後 ㅎ움을 求 ㅎ니. 當云 後도외리를 求 ㅎ니.

《如其仁》 ㄴ ㄱ 仁이 ㄴ ㄷ리오.

《與之坐》 ㄷ브러 坐 ㅎ샤.

《賢乎哉》 賢 ㅎ니아.

《何爲是》 엇데 이 棲棲 ㅎ요를 ㅎ느니오.

《何以報德》 ㅁ스거스로 ㄷ 德을 報 ㅎ리오.

《修己以敬》 己를 修 ㅎ되 敬으로 ㄷ 홀디니라.

《註 滲漏》 滲, 音습. 一平聲, 一去聲, 滲漏, 식다.

《奪伯氏駢邑》 桓公奪而與之，非管仲奪之也。《集註》已明，不須更求奪之之事也。

《下學而上達 註》 ‘意在言表’， 問“何以曰意在言表？” 曰：“下學之事，只是平常，無奇特聳動人處。至其天理之妙，忽然上達去，又捉摸不得。此乃言所難形容處，故曰意在言表。”

衛靈公

《慍見》 慍하야 見하야 닐오되. ○慍을 見하야.  
此, 非也.

《汝以予爲多學》 네 날로써 해 學하야 識하얏다  
하느다. 當云 識하다 하느냐.

《恭己正南面》 己를 恭하고 正히 南面할 씩름이니  
라.

《言忠信》 말이 信히 하며 行에 敬을 篤히 하면.  
當云 言을 信하며 行을 敬하면.

《立則見其》 立호則 그 前에 參호를 見하며 輿에  
在호則 그 衡에 倚호를 見홀디니.

《借人乘之》 人을 빌여 乘하더니. ○人의게.

《不可小知》 子는 可히 小를 知티 아니홀 거시오  
可히 大受하며. ○小를 知티 問홀 거시오 大受하며.  
○可히 小애 知티 問홀 거시오 可히 大엔 受하리  
며. ○人은 可히 大受티 問하고 可히 小애 知하리  
라. 【今按】 上二說, 無理. 當從下說.

【當仁不讓】 當仁호안. 【今按】此吐，非. 當云 當仁호야. 蓋當是擔當之當，言以仁爲己任而力行之也. 若云호안，是以當爲當著之義，失之遠矣.

【有教無類】 教ㅣ 이시면 類ㅣ 업스리라. ○教를 두고 類를 업시 홀디니라. 【今按】當合兩說而從其長云 教를 두면 類ㅣ 업스리라.

【註 鞭辟】 朱子說已詳，更有何他義？猶鞭驅督約向裏來耳.

【明得盡<止>渾化却】 明호믈 盡호음에 查滓ㅣ 곧다 化호야. 却字不釋.

【夏小正之屬】 《夏小正》，記夏時令之書也. 夫子自言之杞而得夏時焉，釋者以爲夏時卽今《夏小正》之書也云耳.

【發此以爲兆】 問“小註兆猶準則之說，如何？”曰：“其所不言者，以所言者爲準而則之，是之謂兆，朱子之說精審矣.”

【人無遠慮 註】 ‘無用之地，不可廢’，容足之地，近地也. 自此之外，足所不履，是爲無用之地，且皆遠地也. 然豈可以足所不履爲無用，遂廢其地而不憂慮乎？若以爲非所關，而慮不及，則患生於所履之近地，必

矣。

【好惡必察】 衆人好惡於別人，而我察其虛實也。

## 季氏

〔有事〕 事を 兪에 두려 호노소이다. 當云 兪에 事を 두려 호노소이다.

〔疾夫舍曰欲之〕 버서 날오되 子ㅣ 欲호느니라 호고 반드시 호려 호는 辭를 疾호느니라. 一云 欲디아니 호노라 호고 반드시 호려 호는 辭를 疾호느니라. 【今按】 此兩說，穿鑿尤甚，殆不是文理. 當云 子ㅣ 欲호노라 니르디 아니코 반드시 辭호느니를 疾호느니라. 舍曰猶不曰也，欲之，已欲之也，而必爲之辭，謂必爲之飾辭以自免也. 言人於其所欲之事不言其已欲之，而必爲之飾辭自免者，君子憎疾之. 蓋其意雖深責冉求諱其所欲，而其語意渾厚，若泛言君子所疾於人者如此云耳. 今如此說者，是孔子直數冉求曰‘君子疾汝自脫已罪，推托曰季氏之所欲，實則汝必欲爲此事而爲此辭也.’是其氣息茆然，意像迫促，言辭切蹙，正如勃礌鬪狠者之爲，聖人辭氣之間決不如此. 其文理缺漏側僻，亦已甚矣. 竊詳爲前說者，緣見上文有夫子

‘欲之’之語，遂謂此‘欲之’亦與上文‘欲之’同指季氏而言，所以生此謬曲之說。其下一說，雖知‘欲之’之欲非季氏之欲，然以‘必爲’之爲字爲冉求必爲伐顓臾之事，又以辭字爲上文冉求所對之辭，不知‘爲之辭’三字只是爲之飾辭之意，與上說同歸於謬矣。

【民斯】民이라.

【民無德】民이 德을 稱호요미 업고.

【○九思 註】各專其一，思明專於思明，思聰則專於思聰，各專其一，不雜以二三也。

【不存焉者寡】雖有天理之不存焉者，其不存必少，蓋不存者少，則存者多矣。

## 陽貨

〔時其亡〕 업슨 시절에. 當云 업스믈 時히야.

〔習相遠〕 習으로 서러 遠히느니라. ○洪應吉云 李原吉以習으로之說爲非, 當云 習이. 【今按】 習으로之說, 未見其非, 不知原吉<sup>2)</sup>公何云習이邪?

〔末之也已〕 갈 디 업거든 마롤디니. 【按】 當云 갈 디 업슬 썩름이니. 已字, 非止之之意.

〔其爲東周〕 周를 東애 홀딘더. ○호린더.

〔爲仁矣〕 仁을 히요미니라.

〔親於其身〕 親히 그 身에.

〔有是言〕 卽上文之言. 或曰下文之言, 上文之言者, 是也.

〔不食〕 食디 못히리오. ○註雖有不能飲食字, 當云 아니타.

〔正牆面〕 正히 牆을 面히야 立호민더.

〔禮云〕 禮ㅣ라云히며.

---

2) 原吉 : 今按: 내용상 ‘應吉’이 되어야 한다.

〔鄉原〕 鄉에 原는.

〔道聽塗說〕 道を 聽하고 塗에서 說하면. ○道에 聽하고 說에 必하면. 【今按】此兩說，皆非也。當云 道에 聽하고 塗에서 說하면. 本言在途而聽之，即塗而說之，無意於行之者，是自棄其德也。此四字，必當時俗語，夫子舉之，而以德之棄一言斷之，便為格言耳。且如今世俗人尋常說此四字，亦依其本意而稱之，了無差誤，不知自何先儒鑿成怪說，因註文有善言字，遂貼認道字為道理之道，又疑即塗而說之，似非其事宜，乃以聞善不行只付之空言之意，遂附會塗字為糊塗之塗，解作只糊，付於言說，以就註文不為己有之云。今此二說，上說誤在道字，下說誤在塗字，傳訛襲謬，牢不可破，以誤後學，豈不可傷哉？朱子〈答趙然道書〉，有云“視世之道聽塗說於佛老之餘，而自謂有得者”，又〈答劉子澄書〉云：“執事道聽於人”，醫書有云“今世鍼法不傳，庸醫道聽塗說，勇於嘗試。”此等引用處，雖十百，並無以道為道理·以塗為塗付之意。頃在泮論此，同知周景遊，即見信以為然，司藝許太輝，初尚不然，後乃信云。

〔德之賊德之棄〕 《通考》朱公遷曰：“德之賊此德

字，指有德之人而言；德之棄此德字，是卽指人心之德而言”，此說精當。

〔患得患失〕 得홀 이를 患호고 이의 得호얀 失홀 가 患호느니라.

〔欲無言〕 言이 업고져 호노라.

〔何述〕 엇디 述호리잇고. 當云 므스거슬.

〔使之聞之〕 使之聞之，使將命者聞之. 將命者，孔門之將命. 【按】使將命者聞之，此本註南軒說，未詳. 再按南軒之意，使將命者，非孔門之人，乃爲孺悲將命之人.

〔期已久矣〕 期만 흠도 이의 오라도소이다. ○期나 호고 마라도 久호두소이다. 下說, 非.

〔可已〕 期ㅣ나 호고 可히 已홀디로소이다. ○마라도 호리로소이다. 亦當云 期만 호고 可히 말 거시로소이다.

〔居處〕 處애 居호야 非也. 見上.

〔不有博奕〕 奕호리 잇디 아니호니아 호요미 오히려 마롬만 賢호니라. 恐當云 博奕이 잇디 아니호니아 호요미 오히려 마롬두곤 賢호니라.

〔徼以〕 徼로써.

## 論語釋義

【註 兩倚】 倚，今所謂교의也，字或作椅。

【受以成布】 初喪未成布爲服，至是以成布爲服，是成布代受於未成之布也。蓋自兩布交受言之，非人受之也。

論語釋義-13a

## 微子

〔待孔子〕 子를 待ᄃᆞᆫ음을 닐오ᄃᆞᆫ.

〔殆而〕 政을 從ᄃᆞᆫ요미 殆ᄃᆞᆫ니라. ○此以者爲虛, 以爲今世若欲從政, 則危道也云. 然觀其語勢, 者字當指從政之人. 云從政之人殆哉, 則戒出世蹈危之意, 在其中.

〔執輿〕 執ᄃᆞᆫ야 輿ᄃᆞᆫ 者는 誰오 滔滔者 | 天下 | 다 이리ᄃᆞᆫ니 놀로 더브러 易ᄃᆞᆫ리오. 當云 輿에 執ᄃᆞᆫ는.

〔孰爲夫子〕 누를 夫子 | 라 ᄃᆞᆫ뇨 ᄃᆞᆫ고. 當云 誰 夫子오 ᄃᆞᆫ고.

〔爲黍〕 黍를 爲ᄃᆞᆫ야.

〔中慮〕 中人之慮.

〔怨乎不以〕 臣으로 ᄃᆞᆫ여 쓰디 아니ᄃᆞᆫ다 怨케 말며.

〔○註 裸以爲飾〕 蠻夷之俗, 不具衣冠, 泰伯循其俗而爲飾耳, 非全露體也.

論語釋義

《不弛》 弛音，諸處皆云豕，俗音以，誤。

## 子張

《其可已矣》 기 可 할 썩음이니라.

【焉能爲有】 엇디 이시미 도외며. 下同. 엇디 잇다  
 흥며. 下同. 其存其沒, 無關於當世之損益也. 【按】  
 此說, 是. 但不當以存沒爲言耳.

《子夏云何》 子夏는 엇디 니르더니오.

【於人何所不容】 人의게 엇디容티 아니함며.【今按】當云 人에 어니를容티 아니함며.如此方見無所不容之意. 若如此說者, 是我之見容於人, 非本旨也.

〔致遠恐泥〕 遠을 致하요매 泥흘가 恐하논디라.

【博學篤志】 學을 博하고 志를 篤히 하며 問을 切히 하고 思를 近히 하면. ○切을 問하고 近을 思하면. ○切히 問하고 近으로. 恐當云 切하기를 問하고 近으로 思하면.

【居肆成事】 肆애 居<sup>ㅎ</sup>야사 써곰 그 事를 成<sup>ㅎ</sup>고.  
下同. 肆애 居<sup>ㅎ</sup>고도 써 그 事를 成<sup>ㅎ</sup>야사 ㅎ리며.

下同.

〔先傳後倦〕 므스거슬 先이라 ㅎ야 傳ㅎ며 므스거슬 後ㅣ라 ㅎ야 倦ㅎ리오 區로써 別홈이니 始를 두며 卒을 두믈.

〔爲難能〕 難히 能ㅎ 거시나.

〔難與並爲仁〕 難히 더브러 다뭇 仁을 ㅎ리로다.

〔未有自致〕 스스로 致ㅎ 事ㅣ 잇디 아니ㅎ니.

〔問於曾子〕 或云: “孟氏問於曾子”, 或云: “陽廬自問”, 自問, 近是.

〔焉學〕 어딤 가 學ㅎ시리오. ○어딤 가 學ㅎ시니 잇고.

〔語大夫於朝〕 朝애 가 夫의게 語ㅎ야 닐오디.

〔及肩〕 肩이 及ㅎ논디라. 當云 肩에 及ㅎ논디라.

〔無以爲〕 써 ㅎ디 말라.

〔多見其不知量〕 마초와 그 量을 知티 몬ㅎ음을 보리로다. ○그 量을 아디 몬호매서 불로다. 此言叔孫不知己之量也. 【按】 後說不可曉.

〔得邦家者〕 家를 得ㅎ음을. 當云 得ㅎ음은.

〔雖小道必有可觀 註〕 猶耳目鼻口라, 皆有所明. 農明於農, 醫明於醫, 猶耳明於聽, 目明於視, 而皆不通

其餘.

《了此》 一 면.

《便是徹上徹下之道 ○是其然》 에.

《必有所以然》 이니라.

堯曰

〔滅國〕 國以地位言.

〔絕世〕 世以帝王相繼之次言.

〔民任〕 任, 倚仗也, 信也.

〔不教而殺〕 教티 아니헛얏다가 殺홈을, 戒티 아니헛고 成을 視홈을, 期를 致홈을, 골오 人을 與호되. 【今按】 當云 教티 아니코, 猶之與人 ㄴ티록 人을 與호되 非골오之意也.

定本 退溪全書 16

## 孟子釋義

孟子釋義-1a

### 梁惠王上

《有以利》 利케 흠이 잇느니잇가.【今按】有字不必釋，釋則當曰 이시리잇가. 言孟子之來，可有以利吾國乎？若曰 잇느니잇가 則是問有某事可利吾國之意，非本意也.

《謹庠序之教》 햏야.

《惡在其爲民父母》 어딴 母ㅣ 도움이 이시리잇고.  
○母 도움애 므스거시 이시리잇고.

《深耕》 深耕햏고 易햏야 耨케 햏시고.

《養其父母》 햏면.

《離散》 햏리니.【按】此說已然之事，兩處皆當云 햏야.

《定于一》 一햏 딕. ○一햏 딕.【按】此，非是. 當云 一애.

《夫如是孰禦》 그 이러트시 햏면 뉘 能히禦햏리

잇고.

〔無以〕 마디 말와더 ㅎ신 則 王을 홀딘더. 一云  
마디 말라 ㅎ신 則.

〔鰕鯨〕 이. 當云 히.

〔無罪〕 만일에 無罪흔 거시. 만일에之說 非. 當云  
이러트시.

〔吾老〕 吾老를 老ㅣ라 ㅎ야. ○老를 老로 ㅎ야.  
此, 是.

〔御于家邦〕 邦을 御타 ㅎ니.

〔權〕 인. ○흔. 下, 是.

〔度〕 上同.

〔反其本〕 本을 反ㅎ쇼셔. 下文‘盍反其本’, 亦作本  
을. 恐當云 本애.

〔王之塗〕 ㅎ면.

〔欲疾〕 그 君을 疾코져 ㅎ 者. 或云 塗ㅎ며 欲疾  
其君者로 王이니. 此說更詳之.

〔不免死亡〕 免티 몬ㅎ가 ㅎ느니. 不須如此. 當云  
몬ㅎ느니.

梁惠王下

《今王與百姓同樂》 此樂字無音者，上文既音同樂之樂爲洛，故此不更音。今人因是欲讀作音樂之樂，誤。

《有疾》 듯노니. 當云 잇노니.

《大之》 大를 호쇼셔.

《惟曰惟我》 皆釋曰 오직.

《樂以天下》 樂호되. 當云 을.

《無非事》 事ㅣ 아니니 업슨디라.

《何以休》 엇데 써. 下同.

《師行糧食》 師ㅣ 行호옴에 糧을 食호야. 當云 師로 行호야. 糧以下同上.

《謂我》 我를 닐오되.

《思戢用光》 戢함을 思호야 써 光케 호야. ○戢호야 써 光함을 思호야. 下, 是.

《來朝》 朝애 來호야.

《聿來》 聿字不釋.

《凍餒其妻子》 子ㅣ 餒호. ○據文勢 子를 餒케 호

則.

〔曰賢未可〕 賢타 ㅎ야도 可티 아니타 ㅎ며. 恐當云 可티 아니ㅎ며.

〔教玉人〕 人을 教ㅎ야 玉을 琢홈애 다르리잇고. 言不任玉人之所學, 而以己意教之, 故以爲比也.

〔東面〕 面으로. 南面同. 【按】面猶向也, 當云 東으로 面ㅎ야.

〔動天下之兵〕 兵을 動ㅎ리이다. 當云 動홈이니이다. 言固所以動天下之兵之道也.

〔死其長〕 長애 死ㅎ리이다.

〔無已〕 同上.

〔爲可繼〕 可히 繼홈을 ㅎ야니. 當云 繼케 ㅎ 썩니니.

〔如彼何〕 더 곤툼은 엇데오. 【按】此說, 大誤. 當云 더기 엇데ㅎ리오. 言無如彼強暴之國何也.

〔所爲輕身〕 爲흔 밧 身을 輕ㅎ야. 此說, 誤. 所字當釋於先字之後.

〔行或使之〕 行ㅎ음도 或이 使ㅎ애며 止ㅎ음도 或이 尼ㅎ애나. ○只云 使ㅎ며 尼ㅎ느니. 無妨.

公孫丑上

《不足爲》 足히 ㅎ디 아니ㅎ야리잇가. 當云 ㅎ디  
몰ㅎ리잇가.

《今言王若易》 今에 王을 니르삼이 이러틋시 易ㅎ  
則. 當云 今에 王을 이러틋시 쉽다 니르신 則.

《不足法》 同不足爲.

《文王何可當也》 文王을 엇데 可히 當ㅎ리오. 【今  
按】此說，誤. 當云 文王은 엇데 可히 當ㅎ시리오.  
盖孟子將言商先王德厚流長，文王雖以聖德不能王天  
下之意，故先以文王何可當一句發之，正所謂倒句法  
也. 《集註》，當猶敵也，義亦曉然矣. 若如《釋》意，  
則丑本問文王足法與否，孟子何遽以敵不敵答之？況  
丑意王道若易，則文王聖德，豈有不王之理，孟子答以  
文王雖聖德，彼時商命未替，文王何得以有天下乎. 故  
以何可當發之，而結之曰：“是以難也.” 是其語勢，問  
答起結之間，通貫相應. 若如此釋，是孟子不答丑意，  
而遽以一句贊文王之德，不亦贅乎.

〔王子〕와.

〔干〕과. 更詳之.

〔飢者易爲食〕 飢<sub>흔</sub> 者 | 食<sub>힘</sub>이 易<sub>ㅎ</sub>며. 下同.

【今按】此說，亦恐誤. 易爲食·易爲飲，語勢正與‘難爲兄·難爲弟’‘難爲水·難爲言’之類同，而意反者也. 故當云 飢者애 食도외미 易<sub>ㅎ</sub>며 渴者애 飲도외미 易<sub>ㅎ</sub>니라. 盖以飢者渴者，比憔悴之民，以非甘美之飲食，比今之行仁政，飲食非甘美，而於飢渴者，則易於爲飲食，仁政事半古，而於憔悴之民，則易於成王道云爾. 若依《釋》說，當曰 易食易飲，不當着爲字. 且但爲憔悴之民，樂歸仁政，而無行政者，事半功倍之意，中間文勢偏枯，不貫矣.

〔膚撓〕 膚 | 撓<sub>티</sub> 아니며 目이 逃. 同上. 或云 膚로, 目으로. 或說，是.

〔猶勝也〕 <sub>ㅎ</sub>노니. 一云 <sub>ㅎ</sub>야. ○<sub>ㅎ</sub>야 非.

〔能無懼〕 懼<sub>힘</sub>이 업슬 ㅅ<sub>름</sub>이니라. 當云 업슬 ㅅ<sub>름</sub>이라 <sub>ㅎ</sub>니라.

〔吾不惴〕 惴<sub>케</sub> ㅁ<sub>ㅎ</sub>려니와. ○<sub>티</sub> 아니<sub>ㅎ</sub>려니와 非.

〔持其志〕 志를 持<sub>ㅎ</sub>고 氣를 暴<sub>히</sub> 말올디니라. 一

云 持호고두 暴티 말라 호두다. 下說, 是.

〔集義〕 是ㅣ 義ㅣ 集호야. 【今按】 當云 義를 集호야. 養氣者, 固不可先有集合此義, 以生浩氣之心. 然集義二字, 實是積累工夫之處, 豈都不容着工而義自然來集乎? 正緣諸先生怕涉計較期待之私, 故不顧文勢義意, 而爲此說耳. ○義어든 襲호야. 此亦拘註文太甚之病, 雖曰 義ㅣ 無妨.

〔必有事焉〕 받드시 事ㅣ 잇거든. 【今按】 此, 大謬. 當云 일사모를 두고 正티 마라. 此乃事事之事, 正是著工處, 亦緣畏涉有心, 故爲此說.

〔未有夫子〕 子만 호니 잇디 아니호니라.

〔以予觀於夫子〕 予로 子의 보옵건댄 舜에서 賢함이 遠호샤스이다. 【今按】 此, 誤. 當云 予ㅣ 夫子를 觀호옴으로써 호건댄 舜두곤 賢함이 遠호샷다. 其意猶曰以予所觀於夫子者言之, 則如此云云耳. 若如《釋》意, 則是宰我自以己之賢比方於夫子之聖而觀之, 益知夫子之聖遠過於堯·舜云. 又若親對夫子而贊歎之辭, 宰我雖少謙厚之德, 豈容遽以己而仰援聖師以較長短? 又聖德如天, 豈待自己比觀, 然後知過於堯·舜乎? 此必無之理也. 且此自是贊夫子之德耳, 未必對

夫子言也.

《亦類》 止.

《拔萃》 또흔 類 | 로되 그 類에 出ᄃ야 그 萃에 拔ᄃ느니. 此讀, 未穩. 當云 亦類 | 니 類에 出ᄃ며 萃에 拔ᄃ거니와. 言凡聖人固皆出類拔萃, 然而就群聖而觀之, 未有盛於夫子也.

《心服》 心에.

《心悅》 心이.

《自西》 西로브트며 北으로브테 思ᄃ야 服디 아니 리 업다 ᄃ니. 或云 服디 아니함을 思ᄃ리 업다.

《誰敢侮》 侮ᄃ리오 ᄃ시니라.

《永言配命》 기리 言ᄃ야 命을 配ᄃ야. ○配ᄃ야 未穩. 配ᄃ음이.

《不忍人之心》 人을忍티 몬ᄃ 心을 둔느니. 下皆 同. 恐當云 몬ᄃ.

《無惻隱之心》 이.

《自謂不能》 能히 몬호리라 니르ᄃ 者는.

《不仁不智》 仁을 아니함이 智티 아니혼디라 禮 | 업스며 義 | 업스면. 恐此句則只平說云 仁티 아니 며 智티 아니ᄃ야.

孟子釋義

《人役》 人이 役하느니. 下同. 言爲人所役之人也.

當云 人의 役이니 人의 役이오.

《如射》 射함이 ㄱ특니.

《有大》 大함이 인느니. ○계시니.

《樂取》 人에 取하야 써 善함을 樂하더시다.

《無非取於人》 人에 取티 아니함 업더시다.

孟子釋義-3b

公孫丑下

《不可及也》 可히 及디 못ᄃ려니와. ○也ㅣ나. 釋  
못ᄃ나.

《輔世長民》 世를 輔ᄃ야. 當云 ᄃ며 民에 長이  
되옴앤.

《好臣》 臣을 그 教ᄃ를 好ᄃ고.

《不好臣》 臣의게 그 教受ᄃ를 好티 아니ᄃ식  
니라.

《未有處》 處ᄃ이 잇디 아니호니.

《立而視》 立ᄃ야셔.

《予何言》 내 엇데 말ᄃ리오. ○므슴 말을 ᄃ료.

《不得不以悅》 得디 못ᄃ얀 可히 悅티 못ᄃ를 거  
시며 財ㅣ 업스면 可히 悅티 못ᄃ를 거시니 得ᄃ고  
財ㅣ 이슈믄 古人이. 【今按】 無財, 亦當依上文《釋》  
曰 財ㅣ 업서ᄃ云云. ○又有財 《釋》云 財ㅣ 이셔  
ᄃ.

《過則改》 過ㅣ 거든 곧.

孟子釋義

【無人子思側】 子思의 側에 人을 업시 ㅎ던든. ○  
繆公의 側에 人이 업던든. ○兩條皆不須言던든 上  
只云업시흔 則 下只云업슨 則.

【未欲平治天下】 下를 治코져티 아니 ㅎ시니. 或云  
ㅎ샷다.

孟子釋義-4a

滕文公上

〔于茅〕 네 가 茅 ㅎ고.

〔索〕 索을 絢 ㅎ야.

〔恭儉禮下〕 恭 ㅎ며 儉 ㅎ야 禮로 下를 ㅎ며. 恐當云 下를 禮 ㅎ며.

〔爲富〕 富 ㅎ면 仁티 몰 ㅎ고.

〔取盈〕 盈을 取 ㅎ느니.

〔經界始〕 界를.

〔將爲君子〕 將 ㄷ 子ㅣ 도외며 將 ㄷ 人ㅣ 도외리니.

〔鄉田同井〕 田에 井 ㅎ야. 【按】 此, 非. 當云 田에 井을 同 ㅎ 이.

〔冠素〕 素로.

〔厲陶冶〕 厲티 아니 ㅎ며. 當云 厲 ㅎ는 주리 아니니.

〔陶冶舍〕 陶와 冶舍를 ㅎ야 다 그 宮中에서 取 ㅎ야 用 ㅎ 만 아니 ㅎ고. 【按】 此舍字, 註作二義. 若作

陶冶舍看，則不當云 用 흠 만，若屬下句，作止字義云 用 흠 만 則不當連陶冶舍爲一說。今合此爲一說，則誤。

《勞力者治於人》 이라 하니. ○曰字語止於此云。

《不善變》 不善에 變하듯다. 此說，恐非。蓋變有善不善，遷喬則善其變者，入幽則不善其變者也。故當云 善히 變티 몬하듯다.

《夷子不來》 子는 來티 말라. 【按】如此則當云 勿來。今作不來，是孟子絕之以‘我且往見’，於是夷子不敢來耳。○往見호리라 하신대 不來하니라.

《直之》 直히 아니하면 直으로 호리라. 恐當云 直디 아니면 直호리라.

《使之一本》 하야곰 혼 本이어니와. 此，誤。當云 本이어늘.

《歸反藁裡》 歸하야 藁와 裡를 反하야 掩하니.

【今按】此說，是。歸，歸屍處也。反，《集註》，覆也，卽‘雖覆一簣’之覆，言盛土於器，覆而寫之於地也。此義明白無疑。或爲鑿說，‘田歸者，歸其家也，反者，反於屍處也’，以此爲歸家取土器而反於屍處。違文理背註意，不可從。

孟子釋義-4b

## 滕文公下

【大則小則】 大<sub>헉</sub> 則 小<sub>헉</sub> 則.

【枉尺而直尋】 枉<sub>이</sub> 尺만 <sub>헉고</sub> 直<sub>이</sub> 尋만타 <sub>헉니</sub>.  
下文同. 尋만타 호믄. ○枉<sub>이</sub> 尋만 <sub>헉고</sub> 直<sub>이</sub> 尺만  
<sub>헉야두</sub> 利어든云云.【今按】《集註》，有‘所屈者小·  
所伸者大’之語，故《釋》云云. 然此方說進而施爲之  
事，非說已往見成之效，則當曰 尺을 枉<sub>헉야</sub> 尋을 直  
<sub>헉다</sub>. 盖中間而字，便是着力爲之之言，非已然之說  
也. 惟下文‘枉尋直尺’處，中無而字，可從此釋，無妨.  
然兩만 亦當去之. ○如‘枉己直人’之文，豈可解作枉  
<sub>이</sub>己오直<sub>이</sub>人乎？可知此說之誤.

【往送】 往<sub>헉야</sub> 門에 送<sub>헉야</sub>. 當云 往을 送<sub>헉는</sub>  
門에.

【不敢以祭】 敢히 祭티 몬<sub>헉고</sub> 亦不祭<sub>헉는</sub>니 服이  
備티 아니혼디라 敢히 써 祭티 몬<sub>헉</sub> 則 敢히 써 宴  
티 몬<sub>헉는</sub>니.【今按】此說以此章皆爲《禮》之文，然  
細看文勢，自‘禮曰’止‘以爲衣服’爲《禮》之文，自‘犧

牲不成’止‘不敢以祭’，即孟子解禮之意如此。又自‘惟士’止‘亦不祭一段’爲禮之文，自‘牲殺’止‘亦不足吊’，又孟子解禮之意如此，更詳之。

〔侵于之疆〕 疆을侵하야.

〔陽貨先〕 貨ㅣ 묻져 하거든 엇디 시러곰 見티 아니하시리오. 或云 묻져 하더든. 盖以瞰亡而往，故如此云，更詳之。○劉韜仲問“陽貨之惡，聖人恐無不終絕之意，時其亡者，終不欲見之耳。遇諸塗，不可得而避，非得已也。”朱子曰：“恐未然”，然則或說，非也。

孟子釋義-5a

## 離婁上

〔上無道揆〕 上이 道로 揆티 아니호면 下ㅣ 法으로 守티 아니호야. 【今按】 據註文勢, 則似當如此. 然此等處不可太拘註文, 當平順本文語勢云 上이 道로 揆홈이 업스며 下ㅣ 法으로 守홈이 업서.

〔欲爲君〕 君이 도외고자 홀딘댄. 一云 될딘댄.

〔仁不可爲衆〕 衆이 도외디 못호다 호시니. 【今按】 此以孔子之言止此, 而‘夫國君’以下爲孟子之言, 非也. 當如‘誰敢侮之’之例, 通下‘天下無敵’, 皆爲夫子之言也.

〔勿施爾〕 爾字不釋.

〔言非禮義〕 義를 非호야 言호느니를 닐온. 【按】 當云 言홈애 禮義를 非호느니를 닐온.

〔不獲不信〕 獲디 아니면 信티 아니면. 【按】 當云 獲디 못호면. ‘不信’以下, 至‘不明’同.

〔至誠〕 지극호 誠이오 動티 아닌 者 誠곳 아니면. 【按】 此, 非. 當云 지극이 誠코 動티 못호리,

孟子釋義

誠티 묻흐면.

《存乎人》 人의게 存흐 거시.

《若曾子者》 曾子 곤튼 者ㅣ 可흐니라.

《舍館》 舍홀 館을.

《不可以爲人》 可히 卼 사름이 아닌 거시라 호시고.  
此說, 非. 當云 人이 도외디 묻흐리라 호시고.

孟子釋義-5b

## 離婁下

〔其揆〕 〕. ○호옴에.

〔日亦不足〕 日도 쏘호.

〔不爲已甚〕 已甚함을 호디 아니호더시다.

〔當大事〕 事에 당티 모호고.

〔居之安〕 居함이 안호고.

〔反說約〕 約에 說호려니라.

〔何取於水〕 므스거슬 水에 取호시니잇고.

〔由仁義行〕 義〕 由호야 行호는디라 義를 行호는 주리 아니라. 【今按】此亦畏涉工夫，故如此釋以就自然之意，不顧文勢之倒置・義理之乖舛也. 當云 仁義로 由호야 行호신디라. 盖《集註》，‘仁義根於心’云者，乃先言聖人之心仁義本具之意，而係之曰‘所行皆由此出’，是‘由此’之此字，正指仁義而言. 惟其仁義本具於心，故所行皆由仁義而出，猶耳日本具於身，故所接皆由耳目而視聽也. 故如說由耳目而視聽，當曰 耳目으로 말미아마 視聽矣，豈可曰耳目이 말미아마 視聽

乎？如說由仁義而出，當曰 仁義로 말미아마 出矣，豈可曰 仁義ㅣ 말미아마 出乎？若曰 耳目이 由之 則所由以視聽者，別有他物，而非耳目也，曰 仁義ㅣ 由之，則是所由以行者，別有他物，而非仁義也。然則爲此說者，本欲務避有心工夫之嫌，而反去仁義，而言聖人之所行，其可乎？近世諸公欲精訓說者，每如此，不可不察。

〔湯執中〕 中을 執히샤. 【按】禹·湯·文武，皆兼兩事言，故句中之吐，皆云 히시며. 此獨云히샤者，以中無所不包，故以히시包立賢之意，然倣他 히시며可.

〔薄乎云〕 薄다 닐을 썬이언딩. 云字恐不釋.

〔所無事〕 일삼아 함이 업슨 바를 行히시니.

〔以其存心〕 써곰 그 心에 存히야 함이니 子는 仁으로써 心에 存히며 禮로써 心에 存히야 히느니라. ○只云 存함이니 存히느니라. 恐悉無妨. 更詳之. ○朱子〈答甘吉甫〉曰：“存心者，處心也. 又須知不是將心去存在仁禮上，亦不是將仁禮存在心裏.” 據此則存心，如今俗語막음가지다之意. 恐當云 心을 存함이니 存히느니라.

〔憂之如何〕 憂호옴은 엇데오.【按】此說，非也。當云 憂호딘 엇데호료. 言如以未免鄉人爲憂，則當如何而可乎？必求爲如舜而後，可矣。

〔責善〕 善으로 責호다.

〔寇退〕 上寇ㅣ 退호 則. 一云 退커든. 下寇ㅣ 退호거늘.【按】初言寇退，未反而預戒之，故以二字記其事，再言寇退，曾子已反，故復以二字記其實，非有他意。

萬章上

《於我何哉》 내게 엇단고 하니라. 當云 내게 프스 거신고 하니라.

《汝其于于治》 네 그 내게 治하라 하시니.

《親之》 親하니란 貴과더 하고. 愛富同.

《普天》 普天下 | 王土 | 아니 아니며. 下同.

《孝子之至》 子の 至함은. 下同.

《永言孝思》 기리 孝하느니라 孝 | 則이라 하니.

【按】〈下武〉本註，思字宜爲孝心之義，不釋未安. 說見《詩釋·下武》.

《天視》 天의 視함은 우리 民의 視함으로브트 며.

《天誅》 天誅로. ○誅 | 비로소 攻함을 宮으로 브터 함은 朕이 載함을 亳으로브트시다 하니라.

《無命》 命도 업거니 썩녀.

《陳侯周臣》 子 | 周의 臣이 되얏는디 主하시니 라.

〔五羊之皮〕 自鬻<sub>ㄴ</sub>야 羊의 皮로 牛를 食<sub>ㄴ</sub>야 非  
也. 當云 自鬻<sub>ㄴ</sub>음을 羊의 皮로 <sub>ㄴ</sub>야 牛를 食<sub>ㄴ</sub>기  
로 公을.

萬章下

〔集大成〕 成을 集함이니 非也. ○集하야 成함이  
시니.

〔爾力〕 爾字不釋. 恐當說네.

〔見行可〕 行하음애 可함을 見하야 仕하음두 이시  
며 際하음애 可한 仕두 이시며 公養하음애 仕하음  
두 이시니. ○行함이 際 | 公의 養으로 ㅎ신. ○行  
함이 可함을 見하야 仕하음도 이시며. 一云 보신  
仕도 겨시며 際 | 可한 仕도 겨시며 公養으로 ㅎ신  
仕도 겨시니.

〔有時乎爲貧〕 時로 貧을 爲하야 仕함도 이시며.

〔位卑言高〕 位 | 卑하야서 言을 高히 ㅎ도. ○位  
| 卑하고 言이 高함도. 此說, 是.

〔亟拜也〕 卒로 拜케 ㅎ이라. 當云 拜케 ㅎ니.

〔何爲也哉〕 므스거슬 爲하야 잇가 非也. 此非萬  
章之言, 乃孟子反詰萬章之辭, 當云 爲하느뇨.

〔爲其賢也〕 爲하애니라. ○非孟子言, 乃萬章答辭,

當云 爲호애니이다.

《不召師》 召티 아니호야 師호곤 非也. 當云 師를  
召티 몬호곤. ○曰以下, 皆孟子言.

《尙友》 友를 尙홈이니라. ○尙호야 友호옴이니라.

告子上

〔生之謂性〕 生흔 거슬 낳은 性이니라 非也. ○生  
홈을 낳은 性이니라. 當云 生을 낳은.

〔白羽之白〕 羽의 白흔 거시 白雪의 白흔 거시 마  
뜻며 是.

〔白馬之白〕 白馬의 白홈이 써 白人의 白홈애 異  
홈이 업거니와 長馬를 長이라 홈이 써 長人을 長이  
라 홈애 異홈이 업스너 不可. 【今按】《集註》, “白  
馬白人, 所謂彼白而我白之也; 長馬長人, 所謂彼長而  
我長之也”, 則上兩白字, 是白之之義, 而下兩白字,  
爲物之白也; 上兩長字, 是長之之義, 而下兩長字, 是  
爲物之長也, 與上章‘白羽之白’等文勢不同, 當說云  
馬의 白흐니를 白다 홈이 人의 白흐니를 白다 홈애  
다르디 아니커니와 馬의 長흐니를 長이라 홈이 써  
人의 長흐니를 長이라 홈애 다르디 아니냐. 今此說  
白馬白人, 與上章同說, 旣失之長馬長人. 亦以上長爲  
物之長而下長爲長之之義, 亦非.

〔好是懿德〕 德을 好하느다 하시다. 孔子言至此.

〔爾殊〕 爾字不釋. ○爾字, 恐當說그러히.

〔同然〕 同然흔 배 업스랴. ○釋云 흔가지로 올타  
흔 배 업스랴.

〔平坦之氣〕 〕. 【按】此, 非也. 當云 氣예. 盖好  
惡與人相近, 非氣也. 因平坦氣清而良心發見, 故好惡  
得其正耳. 若云氣〕, 則是認氣爲良心, 大失本旨.

〔不足以存〕 存티 못하느니. 當云 存히 오디 못하  
고.

〔無惑乎〕 惑함이 업도다.

〔一日暴〕 一日이 十日이.

〔由是則〕 是를 由하야 하논디라 生을 用티 아니  
하며. 【按】由是之說, 甚善. 但生을之說, 未當. 當云  
生하얌즉하야도 用티云云.

〔身死而不受〕 身이 死함을 爲하야도 受티 아니타  
가. 或云 受티 아니턴 거슬.

〔害事〕 害흔 이리 아니언마는. 當云 事에 害흔  
주리 아니언마는.

〔兼所愛〕 愛하논 바를 兼하얀느니. 或云 兼하야  
愛할 배니.

孟子釋義

《兼所養》 同上.

《天爵》 天爵도 이시며 人爵도 인느니.

《仁義忠信》 仁義를 忠信으로 하야 樂善을 倦티 아니홈이. ○小註說則如此. 然本文語勢, 只是仁義며 忠信하야云云耳.

《志於穀》 穀에 志하거든. 當云 志하느니. 以規矩 同.

孟子釋義-8a

## 告子下

〔奚有於是〕 엇데 이에 이시리오.

〔有餘師〕 나쁜 師ㅣ 이시리라. 或云 師ㅣ 有餘ㅎ  
리라. 下, 是.

〔不可磯〕 不可ㅎ 磯ㅣ니. 此說, 尤非. 當云 可히  
磯티 못홈이니. 盖激者磯, 而怒者水; 過者親, 而怨  
者子, 以磯微激而水遽怒, 比親小過而子輒怨, 豈不明  
甚? 曰 不可ㅎ 磯ㅣ라 則是以磯爲子, 而水反激磯,  
親反怨子矣, 是甚文字義理耶? ○磯指親也, 水指子  
也.

〔務引其君〕 그 君을 務引ㅎ야 써 道ㅎ야. ○ㅎ야  
必誤. 當云 道애 當ㅎ야 仁에 志ㅎ 썩름이니라.

〔不嚮道〕 ㅎ며.

〔不志於仁〕 이어든.

盡心上

【存心養性】 心호며. ○洪應吉云 當曰 호야. 據陳氏說, 宜從.

【求在我者】 求ㅣ 내게 인는 者ㅣ니라. ○求在外者, 求ㅣ 外에 이심이니라 非也. 當云 내게 인는 者를 求호식니라 外에 인는 者를 求호식니라.

【小補】 엇디 小補함을 니르리오.

【事君人】 君人을 事호 者ㅣ 잇느니 非也. 事君人者, 唯知徇君之人也, 安社稷臣者, 唯知安社稷之臣也, 天民者, 全盡天理之民. 其文相對相類, 當云 君을 事호 만호는 人이 이시니.

【性之身之】 性이오. 一云 호시고 身호시고. 【按】 性이오 非也 亦畏涉工夫之病, 호시고 是也.

【居仁由義】 仁에 居호며 義에 由호느니. ○義를 由호음에.

【執之】 執호 ㅅ름이니라. ○執, 拘執之也. 或曰 執法之執, 非也.

〔恭敬幣之未將〕 幣를 將티 몬ᄃ얏는 저기니라 未當. 當云 將티 몬ᄃ야셔 ᄃ는 者ㅣ니라.

〔引而不發〕 引ᄃ고 發티 아니ᄃ야 躍듯ᄃ야 中道로 立ᄃ얏거든. 或云 發티 아니ᄃ야.

〔急親賢〕 親賢을 急히 ᄃ을 務ᄃ느니.

盡心下

〔二女媼〕 二女ㅣ媼호음을 非也. 媼, 女侍, 卽妾媵之從嫁者耳. 二女며媼를.

〔無上下之交〕 上下애 交호리 업슬식니라. ○上下애 交ㅣ업더시다.

〔言近指遠〕 言이 近호되 指ㅣ遠호 者.

〔守約施博〕 同上.

〔性者〕 性인 者ㅣ시고 反호시니라.

〔經德〕 德을 經호야. 言語를 信호미. ○若此處, 雖云 經德이 言語ㅣ以避有意之嫌, 似無妨.

〔無有乎爾〕 잇디 아니호 則 또호 잇디 아니호리로다.

定本 退溪全書 16

## 中庸釋義

中庸釋義-1a

### 1-10章

〔天命〕 天이 命하샤. ○하신 거슬 닐온 性이오.

〔率性〕 性 率함을. ○性다이 率할슬. 【今按】兩說，皆是. 註，朱子曰：“率性，非人率之也”，又曰：“此率字，不是用力字”，又曰：“循字，非就行道人說.”故性다이之說，雖似巧，實是.

〔道〕 道ㅣ란 거슨. 又曰 道는.

〔不可離〕 可히 須臾도 離티 못할 거시니. 或曰 離호미 可티 아니하니 不可. 盖此道字，卽上文率性之道，不可離，非就行道人說. 若云 離호미 可티 아니타 則是就行道人戒飭之辭，非本旨也.

〔莫顯微〕 微만 顯하니 업스니. 上同.

〔慎獨〕 獨을 慎하느니라. ○《大學》之心身不言，而在其中.

〔未發〕 發티 아닌 저글.

- 〔謂之中〕 中이라 니르고. 又曰 닐온 中이오 不可.  
〔發而〕 發하야.  
〔中和〕 中이며 和를.  
〔中庸〕 中庸을 하고.  
〔時中〕 君子ㅣ오 時로 中하고.  
〔忌憚〕 忌憚이 업슬식니라.  
〔鮮能〕 能하리 鮮하요미.  
〔道之不行〕 道ㅣ. ○道の 行티 못하음을.  
〔飲食也〕 언마논. ○로되.  
〔也〕 니라. ○飲食디 아니 아니하건마논.  
〔不行〕 行티 못호민더. 又曰 못하린더.  
〔隱惡揚善〕 惡으란 隱하시고 善으란 揚하시며.  
〔爲舜〕 舜이로오신더. 又云 舜이신더.  
〔皆曰予知〕 다 내 知호라 호되. 又曰 다 골오되.  
〔納諸〕 納호되.  
〔期月〕 期月도.  
〔一善〕 一善을 得흔 則.  
〔拳拳服膺〕 拳拳히 膺애 服하야.  
〔可均〕 可히 均하리며.  
〔不可能〕 能티 못하느니라. 又曰 能히 못하리니

라.

〔問強〕 強을 묻조은대.

〔抑而強〕 네 흘 強가. 抑字不釋, 釋則 도로혀 네  
흘. ○네의 強가. ○네 히을 強가.

〔居之〕 存諸心也. 此說, 恐誤. 居之猶言處之也.

〔寬柔以教〕 寬柔하야 써곰 教하고.

〔無道〕 無道를.

〔死而〕 死하야도.

〔而強〕 而字不釋.

〔和而不流〕 和호되 流되 아니하느니.

〔道〕 애. 下同.

〔強哉矯〕 強타 矯ㅣ여.

中庸釋義-1b

11-20章

〈世〉 예.

〈焉〉 헝리니.

〈矣〉 로라.

〈素隱〉 隱을 素헝야 怪를 行호믈.

〈遯世〉 世예 遯헝야.

〈不見知〉 知를 見티 못헝야도.

〈能之〉 能헝리니라.

〈費隱〉 費헝고 隱헝니라. 又曰 費호되.

〈夫婦〉 猶言愚夫愚婦. 又云匹夫匹婦.

〈所憾〉 憾헝느. ○憾홀.

〈天下莫能載〉 下ㅣ 能히 載티 못헝며. 一云 下애 시를 거시 업스며. 此恐誤. ○道無限量, 故不可載, 道無罅隙, 故不可破也. 一云 極天下之智, 莫能破也.

【按】此說, 好. 但云 無罅隙, 不若云無形樣.

〈鳶飛〉 鳶이 飛헝야.

〈言上下察〉 上下애 察호믈 言헝니라.

〔造端〕 端이 婦에 造하느니 그 至함에 及하얀 地에 察하느니 거시니라. ○地에 察하느니라. 當云 察하느니라.

〔爲道而遠人〕 道를 호되 人의게 遠하느니 거스로 하면.

〔不可爲道〕 道ㅣ라 하디 못하리니라.

〔爲遠〕 멀리 너기느니.

〔違道〕 道에 違호미. 或曰 병으로미.

〔不願〕 己에 施하야든 願하디 아닌 거슬.

〔未能一〕 一도 能티 못호니.

〔所求子〕 子의게.

〔庸德〕 庸하느니 德을 行하며. 一云 庸德을.

〔素位〕 位에 素하야서 行하고. ○見在하느니 그 位에 서 行하고. 下說據註文, 似善. 但於素富貴等處不合, 當從上說. 素字, 兼帶註中因字意看.

〔無入而不自得〕 入하느니 되마다 得디 아날 되 업스니라.

〔不尤人〕 人을 尤티 아니하느니라.

〔行險〕 險에. ○險을.

〔行遠〕 먼 되 行호매 반드시 邇로브터 하옴 ㄴㄹ

며.

〔合〕 이.

〔琴〕 함며.

〔翁〕 함야.

〔耽〕 이라.

〔家〕 ㅣ며.

〔拏〕 ㅣ라 호를<sup>1)</sup>.

〔和樂〕 和樂함고. ○和樂함야.

〔宜爾〕 네 室家を 宜함며. 又曰 宜케 不穩.

〔爲德〕 德이룬디.

〔聽之〕 드로려 함야도 듣디 못함리로되. ○못호되.

〔體物不遺〕 物에 體함야 可히 遺티 못함리니라.

〔齊明〕 齊함며 明함며 服을 盛히 함야.

〔微之顯〕 微ㅣ 顯함니. ○微함 거시.

〔誠之〕 誠이. ○誠을.

〔舜〕 은.

〔與〕 신더.

〔人〕 이시고.

---

1) 호를 : 今按: 어법상으로 보아 ‘호믈’이 옳을 듯하다.

《子》 丨 시며.

《內》 亨샤. ○亨시니.

《廟》 를. ○丨.

《之》 亨시며. ○亨며.

《孫》 을. ○이.

《之》 亨시니라. ○亨니라.

《德爲》 德으론 聖人 도의시고.

《尊富》 尊亨요므론 富亨요모론 內를 두시니 廟丨  
饗亨며 孫이 保亨니라. ○廟를 饗케 亨시며. 【今  
按】此下說可疑，疑有誤，更詳之. 一云 內를 두샤  
廟를 饗亨시며 孫을 保亨시니라.

《篤》 히 亨느니.

《宜人》 人에 宜혼디라.

《自天》 天으로브터.

《大德》 德이사. 或云 德은. ○【再按】此文勢正與  
老者安之·朋友信之等語相類. 今此兩說， 皆當存之，  
而以後說爲主.

《其惟》 惟字不釋.

《以王季》 王季로써 父 사므시고. 此說於文爲順.  
或云 季丨 父 도외므로써 亨시고 非.

《王》 이.

《緒》 헉샤.

《下》 헉샤딕.

《名》 헉샤.

《子》 ㅣ 시며.

《內》 헉샤. ○ 헉시니.

《廟》 를. ○ ㅣ.

《之》 헉시며. ○ 헉며.

《孫》 을. ○ 이.

《之》 헉시니라. ○ 헉니라. 《釋義》 上同.

《一戎衣》 헉 번 戎衣를 헉야.

《王》 이.

《末》 애.

《命》 이어시늘.

《受命》 命을 受헉셔늘.

《達乎大夫》 是自庶人達乎大夫, 非天子達乎大夫.

《無貴賤一》 貴賤 업시 헉가지니라.

《達孝》 達헉 孝 ㅣ 신더.

《秋》 에.

《廟》 헉며. ○ 헉고.

〈器〉 ㅎ며. ○不同上.

〈衣〉 ㅎ며.

〈食〉 이니라.

〈序昭穆〉 序 ㅎ는 배오. 當云 배니.

〈燕毛〉 毛로 燕 ㅎ요믄. 或曰 燕에 毛로 ㅎ요믄.

〈所尊〉 그 尊 ㅎ시던 바를 敬 ㅎ며. 下同.

〈諸掌〉 掌을 봄 곧튼더.

〈政〉 이.

〈息〉 ㅎ느니라. ○니라.

〈布在〉 布 ㅎ야 方策에 인느니.

〈敏政〉 政에 敏 ㅎ고.

〈蒲蘆〉 蒲蘆 마트니라.

〈修道以仁〉 道を 修호되 仁으로써 홀디니라. 一云 道を 修호야 써곰 仁에 홀디니라. 【今按】 當從前說. 後說卽爲政以德, 解曰德에者, 同一說也. 爲是說者, 見《章句》解仁字曰: “天地生物之心, 而人得以生者, 所謂元者善之長也”, 以謂此仁字乃專言全體之仁. 若解曰仁으로써, 則恐涉工夫計較, 以害全體自然之仁, 故鑿爲此說, 以見仁體之渾全不容力做, 而不顧文倒而義乖也. 觀小註, 朱子曰: “道是義理公共之

名，仁是人心親切之妙”，眞氏曰：“志乎道而弗他，知所向矣”，仁則其歸宿之地，而用功之親切處也。若但言修道，則公共義理，浩無涯畔，無所着落，故曰以仁，則是直指人心親切之妙·用功歸宿之處，以爲修道地頭。然則仁非修道之效，乃道固行仁而得明矣。是則 仁으로써之說，有何不可乎？陳氏贊《章句》‘仁其身’三字之精妙，以爲包括修身以道·修道以仁八字，意亦可見。

〔親親〕 親을 親ᄃᆞᆫ 殺와. 一云 親을 親호디.

【按】後說，非。

〔禮所〕 禮의 나ᄃᆞᆫ 배니라.

〔故〕 로.

〔子〕 ᄃᆞᆫ. ○ 1.

〔身〕 이니.

〔不可以不修身〕 身을 修티 아니호미 可티 아니호니. 下同。【按】可字，當從先說，云 可히 써곰 身을 修티 아니티 몬ᄃᆞᆫ 거시니. 盖아니호미 可티 아니타 則其辭緩 아니티 몬ᄃᆞᆫ 거시라 則其辭繁。

〔不事親〕 可히 써곰 身을 修티 아니티 몬ᄃᆞᆫ 거시오.

〔所以行〕 써곰 行ᄃᆞᆫ 바ᄃᆞᆫ. ○行ᄃᆞᆫ 고든. 當云

行호는 마 者는 三이니. 下行之者同.

〈及其知〉 그 知호매 미처는.

〈一也〉 한가지니라.

〈力行〉 힘써 行호믈.

〈家〉 애.

〈經〉 하니.

〈天下國家〉 므릿 天下ㅣ며 國家를 호옴애. 爲猶治意.

〈體群禮重〉 群臣을 體호 則士의 報호는 禮ㅣ重호고.

〈非禮〉 禮ㅣ 아닌 거슬.

〈尊其位〉 位를 尊케 호며. 下同.

〈任使〉 官을 盛히 호야 使를 任케 호요믈.

〈忠信〉 忠信으로 호고.

〈時使〉 時로 使호며.

〈既稟〉 既稟을 事애 稱케 호요믈.

〈薄來〉 往으란 厚호고 來란 薄게 호믈.

〈一也〉 한나히니라.

〈不誠〉 誠티 못호면.

〈不誠乎身〉 身을 誠티 못호리라. 或曰 誠히요미.

〔誠者天之道〕 誠은 天의 道 ] 오 誠히요는. 【今按】 誠之章句, 雖有欲其字, 不可并說. 當云 誠히요는.

〔不勉〕 勉티 아니하야두. 又云 하야셔.

〔從容〕 從容하야 道애 中하야. ○從容히. ○容을 從하야. 【按】 從容是渾成語, 恐不可分解.

〔博學〕 博히 學하며. 又云 學을 博히 하며.

〔有弗學〕 學디 아니호미 이슬 쑤니언딩.

〔人一〕 人이 一에 能하거든.

〔己百〕 己는 百을 하며. ○己 ].

〔果能此道〕 과연히 이 道를 能히 하면.

21-33章

〔自誠明〕 誠으로 自하야 明호믈 性이라 니르고  
明으로 自하야 誠하요믈 教ㅣ라 니르느니 誠하면  
곧 明하고 明하면 곧 誠하느니라. ○誠하리라. 此  
說, 爲是. 或說誠을 自하야, 又誠인 則云云. 【按】  
此或說, 亦避工夫之嫌而云, 雖無大害, 亦甚拘. ○誠  
하 거슬 사마 明하슬 닐온 性이오 明하요므로 사마  
誠하느니云云. 【再按】諸說, 皆似未穩. 當云 誠으로  
自하야.

〔天下至誠〕 오직 天下에 至誠이야. 此猶云天下至  
誠之人也.

〔致曲〕 曲으로 致하느니.

〔曲能有誠〕 曲하면 能히 誠호미 인느니. 又云 曲  
이 能히.

〔至誠之道〕 至誠의 道는. 猶言至誠之人的 道는.

〔者〕 는.

〔也〕 ㅣ오. ○ㅣ니.

〔道〕 ㄴ. ○ ㄴ.

〔也〕 ㄴ 나라.

〔自成〕 誠은 스스로 成호는 거시오 道는 스스로 道홀 거시니라. 此以實理釋. 一云 誠은 스스로 成호야사 道 ㄴ 스스로 行호는니라. 此以實心釋. 【今按】 兩說, 皆是. 但호야사, 註語雖有此勢, 從本文 勢, 當云 成홀 거시오.

〔無物〕 誠티 아니면 物이 업느니.

〔爲貴〕 誠호요를 貴히 너기느니라.

〔合內外〕 內外 ㄴ 합호 道 ㄴ 니. 【今按】 此說之意, 以謂成已成物之極致, 不假修爲. 故曰 內外 ㄴ 합호, 據《章句》無內外之殊之言, 亦似作見誠說, 則此說似當. 然小註, 朱子有能合內外之道之云, 饒雙峯有合內外而爲一底道理之言, 陳新安亦曰: “合內與外”, 并是數說而觀之, 豈都不假修爲而內外自合之謂乎? 況此章言‘人道固是自明, 而誠者之事’, 且不曰‘內外合而合內外’耶? 當云 內外를 합호 道 ㄴ 라 復何疑乎?

〔時措〕 時로措호요매 宜호는니라. 又云 措호야.

〔無息〕 息호미 업느니.

〔如此〕 이 ㄴ튼 者는.

〔不見〕 見티 아니햏야도.

〔無爲而成〕 햏음 업시 成햏느니라. 又曰 햏노라 업시.

〔爲物不貳〕 그 物이론디 貳티 아닌디라.

〔道〕 논.

〔也〕 와. ○ㅣ며. 下同.

〔也〕 ㅣ니라.

〔昭昭〕 昭昭의 하모로도.

〔撮〕 音차.

〔華嶽〕 華嶽을 載햏야도.

〔天之爲天〕 天이 써곰 天이로온 바를 닐오미니라. 盖字不釋. 曰字若先釋, 則不可.

〔於乎不顯〕 於乎ㅁ 顯티 아니냐. 當以豈不釋.

〔曰文王之純亦不已〕 文王이 써곰 文이로온 배 純햏야 쏘햏 마디 아니햏신 주를 니르니라.

〔峻極于天〕 峻히. ○峻이 天에 極햏얀느니라. ○極햏얏도다. 【按】 後說, 是.

〔不凝〕 凝티 못햏느니라. 【按】 當云 凝티 아니햏느니라.

〔尊德性〕 德性을 尊햏고도. 此重下. ○德性을 尊

햏야아. 此重上. 【今按】 햏고도 햏야아. 兩說, 皆是.  
但尊햏야아 則當云 햏리니 可也. 又有一說 尊홀딘  
덴. 更詳之. 【又按】 햏야아 當先 햏고도 當後.

〈道問學〉 問學을 道햏느니. 此重上. 問學을 道햏  
야사 햏느니. 此重下.

〈致廣大盡精微〉 重上下, 並上同.

〈興容〉 皆指君子之身與容也.

〈愚而〉 愚햏고.

〈反古之道〉 古道애 反햏려 햏면. 反字 햏단 마리  
라.

〈子〉 ㄱ덴. ○ㅣ면.

〈禮〉 햏며.

〈度〉 햏며.

〈文〉 이니라.

〈下〉 ㅣ.

〈軌〉 ㅣ며.

〈文〉 이며.

〈倫〉 이니라.

〈車同軌〉 車ㅣ 軌ㅣ 햏가지며. ○子思之時則戰國  
分裂之時也, 而曰車同軌, 此必以大綱言周之混一天下

也.

〈有〉 두나.

〈無〉 업스면.

〈有宋〉 有字不釋.

〈下〉 ㄱ.

〈焉〉 하니. ○이면. ○天下를 王함에 세 重한 거  
시 인느니. 一云 三重을 두면. 後說, 非. 更詳之.

〈徵諸庶民〉 民의게 徵하며. 【今按】 細考朱子·胡  
氏說, 則徵하며 當矣. 或云 徵홀디니 非也.

〈三王〉 三王에 考하여야도.

〈無疑〉 疑호미 업스며.

〈知天〉 天을 알시오. 又曰 天을 알오미오.

〈動而爲天下道〉 動하여야든 世에 下의 道 ㄱ 도외느  
니. 下同. 【按】 不須云 하여야든, 當云 호매.

〈遠之則〉 멀이션 브라믈 두고 갓가이션 厭티 아  
니하느니라. 當云 遠한 則 近한 則. 盖若言멀이션,  
則於之字不合, 他《釋》, 同說者有之.

〈無惡〉 데 이셔도 惡하리 업스며. 又云 이시매.

〈終譽〉 써 終을 譽로 永하다 하니. 一云 終譽를  
永하다 하니. 【按】 《詩》註, “永終此譽”, 當云 譽

를 永終, 他《釋》有之.

〔祖述〕 祖하야. ○祖하며 述하시고. ○祖述하시  
고.

〔無不持載〕 持載티 아니 아니함 ㄴㅌ며. 又曰 아  
니호미 업슴 ㄴㅌ며.

〔並育而〕 아오로 育하야 서르 害티 아니며. ○萬  
物之中, 雖有相害之物, 然以大綱言之, 不相害也.

〔川流〕 川이 流뒸하고. 又曰 川의 流호미오.

〔敦化〕 化를 敦하느니. ○化ㅣ 敦하느니. ○敦하  
니. 化卽造化.

〔爲大〕 大흔 배니라.

〔發〕 發卽發越也.

〔強剛〕 二字相似, 而實不同.

〔施及蠻貊〕 施하야 蠻貊애 及하야.

〔曰配天〕 天을 配하다 니르니라. 又曰 닐오되 天  
에 配하다 하니라.

〔經綸〕 經하며 綸하며.

〔夫焉〕 그 엇디.

〔肫肫〕 肫肫흔. 肫, 音遄.

〔苟不固〕 진실로 덜덜이. 或曰: “固字, 亦曰진실

로, 語疊不可.”

〔尙綱〕 錦을 衣하고 綱을 尙하다 하니.

〔日章〕 闇然호되 日로 章하고.

〔淡而〕 淡호되.

〔知遠之近〕 遠이 近으로 호를 알며.

〔風之自〕 風의 自호를 알며.

〔知微〕 微의 顯호를 아는지라.

〔潛〕 해야.

〔內省〕 內省호매.

〔所不及〕 君子의 可히 及디 못홀 바는.

〔所不見〕 그 오직 人의 보디 못호는 바에 호민  
더.

〔相在爾室〕 네의 室에 이시를 본딘.

〔屋漏〕 거의 屋漏에도 愧티 아니타 하니. ○尙字  
오히려 則不可.

〔奏假〕 奏해야 假호매 言이 엇거늘. 又云 假홀  
제.

〔時靡有爭〕 이에 爭호리 잇디 아니타 하니.

〔威於鈇鉞〕 鈇鉞두곤 전느니라. ○威호느니라.

〔不顯〕 顯티 아니흔. 上章文不同.

〔篤恭〕 恭을 篤히 호매. 恭猶恭敬也.

〔予懷明德不大聲以色〕 내 明德이 聲이며 다뭇 色을 크게 아니호느니를 懷호노라 하니. ○聲과 다뭇 色을 크게 아니호믈 懷호다 하니. ○明德乃明德之人也, 大猶貴也, 主也.

〔至矣〕 지극하니라.

## 追錄

〔率性之謂道〕 用·和·智·費, 卽《大學》明明.

〔修道之謂教〕 亦用·亦和·亦智·亦費, 卽《大學》新民, 又云自強於三者, 卽勇, 又云性·道·教之理, 卽止至善. 【今按】此數說, 今人皆謹守之, 無異辭. 然謂性爲體爲中爲隱, 謂道爲用爲和爲費, 謂教亦爲用亦爲費則然矣. 若智仁勇, 乃德行之名, 安可強牽而附會於此乎? 性不知檢其心, 而仁則屬乎修行, 然則配仁於性, 非也. 朱子曰: “率性, 非就行道人說”, 又曰: “率非人率之也”, 是乃人物各隨自然之性之謂也. 而智則屬乎知, 乃擇乎中庸之事, 然則配智於道, 亦非也. 至於以教爲智, 雖與成物之智相近, 然彼對成己之仁而

言，與此意不同。而三者，皆非人修德行道之義，又安有不息爲勇之意乎？且以此三者分配三綱領，爲尤無理。其謂性爲明德，雖近，然性者人物所稟公共淵微之理，明德乃指人之所得靈昭該括之名，則理雖本同，而所以得名者則不無小異。若率性，則非有明之之功，修道之教，又非有新之之意，性·道·教之所以得名，皆平鋪地，義理之名則與止至善·無所不用其極者，義亦不同焉。又以存養爲仁，省察爲智，自強於三者，爲勇，此則然矣。但子思本意於此未有三達德意思耳。大抵義理本同一原，若取其依傍相近者而說合之，則何所不合？第其所以立言本意·文義旨趣，各有攸當，毫釐之微，有同有異。今人必欲強其異者，合而同之，是以愈鑿愈乖，紛挐晦蝕，而反失大義也。又以首三句爲天道，戒惧慎獨爲人道，於此不當分天道·人道也。

定本 退溪全書 16

## 大學釋義

大學釋義-1a

### 經一章

〔在明明德〕 明<sub>히</sub> 德을 明<sub>함</sub>에 이시며.

〔知止〕 止를 知<sub>히</sub> 后<sub>ㅣ</sub>. ○后에 定<sub>함</sub>이 인<sub>느</sub>니.

〔先後〕 先<sub>히</sub>며 後<sub>히</sub> 바를 알면.

〔正心〕 그 心을 正<sub>히</sub>오고.

〔誠意〕 上同. 【今按】 意<sub>오</sub>다 心 則似有以此使彼之意, 當云 正<sub>히</sub>고 誠<sub>히</sub>고.

〔在格物〕 物을 格<sub>히</sub>음에 인<sub>느</sub>니라. 一云 物에 格<sub>함</sub>에. 此說, 誤.

〔物格〕 物이 格<sub>히</sub>. ○物理之極處, 無不到. 駱峯 申先生釋云 物理의 極處<sub>ㅣ</sub> 니르디 아니<sub>히</sub> 디 업다. 仍按指〈傳〉十章之末曰: “假如言讀此書, 自卷初至此處<sub>ㅣ</sub> 無不盡也. 苟知此意, 則雖釋云 極處에 亦無妨.” 又曰: “極處到者, 窮格到此耳. 曾見李復古說心到極處, 此說, 非也. 若謂心到, 則是屬知止, 非格物

也。” ○【今按】申公此說，甚精微。滉向問此於尹大成 倬先生曰：“所謂到者，心到理極處否？”公曰：“非也。”當時未曉，今方覺是。【又按】若因此又釋格物云  
物에 格ᄃ다 則不可.

〔壹是〕 ᄃᄃᄃᄃᄃᄃ.

〔爲本〕 本을 사ᄃᄃᄃᄃᄃᄃ.

〔本亂末治〕 그 本이 亂ᄃᄃᄃᄃᄃᄃ 末이 治ᄃᄃ 者 〕 업  
스며.

〔所厚〕 厚ᄃᄃ.

傳1-5章

《克明德》 능히 德을 밝기다 하며. 又云 밝기라 하며. 下同. 【按】 下說, 非.

《自明也》 다 스스로 밝고미니라. 【按】 此說, 得之. 或云 밝기니라.

《湯盤銘》 盤銘에 곧오디. 或 湯의 盤銘에.

《日新》 진실로 日에 新하거든 나날 新하며 또 날로 新하라 하며.

《新民》 新하 民을 作하라 하며. ○新하느 民을. 此, 是.

《維新》 周ㅣ 비록 네. ○넷 나라히나 그 今이 새롭다 하니. 維字·惟字, 不釋.

《用其極》 그 極을 쓰디 아니할 배 업시 하느니라.

《民所止》 民의 止할 배라 하두다. 或云 止하.

《緡蠻》 緡蠻하느 黃鳥ㅣ여 丘隅에 止타 호느.

《於止知其所止》 止하요매 止할 바를 아노소니.

或云 止호려 흠애 亦是.

〔可以人〕 可히 써 사름이오 鳥마도 곤디 못하랴.  
此說, 通. ○鳥마도 곤디 못흠이 可하냐. 此說,  
非也.

〔穆穆〕 穆穆하신.

〔緝熙〕 오홉다 緝하며 熙하야.

〔敬止〕 敬하야 止하다 하니.

〔止於信〕 國人으로 다못 交하옴애 信에 止하더시  
다.

〔有斐〕 斐흔. 或云 斐흠미 인논.

〔如切如磋〕 切툃하며 磋툃하며. 或云 切툃하고.

〔不忘〕 넋디 못하리로다 하니.

〔賢其賢〕 賢하산 줄을 賢히 너기며.

〔親其親〕 親케 하산 줄을. 但 親케. 祇當云 親하  
산. ○或作곧을.

〔樂利〕 樂게 하산 利케 하산. 【按】兩說, 皆是.

〔沒世〕 世ㅣ 沒하야도 넋디 못하옴이니라. 此, 恐  
非. 當云 世예 沒하야도. ‘沒世名不稱’, 註, 雙峯‘盖  
棺沒後’之說, 可見.

〔使無訟〕 하야곰 訟이 업게 흘딘더 하시니.

《不得盡其辭》 그 辭를 다하디 못하옴은.

《大畏民志》 키 志 ] 저해니. 【今按】 若作志를 則似涉有心作威使民畏之，故寧不顧文勢，而必云 志 ] . 近世諸先生，於此等文字，例以此意釋之，雖避有心以就無心，則似矣，奈文勢語脈不相應何？ 當作志를 畏케 하애니，古亦有此說.

大學釋義-2a

傳6-10章

〔所謂誠其意〕 니론밧 意를 誠하다 ㅎ 者는.

〔毋自欺〕 自欺티 마를디니.

〔慎獨〕 그 獨애 慎하느니라.

〔何益〕 므서시.

〔慎獨〕 獨을.

〔富潤德潤〕 富는 德은. 或作當 ㄴ면 非.

〔心廣〕 心이 廣하야.

〔誠其意〕 意를 誠하느니라.

〔忿懣〕 忿懣하을 배이시면. ○【今按】此說，疏。當從世儒所釋，期待曰 하을 바를 偏繫曰 하는 바를 留滯曰 히온 바를. 有字亦當皆曰 두면 此語，精密。

〔心不在焉〕 心을 두디 아니면. 在卽在腔子中. ○或云：“軀殼內”，或云：“在視聽上”. 【今按】此兩說當通看. 盖心在軀殼，則能在視聽上，乃主於內而應於外，非兩在也. 若心不在軀殼，則未有能在視聽上之理，心已逐物而不能主宰故也. 故明道先生曰：“與其

是內而非外，不若內外之兩忘也。”○細玩本意及《章句》心有不存之說，《釋》云 心を 두디 아니면 未穩也。當云 心이 있디 아니면 可也。蓋此乃直指心失主宰之時而言其病也，初非戒人不能操心而致此病也。故《章句》，只以“心有不存，則無以檢其身”，直解正意，而繼之曰：“是以君子必察乎此，而敬以直之，然後云云。”至是方推說本章言外之意，使人加省察操存之功，以求免夫心失主宰之病。《章句》之精審如此，不可徑以不着意操存之說解之也。‘在軀殼’，【再按】《通考》，吳季子曰：“攫金而不見市人，心不在市人也；聽古樂而惟恐臥，心不在古樂；當食而失匙箸，心不在匙箸也。由是觀之，欲修身者，其可不收斂此心，而使之在吾方寸間乎云云。”以此證之，上所謂主於內·應於外之說，益信矣。

〔註 必察乎此〕 此字指心不在之病處。

〔親愛〕 親愛하논 바에.

〔好而〕 好호되. ○하고.

〔所謂治國必先齊其家〕 니론 바 國을 治함이 반듯 시 몬저 그 家를 齊하다 혼 者는.

〔不出家〕 家에 出티 아니하야셔.

〔成教於國〕 教ㅣ 國에 成호느니.

〔興仁興讓〕 仁을 讓을. 恐當作仁에 讓에. 古亦有之.

〔此謂一言僨事〕 이를 닐온 흔 말슴이 事를 僨호며 흔 사름이 國을 定호미니라.

〔有諸無諸〕 이신 업슨. ○둔.

〔非諸人〕 사름이게 외다 호느니.

〔藏乎身不恕〕 身에 藏혼 배 恕티 몬홀 거시오. 或云 恕 몬홀 거시오.

〔治國在齊其家〕 故로 國을 治홈이 그 家를 齊홈에 在호니라.

〔之子歸〕 子의 歸홈이여.

〔宜家人〕 家人을 宜호리로다. ○人을 宜케 호리로다 호니.

〔宜兄宜弟〕 兄을 宜케 호며 弟를 宜케 호다 호니. 或云 兄을 宜호며 弟를 宜호다.

〔正是四國〕 이 四國을 正호다 호니. 四國卽四方之國也.

〔爲父子兄弟足法〕 그 父子兄弟ㅣ 足히 法바든 後에 民이 法반느니라. 一云 法흔 後에 民이 法호느

나라. 爲字, 語辭. ○【今按】此兩說一意, 言在一家, 父子·兄弟, 皆足以取法於我, 然後在一國, 民亦取法於我也. 此言家齊而后國治之效, 平順的確無可疑者. 觀朱子答或人所問‘堯·舜不能化其子·周公不能和兄弟’之說, 亦可見矣. 何故今人鑿生意見務爲異說? 或云 그父子·兄弟 도외미 足히 法바담 즉흔 後云云. 此言我之爲父子爲兄弟之道, 皆足以爲法, 然後民法之. 此說雖新巧, 其實不然. 盖父子·兄弟足法, 言家齊之效, 民法之, 言國治之效. 今如或說, 則是其父子·兄弟皆屬之一身, 未說到一家之人, ‘足法’二字, 又才是身修之效, 未說及家齊之效. 然則此本言家齊·國治之節, 而全脫却家齊一段, 只剩說身修之效, 而徑以民法言國治之效, 其可乎? 或云 그父子·兄弟의게 足히 法도온 후에 云云. 此以父子·兄弟爲一家之人, 則得矣, 而以足法爲我爲儀法之意. 如依此說, 則其上文吐, 亦當曰 其爲父子·兄弟에 足法云云. 其文勢, 側僻磊塊而不平順, 恐非正義也. 或云 그父子·兄弟 도원 이 足히 示法하얌 즉흔 후에云云. 【按】此言爲我父子·兄弟者, 皆作於善, 皆可示法於人, 然後民法之, 似與新安 陳氏示法之說有合. 然詳此節本意, 主治

國者，而法之者民也。此其立言賓主之勢當然也。故盧氏曰：“父子·兄弟，足法，儀之不忒也。民法之，四國之正也”，此說深得正意。今如或說，是於家舍其齊家者不言，而却轉主意，歸重於家中見齊之人，則如盧氏儀之不忒之說，又隔一重，而非復自然之文法義理矣。故陳氏示法之說，不必拘。當從盧氏說爲直截明白也。

〔此謂治國〕 이를 닦은 國을 治함이 그 家를 齊함에 이솜이니라.

〔上老老〕 老를 老로 함에 民이 孝를 興하고.  
○孝애.

〔絜矩〕 矩로 絜하는 道를 둔느니라.

〔惡於上〕 上에 惡혼 바로.

〔先後〕 後에 先티 말며. ○先字言爲其先也. 몬저 도외단 마리라.

〔從前〕 前에 從티 말며.

〔絜矩〕 絜호되 矩로 하는 道ㅣ니라. 或曰 絜호믈.

〔樂只〕 樂은.

〔爾瞻〕 너를 瞻한다 하니.

〔不可不慎〕 可히 愼티 아니티 몬홀 거시니. 或曰 愼티 아니미 可티 아니니 不可.

- 《未喪師》 師를喪티 아니햏야셔.
- 《不易》 易티 아니타 햏니.
- 《外本》 本을 外햏고.
- 《爭民施奪》 民을 爭케 햏야 奪를 施햏미니라.
- 《亦悖而入》 言이 悖햏야 出햏 者는 또햏 悖햏야 入햏고. 又云 悖햏.
- 《不于常》 常티 아니타 햏니.
- 《無以爲寶》 寶 삼을 거시 업고.
- 《惟善》 오직 善을. 此惟字當釋.
- 《仁親以爲寶》 親仁함을 卼 寶 삼으랴 햏두다.
- 《若有》 만일 인는. ○有字不須釋.
- 《其如有容》 그 容햏미 잇햏햏디랴.
- 《人之彥聖》 人의 彥聖햏니를.
- 《若出》 그 이브로브터 出함 ㄱ툐 ㅅ니 아니면.  
或曰 ㅅ름이 아니면.
- 《民》 이며. ○이니. 似是, 然有亦字, 不可.
- 《亦曰殆》 또햏 닐은 殆햏린더.
- 《不與同中國》 與햏야 國에 햏가지로 아니햏느니.
- 《見賢》 賢을 見햏디.
- 《忠信以得》 忠信으로ㅅ 得햏고.

〔生財〕 財를 生호미. ○上文‘財聚則’, 曰 財ㅣ聚  
호 則.

〔非其財〕 財ㅣ 도외디 아니미 잇디 아니호니라.

〔察於〕 於字釋之, 則不穩, 當不釋之.

〔國不以利爲利〕 이를 닐온 國은 利로써 利를 삼  
디 아니호고 義로써 利를 사모미니라.

〔長國家〕 國家에 長호야. 猶言長이 도외야. 【今  
按】《通考》, 吳季子曰: “卿大夫士, 一家之長也,  
天子諸侯, 一國之長也. 細而長一家, 大而長一國云”,  
此說, 是. 又一說, 國家를 長益호려 호야. 此說, 誤.  
然嘗見有一古書有‘長國家’三字, 而其解正以長益解  
之, 適忘記何書. 姑識於此以俟更詳之.

〔務〕 호는 者는.

〔彼爲善之〕 此四字不釋.

〔小人之使爲〕 小人으로 호야곰 家를 호면.

〔並至〕 아오로 至호니. ○다 至호느니.

〔無如何〕 엇데호미 업스리니.

〔國不以利爲利〕 上章 國은 利로 利를 삼디 아니  
호고 義로 利를 사므미니라. 下章 國은 利로써 利  
를 삼고 義로써 利를 삼디 아니호미니라. 【按】此

兩章之說，上章主言義，而順結所以以義爲利之意，下章主言爲利之害，而反結必須以義爲利之意，語有順反，意則一也。釋者徒見下章上文所言非以義爲利之意，遂疑其結語不類。乃曲生臆見，扶取上句不字，下合於以義爲利之意，釋曰云云。苟如此說，其文當曰，‘此謂國以利爲利，不以義爲利也’，何故不字在於以利之上乎？此全不成文理，可笑。今當依上章所釋。

追附

答奇明彥別紙【庚午十一月己卯所改】

物格與物理之極處無不到之說，謹聞命矣。前此滉所以堅執誤說者，只知守朱子‘理無情意無計度無造作’之說，以爲我可以窮到物理之極處，理豈能自至於極處？故硬把物格之格·無不到之到，皆作已格·已到看，徃在都中，雖蒙提諭理到之說，亦嘗反復紬思，猶未解惑。近金而精傳示左右所考出朱先生語及理到處三四條，然後乃始恐怕已見之差誤。於是，盡底裡濯去舊見，虛

心細意，先尋箇理所以能自到者如何。盖先生說見於〈補亡章〉《或問》中者，闡發此義，如日星之明，顧滉雖常有味其言而不能會通於此耳。其說曰：“人之所以爲學，心與理而已。心雖主乎一身，而其體之虛靈，足以管乎天下之理。理雖散在萬物，而其用之微妙，實不外一人之心，初不可以內外精粗而論也。”其小註，或問“用之微妙，是心之用否？”朱子曰：“理必有用，何必又說是心之用乎？心之體，具乎是理。理則無所不該，而無一物之不在，然其用實不外乎人心。蓋理雖在物，而用實在心也。”其曰“理在萬物，而其用實不外一人之心”，則疑若理不能自用，必有待於人心，似不可以自到爲言。然而又曰“理必有用，何必又說是心之用乎？”，則其用雖不外乎人心，而其所以爲用之妙，實是理之發見者，隨人心所至，而無所不到，無所不盡，但恐吾之格物有未至，不患理不能自到也。然則方其言格物也，則固是言我窮至物理之極處，及其言物格也，則豈不可謂“物理之極處，隨吾所窮而無不到乎？”是知無情意造作者，此理本然之體也；其隨寓發見而無不到者，此理至神之用也。向也但有見於本體之無爲，而不知妙用之能顯行，殆若認理爲死物。其去道不亦遠甚矣。

## 大學釋義

乎？今賴高明提諭之勤，得去妄見，而得新意，長新格，深以爲幸。

右《經書釋義》，惟我退溪先生，哀聚諸家訓釋而證訂之，又因門人所嘗問辨者而研究之，皆先生手自淨錄者也。壬辰兵燹之慘，手本亦失，後學益爲之俛俛然。戊申冬崔監司 瓘來至陶山，展謁祠宇，唯以《釋義》傳後之意，丁寧反覆，而又送餉工之資。於是求索士友間傳寫之本，略加讎校而刊之。始役於己酉之春，三閱月而就緒。噫，先生發輝經學之意，嘉惠後學之功，亦可因此而想之，吾黨盍相與勉之哉？門人琴應璫謹識。

# 啓蒙傳疑



## 解題

《啓蒙傳疑》는 退溪가 朱熹의 《易學啓蒙》(《性理大全》수록본)의 본문과 주석에서 난해한 부분을 풀이하여 57세 무렵(1557년, 明宗 12年) 완성한 주석서이다. 《啓蒙傳疑》는 조선에서 발행된 《易學啓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卷首에는 小序가 실려 있으며 본문은 《易學啓蒙》의 차례에 따라 本圖書第一, 原卦劃第二, 明蓍策第三, 考變占第四로 구성되어 있다. 퇴계는 韓邦奇(明, 1479~1555)의 《易學啓蒙意見》에서 要義를 뽑아 수록하였으며, 참고가 되는 說을 먼저 신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본문의 내용은 〈河圖〉와 〈洛書〉에서부터 卦의 劃, 先後天方位圖, 占치는 방법 및 판단에 이르기까지 《周易》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퇴계가 만년에 제자들에게 주로 《易學啓蒙》을 강론하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啓蒙傳疑》는 퇴계학 연구뿐만 아니라 象數와 義理를 아우르는 조선시대 易學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책이다.<sup>1)</sup>

《啓蒙傳疑》는 다수의 목판본과 필사본이 국내외 도서관 및 연구기관 등에 널리 소장되어 있다. 1578년(戊寅年, 宣祖 11年) 南致利(1543~1580)의 발문이 있는 판본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584년경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 소장되어 있다. 1600년경 咸鏡觀察使가 간행한 판본이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sup>2)</sup>, 이와 유사한 판본이 서울대학교 규장

1) 이선경, 〈퇴계학파의 《역학계몽》 이해〉, 《陽明學》 제28집, 2011; 엄연석, 〈퇴계 역학 문헌의 상수·의리학적 특성과 미래적 연구방향〉, 《退溪學論集》 제17집, 2015; 정석태, 〈퇴계 이황의 《주역》 공부: 퇴계 이황의 주자학 이해의 심화과정에 대한 고찰〉, 《東洋漢文學研究》 제51집, 2018; 등 참조.

2) 엄연석, 〈퇴계 역학 문헌의 상수·의리학적 특성과 미래적 연구방향〉, 《退溪學論集》

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sup>3)</sup> 이 외에 발행정보 미상의 陶山書院 玉振閣 소장 판본이 전해지며, 옥진각 소장본의 보각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옥진각 소장본과 유사한 판본이 계명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미국), 서울대학교 규장각, 안동대학교 도서관, 충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915년(乙卯年) 安東 陶山書院에서 重刊한 판본이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오림문고), 국립중앙도서관, 동아대학교 함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전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易學啓蒙》는 日本刻本도 전하고 있는데, 제목은 《易學啓蒙傳疑》이며, 1657년(丁酉年) 일본 尹吹權兵衛 刊行本이 국립중앙도서관·전남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669년(己卯年) 일본 武村三郎兵衛 刊行本이 동아대학교 함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단계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주요 목판본 외에 간행정보 미상의 필사본이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물천문고), 고려대학교 도서관(1929년), 성균관대학교 존경각(190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렇게 《易學啓蒙》의 판본이 다수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간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제17집, 2015, 85~86쪽 참조. 이 논문에서는 北黃紙에 제작된 충남대 도서관 소장본 1종은 1600년경 함경도관찰사가 발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에는 “李王家圖書之章”이라는 印記가 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에는 “侍講院, 群玉圖書之府, 帝室圖書之章”의 印記가 있어 왕실 도서관으로서 왕세자의 학습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凡例

### 1. 基準本과 對校本

발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목판본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1578년 南致利의 발문이 있는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기준본으로 하고, 1584년 刊行本으로 추정되는 연세대학교 소장본, 1600년경 咸興府 간행 충남대학교 소장본, 陶山書院 玉振閣 소장본, 옥진각 판본의 補刻本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915년 重刊本 등 총 5종을 대교본으로 삼는다. 日本刻本 2종 및 필사본은 참조본으로 반영한다.

단, 《定本 啓蒙傳疑》에 수록된 도판은 각 기관의 자료 제공 현황 및 인쇄 상태를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자료 중 인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600년경 咸興府 간행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사용한다.

### 2. 定本の 構成

#### 2.1 固有番號

- 1) 고유번호는 《啓蒙傳疑》에 실린 각 조목에 붙인 一連番號이다.
- 2) 고유번호는 각 조목의 표제어에 ‘本圖書 1-1-1’의 형식으로 부여한다. ‘本圖書’는 그 조목이 소속된 편명이며, 첫 번째 1은 本圖書가 《啓蒙傳疑》의 제1편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1은 내용상의 분류 순서이고, 세 번째 1인 그 안에서의 배열 순서를 의미한다.

#### 2.2 本文

- 1) 본문은 표제어와 표제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 2) 각 고유번호에는 하나의 표제어를 ‘《河圖洛書》’의 형식으로 배치한다.
- 3) 표제어와 본문에 있는 ‘○’표시는 그대로 표시한다.
- 4) 기준본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今按’을 붙여 밝히고 본문을 수정한다. 단, 최대한 기준본 본문을 유지한다.
- 5) 追記, 頭註 등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고 문집 범례에 준하여 교감주에 표시한다.
- 6) 본문 문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자 처리 원칙에 따른다.
- 7) 諸 版本들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글자, 단어, 문장의 끝에 註 번호를 달고, 校勘記를 작성하여 각주의 형태로 배치한다.
- 8)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 9) 도판은 가급적 기준본을 그대로 옮기고, 가독성에 문제가 있으면 내용상 차이가 없는 대교본의 그림으로 대체하고 주석에 밝힌다. 도판에는 ‘[圖板01]’과 같이 고유번호를 붙인다. 도판 중 문자 부분은 추후 검색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圖板]에 이어 본문에 입력한다.
- 10) 《周易》의 내용 및 도표의 특성에 따라 ●○, ●, ○, ●, 丨, Ⅲ, =, ≡, ㄴ 등의 기호와 획(--), 소성괘(☳), 대성괘(☰) 등의 부호를 활용한다. 본문에 입력할 기호를 찾지 못한 경우 기준본의 그림을 옮겨서 대체한다.

예) , , , 

- 11)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凡例

{ } : 추정된 글자

### 2.3 校勘 註釋

基準本(底本)과 異本(對校本)들 사이의 異同사항을 표시한다. 異本 자료 모두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의견이 있다면 반영한다.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은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되 최대한 신중을 기한다.

1) 校勘記에 인용되는 각 版本들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2) 기준본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1578년 간행본은 ‘高大本’으로, 대교본인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 1584년 간행본은 ‘延大本’으로, 도산서원 옥진각 소장본은 ‘玉振閣本’으로, 옥진각본의 보각본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國中本’으로,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1600년경 咸興府 간행본은 ‘咸興本’으로, 1915년 重刊本은 ‘乙卯本’으로 略號를 사용한다.

3) 校勘記는 먼저 기준본인 高大本의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단어·구절을 맨 앞에 쓰고 ‘ : ’을 찍은 후에 대교본의 교감 사항을 차례로 기록한다. 판본 간의 관계 및 추정되는 간행 연대에 따라 延大本, 玉振閣本, 國中本, 咸興本, 乙卯本 순서로 교감 사항을 기록한다. 참조본의 교감 내용이 있으면 대조본이 아니라 참조본임을 구분하기 위하여 ‘ ; ’를 찍고 작성하며 위치는 맨 마지막으로 한다. 이는 이용자가 대조 자료 사이의 異同 및 變遷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基準本과 對校本의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略號 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 글자를 인용(‘ ’) 표시하여 밝힌다. 교감내용이 동일한 대조본은 가운데점(·)을 쓰고 해당 글자를 한 번만 쓴다. 또한 출입이 있는 경우는, 없으면 ‘~에는 없다.’ 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1) 熙 : 咸興本·乙卯本 ‘熙’

예2) 也 : 乙卯本에는 앞에 ‘先生’이 있다.

5) 각 대교본의 본문 上欄이나 下欄 혹은 左右側 餘白에 校正이나 편집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본문과 별도로 취급한다. 그 중 교감 의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 ]속에 넣어 표시하되, [추가 ], [두주 ]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추가’는 臺本 위에 추가로 직접 필사되어 있는 기록을, ‘두주’는 본문이 조성될 때 함께 조성된 상란 주석 기록을 일컫는다.

6) 對校本의 글자가 誤字, 變形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校勘記를 달지 않는다. 다만 교감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校勘記를 달 수 있다.

7) 對校本의 글자가 通用字인 경우는 校勘記를 단다.

8)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 ’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9)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 凡例

###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 4. 標點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 ]), 밑줄( ), 쌍점(:), 쌍반점(;), 권점(•, ◦) 등 16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한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凡例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

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 ]’로 표시한다.

#### (9) 밑줄( )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

## 凡例

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 (12) 圈點 ; 傍點. 白圈 (•, ◦)

- 《啓蒙傳疑》에는 퇴계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傍點, 白圈이 있다. 그 것도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표시하였다.

### • 용례

- 行迷雖遠, 尙及改圖, 以全素節, 以息流議, 不審門下亦有意乎? - 방점
- 李丈獨深得其闡奧, 經學純明, 涵養精粹, 延平士人, 甚尊事之. - 백권



## 目錄

## 目錄

|          |     |
|----------|-----|
| 解題 ..... | i   |
| 凡例 ..... | iii |

### 啓蒙傳疑

|                                        |    |
|----------------------------------------|----|
| 啓蒙傳疑序 .....                            | 1  |
| 序-1 《雲臺真逸手記》 .....                     | 2  |
| ○ 本圖書 第一 .....                         | 3  |
| 本圖書 1-1-1《河圖洛書》 .....                  | 3  |
| 本圖書 1-1-2《○〈明堂篇〉,“二九四·七五三·六一八.”》 ..... | 3  |
| 本圖書 1-1-3《○意見》 .....                   | 3  |
| 本圖書 1-1-4《乾鑿度》 .....                   | 3  |
| 本圖書 1-1-5《五音司日》 .....                  | 4  |
| 本圖書 1-1-6《楊輝六十甲子納音起例》 .....            | 5  |
| 本圖書 1-1-7《六律司辰》 .....                  | 6  |
| 本圖書 1-1-8《五運》 .....                    | 7  |
| 本圖書 1-1-9《六氣》 .....                    | 7  |
| 本圖書 1-1-10《參同契》 .....                  | 8  |
| 本圖書 1-2-1《○變化鬼神》 .....                 | 8  |
| 本圖書 1-2-2《○勉齋五行分屬陰陽,前後說有不同》 .....      | 9  |
| 本圖書 1-2-2《既生魄,陽曰魂》 .....               | 10 |

|            |                            |    |
|------------|----------------------------|----|
| 本圖書 1-2-3  | 《○耳屬金可疑》                   | 10 |
| 本圖書 1-2-4  | 《○《太極圖解》有一處可疑》             | 10 |
| 本圖書 1-2-5  | 《○如兄弟，如夫婦》                 | 11 |
| 本圖書 1-2-6  | 《○其象其說已具於前》                | 11 |
| 本圖書 1-2-7  | 《○〈河圖〉行合》                  | 11 |
| 本圖書 1-2-8  | 《○八卦全不用十》                  | 12 |
| 本圖書 1-2-9  | 《○雲莊分體用，與朱子不同》             | 12 |
| 本圖書 1-2-10 | 《○玉齋“圖書之象當位，不協卦；不當位，協卦”之辯》 | 13 |
| 本圖書 1-2-11 | 《○四正配四陽卦，四隅配四陰卦》           | 16 |
| 本圖書 1-2-12 | 《○〈洛書〉中五具五奇數之象》            | 16 |
| 本圖書 1-2-13 | 《玉齋 胡氏說“豈可惟以五數拘之哉。”》       | 16 |
| 本圖書 1-2-14 | 《○三同二異》                    | 17 |
| 本圖書 1-2-15 | 《○〈洛書〉四正各居四隅類附圖》           | 17 |
| 本圖書 1-2-16 | 《○〈河圖〉進退，饒乏之正，互藏其宅之變》      | 18 |
| 本圖書 1-2-17 | 《○〈洛書〉七·八·九·六，迭爲消長圖》       | 20 |
| 本圖書 1-2-18 | 《○析合補空》                    | 21 |
| 本圖書 1-2-19 | 《以橫圖明朱子說》                  | 21 |
| 本圖書 1-2-21 | 《兩說異同之辨》                   | 23 |
| 本圖書 1-2-22 | 《再詳朱子·胡氏分四隅卦不同之義》          | 25 |
| 本圖書 1-2-23 | 《○〈洛書〉四方之正，四隅之偏》           | 28 |
| 本圖書 1-2-24 | 《○以五乘十以十乘五圖，見《意見》》         | 33 |
| ○ 原卦畫 第二   |                            | 35 |
| 原卦畫 2-1-1  | 《“四象”註，玉齋說，“〈太極圖〉，與此不盡合。”》 | 35 |
| 原卦畫 2-1-2  | 《○“四象生八卦”，“經卦皆八”》          | 35 |
| 原卦畫 2-1-3  | 《朱子·董氏二說不同圖》               | 36 |
| 原卦畫 2-1-4  | 《○焦貢《易林》》                  | 37 |

## 目錄

|                                                             |    |
|-------------------------------------------------------------|----|
| 原卦畫 2-1-5 (○丹竈《參同契》)                                        | 37 |
| 原卦畫 2-1-6 (杜撰)                                              | 37 |
| 原卦畫 2-1-7 (○中間進退)                                           | 38 |
| 原卦畫 2-2-1 (○欠四分之一，多四分之三)                                    | 38 |
| 原卦畫 2-2-2 (○次第是)                                            | 39 |
| 原卦畫 2-2-3 (○嚴氏大分小分之說)                                       | 39 |
| 原卦畫 2-3-1 (○“天地定位”註臨川 吳氏說·“雷以動之”註節齋 蔡氏說，見《說卦傳》註)            | 39 |
| 原卦畫 2-3-2 (○生陽中第二爻之一奇一偶，而爲太陽少陰矣)                            | 40 |
| 原卦畫 2-3-3 (左爲下，右爲上)                                         | 42 |
| 原卦畫 2-3-4 (○乾一奇，今分爲八卦之第三爻)                                  | 42 |
| 原卦畫 2-3-5 (○卦體橫分)                                           | 43 |
| 原卦畫 2-3-5 (○二數殊塗，不約而會)                                      | 43 |
| 原卦畫 2-3-6 (○“無極之前”註“他自據他意思”說)                               | 45 |
| 原卦畫 2-3-7 (○剋)                                              | 46 |
| 原卦畫 2-3-8 (○“陽在陰中”註“陰陽互居其方，則陽自上而下，陰自下而上。”舊說當作‘陽自下而上，陰自上而下’) | 46 |
| 原卦畫 2-3-9 (○“先天學，心法”註“三十二陽【止】八卦。”)                          | 46 |
| 原卦畫 2-3-10 (○“圖雖無文”註“納甲法”)                                  | 47 |
| 原卦畫 2-3-11 (參同契納甲圖)                                         | 47 |
| 原卦畫 2-3-12 (○卜筮元龜·渾天六位圖)                                    | 50 |
| 原卦畫 2-3-13 (○六十四卦分屬八宮圖)                                     | 52 |
| 原卦畫 2-3-14 (推飛伏例要訣)                                         | 54 |
| 原卦畫 2-3-15 (元會運世)                                           | 59 |
| 原卦畫 2-4-1 (○至哉文王之作《易》也)                                     | 59 |
| 原卦畫 2-4-2 (○只此四位，陽中有陰，陰中有陽)                                 | 60 |
| ○ 明蓍策 第三                                                    | 61 |

|                                                    |    |
|----------------------------------------------------|----|
| 明蓍策 3-1-1《五衍爲五十圖》                                  | 61 |
| 明蓍策 3-1-2《○已虛了天一之數》                                | 61 |
| 明蓍策 3-2-1《○蓍之數七》                                   | 62 |
| 明蓍策 3-3-1《○“得九者一”註》                                | 63 |
| 明蓍策 3-3-2《○〈老陽十二圖〉註》                               | 63 |
| 明蓍策 3-3-3《○〈少陰圖〉註》                                 | 63 |
| 明蓍策 3-3-4《○四象虛以相待圖》                                | 63 |
| 明蓍策 3-3-5《○〈老陰圖〉註》                                 | 65 |
| 明蓍策 3-3-6《四象變數》                                    | 65 |
| 明蓍策 3-3-7《○玉齋掛扚數該八卦象圖》                             | 67 |
| 明蓍策 3-3-8《○“且用舊法”下蔡說》                              | 68 |
| 明蓍策 3-3-9《○蔡氏四十九蓍虛一體數圖》                            | 69 |
| 明蓍策 3-3-10《○“至於陰陽，老少之所以然”註》                        | 72 |
| 明蓍策 3-3-11《○“老陽居一而含九”註》                            | 72 |
| 明蓍策 3-3-12《○“凡此不唯陰之與陽”章，“判合如符契。”》                  | 73 |
| 明蓍策 3-3-13《○“而況掛扚之數”註》                             | 74 |
| 明蓍策 3-3-14《○“邵子曰”註》                                | 74 |
| 明蓍策 3-3-15《○“一爻已成”註》                               | 74 |
| 明蓍策 3-3-16《○“當期之日”註，“閏法”》                          | 75 |
| 明蓍策 3-3-17《○得全日三百四十八》                              | 75 |
| 明蓍策 3-3-18《○餘分之積五千九百八十八》                           | 76 |
| 明蓍策 3-3-19《九百四十而一得六不盡三百四十八【此以日法九百四十除五千以下，得六日有餘也。】》 | 76 |
| 明蓍策 3-3-20《○少五日五百九十二分者，爲朔虛》                        | 77 |
| 明蓍策 3-3-21《○一歲閏率十日》                                | 78 |
| 明蓍策 3-3-22《○三歲一閏，則三十二日，九百四十分日之六百單一》                | 78 |
| 明蓍策 3-3-23《五歲再閏云云二百七十五【‘二’當作‘三’。下文胡氏釋此處            |    |

## 目錄

|                                            |     |
|--------------------------------------------|-----|
| 同。】》                                       | 79  |
| 明蓍策 3-3-24【○二十四氣必有三百六十六日】                  | 81  |
| 明蓍策 3-3-25【○以九百四十分分爲十九分，每分計四十九分四釐七毫三忽六絲八秒】 | 86  |
| 明蓍策 3-3-26【十九分內中取七分法】                      | 88  |
| 明蓍策 3-3-27【常度之餘分也】                         | 89  |
| 明蓍策 3-3-28【三百四十六分半】                        | 89  |
| 明蓍策 3-3-29【不及日者，三百六十五度二百三十五分】              | 90  |
| 明蓍策 3-3-30【通分法】                            | 91  |
| 明蓍策 3-3-31【乘寄位】                            | 92  |
| 明蓍策 3-3-32【實如法而一除法布算圖】                     | 95  |
| 明蓍策 3-3-33【九百四十乘二五法【從下小數算起。若從上則法首置二下。】】    | 96  |
| 明蓍策 3-3-34【○再閏在五歲內者，舉成數也】                  | 103 |
| 明蓍策 3-3-35【○計三七二百一十日內少三日二百六十七分】            | 104 |
| 明蓍策 3-3-36【○春季皆入於夏】                        | 105 |
| 明蓍策 3-3-37【○武陵 丁氏說】                        | 105 |
| 明蓍策 3-3-38【○有以兩儀·四象·八卦，合四十九者】              | 105 |
| 明蓍策 3-3-39【有謂“四十九與五十皆天地之數，各再自乘而以中數自乘除之”者】  | 105 |
| 明蓍策 3-3-40【天數一千二百二十五除法】                    | 106 |
| 明蓍策 3-3-41【地數一千八百除法】                       | 107 |
| ○考變占 第四                                    | 109 |
| 考變占 4-1-1【○“六爻皆不變”註】                       | 109 |
| 考變占 4-1-2【○“三爻變”註】                         | 109 |
| 考變占 4-2-1【○《易圖說》】                          | 111 |
| 考變占 4-3 雜書考證                               | 113 |

|                                                                     |     |
|---------------------------------------------------------------------|-----|
| 考變占 4-3-1《卜筮元龜○以錢代蓍法》                                               | 113 |
| 考變占 4-3-2《支變卦爻例》                                                    | 114 |
| 考變占 4-3-3《○八卦所屬》                                                    | 115 |
| 考變占 4-3-4《○八卦納甲》                                                    | 115 |
| 考變占 4-3-5《十干合》                                                      | 115 |
| 考變占 4-3-6《十二支合》                                                     | 116 |
| 考變占 4-3-7《五行相生克，比和例》                                                | 116 |
| 考變占 4-3-8《五位配卦【以卦宮所屬爲我，渾天甲所屬爲他。】》                                   | 116 |
| 考變占 4-3-9《凡卜卦法》                                                     | 117 |
| 考變占 4-3-10《空亡法》                                                     | 117 |
| 考變占 4-3-11《推卦內世應所在法》                                                | 117 |
| 考變占 4-3-12《推八節休廢例【凡占卜須看內外是何卦，然後考其旺廢。大抵旺相則吉，休廢終是無成。○‘節’下‘休’，當作‘旺’。】》 | 117 |
| 考變占 4-3-13《《筆談》論納甲》                                                 | 118 |
| 考變占 4-3-14《《易髓書》幹支納甲圖》                                              | 120 |

## 啓蒙傳疑序

滉按《啓蒙》之書，闡發幽蹟，昭如日星，而諸儒辯釋，又皆精密該暢，無遺憾矣。然而理數之學，廣博微妙，盤錯肯綮，未易研究，透得一重，又有一重，愈索而愈無窮。矧乎人之所見不能無異同！仁者見之謂之仁，智者見之謂之智，必須參訂而後得其歸趣。其所援證之言，或出於幽經僻書，必須考論而後見其義類。是以疑難之餘，重生疑難，註解之中，又須註解。至於隱奧之義，有不得明；傳印之譌，有不可不正；乘除之法，又不可不詳。而老病昏瞶，雖或少有所得，輒復忘失，往往茫然如未始窺其彷彿者，誠恐終無以有進於是也。頃年以來，每讀是書，或因思有契，或考古有證，不免隨手筭記，累至成帙。蓋所以便考閱備遺忘耳，非以是求多于前修也。抑嘗觀苑洛子《意見》書，可謂有功於《啓蒙》，亦近世難得之書也。但爲圖太碎而無甚發明，爲說太深而好立異義。今擇其要義若干條著之，餘不敢效其所爲，覽者詳之。

序-1

〔○雲臺眞逸手記〕<sup>1)</sup>

手記，猶手錄·手編·手校之類。京城有尹生光溢，每言‘手’字當屬‘逸’字，‘眞逸手’，乃晦菴之別號也。余聞而非之。其後，鄭湖陰孽子某亦謂，其家得唐本《啓蒙》，其所註，直以‘手’字爲號，如尹說云云。尹大喜詫其說之驗。然終無義理，不可取信，欲從湖陰公借見其本，病未果而來，爲可恨耳。○後，禹景善亦得一本，如尹·鄭說，以書來質。余執前說以拒之，已而禹又得善本而校之，則前所云尹·鄭及禹初見本，乃‘手’下缺一‘記’字，故諸人爲所誤而云然耳。

---

1) ○：延大本에는 없다.

## ○ 本圖書 第一

本圖書 1-1-1

### 〔 河圖洛書 〕

【舊說所引，“馬背旋毛之圈有如星象，故謂之圖；龜背拆文如字畫，故謂之書。”此臨川 吳氏說。】

本圖書 1-1-2

### 〔 ○ 〈明堂篇〉，“二九四·七五三·六一八。” 〕

此語當以每三字聯續。蓋橫截〈洛書〉爲三而言之，謂法九宮爲明堂之制，如畫州井地之爲也。

本圖書 1-1-3

### 〔 ○意見 〕

謂已意所見。一本，‘意’作‘臆’，非是。【朱子與陸子靜論意見處，引“誠意”·“毋意”爲說，可知非臆字義也。】

本圖書 1-1-4

### 〔 乾鑿度 〕

【舊說《乾鑿度》，《易》緯書名。】

[圖板01] 納音圖



火土火土木土木金水金水金水火水。  
金木金水金水火水火土火土木土木。  
甲子乙丑 丙寅丁卯 戊辰己巳 庚午辛未  
壬申癸酉 甲戌乙亥 丙子丁丑 戊寅己卯  
庚辰辛巳 壬午癸未 甲申乙酉 丙戌丁亥  
戊子己丑 庚寅辛卯 壬辰癸巳 甲午乙未  
丙申丁酉 戊戌己亥 庚子辛丑 壬寅癸卯  
甲辰乙巳 丙午丁未 戊申己酉 庚戌辛亥  
壬子癸丑 甲寅乙卯 丙辰丁巳 戊午己未  
庚申辛酉 壬戌癸亥

本圖書 1-1-5

### 《五音司日》

〈納音圖〉見《素問》。其說曰：“此乃旋相爲宮之法也。而一辰之中，每含五音，十二辰共納六十音也。謂如子之一辰，甲子金·丙子水·戊子火·庚子土·壬子木，是也。《漢志》‘同類娶妻，隔八相生’，此納音法也。同類娶妻，謂甲子支干皆陽，則亢而無以兆其和，故娶乙丑爲妻，乙丑干辰皆陰也。餘位並同。”隔八相生，謂甲子前八位下，生壬申金，又隔八下生庚辰金。然後左行向火，至火依前隔八生火，火三下生而後至木，木三下生而後至水，水三下生而後至土，土三下生而後至

金，乃爲一周復。自甲午上生金，依次而轉。然‘隔八生子’，則除上下兩位而言也，‘隔八’，非第八也。若自甲子至癸酉，通數乃共十矣，此周甲之氣耳。所以金先者，五行之中，金聲最彰矣。支干自東右行向南，五音始西而右行，【疑當作‘左行’】向南陽生於子，所以下生，陰生於午，所以上生，謂天氣下降，地氣上升也。所生止三者，三元之義。○今按：五音·五行之音聲，土曰宮，金曰商，木曰角，火曰徵，水曰羽，故此圖只分五行，而納音見矣。卽曆家所用以配日，陰陽家所用以推數者。其法詳楊輝《算法》，並<sup>2)</sup>取于左以明之。

本圖書 1-1-6

〈 楊輝六十甲子納音起例 〉

用甲·己·子·午九積數成之，數滿五去之，以零數而命納音。凡金·木自有聲，用木三·金四本數。水遇土而有聲，火遇水而有聲，土遇火煨則有聲，故火用水數一，水用土數五，土用火數二爲音也。<sup>3)</sup>

【甲·己·子·午】㊟.【乙·庚·丑·未】㊠.【丙·辛·寅·申】㊡.【丁·壬·卯·酉】㊢.

2) 並：延大本‘并’

3) 用木三……爲音也：이하 방점과 백권은 延大本을 반영한 것이다.

【戊·癸·辰·戌】⑤.【巳·亥】④.

【水·火】①.【火·土】②.【木·木】③.【金·金】④.【土·水】⑤.【本身數·借音數.】

甲九·戌五·乙八·亥四，④，共二十六，退二十五.

餘一，借水數爲音.

丙七·子九·丁六·丑八，③，共三十，退二十五.

餘五，借土數爲音.

戊五·寅七·己九·卯六，②，共二十七，退二十五.

餘二，借火數爲音.

庚八·辰五·辛七·巳四，①，共二十四，退二十.

餘四本音.

壬六·午九·癸五·未八，⑤，共二十八，退二十五.

餘三本音.

本圖書 1-1-7

### 《 六律司辰 》

黃鍾【子】·太簇【寅】·姑洗【辰】·蕤賓【午】·夷則【申】·無射【戌】，

六律，司陽辰也；大呂【丑】·夾鍾【卯】·仲呂【巳】·林鍾【未】·

南呂【酉】·應鍾【亥】，六呂，司陰辰也.

本圖書 1-1-8

### 《五運》

《素問》云：“甲·己之歲，土運統之。【甲·己歲，正月建丙寅，丙火生土，故爲土運。】乙·庚之歲，金運統之。【乙庚歲，正月建戊寅，戊土生金，故爲金運。】丙·辛之歲，水運統之。【丙·辛歲，正月建庚寅，庚金生水，故爲水運。】丁·壬之歲，木運統之。【丁·壬歲，正月建壬寅，壬水生木，故爲木運。】戊·癸之歲，火運統之。【戊·癸歲，正月建甲寅，甲木生火，故爲火運。】”化土之化，猶運化也。

本圖書 1-1-9

### 《六氣》

《素問》云：“子·午之上，少陰主之。【少陰君火司天，爲主氣者，言是歲少陰君火之氣在上，司天而爲主也。】丑·未之上，太陰主之。【太陰濕土司天，爲主氣者，言是歲太陰濕土之氣在上，司天而爲主也。相火，司天爲主氣。以下倣此。】寅·申之上，少陽主之；卯·酉之上，陽明主之；辰·戌之上，太陽主之；巳·亥之上，厥陰主之。【陰陽之氣，各有多少，故有三陰三陽，太陰爲正陰，太陽爲正陽，次少爲少陰，少陽，又次爲陽明·厥陰。○濕土·燥金·

寒水·風木皆一，而獨火有君·相之異者，以六氣分統一歲三百六十日，每一氣統六十日，春分後六十日，君火之位，是時暄淑大行，不行炎暑，以是爲君德也，故謂之君火。夏至前後各三十日，相火之位，至炎熱大行，以是爲臣道，故謂之相火。○少陰司天，則陽明在泉；少陽司天，則厥陰在泉；太陰司天，則太陽在泉。若陽明司天，少陰又在泉。其厥陰之與少陽，太陽之與太陰，互爲上下亦然。而其所以然者，皆有說甚詳，本不足尙，姑舉其略，以釋胡氏所引之義。○五化·六司，皆以歲言，而下文運氣相乘，以日言之者，大而歲周六十，小而日周六十，無異理也。】”

本圖書 1-1-10

### 〈參同契〉

【參，雜也。同，通也。契，合也。謂與《周易》，理通而義合也。後漢魏伯陽，會稽上虞人。修真養志，著此書，密示清州徐從事。徐乃隱名而註之，桓帝時授同郡鮮于叔通，遂行於世。其術以乾·坤位乎上下，而坎·離陞降於其間。於是就人身而取此象，以乾·坤爲爐鼎，坎·離爲藥物，除外恰有六十卦。一日十二時用兩卦，直事謂以爲煉丹之火候也。每一爻當一時，兩卦計十二爻，以一月三十日并之，共得六十卦也。○太乙，未詳。】

本圖書 1-2-1

### 〈○變化鬼神〉

【義見〈繫辭〉本註。】

## 啓蒙傳疑

本圖書 1-2-2

### 《○勉齋五行分屬陰陽，前後說有不同》

第一說【坎水屬陽，離火屬陰.】

第一說  
離坎  
火水  
屬陽  
屬陰

【即下文生之序看者，與《太極圖解》“水木陽也，火金陰也”之說同.】

第二說【水有形爲陰--貌亦屬陰--聽屬陰--金爲陰. 火有氣爲陽--言亦屬陽--視屬陽--木爲陽.】

第二說  
水有形爲陰  
貌亦屬陰  
言亦屬陽  
聽屬陰  
視屬陽  
木爲陽

【即下文行之序看者，與所謂行於春夏爲陽，行於秋冬爲陰之說同. 但此是行序，而今以生成言之，似可疑耳.】

【右二說，雖不同，固皆有據.】

第三說【精濕爲水--爲貌，氣燥爲火--爲言，濕極爲木--爲視，燥極爲金--爲聽.】

第三說  
精濕爲水  
氣燥爲火  
貌爲水  
言爲火  
視爲木  
聽爲金

【水與貌，屬精，陰也；火與言，屬氣，陽也，即第二說之義. 木與視，屬精，陰也；金與聽，屬氣，陽也，非唯不合於第二說，亦不合於第一說.】

【按：五行，生於陽者，陰成之；生於陰者，陽成之. 故其分屬陰陽，皆可似互易也. 然自水火未離乎氣者言之，互易而皆當矣. 若木若金，已有定質，則木但爲陽，金但爲陰，故周子《太極圖解》及此處勉齋他說，皆以爲木陽，金陰. 雲莊亦謂木金不可以互言也. 勉齋

第三說，獨以木爲陰，金爲陽，竊疑未得爲確論也。】

本圖書 1-2-2

〔 既生魄，陽曰魂 〕

見《左傳·昭公七年》。按，朱子說云：“陰陽之交，天一生水，物生始化曰魄。既生魄，[句] 煖者爲魂。”又云：“既生魄，陽曰魂，謂纔有魄便有魂，自初受胞胎時已具足矣。”今按：獨陰不成，未有無陽而徒陰爲魄之理，故纔有魄，便有煖氣在裏許，卽是魂。故朱子以既生魄爲句，而以煖字貼陽字，且謂初受胎時已具。《左傳》註，以既生爲人之既生，殆非也。

本圖書 1-2-3

〔 ○耳屬金可疑 〕

此謂以耳而論所屬，則當屬水而不當屬金，故可疑。以聽而論所配，則固當配金，無可疑者。上文爲金，爲肺，爲聽云云，乃以聽論配，非以耳論屬之謂也。

本圖書 1-2-4

〔 ○《太極圖解》有一處可疑 〕

## 啓蒙傳疑

《圖解》謂：“水陰盛，火陽盛，金陰釋，木陽釋。”如作行之序看，則陰陽之分，微盛之次，猶之可也。今說生之序，而以是爲言，則非徒與下文水木陽，火金陰之分類相反，盛者居先而釋者居後，亦爲倒說矣。勉齋以爲疑而改正之，今當從勉齋說。

本圖書 1-2-5

### 〔○如兄弟，如夫婦〕

以比者爲兄弟，如乙爲甲之妹之類。以我尅者爲妻，財如甲木以己土爲妻，庚金以乙木爲妻之類。

本圖書 1-2-6

### 〔○其象其說已具於前〕

象，指〈洛書〉一圖；說，通指〈大傳〉孔·劉·關·邵諸說。知者觀圖，思已過半，又參諸說以通之，經緯表裏之義，寧不可得耶？

本圖書 1-2-7

### 〔○〈河圖〉行合〕

今按：節齋此說見《天原發微·象數篇》。其文多與此不同，姑掇其略於此，以明行合之義。【云云】“氣有二而行有五，一·三·五·七·九者，陽之行也；二·四·六·八·十者，陰之行也。二非五，不能變化，五非二，不能自行。五者，五行也。天地，陰陽對待之定體，自一至十者，陰陽流行之次序云云。”據此則行合只是謂以生數之一·二·三·四·五，合成數之六·七·八·九·十，皆以數之流行次第而合，故云“行合”。

本圖書 1-2-8

【○八卦全不用十】

此言則圖以畫卦也，虛其中五與十而不用也。不言五，獨言十者，上文本說“〈河圖〉備數之全，而其實無十”，故此只言不用十，以結其義耳。

本圖書 1-2-9

【○雲莊分體用，與朱子不同】

朱子以〈圖〉之偶而靜爲體，〈書〉之奇而動爲用。劉氏以〈書〉之分而各居其所爲體，〈圖〉之合而同處其

方爲用。蓋劉說亦是一義，乃〈圖〉·〈書〉相爲體用者然也。

本圖書 1-2-10

〔○玉齋“圖書之象當位，不協卦；不當位，協卦”之辯〕

今按《天原發微》，鮑謐齋曰：“玉齋 胡氏謂‘〈河圖〉，五生數屬陽，五成數屬陰’，又謂‘〈洛書〉，四正配四陽卦，四隅配四陰卦。’”以朱子之言訂之，則有未然者。朱子論：“陰陽數，本之《易·大傳》。以一·三·五·七·九，爲天數屬陽；二·四·六·八·十，爲地數屬陰。論配卦，則本先天方位，以四正爲乾·坤·離·坎，四隅爲兌·震·巽·艮，於名義當矣。”後儒何得而異說乎？玉齋又謂：“〈河圖〉象之列於西南者，不協所生之卦；〈洛書〉象之列於四方者，悉協所生之卦。”是拘拘於求合，非法象之自然，故有窒塞而難通者。予嘗致疑於斯，及觀雲峯 胡先生《啓蒙通釋》，凡玉齋之言，發明至到者悉採入，獨於余所疑者，並無所載。於是，服雲峯之高見，所疑頓釋。雲峯又云：“析四方之合，以爲乾·坤·離·坎；補四隅之空，以爲兌·震·巽·

艮。”亦謂其象其數有如此耳，曷嘗拘拘曰以一補東南隅爲震，以二補東北隅爲兌哉？魯齋又引鄭氏之言，亦云：“聖人因〈河圖〉而畫卦，因〈洛書〉而叙疇。”亦曰：“彼有是理，我有是事耳。豈擬規以畫圓，模矩而作方之謂耶？”二子之言，其得朱子之意矣。

滉竊謂：“玉齋四陽卦·四陰卦之論，非但與先天方位不合，其於因書叙疇之意，亦齟齬而難通，謚齋非之當矣。至於生數屬陽·成數屬陰之說，玉齋非不知天數爲陽·地數爲陰，而誤爲此言，但因朱子此條生數居中爲主·成數居外爲客之說，而推類言之。以主客分之，則中主而外客；以生成分之，則生陽而成陰云爾，亦如張忠定公所謂公事有陰陽之類。蓋陰陽二字，取義多端，如此分屬，自爲一說，與朱子之意，初不相妨。又如象卦之協與不協，析合補空等說，雲峯雖有曷嘗拘拘之論，然朱子亦嘗有某卦得某位，某卦得某數之說。玉齋之辨，雖與朱子稍異，亦各有義。況卦原於數，卦成之後，分配方位，豈都無義例來脈而謾以意分之也？胡氏·鄭氏欲免牽合之病，而反失於闊略。謚齋徒喜二氏之簡易，而攻玉齋太苛，無乃不

可乎？故今滉只依玉齋之說，條釋如左。【析合·補空，同此。】”

按，胡氏說“〈圖〉之象當位，〈書〉之象不當位”，兩象字，作五行生成之數看；“〈圖〉之象不協卦，〈書〉之象協卦”，兩象字，作四象生八卦看。同一象字，或作五行，或作四象，何也？豈不以五行生成之七·八·九·六，即四象之七·八·九·六，故四數之分居四方也，五行與四象，或可參互而言之故耶？亦如下文，則〈河圖章〉註，胡氏說“〈河圖〉二象之居于東北者，陰之老少也”，以四象言之；其下繼云“水·木各一其象”，則以五行言；“二象之居于西南者，陽之老少也”，以四象言之；其下繼云“金·火互通其象”，則又以五行言。此亦二者參互言之之證也。<sup>4)</sup>

4) 按胡氏說……此亦二者參互言之之證也：延大本에는“今按：‘當位’，謂‘一六水，居北，六爲太陰；二七火，居南，七爲少陽；三八木，居東，八爲少陰；四九金，居西，九爲太陽。是四象各當其位也。’‘不協卦’，謂‘少陽七，本生巽坎，而今處於南，與乾兌不協也；老陽九，本生乾兌，而今處於西，與巽坎不協也。陰老少不動，謂老陰，坤艮少陰，離震皆仍其所於東北也；陽老少迭遷，謂老陽，乾兌少陽，巽坎互換其處於西南也。’‘不當位’，謂‘四九金，居南，九爲太陽，而金不當南；二七火，居西，七爲少陽，而火不當西。是二象皆不當位也。悉協卦位，老陰生艮坤，少陰生離震，老陽生乾兌，少陽生巽坎，而各仍居其方爲相協也。’로 되어 있다.

本圖書 1-2-11

〔○四正配四陽卦，四隅配四陰卦〕

【謚齋非之，說見上.】今按：以八卦分陰陽，乾·震·坎·艮爲陽卦，坤·巽·離·兌爲陰卦。若於〈洛書〉四正四隅配之，以此欲從先天方位，坤·離，陰而居正，震·艮，陽而居隅；欲從後天方位，離·兌，陰而居正，乾·艮，陽而居隅。不知玉齋當何以配之？且其上文說四象分爲九疇，而繼以分配八卦爲言，皆不可曉。若論因書叙疇之意，朱子說見下，則〈洛書〉注及《洪範》初一日章下小註。茲不贅。

本圖書 1-2-12

〔○〈洛書〉中五具五奇數之象〕

《啓蒙意見》云云。右一點，天七之象，退其五，西南二之所由生也；上一點，天九之象，退其五，東南四之所由生也；中一點，天五之象，合中五，四方十之所由生也。【《啓蒙意見》，苑洛子 韓邦奇所著書也。此說有圖，見下.】

本圖書 1-2-13

〔玉齋 胡氏說“豈可惟以五數拘之哉.”〕

〈洛書〉中五具五奇數之象，則固與〈河圖〉中五具五生數者同。至論書之偶數，則只有四而不足於十，不無少異於圖之成數。然其奇偶吻合而四十五之全數，具於中央之五數，則不害其爲同，故曰：“豈可惟以五數拘之哉？”

本圖書 1-2-14

### （○三同二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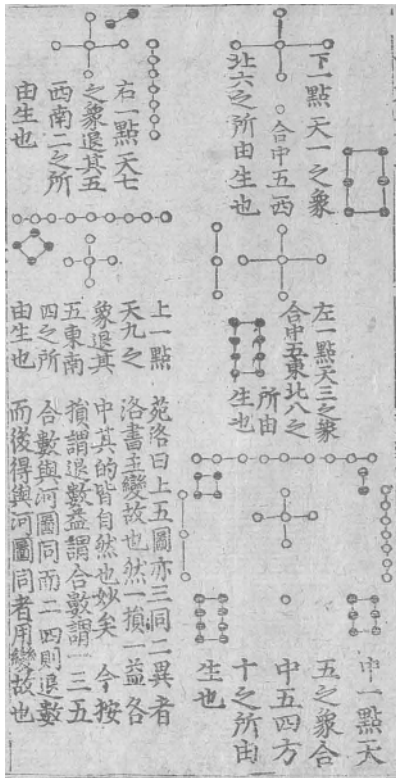
【當與〈析合補空章〉通看。】今按：朱子三同二異之說，謂一·三·五爲陽，故不可易；二·七·四·九爲陰，故可易。胡氏解朱子此條，固從朱說，至胡氏於上文〈位數不同章〉及下文〈析合補空章〉所自爲說，則皆謂“北東六八，陰守其常，故不易；南西七九，陽主通變，故互遷。”二說不同者，蓋朱子主生數而言，胡氏主成數而言故也。然要其歸，兩說相須，其義始備。【雲莊說亦與胡氏同，而雲峯胡氏，則謂“陽不可易而陰可易”，專以生數言。說見《天原發微》。雖甚巧細，然朱子明言其數與位三同二異，雲峯說恐不可從。故不取於此。】

本圖書 1-2-15

〔○〈洛書〉四正各居四隅類附圖〕

【圖見《啓蒙意見》。〈河圖〉亦有圖，但〈河圖〉義易見，〈洛書〉爲難知，故獨取此以明之。】

〔圖板02〕 洛書四正各居四隅類附圖



右一點，天七之象。退其五，西南二之所由生也。

上一點，天九之象。退其五，東南四之所由生也。

苑洛曰：“上五圖，亦三同二異者，〈洛書〉主變故也。然一損一益，各中其的，皆自然也妙矣。”今按：損謂退數，益謂合數，謂一·三·五合數，與〈河圖〉同，而二·四則退數而後，得與〈河圖〉異者，用變故也。

本圖書 1-2-16

〔○〈河圖〉進退，饒乏之正，互藏其宅之變〕

陽由七而進九，陰由八而退六，此進退之正也。九饒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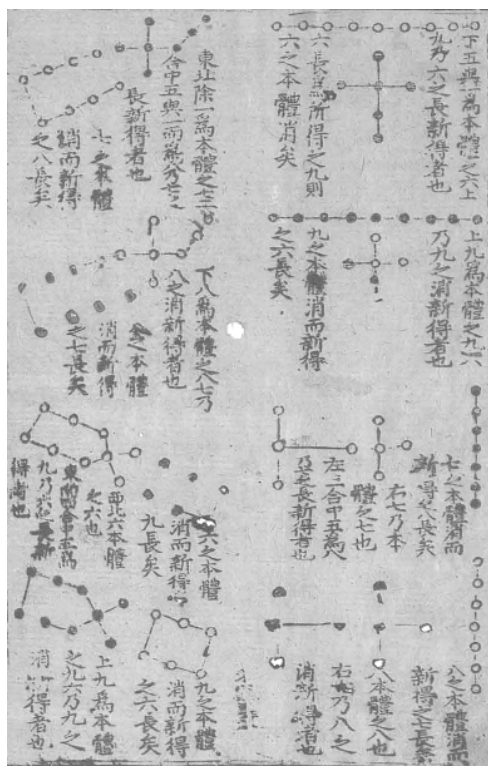
### 啓蒙傳疑

八，七饒於六，六乏於七，八乏於九，此饒乏之正也。老陽九數之成，不於其位之一，而於老陰位之四；老陰六數之成，不於其位之四，而於老陽位之一，此二老互藏之變也。九自西而南，以成少陽之七，是以陽而退也。六自北而東，以成少陰之八，是以陰而進也。又皆互易其位而成，此二少互藏之變也。蓋正以老少本數之常言，變於二老則以爲由生數積實而成，二少則又以爲自二老而來成，此正變之所以別也。【胡氏之說已明，而讀者未必得其意，故條釋之。】

本圖書 1-2-17

《○〈洛書〉七·八·九·六，迭爲消長圖》

〔圖板03〕 洛書七八九六迭爲消長圖



下五與一爲本體之六，上九乃六之長新得者也。六長爲所得之九，則六之本體消矣。

上九爲本體之九，六乃九之消新得者也。九之本體消而新得之六長矣。

七之本體消而新得之八長矣。右七乃本體之七也。左三合中五爲八，乃七之長新得者也。

八之本體消而新得之七長矣。八本體之八也。右七乃八之消新得者也。

東北除一爲本體之七。二合中五與一而爲八，乃十之長新得者也。七之本體消而新得之八長矣。

上八爲本體之八，七乃八之消新得者也。八之本體消而新得之七長矣。六之本體消而新得之九長矣。西北六本體之六也。東南四合中五爲九，乃六之長新得者也。

九之本體消而新得之六長矣。上九爲本體之九，六乃九之消新得者也。

【今按：右圖，見《啓蒙意見》。第詳其分圖，擬數取義爲說，殊未有定

## 啓蒙傳疑

規，前後異同，多有晦素難通處。茲不免因其大概，僭加櫟括修整爲此圖，以發明韓氏之本意不過如此云爾，非敢欲有異於其間也。】

本圖書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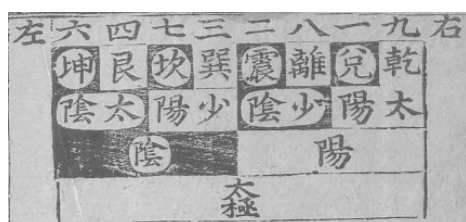
### 〔○析合補空。〕

滉按：此章因數分卦最爲要緊之義。《易圖說》此章註朱子之說，與此胡氏說，互有異同。今且先以橫圖明朱子之說，次而條析兩說所以異同之故，然後乃爲二圖，附說於其後，以備遺忘云爾。○鮑謐齋因胡雲峯說，而不取玉齋說，說見上。

本圖書 1-2-19

### 〔以橫圖明朱子說〕

[圖板04] 橫圖



右九一八二三七四六左。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太陽 少陰 少陽 太陰。

陽 陰。

太極。

《易圖說·析合補空章》下註，朱子曰：“以四象觀之，

太陽之位居一，而數則九，乾得其數，而兌得其位。故乾爲九而兌爲一；少陰之位居二，而數則八，離得其數，而震得其位，故離爲八而震爲二；少陽之位居三，而數則七，坎得其數，而巽得其位，故坎爲七而巽爲三；太陰之位居四，而數則六，坤得其數，而艮得其位，故坤爲六而艮爲四。今析六·七·八·九之合，以爲乾·坤·坎·離，而在四正之位，依一·二·三·四之次，以爲震·兌·巽·艮，而補四隅之空也。”今按：得數者，其序由左而右；得位者，其序由右而左。“今析”以下，卽圓圖之運也。既曰“依一·二·三·四之次”，而二震先於一兌者，得已生之卦故也。

本圖書 1-2-21

《兩說異同之辨》

朱子說，今按：

[圖板05] 朱子說

|             |             |             |             |
|-------------|-------------|-------------|-------------|
| 太陰          | 少陽          | 少陰          | 太陽          |
| 艮得四         | 巽得三         | 震得二         | 兌得一         |
| 坤得六         | 坎得七         | 離得八         | 乾得九         |
| 四自西而補西北隅為艮卦 | 三自東而補西南隅為巽卦 | 二自南而補東北隅為震卦 | 一自北而補東南隅為兌卦 |

太陽—乾得九—九自西而為南方乾卦。

—兌得一—一自北而補東南隅為兌卦。

少陰—離得八—八在東仍為東方離卦。

—震得二—自南而補東北隅為震卦。

少陽—坎得七—七自南而為西方坎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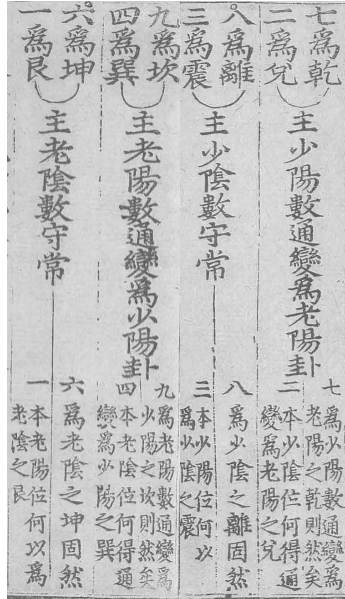
—巽得三—三自東而補西南隅為巽卦。

太陰—坤得六—六在北仍為北方坤卦。

—艮得四—四自西而補西北隅為艮卦。

胡氏說，今按：

〔圖板06〕 胡氏說



七為乾—二為兌——主少陽數， 通變為老陽卦。【七為少陽數， 通變為老陽之乾則然矣。二本少陰位，何得通變為老陽之兌？】

八為離—三為震——主少陰數， 守常。【八為少陰之離固然。三本少陽位，何以為少陰之震？】

九為坎—四為巽——主老陽數， 通變為少陽卦。【九為老陽數， 通變為少陽之坎則然矣。四本老陰位，何得通變為少陽之巽？】

六為坤—一為艮——主老陰數， 守常。【六為老陰之坤固然。一本老陽位，何以為老陰之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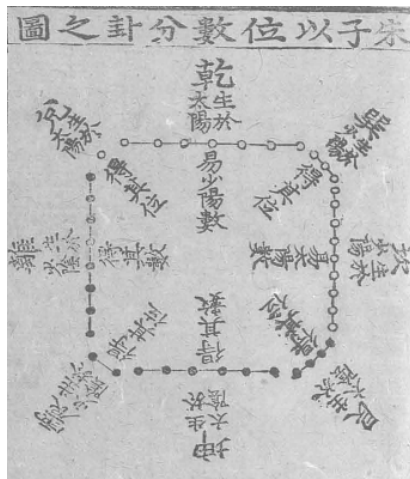
右朱子謂“乾得九，坎得七”者，以太少陽本數之未易方者言之。胡氏謂“七為乾，九為坎”者，以西南方象數已易方見成者言之，始若異，而歸則同。是朱子與胡氏所以言四正卦者然也。唯四隅之分，朱子以兌·震·巽·艮，為一·二·三·四之次；胡氏以艮·兌·震·巽，為一·二·三·四之次。從朱子說，除四自西而補西北隅之外，一自北而補東南，二自南而補東北，三自東而補西南，皆

攙越位次。然其得數得位，皆出於橫圖之自然而不可易矣。若如胡氏之說，一自北而補西北，二自南而補東南，三自東而補東北，四自西而補西南，又似簡易齊整，但其以位配卦也，不無義例之可疑耳。

本圖書 1-2-22

〔再詳朱子·胡氏分四隅卦不同之義〕

〔圖板07〕 朱子以位數分卦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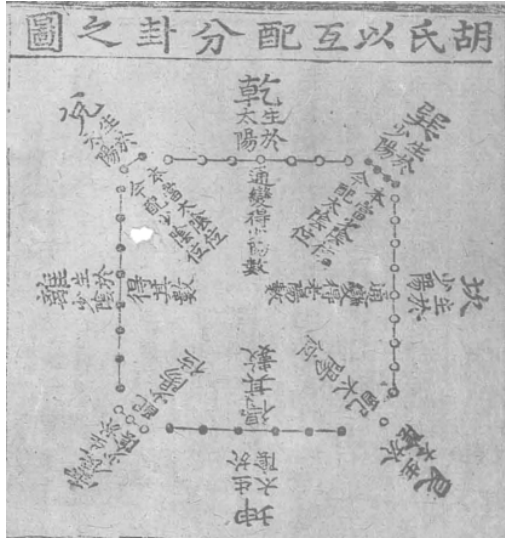


兌，生於太陽。得其位。  
乾，生於太陽。易少陽數。  
巽，生於少陽。得其位。  
坎，生於少陽。易太陽數。  
艮，生於太陰。得其位。  
坤，生於太陰。得其數。  
震，生於少陰。得其位。  
離，生於少陰。得其數。

陰則正隅卦，皆與位數協。陽則正卦，易數隅卦協位。  
朱子推橫圖卦畫之原，隨四象位數之次而分言之，故老少陰陽，各從其類。蓋乾·坤·離·坎，既得其數，而爲

四方之正卦矣。其震·兌·巽·艮之得其位者，又各以類而附其旁。是故震得少陰之二，而附於少陰八離之旁，爲東北隅之卦；艮得太陰之四，而附於太陰六坤之旁，爲西北隅之卦。是則陰之老與老，少與少，皆從其類者也。至若兌，得太陽之一，而爲東南隅之卦，其正卦乾之數，本是太陽之九，而今爲少陽之七；巽，得少陽之三，而爲西南隅之卦，其正卦坎之數，本是少陽之七，而今爲太陽之九。是則陽之老與少，少與老，互易其數者也。【〈三同二異章〉論二方之易數，以爲陰故可易，於此則謂陽之互易者，彼以生·成對言，故謂成爲生之陰可也，此直指本數而言，則九·七固爲陽數，不可謂之陰矣。】夫數之九·七，既易其方矣，卦之乾·坎，乃不隨數以易方，何也？金·火相爲用數，可易也，方位有定分，卦不可易也。然而推卦生於數未易之前，而認數變於卦既立之後，亦何害爲造化自然之妙乎？要在看得活絡而無滯耳。

[圖板08] 胡氏以互配分卦之圖



兌，生於太陽。本當太陰位，今配少陰位。

乾，生於太陽。通變得少陽數。

巽，生於少陽。本當少陰位，今配太陰位。

坎，生於少陽。通變得老陽數。

艮，生於太陰，配太陽位。

坤，生於太陰，得其數。

震，生於少陰，配少陽位。

離，生於少陰，得其數。

東北老配老，少配少，皆得其所；西南老配少，少配老，互易其方。

胡氏以陰陽老少所生之卦，互配其位，而仍居所生之

旁。是故生於少陰之震，配少陽位之三，而爲東北隅卦，仍居少陰離之旁；生於太陰之艮，配太陽位之一，而爲西北隅卦，仍居太陰坤之旁。此所謂離·震·艮·坤同，【謂與橫圖卦生之次同也。】陰之老少，主靜而守其常者也。【主成數，故曰陰。】至若生於太陽之兌，本當配太陰位之四，而今配少陰位之二，爲東南隅卦；生於少陽之巽，本當配少陰位之二，而今配太陰位之四，爲西南隅卦。此所謂乾·兌·巽·坎異，【謂與橫圖卦生之次不同也。】陽之老少，主動而通其變也。【主成數，故曰陽。】蓋九·七既以成數之陽，而通變其數，則二·四雖陰，亦可隨之而通變，故互易其位而配之也。然其兌居乾旁，巽居坎旁，初不以數變而有易，則亦不失仍居所生之義矣。是則胡說雖非朱子本意，亦可備一說，而非附會無據者也。○“二·八居東爲木”，‘二’當作‘三’。

本圖書 1-2-23

〔 ○ 〈洛書〉 四方之正，四隅之偏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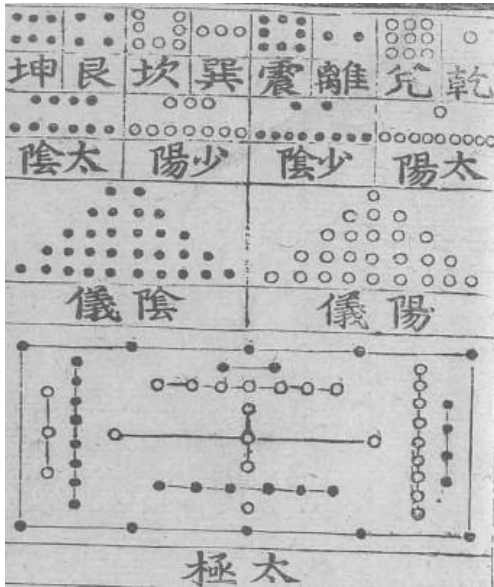
【此章當與書末玉齋《八卦合洛書圖》及《易圖說·河圖洛書爲不足信章》下胡氏註參看。】

按：胡氏之意，以爲一·六老陰之數，而艮·坤生於老陰，則艮居六·坤居一，雖異於〈河圖〉，而無不可也；三·八少陰之數，而離·震生於少陰，則離居三·震居八，雖亦異於〈河圖〉，而無不可也。其四·九之於乾·兌，二·七之於巽·坎，取義皆然，而乾居九，坎居七，則又正得其本數，所以〈洛書〉亦可以爲八卦者然也。但一非老陰，三非少陰，四非老陽，二非少陽，而如是并言之，疑辨並已粗見於上矣。於此，復論其餘意。或曰：“此各主於成數而帶言之耳。”朱子嘗曰：“六者，一而得於五者也；七者，二而得於五者也；八者，三而得於五者也；九者，四而得於五者也。”是老陰之六，由一而成，故一可帶言於老陰；少陽之七，由二而成，故二亦可帶言於少陽。三之於少陰，四之於老陽，倣此。或曰：“一之於老陰，四之於老陽，二老互藏；二之於少陽，三之於少陰，二少互藏。故皆可以通言之。”二說皆似附會。至於《啓蒙意見》，則直斥其非是。今附其圖并說於左，以備參考。

《易圖說·河圖洛書爲不足信章》註，胡氏曰：“先天八卦，乾·兌，生於老陽之四·九；離·震，生於少陰之三·八；巽·坎，生於少陽之二·七；艮·坤，生於老陰之

一·六，其卦未嘗不與〈洛書〉之位數合。後天八卦，坎一六水，離二七火，震·巽三八木，乾·兌四九金，坤·艮五十土。其卦未嘗不與〈河圖〉之位數合。此〈圖〉·〈書〉所以相爲經緯，而先後天亦有相爲表裏之妙也。”

[圖板09] 八卦合洛書圖



5)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太陽 少陰 少陽 太陰  
陽儀 陰儀  
太極

今按：此圖元本，無中五下上二點，下連於天一之點，上連於天七中一點，以代中五下上之點。此則非苑洛本

5) 圖板：延大本에 다음과 같은 두주가 있다.



圖爲然，想是後人之誤，今輒改正。

苑洛子曰：“五者，陰陽之總會；十者，陰陽之原。【此十中除一爲太陽之位，餘九則太陽之數，除二爲少陰位，以下倣此。蓋九者，一之餘，八以下倣此。四方數，皆括於此中。】五與十，陰陽之合也。【以太陽之九，合太陰六十五，以少陽之七，合少陰八十五，亦包四方之數。】蓋沖漠無朕之際，五十有五之數，已具於十五之中矣，是所謂太極也。及其五十有五之數形布互錯於十五之外，於是陰陽之象燦然，黑白之分明，一·三·七·九爲陽，二·四·六·八爲陰，所謂兩儀也。蓋兩儀，太極之所生者也，由是分之，一·九爲太陽，二·八爲少陰，三·七爲少陽，四·六爲太陰，所謂四象也。蓋太陽·少陰，陽儀之所生；少陽·太陰，陰儀之所生者也。由是分之，一爲乾，九爲兌，二爲離，八爲震，三爲巽，七爲坎，四爲艮，六爲坤。蓋乾·兌者，太陽之所生，一·九乃太陽之數也；離·震者，少陰之所生，二·八乃少陰之數也；巽·坎者，少陽之所生，三·七乃少陽之數也；艮·坤者，太陰之所生，四·六乃太陰之數也。其配合·分支，莫非自然之妙，夫豈人爲私智安排布置以成之哉？今乃以一·六爲老陰，二·七爲少陽，三·八爲少

陰，四·九爲太陽，六·七·八·九是矣，一·二·三·四何爲者哉？夫一·六，二·七，三·八，四·九，乃五行生成之數，非陰陽老少之數也。至於乾·兌，一·九老陽之所生，而係之二·七；巽·坎，二·七少陽之所生，而係之一【當作‘四’】·九，乾何取義於七，兌何取義於二，巽何取義於四，坎何取義於九哉？大抵昔者伏羲則圖以畫卦也，見〈河圖〉之數，陰陽具備，有太極之象焉。分其奇偶以爲兩儀，又分之爲四象，又分之爲八卦。自本而末，由幹而枝，脈絡分明，各有統屬，皆自然也。若謂離·震·艮·坤，陰之老·少，主靜而守其常；乾·兌·巽·坎，陽之老·少，主動而通其變。斯乃以卦義而配圖，非則圖而畫卦也。至於規橫爲圓，不能合其本生之數，易數以就位，斯爲後天之圖，豈聖人則圖畫卦之本然哉？”

滉按：韓氏意見多與朱子異同。此圖分卦，惟坤·艮·坎·巽四卦，同朱子。餘四卦，率與之相反。非但此也，其曰“五十有五之數，已具於十五之中，是所謂太極”者，若以是爲太極之象，則猶之可也，直謂之太極，則非朱子不可以五十著爲太極之意矣。又況虛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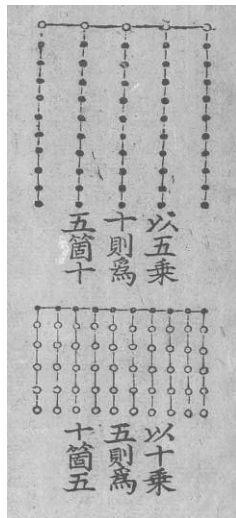
### 啓蒙傳疑

中五與十，以象太極，最是則圖作易之妙處。今乃并五與十數，以爲兩儀之分，則已失羲《易》之本意，奚怪乎二分四·四分八之多舛哉？又圖中內成數而外生數，亦不可曉。大抵韓氏意，本以攻玉齋設，而更不憚立異於朱子如此。覽者詳之。

本圖書 1-2-24

### 〔○以五乘十以十乘五圖，見《意見》〕

[圖板10] 以五乘十以十乘五圖



以五乘十，則爲五箇十。

以十乘五，則爲十箇五。

○含五得十。胡氏雖自下一點含天一，歷數至中一點，含天五之象，然非積實各點所含之數，只總取五而并本

五<sup>6)</sup>, 得十也.<sup>7)</sup> ○積五與十.【至是方積實所舍之一·二·三·四爲十, 而并五爲十五也.】<sup>8)</sup>

---

6) 五而并本五 : 延大本에는 ‘五位之數’로 되어 있다.

7) 得十也 : 延大本에는 앞에 ‘故’가 있고, 뒤에 [소주 ‘若積實, 則當爲十五也.’]가 있다.

8) 至是……而并五爲十五也. : 延大本에는 ‘積爲曆數其實也.’로 되어 있다.

## ○ 原卦畫 第二

原卦畫 2-1-1

《“四象”註，玉齋說，“〈太極圖〉，與此不盡合。”》  
水爲陰盛，則〈太極圖〉與此同。〈圖〉以火爲陽盛，此爲少陽；〈圖〉以木爲陽釋，此爲少陰；〈圖〉以金爲陰釋，此爲太陽，故曰：“不盡合。”

原卦畫 2-1-2

《○“四象生八卦”，“經卦皆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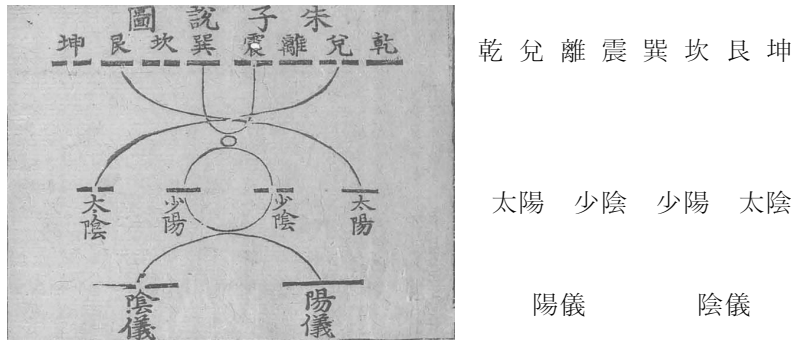
《周禮》註，“經，常也，正也。三代之易，名異而卦不異。”

○夏建寅，艮，寅位，人生於寅，故《連山》首艮；商建丑，地闢於丑，故《歸藏》首坤；周建子，天開於子，故《周易》首乾。

原卦畫 2-1-3

《朱子·董氏二說不同圖》

[圖板11] 朱子說圖



朱子謂：“陰交陽而生陰，陽交陰而生陽，其重在本身。故二少<sup>1)</sup>兌·艮，互位而生；震·巽，還本位而生。然陰生陰，陽生陽則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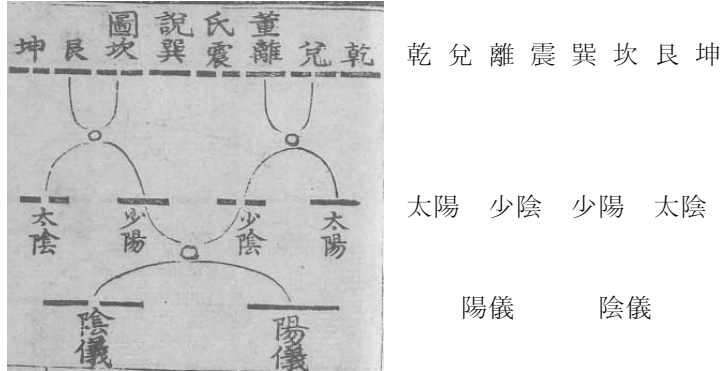
○又按：朱子此說，與下章答袁機仲說互有異同。此說“太陽交太陰而生艮上爻，太陰交太陽而生兌上爻。”又云：“陽儀生少陽，陰儀生少陰。”與彼說同。所不同者，於艮并坤言，於兌并乾言耳。至於少陰交少陽，則此言生震，而彼言生巽·坎；少陽交少陰，則此言生巽，而

1) 二少：咸興本에는 [추가 ‘二少’二字, 似衍. 若仍存, 則當曰‘二大’. 震·巽之上, 亦當有‘三少’二字. 更詳之.]가 있다.

## 啓蒙傳疑

彼言生離·震，是爲大不同矣。

[圖板12] 董氏說圖



董氏謂：“陽交陰而生陰，陰交陽而生陽，其重在所交。然皆還本位而生。”而其說並與朱子不同。

原卦畫 2-1-4

《○焦貢《易林》》

前漢 焦貢《易林》十六卷，皆爲韻語。

原卦畫 2-1-5

《○丹竈《參同契》》

丹藥之說，見上。竈，謂爐鼎也。

原卦畫 2-1-6

〔 杜撰 〕

杜，猶防也，猶備也；撰，具也，述也。凡本無義理，無事實，而造述其辭，姑取防備者，謂之“杜撰”。或曰“杜姓之人，所撰多誣，故凡誣者，謂之杜撰”，非也。【盛度撰之言，乃因‘度’與‘杜’音同，而度率爾之對，不覺中見戲者之言，故當時傳以爲笑，非杜撰本言所從出也。】

原卦畫 2-1-7

〔 ○中間進退 〕

謂二老之間，掛扞過揲，互爲進退，而爲二少。說見〈明蓍策篇〉。

原卦畫 2-2-1

〔 ○欠四分之一，多四分之三 〕

此一字·三字，當互易。蓋《太玄》八十一首，每首九贊，共七百二十九贊。以二贊當一晝夜，以合曆日，僅三百六十四日有半，不足半日又四分日之一。乃增一踦贊以當半日，一贏贊以當四分之一。以此揆之，四分一

## 啓蒙傳疑

晝夜，則踰贊半日，是所補之二分也，并羸贊所當四分之一，爲所補之三分也，而其一分實剩數也。故此文當作“不補却欠四分之三，補得來却多四分之一”，方是。李仲久及尹生 光溢皆云。

原卦畫 2-2-2

### 〔○次第是〕

其語意猶言應是如此也。

原卦畫 2-2-3

### 〔○嚴氏大分小分之說〕

未詳。

原卦畫 2-3-1

### 〔○“天地定位”註臨川 吳氏說·“雷以動之”註節齋 蔡氏說，見〈說卦傳〉註〕

此一節直解圖意。〈繫辭〉本章小註，胡雲峯曰：“《本義》依邵子以‘數往者順’一段，爲指圓圖而言；‘卦氣之所以行易逆數’一段，爲指橫圖而言卦畫之所以生。”據此，則“夫易之數”以下，明橫圖及圓圖右方之序，其所

謂“此一節”，只指‘是故易逆數也’六字而言。<sup>2)</sup>

“交一轉過”，橫圖之序，首乾尾坤，而震·巽相比。交一轉過，謂截圖中半，却以震交坤，以乾交巽，乃一次變轉，以成圓圖，故曰交一轉過。過，猶了也。

○“姤爲春分，午之半”，‘春分’當作‘夏至’。

○“周謨問：‘坤接巽’”，‘巽’當作‘震’。”

原卦畫 2-3-2

【○生陽中第二爻之一奇一偶，而爲太陽少陰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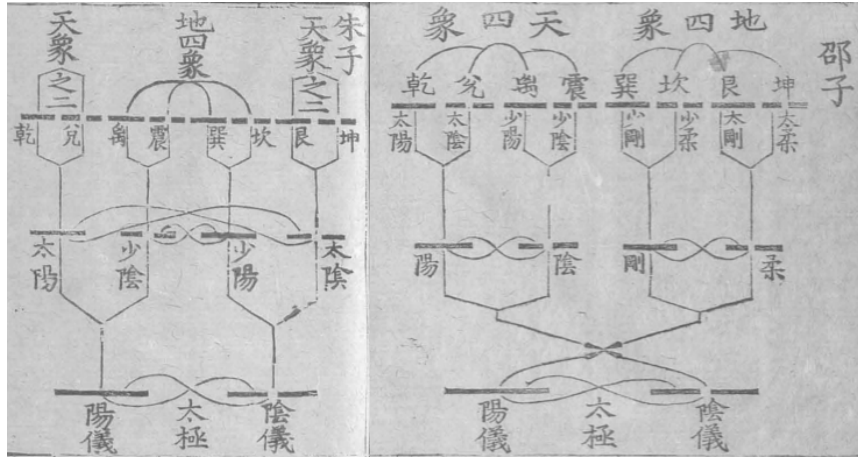
此‘太陽少陰’，一本作‘太陰少陽’者，誤。○“今分爲左下”，此‘左’字，一本作‘右’，非也。卽少陰一偶之所分也。

邵·朱分四卦不同之圖。橫圖，陽在右，陰在左。此圖陽左陰右者，從本註陽左下，陰右上之說及末篇玉齋《邵朱四象圖》而定。蓋借圓圖之方，而作橫圖以明之耳。

---

2) 此一節……六字而言：延大本에는 없다.

[圖板13] 邵朱四象圖



邵子

地四象

天四象

坤—艮—坎—巽—震—離—兌—乾

太柔 太剛 少柔 少剛 少陰 少陽 太陰 太陽

柔——剛 陰——陽

陰儀 太極 陽儀

朱子

天象之二 地四象 天象之二

坤—艮 坎—巽—震—離 兌—乾

太陰——少陽——少陰——太陽

陰儀——太極——陽儀

滉謹按：邵·朱論四象八卦異同之說，玉齋辨析已詳。但其義例，頗肯緊糾纏，未易領會，故爲圖以明之。今究

其所以異者，邵子不以太少論四象，只以陰陽剛柔四字當之，至於八卦，然後方以太少論陰陽剛柔。是恰似以四象假爲兩箇兩儀，而八卦又假爲兩箇四象矣。西山蔡先生嘗曰：“邵《易》，其命數定象，自爲一家。”朱子亦曰：“邵子看天下事物，皆成四片，四之外又有四焉，正謂此類。蓋看八卦亦成四故也。”而朱子釋之，只用四象八卦之例，所以不同。然其要歸，並行而不相悖也。

原卦畫 2-3-3

【左爲下，右爲上】

北·東爲左，南·西爲右，見上註。蓋陽之生長，自下而上，由北而東；陰之生長，自上而下，由南而西。若有上下然，故謂陽左爲下，陰右爲上。○邵說謂：“陽交陰，而還生陽儀上之奇偶；陰交陽，而還生陰儀上之奇偶。”朱說直謂：“陽交陰，而生陰上之奇偶；陰交陽，而生陽上之奇偶。”

原卦畫 2-3-4

【○乾一奇，今分爲八卦之第三爻】

就橫圖而看，當三畫時，乾之第三畫只一奇而已，至加四畫時，此一奇分爲二，五畫時，又分爲四，六畫時，又分爲八，卽乾至泰八卦之第三爻是也。故曰：“今分爲八卦之第三爻。”其坤卦之一偶及兌以下六卦之或奇或偶，其自一分八，皆與此同也。是皆據各八卦之內卦第三爻，推言六畫既成之後如此也。其下云“初爻二爻之四，今又分爲八”，此又言六畫成後，非但第三爻分爲八，初爻二爻之在二畫，而爲四段者，今亦分爲八段。云兩今字，皆指六畫既成後言。

原卦畫 2-3-5

《○卦體橫分》

卦體之分，見上。三加一倍，三畫加倍者，以積畫成卦，自下至上，豎看而言也。卦體橫分爲六十四者，以每加輒分左右排列，橫看而言也。皆指言橫圖之自兩儀四象分爲六十四者，所謂愈大則愈小，愈細則愈繁。以此看圓圖，圓圖卽橫圖也。

原卦畫 2-3-5

《○二數殊塗，不約而會》

胡氏謂“二數者，指橫圖所生與圓圖所分而言”，其義不可曉。若以愚見論之，橫圖所生之數，即圓圖所分之數。但分取橫圖中間震巽接處交一轉過，則震接坤，巽接乾而爲圓圖。此其爲橫爲圓，雖若小異，其數則初非爲二，安有殊塗？亦安取義於不約而會哉？竊嘗考之，先生所謂二塗者，皆以畫卦節次言之。如所謂八卦相乘爲六十四者爲一塗，三畫以上，三加一倍以至六畫，則三畫者亦加一倍，而卦體橫分，亦爲六十四者爲一塗。蓋八卦相乘，即徑以八卦各加八卦之上也。三加一倍以至六畫，即旋次加奇偶，積成八卦之八卦也。徑以八卦加八卦者，固爲六十四，旋次加奇偶，積成八卦之八卦者，亦恰恰爲六十四。其次第行列，不待人安排布置，而無一不同，故贊之曰：“如合符節，不差毫釐，正是易之妙處。”此是指橫圖所畫而言，恐不當以圓圖攙說也。且先生平日說此二塗非一，請略舉數條證之。嘗答袁機仲書曰：“重卦之由，不但伊川先生之說如此。蓋〈大傳〉亦云：‘八卦成列，因而重之。’是因八卦之已成，各就上面節次生出。若旋生逐爻，則更加三變，方成六十四。若併生全卦，則只用一變，便成六十四。雖有遲速之不同，然皆自然漸次生出，各有行列次第，皆

是作《易》妙處。”又曰：“一畫爲儀，二畫爲象，三畫爲卦，則八卦備矣。此上若旋次各加陰陽一畫，則積至三重，再成八卦者八，方有六十四卦之名。若徑以八卦徧就加乎一卦之上，則亦如其位而得名焉。”此數說，皆論二數殊塗，不約而會之理，正與此條所論相同。又〈答林黃中書〉亦論此意，而有小異，即見於《傳疑》卷末者，是也。以此等說推之，胡氏之說得失可見矣。

原卦畫 2-3-6

【○“無極之前”註“他自據他意思”說】

按：此以下四五箇‘他’字，蓋不同也。“他自據他意思”，兩‘他’字，皆指康節。“若論他太極”，此‘他’字，當指濂溪〈太極圖〉。“他亦自說圖從中起他”，復指康節。“他兩邊生”，此‘他’又只指〈先天圖〉言。其意謂以坤復之間爲太極，乃康節自據己意而言耳。若論以濂溪〈太極圖〉，則〈先天圖〉中間虛處，便是太極。然康節非不知此意，故亦嘗自說“圖從中起也。”又康節“圖兩邊生”者，即濂溪陰根陽陽根陰之說也。【《易圖說·六十四卦方位圖》末，亦引此條，當與此參看。但今館本“他說圖從中起”，誤作“他圖說從中起”，不可不察。】

○小註，朱子答或問曰“本無間斷”，‘間斷’，《語類》作‘前後’，今當從之。

原卦畫 2-3-7

【○剋】

減削也。字或作‘克’，非也。○“巽·坎·艮得四十八陽。”，‘四’當作‘六’。

原卦畫 2-3-8

【○“陽在陰中”註“陰陽互居其方，則陽自上而下，陰自下而上。”舊說當作‘陽自下而上，陰自上而下’】

蓋言陽自下而上，在本方則爲順，在陰中則爲逆；陰自上而下，在本方則爲順，在陽中則爲逆也。

原卦畫 2-3-9

【○“先天學，心法”註“三十二陽<sub>止</sub>八卦。”】

將〈圖〉左右兩分，則每一邊或陰或陽，皆三十二也；四方四分，則每一方或陰或陽，皆十六也；八維八分，則每一維或陰或陽，皆八也。既而此八卦各生八卦而成

六十四，豈非〈圖〉從中起乎？

原卦畫 2-3-10

〈○“圖雖無文”註“納甲法”〉

法見陰陽家諸書．今取《參同契》及《筆談》·《易髓》·《卜筮元龜》諸圖說，間以愚見訂解如左云．

原卦畫 2-3-11

〈參同契納甲圖〉

〔圖板14〕 參同契納甲圖



⑤父☰ ⑥母☷

☳☰庚【三日出爲爽，震受庚西方.】【言月至三日昏在西方庚位，其象如震，應震卦納庚.】

☱☲丁

【八日兌受丁，上弦平如繩.】【月至八日昏在南方丁位，其象如兌，應兌卦納丁.】

☰☱甲

【十五乾體就盛滿，甲東方.】【月至十五與日相望，昏在東方甲位，其象如乾應乾卦納甲.】

☷☶辛

【十六轉受統巽，辛見平明.】【月至十六晨在西方辛位，其象如巽，應巽卦納辛.】

☲☱丙

【艮直於丙南，下弦二十三.】【月至二十三晨在南方<sup>3)</sup>丙位，其象如艮，應艮卦納丙.】

☷☲乙

【坤乙三十日，東方喪其明.】【月至三十日晨在東方乙位，其象如坤應坤卦納乙.】

【壬·癸配甲·乙，乾·坤括始終.】【壬配甲，癸配乙，皆屬乾·坤。始於甲·乙，終於壬·癸，故曰壬·癸配甲·乙，乾·坤括始終.】

3) 南方：國中本에는 뒤에 ‘位其’가 있다.

[圖板15] 總圖



4)

父

長男 中男 少男

壬 庚 戊 丙 甲

癸 辛 巳 丁 乙

長女 中女 少女

母

陽子 俞琰《發揮》曰：“納甲者，火候之取象也。火候之抽添，與月之盈虧無異。蓋不過借比以論身中六卦火候之進退，非真以爲一月三十日也。何以明之？晝短日沒於申，則月合於申，望於寅；晝長日沒於戌，則月合於戌，望於辰。三日之月，未必盡見庚；十五之月，未必盡見甲。合朔有先後，則上·下弦未必盡在八日·二十三日，望·晦未必盡在十五日·三十日。今魏公云云，蓋指二·八月晝夜平均之時，姑以取象而已。學者但觀月體之盈虧反而求之吾身，則身中一陽生，卽三日月生之震象也，二陽之兌象至三陰之坤象皆然，豈可拘哉？”

《筆談》曰：“乾坤始于甲·乙，則長男·長女乃其次宜納丙·丁，少男·少女居其末，宜納庚·辛。而今反此者，

4) 延大本 도판에는 ‘右圖亦出《參同契》’가 있다.

卦必自下生，先初爻，次中爻，末乃至此【疑‘上’字。】爻。此易之叙然，亦胎育之理也。物之處胎甲，莫不倒生，自下而生者，卦之序而冥合造化胎育之理，此至理合自然者也。”【凡草木百穀之實皆倒生，首係于幹，其上抵于穎處，反是根。人與禽獸，生胎，亦首皆在下。】○《易髓》曰：“八卦納十幹<sup>5)</sup>，用六十甲子，布於六十四卦，今卦中只有四十八甲子，而欠十二位，不合其造化。蓋不全其事明者，當暗合也。”謂乾·坤二卦，又納壬癸十二支。如乾卦初爻，甲子與壬子同行；坤卦初爻，乙未與癸未同行，方得全備也。【“納十支”，無意。恐‘支’當作‘干’。】

原卦畫 2-3-12

### 【○卜筮元龜·渾天六位圖】

【今按：八卦皆舉，而云六位者，去離·坎而言也。】

---

5) 幹：延大本‘支’

啓蒙傳疑

[圖板16] 卜筮元龜渾天六位圖



乾納甲壬

乾

—壬戌土—壬申金—壬午火

—甲辰土—甲寅木—甲子水

巽

—辛卯木—辛巳火—辛未土

—辛酉金—辛亥水—辛丑土

巽納辛

坎納戊

坎

--戊子水—戊戌土--戊申金

--戊午火—戊辰土--戊寅木

離

—己巳火--己未土—己酉金

—己亥水--己丑土—己卯木

離納己

艮納丙

艮

—丙寅木--丙子水--丙戌土

—丙申金--丙午火--丙辰土

坤

--癸酉金--癸亥水--癸丑土

--乙卯木--乙巳火--乙未土

坤納乙癸

震納庚

震

--庚戌土--庚申金—庚午火

--庚辰土--庚寅木—庚子水

兌

--丁未土—丁酉金—丁亥水

--丁丑土—丁卯木—丁巳火

兌納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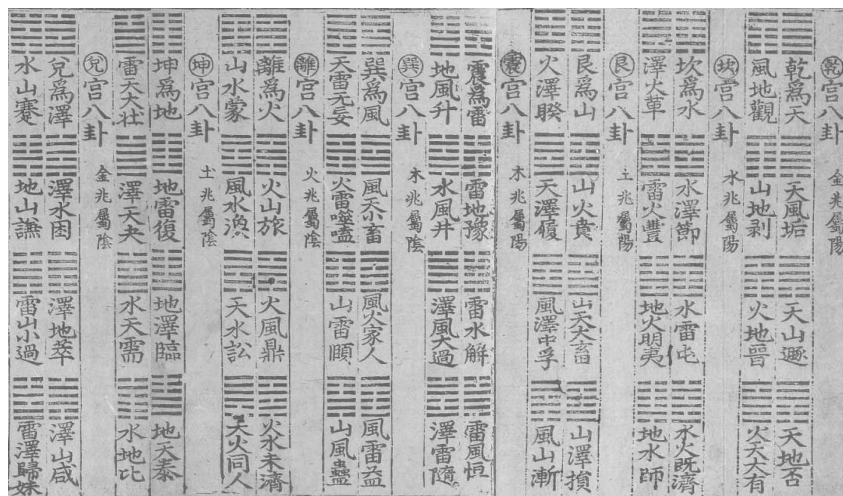
原卦畫 2-3-13

### 《○六十四卦分屬八宮圖》

【明納甲而及此圖者，有此圖然後可推飛伏，知飛伏然後納甲有所歸宿有所用處故也.】

# 啓蒙傳疑

[圖板17] 六十四卦分屬八宮圖



## 乾宮八卦【金兆屬陽】

☰乾爲天 ☰天風姤 ☰天山遯 ☰天地否  
 ☱風地觀 ☱山地剝 ☱火地晉 ☱火天大有

## 坎宮八卦【水兆屬陽】

☵坎爲水 ☵水澤節 ☵水雷屯 ☵水火既濟  
 ☲澤火革 ☲雷火豐 ☲地火明夷 ☲地水師

## 艮宮八卦【土兆屬陽】

☶艮爲山 ☶山火賁 ☶山天大畜 ☶山澤損  
 ☲火澤睽 ☲天澤履 ☲風澤中孚 ☲風山漸

## 震宮八卦【木兆屬陽】

☳震爲雷 ☳雷地豫 ☳雷水解 ☳雷風恒  
 ☱地風升 ☱水風井 ☱澤風大過 ☱澤雷隨

## 巽宮八卦【木兆屬陰】

☴巽爲風 ☴風天小畜 ☴風火家人 ☴風雷益

䷲天雷无妄 ䷲火雷噬嗑 ䷲山雷頤 ䷲山風蠱

離宮八卦【火兆屬陰】

䷲離爲火 ䷲火山旅 ䷲火風鼎 ䷲火水未濟

䷲山水蒙 ䷲風水渙 ䷲天水訟 ䷲天火同人

坤宮八卦【土兆屬陰】

䷲坤爲地 ䷲地雷復 ䷲地澤臨 ䷲地天泰

䷲雷天大壯 ䷲澤天夬 ䷲水天需 ䷲水地比

兌宮八卦【金兆屬陰】

䷲兌爲澤 ䷲澤水困 ䷲澤地萃 ䷲澤山咸

䷲水山蹇 ䷲地山謙 ䷲雷山小過 ䷲雷澤歸妹

原卦畫 2-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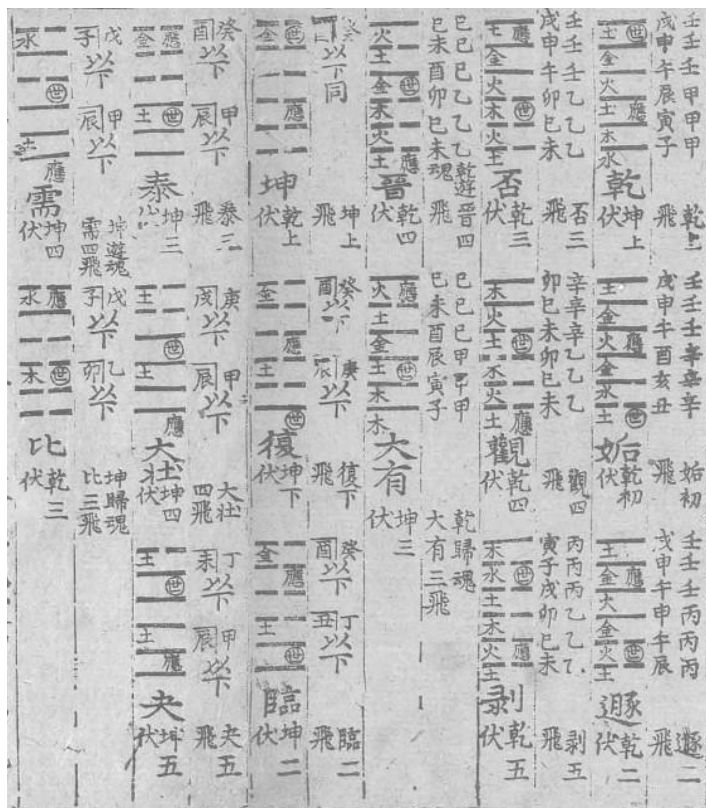
### 《 推飛伏例要訣 》

飛神是世定於眞， 伏神還從本卦輪。【本卦， 謂各其本宮卦。】  
純卦歸魂來去換， 遞相交代是其神。 乾家伏神坤家覓，  
坤家伏神乾家求。 震·巽彼此相抽換， 遞相來往自通流。  
兌卦伏神艮位取， 艮家伏神兌家遊。 坎要伏神離家索，  
離覓伏神坎家抽。 但於本宮起納甲， 從此數至世爻休。

按：右要訣隱晦難推。今以乾坤二宮爲圖，以明如左。

# 啓蒙傳疑

[圖板18] 乾坤二宮圖



壬戌 壬申 壬午 甲辰 甲寅 甲子

☷土金火應土木水

☰乾

乾上飛 坤上伏

壬戌 壬申 壬午 辛酉 辛亥 辛丑

土金應火金水☷土

☷姤

姤初飛 乾初伏

壬戌 壬申 壬午 丙申 丙午 丙辰

土應金火金☵火土

䷧遯

遯二飛 乾二伏

壬戌 壬申 壬午 乙卯 乙巳 乙未

應土金火☵木火土

䷋否

否三飛 乾三伏

辛卯 辛巳 辛未 乙卯 乙巳 乙未

木火☵土木火應土

䷓觀

觀四飛 乾四伏

丙寅 丙子 丙戌 乙卯 乙巳 乙未

木☵水土木應火土

䷖剝

剝五飛 乾五伏

己巳 己未 己酉 乙卯 乙巳 乙未

火土☵金木火應土

䷢晉【乾遊魂】

晉四飛 乾四伏

己巳 己未 己酉 甲辰 甲寅 甲子

應火土金☵土木水

䷍大有

乾歸魂大有三飛 坤三伏

癸酉以下

同☵金應

## 啓蒙傳疑

䷁坤

坤上飛 乾上伏

癸酉以下 庚辰以下

金應土④

䷗復

復下飛 坤下伏

癸酉以下 丁丑以下

金應土④

䷒臨

臨二飛 坤二伏

癸酉以下 甲辰以下

應金④土

䷊泰

泰三飛 坤三伏

庚戌以下 甲辰以下

土④土應

䷡大壯

大壯四飛 坤四伏

丁未以下 甲辰以下

土④土應

䷪夬

夬五飛 坤五伏

戊子以下 甲辰以下

水④土應

䷄需

坤遊魂需四飛 坤四伏

戊子以下 乙卯以下

應水☵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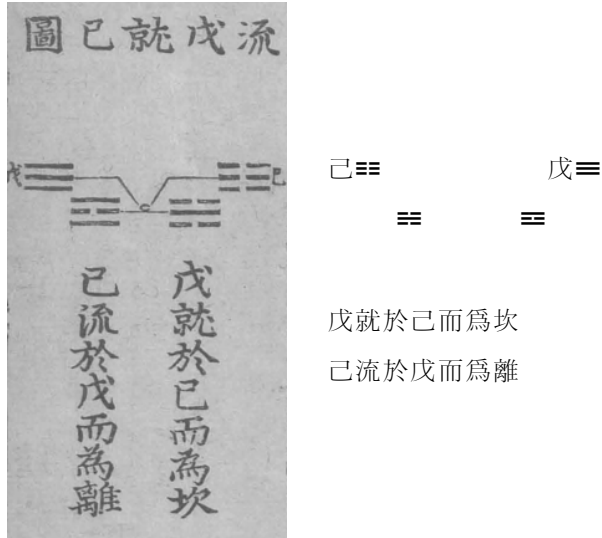
䷇比

坤歸魂比三飛 乾三伏

滉按：飛神皆在當卦，所謂“定於真”也。伏神則如乾宮之於姤至晉·坤宮之於復至需，皆本宮卦之爻，隨各卦飛神所在之爻而伏，故曰“伏神還從本卦輪”也。若純卦，則飛神·伏神皆在上爻，而遞相爲飛伏，如乾上飛則坤上伏·坤上飛則乾上伏之類，是也。不獨上爻爲然，歸魂卦之相爲飛伏，亦同此例。自“純卦歸魂”以下至“坎家抽”，皆明此意云。○“留戊就己。”今按《理學類編》，張美和曰：“虞翻謂：‘日月懸天，成八卦象。三日暮，震象月出庚云云。三十日，坤象月滅乙。晦夕朔朝，則坎象水流戊，日中則離象火就己，成戊·己土位，象見於中。’”【此‘留’作‘流’，疑當從之。卽《易》所謂“水流濕，火就燥”之義也。】

啓蒙傳疑

[圖板19] 流戊就己圖



原卦畫 2-3-15

《元會運世》

詳見《皇極經世書》。

○“五畫陽過， 五畫陰過”， 《易圖說》， 兩‘過’字下，皆有‘來’字。

原卦畫 2-4-1

《○至哉文王之作《易》也》

王者圖說， 作王者之法。 ○乾·坤既退， 則離上而得乾

位，坎下而得坤位 以東左·西右而言，則西爲上，東爲下，故坎·離之變，東上而西，西下而東也；以南上·北下而言，則自西而南亦爲上，自東而北亦爲下。故坎·離之再變，離上而得乾位，坎下而得坤位也。○“上文兩段”，指“天地定位”·“雷以動之”二節。○“此意固自”之‘自’，《易圖說》作‘好’，今從之。

原卦畫 2-4-2

【○只此四位，陽中有陰，陰中有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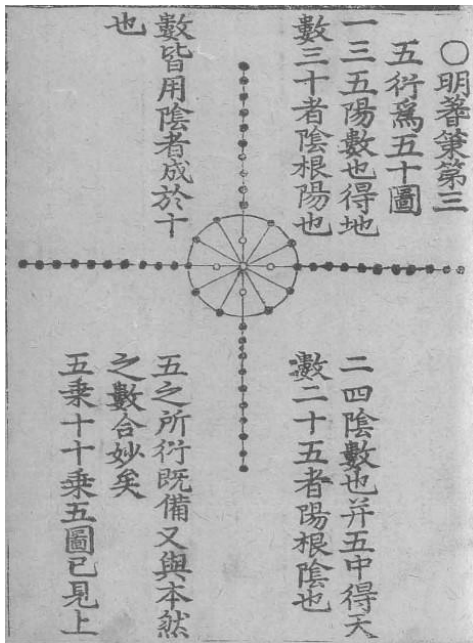
四位，子·午·卯·酉四正位也。午，陽位之極，而一陰生；子，陰位之極，而一陽生。二位，陽中有陰，陰中有陽，固也。卯位正東，陽方中而未極；酉位正西，陰方中而未極。陽未極，則陰在其中可知；陰未極，則陽在其中可知。蓋天地間無截然爲陽爲陰之理，故或以一極一生，取在中之義，或以一未極，取一在中之義，皆無所不可也。○玉齋說，“陰陽爲尤雜”之‘尤’，當作‘宄’。《韻會》，“宄通作猶。”

### ○明蓍策 第三

明蓍策 3-1-1

#### 〔五衍爲五十圖〕

[圖板20] 五衍爲五十圖



一·三·五陽數也，得地數三十者，陰根陽也。

數皆用陰者，成於十也。

二·四，陰數也，并五中得天數二十五者，陽根陰也。

五之所衍既備，又與本然之數合妙矣。

五乘十·十乘五圖，已見上。

明蓍策 3-1-2

#### 〔○已虛了天一之數〕

三天·兩地之數，出於方圓之象。合而成五，而天一之

一，不在其數，故云：“已虛了天一之數。”雖然五因三·兩而爲數之祖，三·兩皆一之積也。其虛一，非不用也，以其無不在，故待之以虛耳。

明蓍策 3-2-1

### 《○蓍之數七》

說見《經世書·觀物外篇上》。其言散出，今頗抄綴爲文曰：“蓍德圓，以況天之數。圓者徑一，而圍三重之則六，蓍數不以六而以七，何也？并其餘分也，故七七四十九，五十者，存一而言之也。【陽主進，故常存其一。】去其餘分則六，故策數三十六也。”愚謂：“餘分，指一歲氣盈之數也。蓍之用，若止於六，則六六三十六，在一歲則三百六十日而已。不盡五日四分日之一，卽無以歸奇而成閏，故必并此餘分而爲七，然後七七四十九，乃足於以閏月定四時，成歲之象也。去其餘分，則六，故策數三十六者，掛扞以象閏，卽去其餘分之謂也。老陽掛扞十二，則過揲三十六，卽策數三十六也。”

明蓍策 3-3-1

《○“得九者一”註》

“象四歲，歸奇於右”，右當作‘左’。

明蓍策 3-3-2

《○〈老陽十二圖〉註》

“爲九之子一箇十二，亦徑一之義”，此“一箇”之‘一’，舊說當作‘三’。

明蓍策 3-3-3

《○〈少陰圖〉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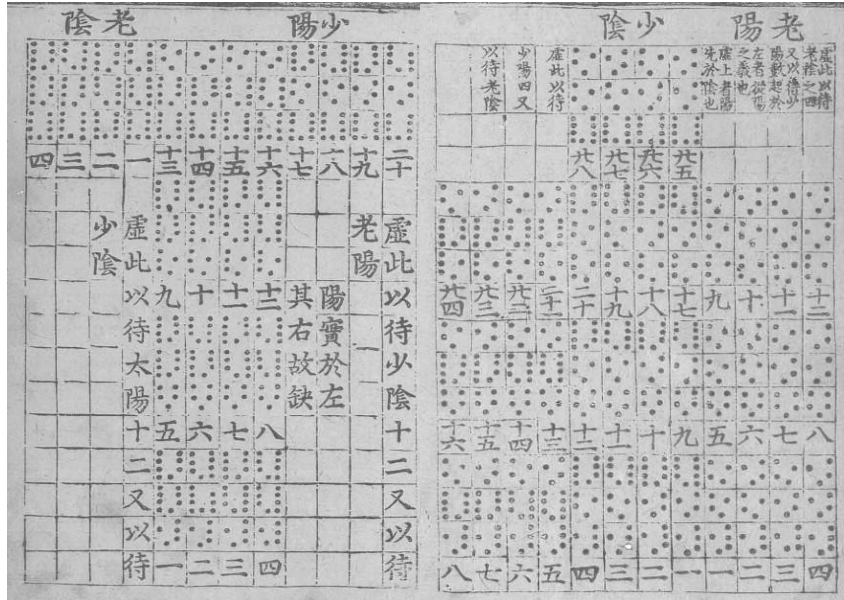
“卽上文積三·三·一·二之數”，上‘三’字，當作‘二’。

明蓍策 3-3-4

《○四象虛以相待圖》

圖見《啓蒙意見》。

[圖板21] 四象虛以相待圖



老陽

虛此以待老陰之四，又以待少陽數起於左者，從陽之義也。虛上者，陽先於陰也。

十二 十一 十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少陰

虛此以待少陽四，又以待老陰。

廿五 廿六 廿七 廿八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廿二 廿三 廿四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少陽

二十 十九 十八 十七 十六 十五 十四 十三

虛此以待少陰十二，又以待老陽。

陽實於左，其右故缺

## 啓蒙傳疑

十二 十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老陰

一 二 三 四

虛此以待太陽十二，又以待少陰。

按：《意見》又有〈二老二少相合圖〉，又有〈太陽合少陽太陰合少陰圖〉，今不可悉傳。

明蓍策 3-3-5

〔○〈老陰圖〉註，“立掛，以奇數爲體。”〕

‘掛’當作‘卦’。老陽·老陰，乾·坤之象；少陽·少陰，六子之象。按，此與下文玉齋掛扚數該八卦之說同。玉齋說，詳下圖附說。

明蓍策 3-3-6

〔四象變數〕

老陽之變皆四。

老陰之變皆八。

少陽之變一四兩八

少陰之變一八兩四

--皆就三變掛扚而言，此固易見。

“皆四”註“十二變”．老陽，每三變之掛扚皆四，而爲<sup>1)</sup>三變者有十二樣．

“皆八”註“四變”．老陰，每三變之掛扚皆八，而爲三變者止四樣也．

“一四”註“十二變”．“兩八”註“八變”．

少陽，每三變之掛扚，皆一四兩八．四者，老陽之策數只一，故初四，而變者依舊得老陽之十二樣而已．八者，老陰之策數以兩，故初八，而變者倍老陰之四樣而爲八也．

“一八”註“四”．“變兩四”註“二十四變”．

少陰，每三變之掛扚，皆一八兩四．八者，老陰之策數只一，故初八而變者，依舊得老陰之四樣而已．四者，老陽之策數以兩，故初四，而變者倍老陽之十二樣而爲二十四樣也．

○“老陽·少陽，得奇策本數”，謂老陽之奇十二，而其變亦十二樣；少陽之奇二十，而其變亦二十樣．

---

1) 爲：기준본인 高大本에는 ‘口’로 되어 있으나, 延大本·玉振閣本·國中本·咸興本·乙卯本에 의하여 수정하였다.

“老陰之奇二十四”，謂每變得八，三變合二十四，而以少陽二十損之，只四樣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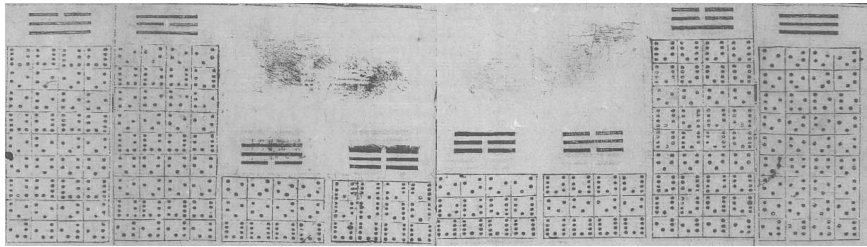
“少陰之奇十六”，謂一變八，二變兩四計八，合十六，而以老陽十二益之，二十八樣也。○“掛扚全數，列於四圍”，‘圍’當作‘圖’。○“由少陰而變也，雖得其十二之益。”【‘十二’當作‘二十’。】

明蓍策 3-3-7

〔○玉齋掛扚數該八卦象圖〕

圖見《意見》。

[圖板22] 玉齋掛扚數該八卦象圖<sup>2)</sup>



滉按：苑洛子《意見》，先畫空界六十四爲一圖者，爲太極；次太·少二陽合爲三十二變，太·少二陰合爲三十

2) ≡：高大本 ‘≡’；咸興本에는 [두주 ≡, 他本作‘≡’非.]가 있다.

二變者，爲兩儀【此下皆點策數】；次老·少陰陽各爲一圖者，爲四象；次八卦圖如上，末又爲太少陽·太少陰，並合如兩儀圖而不分二者，爲六十四卦。蓋於六十四變也，每以一變當一卦之象，非實以變數配爻如四象八卦之類也。今只取八卦圖於此，餘可推類而知，故不盡傳也。

○又按：玉齋云“一變而得兩儀云云”，乾·震·離·兌之第一變皆奇，坎·艮·坤·巽之第一變皆偶，是一變而得兩儀之象也。乾·兌第二變皆奇，太陽也；震·離第二變皆偶，少陰也；坎·巽第二變皆奇，少陽也；艮·坤第二變皆偶，太陰也，是再變而得四象之象也。乾·艮·巽·離四卦第三變皆奇，震·坎·坤·兌四卦第三變皆偶，八卦也，是三變而得八卦之象也。

明蓍策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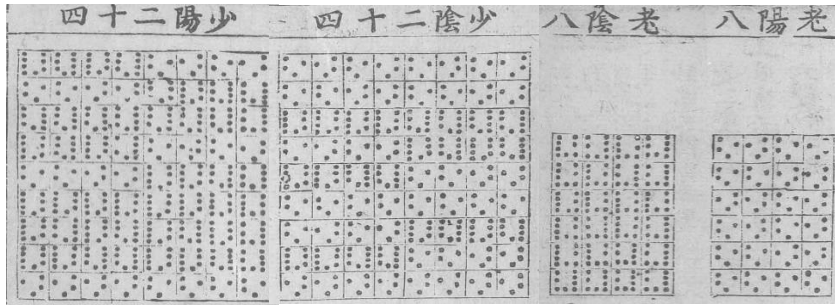
### 〔○“且用舊法”下蔡說〕

“陽用老而不用少。”【‘陽’，一本作‘易’，是。】○“所用者，十六變。”【‘六’，一本作‘二’，非。】

明蓍策 3-3-9

《○蔡氏四十九蓍虛一體數圖》

[圖板23] 蔡氏四十九蓍虛一體數圖



老陽八 老陰八 少陰二十四 少陽二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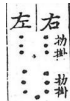
3) 右左  
 扌卦  
 扌卦

【即再變三變得四者二，所謂奇也，而無初變之 $\begin{smallmatrix} \bullet & \bullet & \bullet \\ \bullet & \bullet & \bullet \end{smallmatrix}$ 也。然謂初變而徑得此耳，非謂不初變也。】



右左  
 扌卦  
 扌卦

3) 延大本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卽再變三變得八者二，所謂偶也，而無初變之☵也。然謂初變而徑得此耳，非謂不初變也。】

滉按：蔡氏說“四十九著虛一分二云云”，此假設爲此一法，以見陰陽體數之正相對待無加減耳。蓋將四十九又虛其一，則只用四十八偶數，故於第一變無五九之數，而徑得第二第三變四八之數也。

老陽，除初變得五之三奇，只以再三變得四之兩奇，爲初變之始，每奇四樣，止爲八。老陰，除初變得九之一偶，乃以再三變得八之兩偶，爲初變之始，比前加一偶，每偶四樣，亦爲八。

少陰，以得四之兩奇，各八合得八之一偶者，爲變十六，以得八之一偶，合得四之兩奇者，爲變八，合二十四。

少陽，以得四之一奇，合得八之兩偶者，爲變八，以得八之兩偶，合得四之一奇者，爲變十六，合亦二十四。

○“老陽九揲而得，少陽七揲而得”，此指第三變揲數·策數而言。蓋老陽過揲三十六，乃四九也。故四四揲之，至於九次而後得之，蓋不至九次，則三十六不成故也。少陽過揲二十八，乃四七也，故四四揲之，至於七

次而後得之，蓋不至七次，則二十八不成故也。其老陰之六揲，少陰之八揲倣此。○“八掛各得八焉。”【‘掛’當作‘卦’。】

○玉齋 胡氏說，“舊法與今所用之法，四十九著，虛一分二云云。”今按：以四十九虛一，只用四十八，此卽蔡氏假設之法，乃以是爲舊法與今法。竊恐胡氏本說不應如此之謬，得非本作五十著，而後來傳寫者，因上段朱子論蔡氏法四十九字，而誤併此段五十字作四十九也。或云：“此非謂以四十九而虛一，只是先說所用者四十九，而復泝說五十而虛一耳。”此說雖若有理，然欲言虛一，則當舉五十，既言四十九，則不當復泝說五十而虛一。不如改四十九作五十之爲得也。

○“體數”·“用數”：《皇極經世書·觀物外篇》，以卦爲體數，著爲用數。○“一時四月，一月四十日”，亦見〈外篇〉。○“用者，止于三而極于九”，‘止于三’者，四月止用三月，四十日止用三十日也。‘極于九’者，言止于三月者，極于九十日；止于三時者，極于三九二百七十也。何謂‘極于三九二百七十日’耶？一歲亥·子·丑三月不用也。【說見朱隱老《經世書》註。又云“三，月數也；九，日數也。”】

明蓍策 3-3-10

〔○“至於陰陽，老少之所以然”註〕

蔡氏說，“三天之象”【‘三’當作‘參’】“少陽奇數，由老陰而息”，‘息’恐當作‘消’。“少陰奇數，由老陽而消”，‘消’恐<sup>4)</sup>當作‘息’。詳下。“凡此”章註，胡氏謂“老陽以長而變爲少陰，老陰以消而變爲少陽”，則此‘消息’二字之誤換，可知。

明蓍策 3-3-11

〔○“老陽居一而含九”註〕

胡氏說，“老陽極少，少陰次少”，疑只此‘陰’字，是‘陽’字之誤。蓋朱子以四象位次列叙言之，故謂“少陰之十六，爲次少於老陽之十二；少陽之二十，爲次多於老陰之二十四”，宜矣。胡氏主陽之奇而分類言之，則以少陽之二十，爲次少於老陽之十二；少陰之十六，爲次多於老陰之二十四，亦所宜也。且詳其文勢語意，既曰主陽之奇而言，則其下固宜并說二陽，不應遽說少陰。既說二陽，旋以一而字截上續下，而方說二陰，曰：“云

---

4) 恐：延大本에는 없다.

云者，不能以並乎陽之小也。”若下文少陰之陰作陽，則何云不能以並乎陽之少乎？竊恐下文論過揲處，“老陽極多，少陽次多；老陰極少，少陰次少”，其義亦只是如此也。胡氏非故立異於朱子，所就而言者不同故也。

明蓍策 3-3-12

【○“凡此不唯陰之與陽”章，“判合如符契。”】

玉齋以陰陽二物爲合，其一物爲判，似與符契判合之義不相應。竊意：或爲老陽·老陰，或爲少陽·少陰，皆判也。其掛扚·過揲，互相進退，必得其合如上文蔡氏所云，老陽奇進十二而得老陰奇，策退十二而得老陰策；老陰奇退十二而得老陽奇，策進十二而得老陽策；少陽奇退四而得少陰奇，策進四而得少陰策；少陰奇進四而得少陽奇，策退四而得少陽策之類，皆所謂合，是二物之有判合也。其一物之自爲一物，判也。其掛扚·過揲之二端，互相進退，以多少相對爲消息，如老陽掛扚極少，對過揲極多爲消息；老陰掛扚極多，對過揲極少爲消息。少陰次少對，次多，少陽稍多對稍少，或以少對多，或以多對少，一消一長，必得其對，皆所謂合，是一物之有判合也。若玉齋，說‘二物有合而無判，一物

有判’，而又不明言其所以合，恐非朱子本意也。

明蓍策 3-3-13

〈○“而況掛扚之數”註〉

胡氏說，“以四乘掛扚之數，必得過揲之數”，‘掛扚之數’，謂七·八·九·六也。上置七·下置四，以四呼七而乘之，四七二十八。餘倣此。以四除過揲之策，必得掛扚之數。中置少陽之二十八，上置七，下置四，以四呼七而除之，四七除二十八恰盡。餘倣此。“相勝”<sup>5)</sup>：有進有退，迭爲消長，若相制勝也。

明蓍策 3-3-14

〈○“邵子曰”註〉

胡氏說，“以象方而三二之中。”【‘三’當作‘二’。】

明蓍策 3-3-15

〈○“一爻已成”註〉

朱子引康節以三爲眞數。按《經世書·觀物外篇下》

---

5) 相勝：延大本·玉振閣本·國中本에는 앞에 ‘○’가 있다.

云：“《易》有眞數，三而已。參天者，三三而九。兩地者，倍三而六。”“以三兩乘之而得九六”，置三以三乘之而得九，以兩乘之而得六也。

明蓍策 3-3-16

〔○“當期之日”註，“閏法”〕

曆算雖云置某數乘除，不著布算之法，初學未易曉。今悉爲圖如左。

明蓍策 3-3-17

〔○得全日三百四十八〕

置二十九日，以十二乘之而得。【從首位大數算起。】



【先下一九九於十位，仍進一爲百。次下二九十八，十於十位，八於單<sup>7)</sup>】

6) 玉振閣本에는 ‘日’ 아래에 ‘日’가 있다.

7) 單：玉振閣本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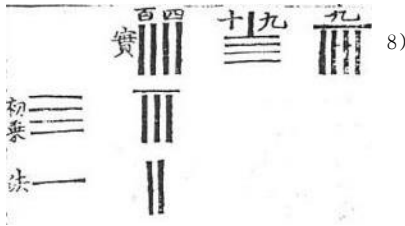
位，○是爲三百四十八.】

【先下一二二於百位，次下二二四於十位．法退一位.】

明蓍策 3-3-18

〔○餘分之積五千九百八十八〕

置四百九十九，以十二乘之而得.



【先下一九九於十位，仍進一十於百位，次下二九十八，十於十，八於一單．○是爲五千以下數.】

【先下一九九於百位，仍進一十於千位，次下二九十八，十於百，八於十．法退一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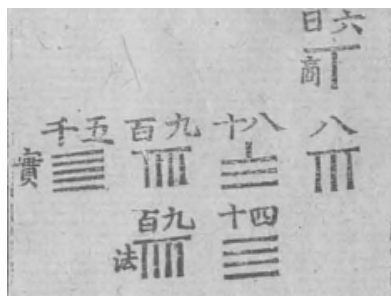
【先下一四四於千位，次下二四八於百位．法退一位.】

明蓍策 3-3-19

〔九百四十而一得六不盡三百四十八〔此以日法九百四十除五千以下，得六日有餘也.〕〕

8) 玉振閣本에는 ‘ㄴ’ 아래에 ‘ㄴ’이 있고, ‘ㄴ’ 아래에 ‘ㄴ’이 있고, ‘ㄴㄴ’은 ‘ㄴㄴ’로 되어 있고, ‘ㄴ’은 ‘ㄴ’으로 되어 있다.

## 啓蒙傳疑



【而一法，只就數內，除九百四十，置一於上，又除九百四十，置一於上，如是六除六置，爲六日，餘如右。】

【商除法，直下六於上單位，置法算九百下，呼六九五十四，除五千四百，次呼四六二十四，除二百四十，餘如右。】

【若用歸除法，不下商算。先呼九歸隨身下加五，乃加五於百位，仍呼逢九進一十，取百位之九進千位作六，次以四十呼所歸六，四六二十四，除二百四十，餘如右。○作六除四，六是爲六日也。】

【月與日會，所少之分五百九十二，截自此數而入計作閏。其所謂三百四十八分者，實是一年月行所歷之分，不預於以少作閏之數，故不復言也。下十九歲積分成日處零六百七十三分，亦同此。】

明蓍策 3-3-20

（○少五日五百九十二分者，爲朔虛）

置三百六十日，以三百五十四日減之，則餘六日，內又取一日，作九百四十分，以三百四十八分減之，則餘五百九十二分，故云少。

明蓍策 3-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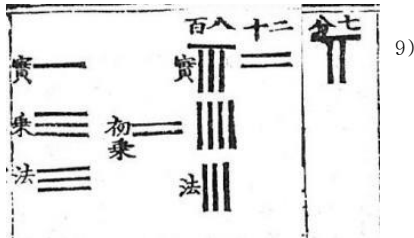
《 ○一歲閏率十日 》

并多少各五日而成十日，并二百三十五及五百九十二而成八百二十七.

明蓍策 3-3-22

《 ○三歲一閏，則三十二日，九百四十分日之六百單一 》

置十日八百二十七，以三因之，得三十日，餘二千四百八十一.【詳明算法. 因法，從末少數算起，今從上大數起.】



【下三七二十一，二十於十位，一於本位. 是爲三十日. 二千以下也.】

【下二三六於本位. 法退一位.】

【下三八二十四,<sup>10)</sup> 二於千，四於百.<sup>11)</sup> 法退一位.】

9) 玉振閣本에는 '三' 아래에 '十'이 있고, '百' 아래에 '一'이 있다.

10) 下三八二十四：延大本에는 앞에 '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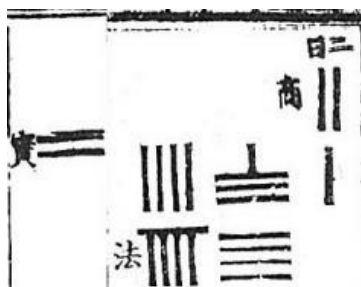
11) 百：延大本에는 뒤에 '位'가 있다.

## 啓蒙傳疑

【法算無十，故初置七分下，上見百步至二，故進立於八百下乘之。】

【呼一三，下三，卽三十日也。】

如日法九百四十而一得二日，餘六百單一。



【而一法只就數內除九百四十，置一於上，又除九百四十，置一於上，餘二百合四百爲六百單一。】

【商除法，商下二於上單位，二九十八起二千，還二於百，次二四八除八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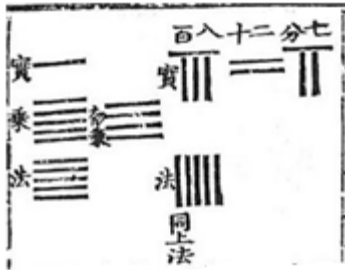
【若用歸除法，不下商算，先呼九歸隨身下加二，乃加二於百位，合爲六百。次呼二四八，除八十，餘如右。】【○歸二除二，四爲二日也。】

明蓍策 3-3-23

《五歲再閏云云二百七十五【‘二’當作‘三’，下文胡氏釋此處同。】》

亦置十日，八百二十七，以五因之，得五十日，餘四千

一百三十五分.



【五七三十五，三於十，五於本位，是爲四千以下數也.】

【二五十，下一於百位.】

【五八四十，下四於千位.】

【呼一五，下五爲五十日.】

如日法九百四十而一，得四日，餘三百七十五分.



【而一法，只就數內，除九百四十，置一於上，如是四除四置，爲四日，餘如右.】

【商除法，直下四於上單位，呼四九三十六，起四千，還四百，次呼四四

## 啓蒙傳疑

十六，起二百，還四十．餘如右．】

【若用歸除法，不下商算，先呼九歸隨身下加四，乃加四於百位，次呼四十六，起二百，還四十，爲四日．餘如右．○歸四除四，四爲四日也．】

明蓍策 3-3-24

### 〔○二十四氣必有三百六十六日〕

置氣策一十五日及二百．○五分六二半，以二十四乘之，得全日三百六十及餘分之積四千九百三十五分，以日法九百四十分除之，得五日零二百三十五分，通計得三百六十五日二百三十五分，是之謂歲實．舉成數言，故曰六日也．【上文全日以朔虛算，此以氣盈算，故餘分亦不同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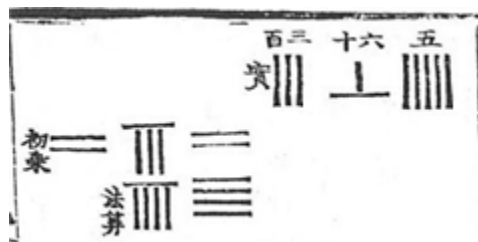
○‘氣策一十五日二百．’○五分六二半，根源所出．置三百六十五度，以日法九百四十分乘之，得三十四萬三千一百，納子二百三十五分，總<sup>12)</sup>三十四萬三千三百三十五．以二十四氣除之，得一萬四千三百．○五分六釐二毫半，復以日法九百四十分除一萬四千三百，得十五日，餘二百．○五分六釐二毫半，此所謂氣策十五日二百○五分六二半者也．

○置三百六十五度，以日法九百四十分乘之，得三十

---

12) 總：延大本‘摠’

四萬三千一百．算法．



【是爲三十四萬三千一百，納子二百三十五，通爲三十四萬三千三百以下數.】

【五九四十五，先下四於千位，進萬位，次下五於百位．四五二十，只下二於百位，進千位.】

【六九五十四，先下五於萬位，進十萬位，次下四於千位．四六二十四，先下二於千位，次下四於百位．法退一位.】

【三九二十七，先下二於十萬位，次下七於萬位．三四十二，先下一於萬位，次下二於千位．法退一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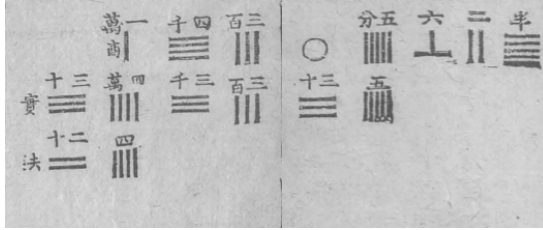
○以二十四氣，除三十四萬三千三百三十五，得一萬四千三百．○五分六釐二毫五忽算法.【數之多者，不用而一，歸除兩法.】<sup>13)</sup>

【釐以下，<sup>14)</sup> 只用以積數以成分數，故只云六二半.】

13) 數之多者……歸除兩法：延大本·玉振閣本에는 본문으로 되어 있다.

14) 釐以下：延大本·玉振閣本에는 앞에 ‘是爲一萬四千以下數也.’가 있다.

## 啓蒙傳疑



【商下五，呼二五一十，上除一，乃十也。四五二十，本位除二，乃二十也。恰盡。是爲一萬四千以下數也。】

【商下二，呼二二如四，本位除四。二四如八，本位起一十於下，還二，餘一。】

【商下六，呼二六十二，上除一，本除二。四六二十四，本起三十於下，還六。法退一位。】

【二五，除一十，法首在此，故就上位除一，乃十也。四五二十，法尾在下，故就此除二，乃二十也。餘一。法退一位。】

【商下五於分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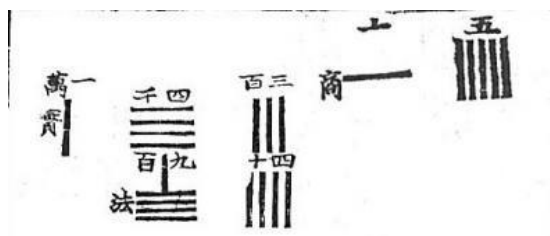
【商下三，呼二三除六，本位除六，餘一。四三十二，本位除一十，下位除二，餘一。法退二位。】

【商下四，呼二四如八，本位除八，餘二。四四十六，本位除二十於下位，還四，作七。法退一位。】

【商下一，呼二一如二，本位除二，餘一。一四如四起，本位一十於下位，還六，作十。法退一位。<sup>15)</sup>】

復以九百四十分除一萬四千三百，得十五日，餘二百  
以下法。

15) 法退一位：延大本에는 앞에 ‘已乃’이 있고, 옆에 [소주 ‘已乃’, 未詳.]이 있다.



【而一法，以除數繁複，不用於此。】

【商除法，先下一於十位，呼一九除九千，呼一四除四百，法退一位。】

【次下五於單位，呼五九四十五，除四千五百，呼四五二十，除二百，餘二百。】

【若用歸除法，不下商算，先呼九歸隨身下加一，乃加一於千位，又以四十呼所歸一一<sup>16)</sup>四，除四百，法退一。呼九歸隨身下加四，乃加四於百位，爲十三。呼逢九進一十，九進四九百位，又呼四五除二百，餘二百。○以九千爲九歸，則爲九百者十，并除四百十日也。以四千爲九歸，則爲九百者四，并進一九爲五，又除二百五日也。所謂所歸一，卽指爲九百者十而云也。】

‘置氣策一十五日及二百。’ ○五分六二半，以二十四氣乘之，得全日三百六十及餘分之積四千九百三十五分算法。【從首位大數算起。】

16) 一一：延大本‘二’，玉振閣本‘一’

## 啓蒙傳疑



【二五十，於釐位下一，并前爲九釐。四五二十，於毫位下<sup>17)</sup>二，并前爲十毫。上爲一釐，與九釐上爲一分<sup>18)</sup>，則此數位遂空。是爲四千九百三十五分<sup>19)</sup>】

【二二四，於釐位下四。二四八，於毫位八。法退一位。<sup>20)</sup>】

【二六十二，於十位下一。并前爲三十，分位下二。】

【四六二十四，於分外下二，本位下四。法退一位。】

【二五十，於百位下一，并前爲九百。四五二十，於十位下二。法退一位。】

【二二四，於千位下四。】

【二四八，於本位下八。法退二位。法算，置自千位。】

【二五一十，於百位下一，并前爲三百。四五二十，於十位下二。并前爲六十。○是爲三百六十。】

【一二如二，於百位下二。一四如四，於十位下四。法退一位。法算，置自百位。】

17) 位下：延大本‘下’

18) 與九釐上爲一分：延大本에는 ‘上與九釐并爲一分九并爲一分’으로 되어 있다.

19) 是爲四千九百三十五分：延大本·玉振閣本에는 없다.

20) 法退一位：延大本·玉振閣本에는 뒤에 ‘是爲四千九百三十五分’이 있다.

置餘分之積四千九百三十五分，以日法九百四十分除之，得五日零二百三十五分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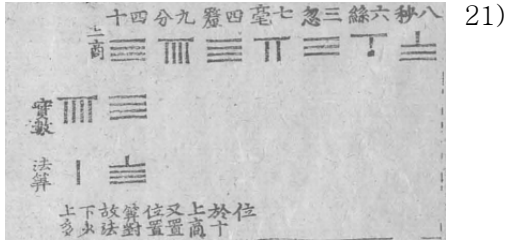
【而一法，五除五置，爲五日．餘如右．】

【商除法，直下五於上單位，呼五九四十五，除四千五百．又呼四五二十，除二百．餘如右．若用歸除法，不下商算，先呼九歸隨身下加四，乃加四於百位，次呼逢九進一十，爲五千．又呼四五二十，除二百．餘如右．○四千下加四，則在千位爲九百者四．進一九，則爲五，又除二百，成五日也．】

明蓍策 3-3-25

（○以九百四十分分爲十九分，每分計四十九分四釐七毫三忽六絲八秒）

置九百四十分，以十九除之，得四十九分以下數。



【中置九百四十分爲實，下置十九分爲法，上置四十九分以下數，爲上商．以法呼上商四十，除實，實餘一百八十分，法退一位．呼上商九分，除實，實餘九分，法又退一位．呼上商四釐，除實，實餘一分四釐，法又退一位．呼上商七毫，除實，實餘七毫，法又退一位．呼上商三忽，除實，實餘一毫三忽，法又退一位．呼上商六絲，除實，實餘一忽六絲，法又退一位．呼上商八秒，除實，實餘八秒，棄不用．】

○右商除法也．若用定身除，則如左．



尹生 光溢定身除法，曰：“上置實數，下置法數，先以法一定九百中之四爲四十分，以次位九呼所定四，四九除三十六，餘一百八十分，法退一．以一定百八十中之九爲九分，以次位九呼所定九，九九除八十一，

21) 延大本에는 ‘≡’ 옆에 ‘上商’이 없고, ‘實數’은 ‘實’, ‘法算’은 ‘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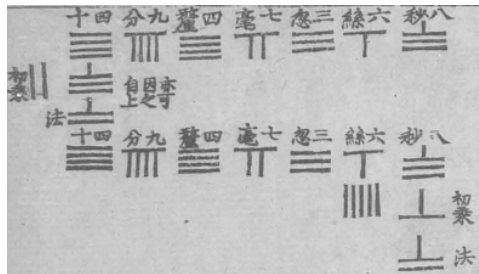
餘九分，法退一．以一定九分中之四爲四釐，同上呼四九除三十六，餘一分四釐，法退一．以一定一四之七爲七毫，同上呼七九除六十三，餘七毫，法退一．以一定七中之三爲三忽，同上呼三九，除二十七，餘一毫三忽，法退一．以一定一三中之六爲六絲，同上呼六九，除五十四，餘一忽六絲，法退一．以一定一六中之八爲八秒，同上呼八九，除七十二，餘八，棄不用．

右法首一，故須用定身除也．

明蓍策 3-3-26

### 《十九分內中取七分法》

置右數，以七分乘之，得三百四十六分三釐一毫五忽七絲六秒．是爲十九分度之七也．自末位八秒始．



22)

22) 玉振閣本에는 '初乘 1 法 1 1111'가 맨 앞의 줄에 있다.

## 啓蒙傳疑

【下法算，七分初與八秒，對置呼乘，置乘數於中，遞上呼乘。】

七八五十六，上位下五，本位下六。【爲六秒。】

六七四十二，上位下四，本位下二。【并前五爲七絲。】

三七二十一，上位下二，本位下一。【并前四爲五忽。】

七七四十九，上位下四，本位下九。【并前一爲十，而上上位，餘一毫。】

四七二十八，上位下二，本位下八。【并前二爲十，而上上位，餘三釐。】

七九六十三，上位下六，本位下三。【并前三爲六分。】

四七二十八，上位下二，本位下八。【并前二爲十，而上百位，爲三百，餘四十。○是爲三百四十六分以下數也。】

明蓍策 3-3-27

### 《 常度之餘分也 》

度則天與日異，而餘分則同。

明蓍策 3-3-28

### 《 三百四十六分半 》

不及天十三度，則不及日當爲十二度矣。半者，卽上三

釐一毫五忽七絲六秒之數，就近而言，故謂之半。

明蓍策 3-3-29

【不及日者，三百六十五度二百三十五分】

以通分納子之法推之，置二十九日，以日法九百四十分乘之，得二萬七千二百六十分，納四百九十九分，而得二萬七千七百五十九分。【日行一月數。】寄位又置十二度，以十九分乘之，得二百二十八分，納七分，而得二百三十五分。【月行一日數。】以乘寄位，得六百五十二萬三千三百六十五分。【變日行分作月行分。】爲實，又以九百四十分與十九分相乘，得一萬七千八百六十分爲法，實如法而一，得三百六十五度二五，又置度下二五以日法九百四十分乘之，得二百三十五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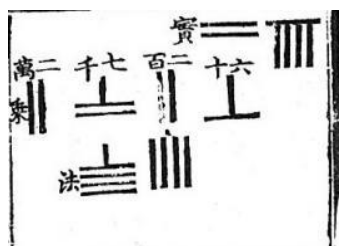
趙伯陽曰：“九百四十分爲分母，四百九十九爲分子。以分母乘二十九日，是二十九日皆作分也。又添入分子，【四百添入二百，九十添入六十，九分添入六十下。】通融作分，故曰通分納子也。又十九分爲分母，七分爲分子，此亦通分納子法也。實如法而一者，置實數，以法數除之，是爲如法而一也。而一者，除一箇一萬七千八百

六十，又除一箇一萬七千八百六十，是謂而一也。如是而一者，累次以實數除盡爲限。”

明蓍策 3-3-30

### 《通分法》

【置二十九日，以九百四十分乘之。從上乘，若從下乘，法置二十下。】<sup>23)</sup>



【九九八十一，先下八於千位，進爲萬，餘六，次下一於百位。】

【四九三十六，先下三於百位，進爲千，餘二，次下六於十位。】

【二九十八，先下一於萬位。】

【次下八於千位。】

【二四八，只下八於百位，法退一位。】

‘納子法’，趙說已明。是爲二萬以下數。【即日行一月數。】

又‘通分法’，置十二度，以十九乘之。同上。

23) 置二十九日 以九百四十分乘之：高大本・國中本・咸興本・乙卯本에는 본문으로 되어 있다.



【一二二，只下二於十位．二九十八，先下一於十位，次下八於當位．】

【一一如一，只下一於百位】．

【一九九，又下九於當位．法退一位．】

‘納子法’，同上．是爲二百以下數．【卽月行一日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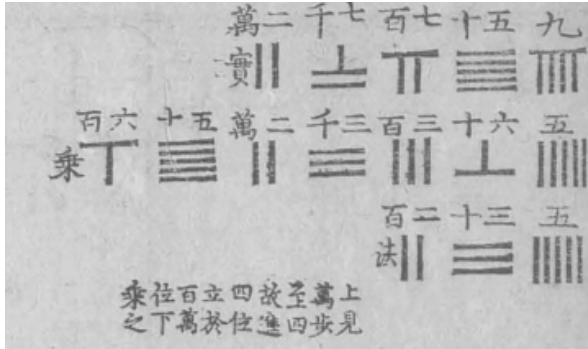
明蓍策 3-3-31

### 〈 乘寄位 〉

置二萬七千七百五十九分，以二百三十五分乘之，從首位大數乘之，法算步至百萬位.<sup>24)</sup>

24) 置二萬……百萬位：延大本·玉振閣本에는 小註로 되어 있다.

## 啓蒙傳疑



上見萬步至四，故進四位，立於百萬位下乘之。

【是爲六百五十二萬以下數。】<sup>25)</sup>

【二九十八，先下一於千位，次下八於百位。】

【三九二十七，先下二於百位，次下七於十位。】

【是爲六百五十二萬以下數。】

【五九四十五，先下四於十位，末下五於末位。】

【二五十，只下一於萬位。三五十五，先下一於千位，次下五於百位。】

【五五二十五，先下二於百位，次下五於十位。】

下退。

【二七十四，先下十於十萬位，次下四於萬位。】

【三七二十一，先下二於萬位，次下一於千位。】

【以月行一日數，乘日行一月數也。】

【五七三十五，先下三於千位，次下五於百位。】

25) 是爲六百五十二萬以下數：延大本·玉振閣本에는 없다.

下退.

【二七十四，先下十於百萬位，次下四於十萬位.】

【三七二十一，先下二於十萬位，次下一於萬位.】

【五七三十五，先下三於萬位，次下五於千位.】

下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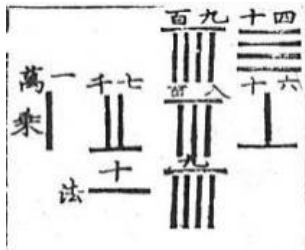
【二二四，下四於百萬位.】

【二三六，次下六於十萬位.】

【二五十，次下一於十萬位.】

下算<sup>26)</sup>退一.

又置九百四十分，以十九分乘之.【從首位乘之，步至千位.】



【是爲一萬以下數.<sup>27)</sup> 一四四，只下四於百位.】

【四九三十六，先下三於百位，次下六於十位.<sup>28)</sup>】

【一九九，只下九於千位.】

26) 下算退一：延大本에는 ‘下退一’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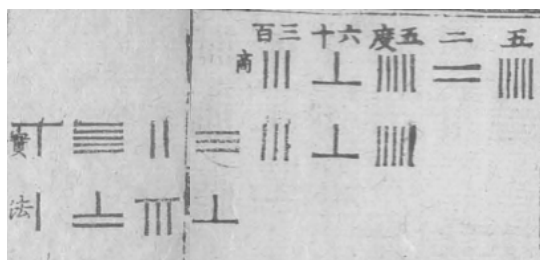
27) 是爲一萬以下數：延大本·玉振閣本에는 없다.

28) 次下六於十位：延大本·玉振閣本에는 뒤에 ‘是謂一萬以下數.’가 있다.

【九九八十一，先下八於千位，取二升爲萬，次下一於百位。法退一位。<sup>29)</sup>】

明蓍策 3-3-32

〈實如法而一除法布算圖〉



中置實數六百五十二萬三千三百六十五，下置法數一萬七千八百六十分，上置上商三百六十五度二分五釐，以法數三次除實，實餘一百一十六萬五千三百六十五，法退一位。六次除實，實餘九萬三千七百六十五，法退一位。五次除實，實餘四千四百六十五，法退一位。二次除實，實餘八百九十三，法退一位。五次除實，恰盡。

右除法，與他不同，以三次除爲上商三，六次除爲上商六者，用而一法言之，而於上預置商數，乃兼而一，商除兩法並用之，故有此異也。若只用而一法，則每一次除，旋下一算，以至於三，其於六次，五次倣此。

29) 位：延大本·玉振閣本에는 없다.

如用商除法，於上徑下商三，一時並除之，其實一也。至於定位，則實積首六百萬，法算首一萬，上多下少，故同位對置。法首一萬，故用十一，百二，千三，萬四上下移步法，於實積百萬，下第五位三百上商下之。  
【萬步四，而下至於第五位乃住，何耶？移步法不計立定位，而以移步位計之故也。】○每於本位有除數，則就除之，無則取上位一算作十，於次位而除。如第一次除時，十萬位無七，萬位無八，千位無六，皆取上一作十而除之，然此但用於而一法耳。若商除，則以三商定於上，呼一三除三，三七除二十一，三八除二十四，三六除十八，然後法退一。<sup>30)</sup>又以六商定於上，以一六，六七等遞呼而除之。下皆倣此。【以三商定，則先呼三於一可也，乃云一三何也？算法相呼，不計法商，以少先多例也。】

明蓍策 3-3-33

《九百四十乘二五法》【從下小數算起。若從上則法首置二下。】

---

30) 退一：延大本·玉振閣本‘一退’

## 啓蒙傳疑



31)

【先下四五二十於單位，次下五九四十五，四十於十位，五於單位。法進一位。】

【先下二四八於單位，并前二進十，單餘五。次二九十八，十於百位，八於十位，并前二進百餘三，是二百三十五分也。<sup>32)</sup>】

‘二五’者，度下零分，卽十分度四分之一也。若以分數細分，則二五以九百四十分乘之，得二百三十五分，是九百四十分度之二百三十五分，亦四分度之一也。大分·小分皆不過四分之一也。

尹生 光溢曰：“日行一朔所進，通分二萬七千七百五十九分，以月行一日所退通分二百三十五乘之，六百五十二萬三千三百六十五分爲實。【是則日行一朔通分之數，皆和月行一日通分之數也。而日度月度合成一數，通於一朔者也。】若以日行一日全分九百四十，月行一日全分十二度〇七

31) 延大本에는 ‘=≡’은 ‘≡’으로 되어 있고, 延大本·玉振閣本에는 ‘單位’, ‘十位’. ‘百位’가 없다.

32) 也：延大本에는 없다.

分，內中一度，通分十九，相乘一萬七千八百六十〇分，爲法除之，則得周天三百六十五度，又得二五，卽四分度之一也。所以得周天者，月行一朔，必一周天而與日會故也。若以日行一日全分九百四十，月行一日全分二百三十五相乘，二十二萬〇九百，爲法除之，則得朔實二十九日，餘一十一萬七千二百六十五分。以月行全分二百三十五除之，得四百九十九，是日行二十九日外所行太半日也。或得周天度，或得朔實，何也？以日行全分乘月行全分，中一度爲法除之，則得周天度。以日行全分乘月行全分，爲法除之，則得朔實。”

又曰：“月行一朔所退通分六千九百三十九分七釐五毫，以日行一日全分九百四十乘之，六百五十二萬三千三百六十五分爲實。【是則月行一朔通分之數，皆和日行一日通分之數也，而月度·日度合成一數，通於一朔者也。】若以月行一日全分十二度〇七分，內中一度，通分十九，日行一日全分九百四十相乘，一萬七千八百六〇分，爲法除之，則得周天二百六十五度又得二五，卽四分度之一也。所以得周天者，月行一朔，必一周天而與日會故也。若以月行一日全分十二度〇七分，通分二百三十五，日行一日全分九百四十相乘，二十二萬〇九百，

爲法除之，則得朔實二十九日，餘一十一萬七千二百六十五分，以日行全分九百四十除之，得一百二十四分七釐五毫，又以月度分母十九除之，得六度〇十〇分七釐五毫，是月行廿九日外所行太半日也。或得周天度，或得朔實，何也？以月行全分中一度乘日行全分，爲法除之，則得周天度。以月行全分乘日行全分，爲法除之，則得朔實。”

日行【廿九日所行，通分二萬七千二百六十〇分，太半日所行四百九十九分。】以月行一日所行十二度〇七分，通分二百三十五，【乘來之六百四十〇萬六千一百分，乘之一十一萬七千二百六十五分。】合六百五十二萬三千三百六十五分。

月行【廿九日所行三百五十八度十三分，通分六千八百一十五分，太半日所行六度十〇分七釐五毫，通分一百廿四分七釐五毫。】以日行一日所行全分九百四十，【乘之六百四十〇萬六千一百分，乘之一十一萬七千二百六十五分。】合六百五十二萬三千三百六十五分。

日行一日全分九百四十，  
月行一日全分二百三十五。  
--相乘二十二萬〇九百分內。

--太半一十一萬七千二百六十五分.

【以日行一日全分九百四十除之，得一百二十四分七釐五毫。因置此數，以月度分母十九除之，六度十〇分七釐五毫。以月行一日全分二百三十五除之，得四百九十九分。】

--少半一十〇萬三千六百三十五<sup>33)</sup>分.

【以日行一日全分九百四十除之，得一百一十〇分二釐五毫。以月度分母十九除之，五度十五分二釐五毫。以月行一日全分二百三十五除之，得四百四十一分。】

---

33) 五：延大本‘百’

〔圖板24〕 日行十二日全分・月行一日全分

|                      |       |                             |        |                                           |
|----------------------|-------|-----------------------------|--------|-------------------------------------------|
| 以十九分乘九百四十<br>十分萬七千八百 | 六十分   | 以月行全分二百三十五乘九百四十分<br>二十二萬九百分 | 月行一日全分 | 以月行一日全分三百二十五乘日行十二日全分萬一千六百二十六則二百七十三萬二千一百一十 |
| 一度十九分                | 十九分   | 二度十九分                       | 二度十九分  | 二度十九分                                     |
| 三度十九分                | 三度十九分 | 四度十九分                       | 五度十九分  | 六度十九分                                     |
| 七度十九分                | 八度十九分 | 九度十九分                       | 十度十九分  | 十一度十九分                                    |
| 又七分                  |       |                             |        |                                           |

一日 九百四十分 二日 九百四十分 三日 九百四十分 四日 九百四十分 五日 九百四十分 六日 九百四十分 七日 九百四十分 八日 九百四十分 九日 九百四十分 十日 九百四十分 十一日 九百四十分 十二日 九百四十分 又三百四十六分強

合一萬一千六百二十六  
分

一度十九分 二度十九分  
三度十九分 四度十九分  
五度十九分 六度十九分

七度十九分 八度十九分

九度十九分 十度十九分 十一度十九分 十二度十九分 又七分

合二百三十五分,

以十九分乘九百四十分，一萬七千八百六十分

以月行全分二百三十五，乘九百四十分，二十二萬九百分；以月行一日全分二百三十五，乘日行十二日全分一萬一千六百二十六，則二百七十三萬二千一百一十分。

[圖板25]



每甲六十，六其六十，亦三百六十，指此而言。

甲寅爲首計之六十

甲辰爲首計之六十

甲午爲首計之六十

甲申爲首計之六十

甲戌爲首計之六十

甲子爲首計之六十

癸巳 壬辰 辛卯 庚寅 己丑 戊子 丁亥 丙戌 乙酉

甲申 癸未 壬午 辛巳 庚辰 己卯 戊寅 丁丑 丙子

乙亥 甲戌 癸酉 壬申 辛未 庚午 己巳 戊辰 丁卯

丙寅 乙丑 甲子 癸亥 壬戌 辛酉 庚申 己未 戊午 丁巳 丙辰 乙卯 甲寅 癸丑 壬子 辛亥 庚戌 己酉 戊申 丁未 丙午 乙巳 甲辰 癸卯 壬寅 辛丑 庚子 己亥 戊戌 丁酉 丙申 乙未 甲午

日月所會之辰在子而右轉於天。

斗柄所指之建在丑而左旋於地。

未鶉首 午鶉火 巳鶉尾 辰壽星 卯大火 寅析木 丑星紀 子玄枵 亥娵訾 戌降婁 酉大梁 申實沈

日月所會之辰在子，而右轉於天。

未鶉首 午鶉火 巳鶉尾 辰壽星 卯大火 寅析木 丑星紀 子玄枵 亥娵訾 戌降婁 酉大梁 申實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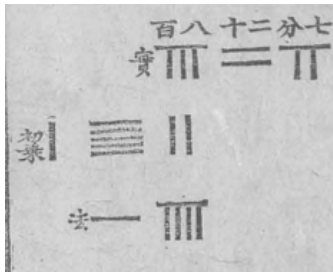
斗柄所指之建在丑，而左旋於地。

明蓍策 3-3-34

《○再閏在五歲內者，舉成數也》

一歲率十二日，則五歲當爲六十日矣，此但舉成數而言耳.

一歲零分八百二十七分，積十九歲，得一萬五千七百一十三.



34)

先呼一七七，本位下七，并前三上爲百.

【次七九六十三，十位下六，并前五上爲百，餘一，下位下三. 是爲一萬以下數.】

【先呼一二二，本位下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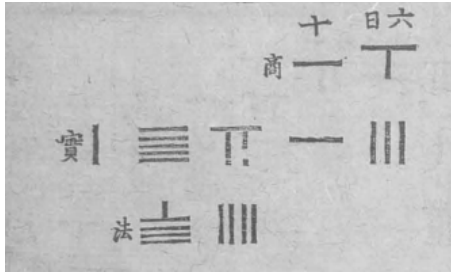
【次二九十八，百位下一，本位下八.】

【先呼一八八，本位下八.】

【次八九七十二，本位下七，并前三上爲萬. 百位下二，法退一.】

34) 延大本과 玉振閣本에는 ‘七分’, ‘二十’, ‘八百’, ‘實’, ‘初乘’, ‘法’은 없다. 玉振閣本에는 ‘卅’ 아래에 ‘卅’, ‘=’ 아래에 ‘一’이 있고, ‘卅 || 卅’가 ‘卅 || 卅’로 되어 있다.

十九年零分積一萬五千七百一十三分，以日法九百四十分除之，計成日一十六日，零六百七十三分。



35)

商除法，法首本對實積一萬下，上少下多，故差一位退五千下，法首百，故用步移法，十一，百二．於實十位上商下一十，呼一九，除九還一於千位作六，呼一四，除四於七百去四，法退一．又商下六，呼六九除五十四，於六千去五取一千，又去四還六，呼四六除二十四，於九百取三百，還六十，是爲十六日零數．若用九歸法，九歸見一隨身下加一，乃於五千位加一，呼一四，除四百退位．九歸見六，隨身下加六，乃於百位加六作九，呼四六除二十四，於九百去二百四十．餘同上．

明蓍策 3-3-35

〔○計三七二百一十日內少三日二百六十七分〕

35) 延大本·玉振閣本에는 ‘TⅢ’ 위에 ‘六日’, ‘— —’ 위에 ‘十’이 없다.

置二百一十日，以二百單六日零六百七十三分減之，餘三日二百六十七分，故云少。

明蓍策 3-3-36

《○春季皆入於夏》

據《書傳》，‘季’字宜爲衍。

明蓍策 3-3-37

《○武陵 丁氏說》

【名易東.】

明蓍策 3-3-38

《○有以兩儀·四象·八卦，合四十九者》

謂兩儀陽一·陰二，四象太陽一·少陰二·少陽三·太陰四，八卦乾一·兌二·離三·震四·巽五·坎六·艮七·坤八，合之爲四十九也。

明蓍策 3-3-39

《有謂“四十九與五十皆天地之數，各再自乘而以中

數自乘除之”者 》

此謂一·三·五·七·九爲天數，二·四·六·八·十爲地數。各再自乘者，一自乘得一，又以一再乘得<sup>〇</sup>一；三自乘得九，置自乘所得之九，又以三乘之，得<sup>〇</sup>二<sup>〇</sup>七；五自乘得二十五，置二十五，又以五乘之，得<sup>〇</sup>一<sup>〇</sup>二<sup>〇</sup>五；七自乘得四十九，再乘得<sup>〇</sup>三<sup>〇</sup>四<sup>〇</sup>三；九自乘得八十一，再乘得<sup>〇</sup>七<sup>〇</sup>二<sup>〇</sup>九。合之得一千二百二十五，置一千二百二十五以天之中數五自乘得二十五除之，得四十九，是一千二百二十五，卽四十九箇二十五也。二自乘得四，再乘得<sup>〇</sup>八；四自乘得十六，再乘得<sup>〇</sup>六<sup>〇</sup>四；六自乘得三十六，再乘得<sup>〇</sup>二<sup>〇</sup>一<sup>〇</sup>六；八自乘得六十四，再乘得<sup>〇</sup>五<sup>〇</sup>一<sup>〇</sup>二；十自乘得一百，再乘得<sup>〇</sup>一<sup>〇</sup>。合之得一千八百，置一千八百，以地之中數六自乘得三十六，除之得五十，是一千八百，卽五十箇三十六也。【圈者，再得之數，只計此數。】

明蓍策 3-3-40

《置天數一千二百二十五，以天之中數五自乘，得二十五，除之得四十九法》<sup>36)</sup>

36) 置天數一千二百二十五……除之得四十九法：延大本에는 ‘天數一千二百二十五除法’

## 啓蒙傳疑



37)

【以五呼上商九，曰五九四十五，恰盡。上商四十九<sup>38)</sup>，卽實數也.】

【以二呼上商九<sup>39)</sup>，曰二九十八，除一百八十，餘二十，退合十位，成四十.】

【以五呼上商四，曰四五二十，除二百，則百位餘二百. 法退一位.<sup>40)</sup>】

【以二呼上商四，曰二四八，除八百，則一千餘二百，下百位成四百. <sup>41)</sup>】

明蓍策 3-3-41

《置地數一千八百，以地之中數六自乘，得三十六，除得五十法》<sup>42)</sup>

으로 되어 있다.

37) 延大本은 도식과 설명의 순서가 다르며, ‘以五呼上商四…’, ‘以二呼上商四…’, ‘以五呼上商九…’, ‘以二呼上商九…’ 순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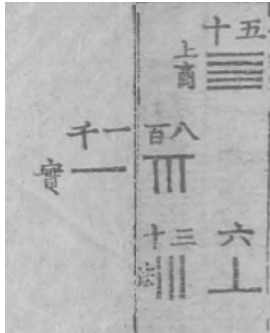
38) 上商四十九：玉振閣本에는 앞에 ○가 있다.

39) 以二呼上商九：玉振閣本에는 앞에 ○가 있다.

40) 法退一位：延大本에는 없다.

41) 下百位成四百：延大本에는 뒤에 ‘退下一位’가 있다.

42) 置地……除得五十法：延大本에는 ‘地數一千八百除法’으로 되어 있다.



43)

【以六呼上商五十，曰五六三十，除三百，恰盡。上商五十<sup>44)</sup>，卽實數也.】

【以三呼上商五十，曰三五十五，除一千五百，餘三百.】

43) 延大本에는 ‘五十’, ‘六’, ‘八百’, ‘三十’, ‘一千’, ‘實’이 없다.

44) 上商五十 : 延大本에는 ‘得五十上商之數’로 되어 있고, 玉振閣本에는 ‘○上商五十’로 되어 있다.

## ○考變占 第四

考變占 4-1-1

### 〔○“六爻皆不變”註〕

“貞·悔字，皆從卜。”《韻會》別有‘{每+卜}’字，云“《易》卦之上體也，通作‘悔’。”

○“得純乾卦皆七數，這却不是變底，他未當得九，未在這爻裏面。”此言此七數未當得九數之用，故所占吉凶之理，不在此六爻之中也。‘他’，指七數言。

考變占 4-1-2

### 〔○“三爻變”註〕

“第三十二卦以後，占變卦彖辭者无也。”今按：‘也’當作‘他’。

○苑洛子曰：“七占古法，不傳久矣。”【爻有六而占有七者，并用九·用六而爲七。】朱子以事物推之如前，然猶有可疑者。如一·二爻變，主變爻；四·五爻變，主不變爻；三爻變，主本之彖辭。且占主乎變，一爻·二爻變，占變爻，是矣。至於四爻·五爻變，而占不變爻辭，變爻反無所爲，

不唯不見用九·用六之意，以七陽之爻而附潛龍之九，八陰之爻而付<sup>1)</sup>履霜之六，竊恐吉凶之應，自不孚矣。又五爻之變所爭者，止一爻耳，尚不許以彖辭，至於三爻之變，反用彖辭，夫彖辭斷一卦之吉凶者也，三爻才小成耳。豈可遽以彖辭當之哉？余意除六爻變者用彖辭，餘皆用爻，除六爻不變者，占乎彖，餘皆占變，庶九·六之占，各以類附，不違占變之說矣。【又於三爻變，沙隨所引“重耳筮得國”之下苑洛論之曰：“春秋時，史占多不拘於定法，因占者之意而言，故此三爻變，乃以兩彖辭對，以占者主於立君故也。穆姜得艮之隨，五爻變也，史亦以彖辭對。當時占者君相，史以相近之辭迎合之，此史失職也。而援以爲證，過矣。”】

滉每讀《啓蒙》，至四爻·五爻變以不變爻占之說，竊疑其與用九·用六之義不相應。及見苑洛子《意見》書，其所論辯頗，與滉前所疑者相類，故引之于此。但用九·六，不用七·八，乃《易》中大義，朱子豈慮不及此而立脚無義之占例哉？是必有說矣，而當時既無問辨之者。今亦未敢強其所疑以爲是，故且引苑洛之說，以廣異聞，以俟後日之參訂爾。

---

1) 付：咸興本‘附’

苑洛又論三爻變用彖辭之非，曰：“三爻才少成耳。豈可遽以彖辭當之？”是則恐不然也。夫三爻之變，不必在下卦三爻，或參互於上下卦，或皆在於上卦。假使純在於下卦，亦須六爻皆畢，然後可知爲三爻之變而定所占耳。豈止得三爻小成而遽定所占之爻象哉？六爻既畢，而觀所變只三爻，則不論其上下所在，而與本卦之不變爻，分數均敵，莫適爲主，故只得占兩卦彖辭，是爲不易之義也。苑洛不憚立異於先正而輕論之，今錄於此，非取其說也。與所論四·五爻變占不變者，袞合說，故帶取而著之耳。

考變占 4-2-1

### 〔○《易圖說》〕

【按：圖說本於《啓蒙》，凡其疑義，已悉於《傳疑》。今只取《啓蒙》所無之疑義數條於後。】

〈古人做易章〉“也好則劇。”《南村輟耕錄》，“宋楊太后少入宮，爲則劇孩兒”，‘則劇’，當是戲名，則劇孩兒，如今所謂蓮花隊之類。

○徑以八卦遍加乎一卦之上，亦如其位而得名，謂亦如上文旋加三重，以成六十四卦之位次而得名。如三畫

卦，自乾一至坤八，六畫卦，自乾·夬至剝·坤，次第無不同也。又按：朱子〈答林黃中書〉曰：“邵氏《易》，一圖之內，太極·兩儀·四象·八卦生出次第，位置行列，不待安排，而粲然有序，以至於第四分而爲十六，第五分而爲三十二，第六分而爲六十四，則其因而重之，亦不待用意推移，而與前之三分焉者，未嘗不吻合也。比之并累三陽以爲乾，連疊三陰以爲坤，然後以意交錯而成六子，又先畫八卦於內，復畫八卦於外，以旋相加而後得爲六十四卦者，其出於天理之自然，與人爲之造作，蓋不同矣。所謂三分吻合之說，卽此如其位而得名者也。但以先畫八卦於內，復畫八卦於外，以旋相加而爲六十四者，爲出於人爲之造作而非之，則此又有徑以八卦遍加一卦之上之說，何耶？蓋諸儒旣不知卦畫生出自然之法，而以意揣摩累疊而成，則三畫卦已非乾一至坤八之序，六畫卦又豈得乾·夬至剝·坤之次乎？故以爲人爲造作，而不取之。若此所謂徑加者，非伏羲畫卦時本有此法，只就卦畫旣成之後，假設爲此，以見卦畫天成，縱橫反覆，無不脗合之妙云耳，不當以彼而疑此說也。

○《大易吟》註，朱子說“自兩角尖射上”，‘射上’，猶

## 啓蒙傳疑

言貫上也。言否·泰自角尖處直貫上，與乾·坤相對耳。  
○四象相交，成十六卦。四象，統指八卦言。蓋邵子以  
乾·兌·離·震，爲天四象；巽·坎·艮·坤，爲地四象。【說見  
《傳疑》邵子分四象八卦不同圖。】故只言四象，而包八卦在其中  
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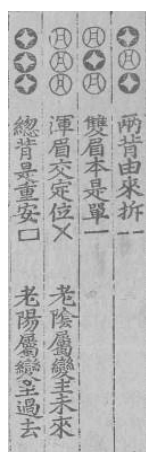
考變占 4-3

## 雜書考證

考變占 4-3-1

### 《卜筮元龜○以錢代蓍法》

[圖板26] 卜筮元龜○以錢代蓍法



兩背由來拆--

雙眉本是單一

渾眉交定位× 老陰屬變主未來

總背是重安□ 老陽屬變主過去

以三錢擲于盤。假令初擲爲一，是謂單；第二擲爲□，是謂重；第三擲爲一，是謂單，此爲內象，得乾之離。第四擲爲--，是謂拆；第五擲爲×，是謂交；第六擲爲--，是謂拆。此爲外象，得坤之坎，合而言之，爲地天泰之水火既濟。此謂一卦變六十四卦，支成四千九十六卦也。

《啓蒙·考變占篇》六爻變例下，朱子係之曰：“於是一卦可變六十四卦，而四千九十六卦在其中”云。

右元龜變卦法亦然，故證之。

考變占 4-3-2

### 《支變卦爻例》

凡卦一爻動，以本卦動爻占；二爻動，以下變爻爲主，上變爻爲應；三爻動，以本卦彖辭爲主，變卦彖辭爲應；四爻動，以上不變爻爲主，下不變爻爲應；五爻動，以靜者爲主；六爻動，以變卦彖辭占；六爻靜，以象占。假令泰之既濟，以九二爻辭詩斷，詳具大意，至於人事萬變，配以支干六神，定其禍福。

按：此法與《啓蒙》六爻變例不同。【韓苑洛之說又有異者，見《啓蒙意見》。】

考變占 4-3-3

《○八卦所屬》

乾天屬金，坎水屬水，艮山屬土，震雷屬木，  
巽風屬木，離火屬火，坤地屬土，兌澤屬金。

按：金·木·土各兩屬之說，見〈繫辭〉·〈說卦傳〉第五章註。【進齋徐氏】又見〈易總圖〉·〈文王八卦圖〉下註。【平庵項氏。】

考變占 4-3-4

《○八卦納甲》

壬·甲從乾說，乙·癸向坤求，庚來震上立，  
辛出巽方遊，戊從坎處起，離用己爲頭，  
丙向艮門入，丁出兌家遊。

考變占 4-3-5

《十干合》

甲與己合，乙與庚合，丙與辛合，

丁與壬合，戊與癸合。

考變占 4-3-6

《 十二支合 》

子與丑合，午與未合，辰與酉合，卯與戌合，  
寅與亥合，巳與申合。

此法已見〈曆法圖〉。

考變占 4-3-7

《 五行相生克，比和例 》

生：金生水，水生木，木生火，火生土，土生金。

克：金克木，木克土，土克水，水克火，火克金。

和：金見金，木見木，土見土，水見水，火見火。

考變占 4-3-8

《 五位配卦[以卦宮所屬爲我，渾天甲所屬爲他.] 》

生我者，爲父母；我生者，爲子孫；克我者，爲官鬼；

我克者，爲妻財；比和者，爲兄弟。

## 啓蒙傳疑

考變占 4-3-9

### 《凡卜卦法》

常以世爲我，應爲他人。世若克應我吉，  
應若克世我凶。內卦克外吉，外卦克內凶。

考變占 4-3-10

### 《空亡法》

甲子旬戌·亥，甲戌旬申·酉，甲申旬午·未，  
甲午旬辰·巳，甲辰旬寅·卯，甲寅旬子·丑。

考變占 4-3-11

### 《推卦內世應所在法》

一世卦應在四，二世卦應在五，三世卦應在六，  
四世卦應在初，五世卦應在二，遊魂卦應在初，  
歸魂卦應在六，八純世在六應在三。

考變占 4-3-12

《推八節休廢例》凡占卜須看內外是何卦，然後考其旺廢。大抵旺  
相則吉，休廢終是無成。○‘節’下‘休’，當作‘旺’。】

[圖板27]

|    |    |    |    |    |    |    |    |
|----|----|----|----|----|----|----|----|
| 冬至 | 立春 | 春分 | 立夏 | 夏至 | 立秋 | 秋分 | 立冬 |
| 坎  | 艮  | 震  | 巽  | 離  | 坤  | 兌  | 乾  |
| 艮  | 震  | 巽  | 離  | 坤  | 兌  | 乾  | 坎  |
| 震  | 巽  | 離  | 坤  | 兌  | 乾  | 坎  | 艮  |
| 巽  | 離  | 坤  | 兌  | 乾  | 坎  | 艮  | 震  |
| 離  | 坤  | 兌  | 乾  | 坎  | 艮  | 震  | 巽  |
| 坤  | 兌  | 乾  | 坎  | 艮  | 震  | 巽  | 離  |
| 兌  | 乾  | 坎  | 艮  | 震  | 巽  | 離  | 坤  |
| 乾  | 坎  | 艮  | 震  | 巽  | 離  | 坤  | 兌  |

(旺)(相)(胎)(沒)(死)(囚)(休)(廢)

立春 艮 震 巽 離 坤 兌 乾 坎  
 春分 震 巽 離 坤 兌 乾 坎 艮  
 立夏 巽 離 坤 兌 乾 坎 艮 震  
 夏至 離 坤 兌 乾 坎 艮 震 巽  
 立秋 坤 兌 乾 坎 艮 震 巽 離  
 秋分 兌 乾 坎 艮 震 巽 離 坤  
 立冬 乾 坎 艮 震 巽 離 坤 兌  
 冬至 坎 艮 震 巽 離 坤 兌 乾

考變占 4-3-13

# 《筆談》論納甲

《易》有納甲之法，未知起於何時。予嘗考之，可以推見天地胎育之理。乾納甲·壬，坤納乙·癸者，上下包之也。震·巽·坎·離·艮·兌，納庚·辛·戊·己·丙·丁者，六子生於乾·坤之包中，如物之處胎甲者。左三剛爻，乾之氣也；右三柔爻，坤之氣也。乾之初爻交于坤生震，故震之初爻納子·午【乾初爻子·午故也。○解在下。】；中爻交于坤生坎，初爻納寅·申【震納子·午，順傳寅·申，陽道順。】；上爻交于坤生艮，初爻納辰·戌【亦順傳也。】坤之初爻交于乾

生巽，故巽之初爻納丑·未【坤之初爻丑·未故也.】；中爻交于乾生離，初爻納卯·酉【巽納丑·未，逆傳卯·酉，陰道逆.】；上爻交于乾生兌，初爻納巳·亥.【亦逆傳也.】乾·坤始于甲·乙，則長男·長女乃其次，宜納丙·丁；少男·少女居其末，宜納庚·辛。今反此者，卦必自下生，先初爻，次中爻，末乃至此爻。此《易》之序然，亦胎育之理也。物之處胎甲，莫不倒生。自下而生者，卦之序，而冥合造化胎育之理，此至理合自然者也。凡草木·百穀之實，皆倒生，首系于幹，其上抵于穎處，反是根。人與禽獸生胎，亦首皆在下。

按：乾甲子·震庚子·坎戊寅·艮丙辰，固皆納初爻矣；乾壬午·震庚午·坎戊申·艮丙戌，皆納四爻，而同謂之初。坤乙未·巽辛丑·離己卯·兌丁巳，固皆納初爻矣；坤癸丑·巽辛未·離己酉·兌丁亥，皆納四爻，而亦謂之初者，蓋就六畫卦，而指三畫卦言之也。至於順逆之說，在陽卦，如乾·震之從子歷寅而至戌，坎之從寅歷辰而至子，皆順行，故自震子傳坎寅，震午傳坎申，亦皆順。在陰卦，如坤<sup>1)</sup>之從卯歷丑而至巳，巽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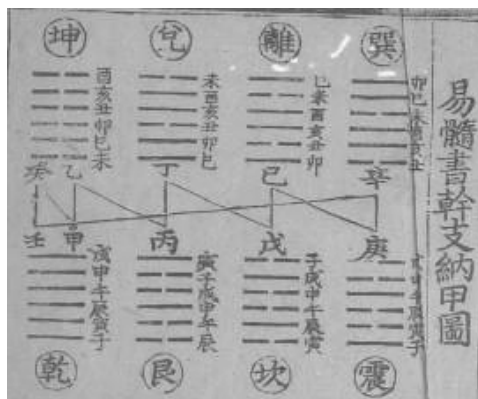
1) 坤：乙卯本에는 [두주 '坤'下, 當攷.]가 있다.

從丑歷亥而至卯，皆逆行，故自巽丑傳離卯，巽未傳離酉，亦皆逆也。【自巽丑以下，姑據《筆談》意如此，但自丑傳卯，自未傳酉非逆，而乃云云，未詳。】

考變占 4-3-14

### 《易髓書》幹支納甲圖

[圖板28] 易髓書幹支納甲圖



- ⑤ 卯巳未酉亥丑 辛
- ⑥ 巳未酉亥丑卯 己
- ⑦ 未酉亥丑卯巳 丁
- ⑧ 酉亥丑卯巳未 乙癸
- ⑨ 戌申午辰寅子 庚
- ⑩ 子戌申午辰寅 戊
- ⑪ 寅子戌申午辰 丙
- ⑫ 戌申午辰寅子 甲壬

八卦納十支【‘支’恐當作‘干’。】，用六十甲子布於六十四卦。今卦中只有四十八甲子，而欠十二位，不合其造化。蓋聖人隱下，不欲全其事，使明者暗合故也。謂乾·坤二卦，又納壬·癸十二支。如乾卦初爻，甲子與壬子同行；坤卦初爻，乙未與癸未同行，方得全備也。